

비살생 정치학
— 세계평화를 위한 신정치이론 —

글렌 D. 페이지 지음
정운재 옮김

정치학자로서 나의 스승이자 친구인
리차드 C. 스나이더(1916-1997) 교수와
H. 허버트 월슨(1909-1977) 교수에게
이 책을 바친다.

학문이 그 개척자들을 망각하기를 주저한다면
그 학문은 곧 버려질 것이다.

Alfred North Whitehead

비살생 정치학

— 세계평화를 위한 신정치이론 —

추천사 / 김대중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 9	
추천사 / 안형시 (서울대학교 교수) · 11	
옮긴이의 말 · 14	
서 문 · 25	
감사의 글 · 29	
서 론 / 제임스 A. 로빈슨	33
제1장 비살생 사회는 가능한가?	45
비살생 사회는 가능한가? · 47	
비살생 사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 47	
“이전에 그런 질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 69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 70	
“우리는 인간이 천성적으로 폭력적이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 71	
“그것은 가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 71	
“그것은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 72	
다양한 사회적 반응들 · 73	

제2장 비살생 사회를 만들 수 있다77

- 살인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본성 · 77
- 정신적 뿌리 · 80
- 과학적 뿌리 · 84
- 사회적으로 아주 뚜렷한 현상—비살생 능력 · 100
- 사회적 기관 · 106
- 역사적 뿌리 · 116
- 비살생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인간의 능력 · 133

제3장 비살생과 현대정치학135

- 비살생 정치분석의 논리 · 136
- 비살생 행동원칙 · 142
- 비폭력과 학문적 혁명 · 145
- 정치철학과 정치이론 · 157
- 정치체제에 대한 연구 · 161
- 비교정치 · 163
- 국제정치 · 165
- 비살생 정치학 · 167

제4장 비살생적 문제해결을 위하여169

- 비살생과 히틀러, 대학살 · 172
- 비살생과 폭력혁명 · 176
- 비살생과 안보 · 181
- 비살생과 무장해제 · 187
- 비살생과 경제적 박탈 · 188
- 비살생 인권과 책임 · 193
- 비살생과 생태계의 활력 · 196
- 비살생적 문제해결을 위한 상호협력 · 199

제5장 비살생적 제도 203

- 비살생 정치학과 · 205
- 대학 평화봉사단 · 209
- 비살생 대학교 · 210
- 비살생 정당 · 212
- 미폭력 공공서비스 부서 · 214
- 비살생 공동방위군 · 215
- 시민사회 내의 비살생 단체 · 217
- 비살생 컨설팅 기관 · 218
- 초국가적 문제해결 컨소시엄 · 219
- 비살생 교육훈련 기관 · 220
- 비살생 기관이 필요하다 · 227

제6장 비살생 정치학과 세계평화 229

- 치명적인 살생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하여 · 230
- 비살생 능력에 대하여 · 233
- 정치학과 비살생 · 234
- 이론과 연구 · 235
- 교육과 훈련 · 236
- 문제해결적 접근 · 240
- 제 도 · 241
- 장애요소와 고무적인 요소 · 242
- 비살생 정치학: 지구적 자원의 필수과제 · 252

부록 1: 세계정치학회(IPSA)에 가입한 각국 단체회원 현황 —1999 · 255

부록 2: 세계정치학회(IPSA)의 연구분야 —1997 · 258

부록 3: 미국정치학회(APSA)의 연구분야 —1998 · 261

부록 4: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에서 군복무를 양심적으로 거부했던
사람들이 속했던 종교단체들 · 266

주 석 · 275

참고문헌 · 281

찾아보기

△ 인명 찾아보기 · 307

△ 사항 찾아보기 · 310

추천사

인류의 역사는 어느 면에서 끊임없는 전쟁과 폭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간의 사상과 학문적 탐구와 정치적 시도는 대부분 그러한 폭력과 전쟁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일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노력은 아직도 종착역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과 테러와 불법 폭력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폭력사회를 향한 노력과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통합과 합의의 창출, 그리고 모순의 제거는 반드시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폭력은 악입니다. 절대로 배격해야 합니다. 어떠한 선의의 실험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반도에서 힘에 의한 통일을 지양하고 평화적 공존, 평화적 교류, 평화적 통일의 햇볕정책에 의해 통일을 추구하는 것도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목숨을 걸고 독재와 투쟁해 왔지만, 어떠한 경우도 폭력을 추구하거나 정당화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의의 추구도 비폭력으로, 악에 대한 투쟁도 비폭력으로 해야 합니다.

글렌 D. 페이지 교수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정치학자로서 폭

력과 전쟁의 참혹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지식인입니다. 그리고 한국 현대정치사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문제의식으로 이를 연구해 온 대표적인 비폭력 지식인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비살생 사회는 가능하다”는 대전제 하에서 기존의 학문적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과 전략 차원에서 유용한 각종 프로그램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교수는 여기서 폭력과 살생을 당연지사로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재난과 불행을 초래하는지를 감동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21세기 인류의 역사가 비폭력과 평화의 역사로 전진하는 데 이 책은 아주 귀중한 공헌을 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

추천사

‘나쁜 전쟁’은 ‘좋은 전쟁’(just war)으로 대응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제국의 게임법칙을 따른다면 이 지구상에는 오직 하나의 초강대국만이 존재해야 영구평화가 올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핵위협과 무장테러에 대해서는 일방적 압박과 무장 억제수단에 의존하는 해결책이 가장 확실한 안전보장책이라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처방대로라면 핵으로 무장한 이란과 북한에게 설득이나 대화로 문제를 풀어 가지는 평화책은 약자의 생존논리 정도로나 치부되고 말 것이다.

일찍이 간디는 “눈에는 눈으로”란 서양식 격언대로라면 세상은 온통 장님들만 남을 것이라고 설파한 바 있다. 9·11테러의 대살상 이후 미국은 이라크를 무력 침공하고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대테러 전쟁에 투입하고 있다. 부시는 세계 인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테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압박전략과 무장전쟁으로 미국의 안전은 더욱 위협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전보다 더욱 위험한 테러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다.*

*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16개의 유수한 국가정보기관들이 합동으로 조사·연구한 보고서는 이라크전쟁 이후 이슬람 과격주의는 더욱 악화일로에 있으

지금도 정글의 법칙이 세계 곳곳을 지배하고, 제국의 게임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미래가 불투명하고 혼돈이 지속되는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매일수목 일상적 자폐증에서 털고 일어나 발상의 일대 전환을 통해 나라의 삶과 인류 상생의 새 지표와 진로를 모색해 볼 수는 없는 것일까. 답답한 마음에서 정윤재 교수가 번역하여 한국어판으로 출간되어 나오는 글렌 D. 페이지 교수의 저서 『비살생 정치학』을 반기는 마음으로 여기에 몇 자 적는다.

저자 페이지 교수는 정치학자요 사회과학도이며 리더십 연구가인 동시에 평화와 비폭력 철학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운동의 기수이기도 하다. 이 책은 페이지 교수가 지난 30여 년의 지적 성찰과 실천하는 삶을 통해 차곡차곡 쌓아 온 학문적 내공의 산물이다. 쌓인 내공만큼이나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논란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는 유익하고도 사려 깊은 역발상의 교훈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의미심장한 읽을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저자는 전 세계 인류를 향해 “살생 없는 사회는 가능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사실 그간의 정치학은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공히 투쟁과 살생(killing)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불가피한 현상으로 용인해 왔다는 것이다. 저자는 폭력을 당연하게 여겼던 잘못된 가정에서 한 발 물러나 발상의 일대 전환을 가져 볼 것을 권하고 있다. 그리하여 살생이 없는 미래의 세계를 향하여 평

며, 테러의 위협은 9·11 전보다 미국과 세계를 더욱더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엄중 경고하였다(New York Times, 2006. 9. 24, "Spy Agencies Say Iraq War Worsens Terror Threat").

화적인 사고와 행동의 주춧돌을 놓는 데 정치학도는 물론 우리 모두가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정치학이 새로운 성찰을 통해 비폭력 정치학으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호소한다. 페이지 교수가 제시하는 비폭력, 비살생의 정치학은 선형적 도덕률에 의거한 설교나 종교적 신조의 산물이 아니다. 『비살생 정치학』은 일생을 학문과 과학의 틀 속에서 진리를 찾아 헤매면서 노학자가 확인한 체험적 지식에 바탕을 두고 쓰인 이론이다. 이 책은 「비살생의 정치학」이 투쟁과 폭력, 살생이 없는 미래사회를 실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대안 학문임을 분명히 논증하고 있다.

“더 이상의 살생은 없어야 한다”고 외치는 노학자의 호소가 위선과 야만이 판치는 현실에 묻혀 버리고 잊혀 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성적 반항과 공명을 불러일으켜 보다 평화롭고 비폭력적인 새로운 가치창출과 행동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인가? 바로 오늘 우리 사회에 던지는 화두가 아닌가 한다.

인청시

서울대학교 교수, 정치학

옴킨이의 말

저자 글렌 D. 페이지(Glen D. Paige, 1929~) 교수는 이 책을 번역한 필자의 은사이며, 현재는 미국 하와이대 정치학과 명예교수이자 세계비폭력센터(Center for Global Nonviolence) 소장이다. 그는 지금도 열정적으로 비폭력·비살생 관련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면서 왕성한 지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원로 정치학자다. 이 번역서가 마무리되고 있는 지금, 페이지 교수는 그의 평생 반려자이자 학문적 동료인 글렌다 H. 페이지(Glenda H. Paige) 여사와 함께 11월 1일부터 5일까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될 제1회 세계비살생 리더십 포럼(First Global Nonkilling Leadership Forum)을 준비하고 있다. 약 100명 정도의 학자와 비폭력 활동가들이 참가할 이 포럼에는 특히 그의 책 *Nonkilling Global Political Science*를 24개 국가의 언어로 번역한 학자들이 각자의 번역본을 들고 참여하여 비살생 정치학의 현황과 미래 그리고 세계평화를 위한 지식인들의 역할을 토론할 예정이다.

필자는 23년 전 하와이대 정치학과 박사과정 학생으로 그의 “비폭력적 대안들”(Nonviolent Alternatives)이란 강의를 들으면서 비폭력을 처음 접했다. “비폭력사회는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었던 강의는 학기 내내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그는 정치에 대

한 비폭력적 접근을 통해 마키아벨리, 홉스, 로크, 마르크스, 베버 등과 같은 근대 정치이론가들을 모두 “폭력을 용인하는”(violence-accepting) 사람들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플라톤이 이상국가를 논하는 가운데 폭력 전문집단인 군사계급을 포함시킨 것은 상상력 빈곤의 결과라고 비판한 것,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모두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폭력을 용인하는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한 것, 그리고 강의실 밖으로 나가 다 함께 쓰레기를 줍는 비폭력 실습을 했던 것 등은 필자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렇지만 당시 필자는 “모든 비폭력 행동은 폭력적 조건이 허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비폭력적 대안은 비현실적이다.” “한국의 경우 비폭력은 역부족이다”는 생각에 잡혀 페이지 교수의 비폭력론에 쉽게 동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후 한국을 방문하시는 페이지 교수를 가끔씩 만나 보면서 비폭력과 비살생에 대한 그의 견해와 주장을 계속 가까이 듣게 되었던 필자는 하나의 학문적 연구방법으로서 “정치에 대한 비폭력 접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한 학자로서 하나의 이론적 입장을 일관되게 가진다는 것과 그것을 위한 진지한 학문적 노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뒤늦게나마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1999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안청시 교수와 함께 페이지 교수의 비폭력 관련 최초의 저서인 *To Nonviolent Political Science: From Seasons of Violence*(1993)를 『비폭력과 한국정치』(집문당)란 제목으로 번역·출판하면서 필자는 페이지 교수의 비폭력적 삶과 학문에 대해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또 이 책을 번역하고 있던 작년 여름, 필자는 경희대학교와 중앙일보가 공동 기획한 “21세기를 위한 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페이지 교수를 방문하여 대담을 나눈

적이 있다. 그때 필자는 당시 한창 논란되었던 맥아더 동상문제를 질문했다. “선생님, 지금 한국에서는 인천 자유공원에 서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문제로 보수진영과 진보세력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한국산 자동차를 손수 운전하고 다니는 것을 즐기며 라디오로 매일 한국 소식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미 알고 있었던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셨다.

“물론 모든 군인들은 직업적인 살생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전쟁기념물들을 다 뜯어내야 합니까? 아니지요. 그건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동상들은 인간이 ‘비살생의 실천에 실패했던 것을 상기시켜 주는 기념물’(reminders of nonkilling human failures)로 남겨 두는 것이 더 낫지요. 그 대신 우리는 현재 서 있는 맥아더 동상 옆이나 다른 쪽에 인간의 살생에 반대했던 영웅들의 동상을 또 세우는 것입니다.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했던 맥아더 장군은 중국 본토 폭격을 주장했던 모범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955년 평화주의자로 바뀌어 전쟁을 반대하는 연설을 통해, ‘우리가 전쟁을 소멸시키지 않는 한, 인류문명의 진보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 ‘우리 지도자들은 느낌보들이다. 우리는 모두 새롭게 생각해야 하고 새로운 이념과 개념을 취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라는 딱 막힌 스트레이트 재킷을 벗어 던져야 한다’고 말했지요. 지금의 맥아더 동상에 이 말을 새겨 넣어 교훈을 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¹⁾

1) 정운재, “비폭력 리더십과 21세기 세계평화: 칼렌 페이지,” 조인원·이동수 외, 『탈20세기 대화록: 이념 이후의 시대를 말한다』(2006, 아카넷), 54-55쪽 참조.

페이지 교수가 평소 비폭력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다소 래디컬한 대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던 필자로서는 한 방 먹은 기분이었다. 그러면서 그가 일찍이 정치지도자들의 “창조적 잠재력”(creative potentials)²⁾을 강조하면서 정치에 대한 리더십 접근을 강의하던 모습을 다시 생각했다. 동시에 비폭력·비살생 정치이론이 폭력과 폭력적 현실에 대한 네거티브 접근이 아니라 인간의 비폭력적 잠재력과 가능성을 일깨우고 확장시키는 포지티브 접근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비폭력 리더십의 개발과 보급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었다. 물론 필자는 이 책에 나온 비폭력·비살생의 구체적인 정책제안 하나하나에 대한 페이지 교수의 견해에 대해 당장 일일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지식인으로서 겪었던 가치관의 전환과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학문적 실험, 그리고 그것들을 새로운 정치이론의 모색으로 이어 가는 그의 성실하고 끈질긴 학자적 자세와 삶은 그 지체로서 큰 가르침이 아닐 수 없다.

페이지 교수는 1973~74년경 어느 순간 “no more killing”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스치면서 비폭력으로의 전격적인 가치전환을 경험한 이후³⁾ 비폭력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정립하기 위해 세계 각지의 종교적·문화적·철학적 전통에 나타난 비폭력의 원천을 찾는

2) Glenn D. Paige, *The Scientific Study of Political Leadership* (New York: The Free Press, 1977), 11쪽.

3) 안청시, 손봉숙은 이에 대한 자세한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면서 페이지의 경험에 장 자크 루소의 그것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안청시·손봉숙, “한국전쟁론에서 비살생 지구정치학으로: 한국과 글렌 D. 페이지의 학문세계,” 안청시 편, 『비살생정치학과 지구평화운동』(집문당, 2004), 20-21쪽.

데 열정적으로 매진했다. 불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 자이나교, 유대교, 퀘이커교 등을 광범위하게 섭렵하기 시작했고, 사회과학도로서 자신의 저서는 물론 기존 정치사상과 정치이론을 비폭력의 시각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계속했다. 1975년 그는 인도를 처음 방문하면서 비폭력을 실천하고 있던 간디 이복가 라마찬드란(G. Ramachandran) 박사를 만났고, 그의 주선으로 간디농촌연구소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던 학생평화부대 산티세나(Shantisena, Peacc Bridge)와 3주간 함께 머물며 간디의 사상에 심취하였다.⁴⁾ 그는 최근 필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그 동안 인류문명이 폭력문명 혹은 폭력을 용인하는 문명이었음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인류문명이 진정 포스트모더니 되기 위해서는 비폭력 지식의 적극적인 생산과 실천으로 미래를 비폭력사회로 건설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 세 가지 근거에서 인간은 비살생 사회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첫째, 역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또 통계적으로 인류의 절반인 여성이 전투에서 살인자가 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사실상 남자도 소수만이 살생을 한다. 군사훈련의 중요한 과제가 인간 심성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살인에 대한 저항감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어느 군사 전문가의 말은 인간이 타고난 살인자라는 가정을 뒤집는 것이다.

둘째, 지상의 모든 종교는 모두 생명을 존중하고 살생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이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살인하

4) 같은 글, 24-25쪽.

지 말라”는 신의 계명을, 자이나교와 힌두교는 “비폭력은 생명에 관한 최고의 법”이라는 계율을 공유하고 있다. 불교의 첫째 계율도 “살생을 금하라”이고, 막스 베버는 살인하지 않겠다는 종교적 신념은 사람을 죽여도 좋다는 정치적 명령과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셋째, 인간은 타고난 동물적 본성 때문에 살인할 수밖에 없다는 가설은 과학적 오류이다. 천적관계인 쥐와 고양이도 훈련받으면 서로 사이좋게 놀며 지낸다는 실험결과가 보고된 지 오래다. 그리고 세계의 과학자들은 1986년 “폭력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여 인간의 폭력적 본성이 유전된다는 것, 인간은 공격적 성향으로 진화되었다는 것, 인간이 폭력적인 두뇌를 지니고 있다는 것 등은 모두 과학적으로 오류임을 지적했다.⁵⁾

그리고 1977년 페이지 교수는 자신이 1968년에 펴낸 대표저서 *The Korean Decision*⁶⁾을 비폭력의 시각에서 스스로 비판하는 서평 에세이를 미국정치학회보에 실었다.⁷⁾ 이 책은 페이지 교수가 조직(organization), 정보(information), 결정자의 동기(motivation)를 중심으로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는 그의 스승 슈나이더(Richard Schneider) 교수의 정책결정 이론을 한국전쟁 참여를 결정했던 미국정부의

5) 정운재, 앞의 글, 56-57쪽.

6) 이 책은 페이지의 박사학위논문이다 11, 12, 13장을 추가하여 1968년에 미국 *The Free Press*에서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이란 제목으로 출판되었으며, 한배호 교수에 의해 같은 해에 『미국의 한국참전결정, 정책결정 이론에 의한 사례연구』라는 제목으로 법문사에서 출판되었다. 일본어로는 히로하루 세키 교수가 1971년에 번역·출판했다.

7) Glenn D. Paige, “On Values and Science: The Korean Decision Reconsidered,”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1, 4 (December 1977), 1603-1609.

사례에 적용한 연구로, 초판 3,000부를 찍었고 이후 미 육군사관학교에서 특히 많이 이용하였다. 이러한 페이지 교수의 연구는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신념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첫째, 정당하지 못한 체제의 폭력적인 방법에 의한 영토확장은 그것에 대항하는 폭력을 정당화한다. 둘째, 남한 시민의 자유는 북한의 그것보다 낫다.⁸⁾ 그래서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과 전쟁과정에서의 폭력 사용은 한국에서의 평화와 자유에 기여하였고, 그래서 그것은 “잘된 결정”(good decision)이었다.

그러나 페이지 교수는 서평에세이에서 이러한 자신의 연구태도와 연구내용을 비폭력의 입장에서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우선 페이지 교수는 자신이 당시 유행하던 행태주의적 연구경향에 따라 가치중립적 입장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적극 배제하면서 정책결정 현장의 정부 관리와 군 장교들의 폭력적인 선호와 가치관을 그대로 용인하면서 1950년 6월 24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있었던 매일 매일의 정책결정 사항을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친폭력적 가치전제의 수용을 고부시켰다”⁹⁾고 비판했다. 그리고 페이지 교수는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여하는 동안 친폭력적인 가치관에 공개적으로 가담했던 사실, 한국 내에서의 상황전개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가치관과는 반대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언제나 자신은 항상 옳다는 차원에서 행동하는 미국이 국제관계에서 비폭력적 대안을 만드는 데 장애물이었다는 사실 등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했다.¹⁰⁾ 그래서 미국이 한국전쟁 참전 결정에서 얻어야 하

8) 알렌 D. 페이지 지음, 안침시·정윤재 옮김, 『비폭력과 한국정치』, (집문당, 1999), 65쪽.

9) 같은 책, 64쪽.

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앞으로 미국의 폭력이 국제정치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서 폭력을 실험하도록 고무되어야 하고, 미국의 군사원조는 폭력을 지지하는 목적에서 제공될 수 없으며, 앞으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국내외의 심각한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페이지 교수는 주장했다.11)

그리고 페이지 교수는 자신의 대표저서 『미국의 한국참전결정』은 폭력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교과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폭력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하나의 도전으로 재검토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 고무되어야 할 것은 폭력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폭력을 증가시키고 기름을 끼얹고 정당화하며 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제한하고 약화시키며, 냉각시키고 종식시키며,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는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페이지 교수는 오늘날과 같이 유례없는 폭력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대에 정치학의 가장 큰 의무는 비폭력 지식을 생산하고 적용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우리가 계속해서 정치적 폭력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정당화하며, 그럼으로써 폭력에 대한 대안을 발굴해 내지 못한다면, 정치학은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 거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12)

나아가 페이지 교수는 우리 인류가 21세기를 보다 품위 있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회적·지성사적 전통이 내포한 폭력에 기울어지는 인력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해방시킬 줄 알아야

10) 같은 책, 65-66쪽.

11) 같은 책, 78쪽.

12) 같은 책, 79쪽.

한다”면서 기존의 정치이론을 비폭력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예컨대 플라톤은 『공화국』에서 이상사회를 그리면서 국가수호자들(Guardians)이 군인계급에서 나오게 되어 있고 또 그들의 보좌를 받게 되어 있으며, 플라톤은 그러한 계급을 영원히 필요한 존재로 간주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바람직한 정치공동체는 국내 질서유지와 내국인의 외국인에 의한 노예화를 방지하기 위해 군대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군주가 여우의 기지가 모자랄 때 살상할 수 있는 사자의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했던 충고는 그 동안 정치학자들 사이에 당연한 상식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폭력적인 국가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옹호를 극대화시켰다. 이러한 홉스의 전제를 받아들인 로크는 『시민정부론』에서 정부의 폭력과 반정부 행위자의 폭력을 모두 용인하는 자유주의 정치이론을 제시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러한 로크의 주장을 계급투쟁에 적용해 부르주아 계급은 정치적 우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부르주아 계급의 우월적 지배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 위해 폭력을 동원하고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막스 베버 역시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국가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관계이며 정당한(즉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폭력에 의해 유지되는 관계”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페이지 교수는 지난 250여 년 동안의 정치사는 “자유, 평등, 박애라는 프랑스 대혁명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폭력 용인적인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 러시아, 중국에서도 폭력혁명을 통해 정치·사회적 변화가 시도되었음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반나치, 반파시스트, 반일본제국주의를 위한 투쟁과

정에서도 폭력은 합당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폭력은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없는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기존의 정치학은 폭력을 용인하는 사상적 전통과 정치사적 경험 때문에 “비폭력·비살생의 사회는 상상할 수 없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¹³⁾

이상에서 간단하게 살핀 페이지 교수의 비폭력주의의 가치전환과 그에 따른 현대정치학에 대한 비판 및 새로운 학문적 도전의 종합이 바로 이 책이다. “비살생 사회는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제1장에서는 이러한 질문과 함께 그 동안 페이지 교수가 겪었던 지적 탐험과정이 찬반토론과 함께 소개되며, 제2장에서는 비살생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인간의 여러 가지 능력에 대한 심층분석과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소개되고 있다. 제3장은 비살생 정치학이 추구하는 학문적 혁명이 규범, 사실, 이론, 교육, 응용, 제도, 방법론 등 7개 분야에서 실천되어야 하며, 이러한 비살생적 학문혁명이 정치사상, 비교정치, 국제정치 같은 기존 정치학의 하위 분야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 제4장은 대학살, 폭력혁명, 안보, 무장해제, 경제적 박탈, 인권탄압, 생태계 파괴 등과 같이 살생을 동반하거나 방치·묵인하는 현실에서 살생 혹은 살생위협 없이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세밀하게 따지고 있으며, 제5장은 비살생 사회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이노베이션의 사례로 비살생 정치학과 대학생 평화봉사단, 비살생 대학교, 비폭력 공공서비스, 비살생 공동방위군, 비살생 시민단체, 비살생 컨설팅 단체, 비살생 초국가적 문제해결 컨소시엄, 비살생

13) 같은 책, 109-111쪽.

매스미디어, 비살생 리더십센터, 비살생 예술창작센터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제6장에서 페이지 교수는 “생명을 축복하는 상호존중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협력적 문제해결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학”으로서 비살생 정치학이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다차원적으로 논의함과 동시에 비살생 정치학이 지구적 차원에서 비살생 사회 건설을 위해 그 소임을 적극 감당할 때 하나의 학문으로서도 성공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 책을 출판하면서 옮긴이는 누구보다도 페이지 교수께 감사드린다. 옮긴이보다 더 적합한 학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번역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을 때 페이지 교수는 선뜻 허락해 주었을 뿐 아니라, 번역과정에서 옮긴이가 바쁜 핑계로 여러 차례 원역을 미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격려로 끝까지 이끌어 주셨다. 또한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추천의 글을 써주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서울대 정치학과 안청시 교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책의 번역과정에서 옮긴이와 함께 읽으며 공부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의 곽병훈 군과 김태승 군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언제나 부지런하고 성실한 양 군의 앞날에 큰 성취와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한다. 또한 이 책의 원서와 번역초고를 읽어 보고 그 시대적 중요성을 금세 알아차리고 출판을 서둘러 준 백산서당의 이 범, 김철미 대표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강호제현의 질정을 기다린다.

2007년 10월 10일

옮긴이 정운재

서 문

이 책은 무엇보다도 대학 신입생과 명예교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정치학도들이 이제까지 지니고 있던 사고방식과 행동을 한 번쯤 심각하게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쓰였다. 오늘날 살생(killing)은 정치이론과 실천에서 당연히 용인되는 불가피한 인간조건의 일부라는 가정이 연령이나 학식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독자들이 이러한 가정을 일단 의심해 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데 동참하기 바라며, 나아가 살생 없는 세계의 미래를 향한 사고와 행동의 주춧돌을 놓는 데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이 책은 이제까지 영어로 쓰인 책 중에서 그 제목에 비살생(nonkilling)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포함한 책일 것이다. 이 비살생이란 단어는 흔히 사용되는 말이 아니다. 이 책은 평화와 비폭력을 넘어 인간 생명을 빼앗아 가는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러나 비살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편협한 시각이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것들을 간과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일차적인 반응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아마도 *ahimsa*(비폭력: 생각, 말, 행동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를 단순히 비살

생(nonkilling)으로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폭력상태를 개선할 수 없다고 말했던 마하트마 간디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아마 마하트마 간디가 지금 이 책을 읽는다면 그조차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폭력의 근원인 살생으로부터의 해방이란 주제에 논의를 집중하는 것이 비폭력 정치학으로의 전진이고, 나아가 생명을 빼앗는 정치로부터 생명을 존중하는 정치로의 의미 있는 전진일 수 있음을 수증할 것이다.

이 책의 핵심주제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비살생의 지구사회는 가능하다. 둘째, 학문으로서의 정치학과 정치학의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의 몇 가지 변화가 비살생 지구사회를 가능케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치의 연구나 실천에서 살생은 당연히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간본성이자 사회적 삶의 피할 수 없는 속성이라는 전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문제시되어야 한다. 첫째,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살생과 비살생 양쪽 모두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치명적인 살생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까지 살인을 하지 않았고 현재도 살인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있다. 셋째, 지금까지 광범위한 분야의 사회적 제도를 통해 드러나고 확인된 인간의 비살생 능력이 창의적으로 선택되고 잘 활용된다면, 그것은 인류사회를 비살생 사회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살생의 원인과 비살생의 원인, 그리고 사람들을 살생에서 비살생으로 전환시키는 원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 현재까지 성취되고 앞으로 성취될 학문적 성과를 전제로 할 때, 사람들을 치명적인 살생으로 유인하는 정신생물학적(psychobiological), 사회적 요소는 사람들

을 비살생으로 변화시키는 어떤 기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앞의 요인들을 전제로 할 때, 정치학과 정치에서 폭력을 용인하는 기반으로서 생명을 죽이는 치명적인 인간본성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섯째, 어느 특정 지역의 생명부터 전 세계의 모든 생명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경우든 치명적 살생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지향에서 현재 비살생으로의 사회적 변화를 시도하는 인간능력을 불신하는 정치학자들은 이러한 연구가 순수이론의 관점에서 귀납적·연역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얼마든지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회의론자들뿐만 아니라 비살생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수용하는 사람들에 의한 가설적 분석(hypothetical analysis)과 역할담당(role-playing)이 새로운 학문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해저지론자들과 해비판자들이 제한적이거나 혹은 전면적인 핵전쟁이 초래할 국지적이고 전 세계적인 결과에 관한 이론적이고 가상적인 탐구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비살생을 지지하는 정치학자들과 폭력을 용인하는 정치학자들도 세계를 비살생 사회로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선결조건, 과정,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건설적이고도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데 서로 동참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이 비록 주로 정치학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으나, 비살생 사회는 모든 학문분야와 관련된 직종에서 끊임없는 발견과 기여가 없다면 실현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는 하버드대학의 사회학자 소로킨(Pitrim A. Sorokin)이 그의 책 『사랑의 방법과 힘』(*The Ways and Power of Love*, 1954)에서 보여준 바와 같은 이타적 사랑의 응용과학(an applied science of altruistic love)으로의 진보이다. 우리는 비살생 자연과학, 비살생 생

물학, 비살생 사회과학, 인문학, 그리고 비살생과 관련된 전문직 종, 나아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살생적인 사람들(nonkilling people)을 필요로 한다. 더욱이 과거에 드러났고 또 현재 보이고 있는 인간의 모든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역적인 맥락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 규범상 주의를 요하고 인식상 정확하고 실천적으로 적합한 것이 되기 위해, 개념상의 범위와 참여의 수준에서 『비살생 정치학』은 마땅히 지구적인 학문이 되어야 한다.

감사의 글

나는 이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도와준 과거와 현재의 많은 사람들뿐 아니라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여러 사람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나는 이 학문적 발견의 여행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준 하와이 사람들과 1978년부터 1992년까지 대학 학부과정과 대학원 세미나에서 '비살생의 정치대안'(Nonkilling Political Alternatives)을 탐구하는 데 동참해 준 여러 나라에서 온 하와이대학교의 학생들, 그리고 블룸(Francine Blume), 사타아난드(Chaiwat Satha-Anand), 무슬림(Macapado A. Muslim)과 같이 박사과정에서 비폭력을 전공하고 지금은 전문학자로서 활약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을 출판하면서 나는 특히 나의 정치학 은사이신 프린스턴대학교의 스나이더(Richard C. Snyder) 교수와 윌슨(H. Hubert Wilson) 교수 두 분을 잊을 수 없다. 학문에 대한 존경심과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지식, 정치의 본질은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는 생각, 모든 수준의 사람들에게 베푸는 교육에 대한 관심, 그리고 가치는 그러한 가치가 소용없는 사람들이 미처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해 주는 스포트라이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 등을 스나이더 교수님에게 배웠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는 비록 때로는 홀로 저항해야 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본 그대로 진실을 입을 열어 말할 각오가 돼 있는 학자와 시민들이

만드사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후에는 간디를 통해서도 알게 되었지만, 사실은 월슨 교수님으로부터 먼저 배웠다.

다른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학계 내외의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가르침을 받았다. 이러한 정신적 지도자 중 특히 나는 툴시(Acharyas Tulsi)와 마하프라가(Mahapragya), 벤틀리(Rabbi Philip J. Bentley), 힝크스(Rev. Sidney Hinkes), 이케다(Daisaku Ikeda, Sr.), 매커내니(Anna McAnany), 툴쿠(Lama Doboorn Tulku), 자벨카(Fr. George Zabelka), 와히드(Abdurrahman Wahid) 등에게 많은 빛을 졌다. 자연과학자와 생물학자, 사회과학자 중에서 안청시(Ahn Chung-Si), 정윤재(Chung Yoon-Jae), 데이터(James A. Dator), 갈통(Johan Galtung), 지오르기(Piero Giorgi), 홍승직(Hong Sung-Chick), 이재봉(Lee Jac-Bong), 마틴(Brian Martin), 매카시(Ronald M. McCarthy), 모튼(Bruce E. Morton), 무샤코지(Kinhide Mushakoji), 파르노프(Erney Parnov), 프리고친(Ilya Prigogine), 램시(L. Thomas Ramesy), 이용필(Rhee Yong-Pil), 세키(Hiroharu Seki), 스미르노프(William Smimov), 스포셀(Leslie E. Sponsel), 샤프(Gene Sharp), 서미(Ralph Summy)에게 많은 빛을 졌다. 인문학자 중에는 허만(A. L. Herman), 존슨(Richard L. Johnson), 내글러(Micheal N. Nagler), 나할(Chaman Nahal), 심슨(George Simson), 야쿠시키나(Tatiana Yakushkina), 트루(Micheal True)에게 빛을 졌다. 도서관 직원 가운데 빈츠(Ruth Binz)와 본타(Bruce D. Bonta)에게 감사한다. 정치지도자와 사회지도자 중 앨버티니(James V. Albertini), 아람(M. Aram), 아리아라트네(A. T. Ariyaratne), 돌시(Danilo Dolci), 에반스(Gwynfor Evans), 황장엽(Hwang Jang-Yop), 켈리(Petra K. Kelly), 킹(Jean Sadako King), 매과이어(Mairead Corrigan Maguire), 알-마잘리(Abdul Salam al-Majali), 맬론 부부(Ronald and Ursula Mallone), 페스트라나(Andres Pestrana), 퀴스토르프(Jiva Quistorp), 구(Shi Gu), 라니(Ikram Rabbani Rana), 시버락사(Sulak Sivaraksa),

운니탄(T. K. N. Ummithan)에게 감사한다. 교육자 중에 아부에비(Jose V. Abueva), 라다크리쉬난(N. Radhakrishnan), 라마찬드란(G. Ramachandran), 우레이(Joaquin Urea), 그리고 왈스트롬(Riitta Wahlstorm)에게 감사한다. 비폭력을 훈련시키는 전문가들 가운데 다르마난다(Dharmaranda), 알핀 1세(Charles L. Alphin, Sr.)와 라파이엣트 2세(Bernard LaFayette, Jr.)에게, 그리고 심신을 다 치료하는 의사들 중에서는 캄(Tong H. Kam), 레дук(Jean R. Leduc), 로페즈 레이스(Ramon Lopez-Reyes), 이동식(Rhee Dongshik), 노정우(Roh Jeung-Woo), 왕(Wesley Wong) 등에게 감사한다. 개혁 옹호자 가운데 바르디와지(Vijay K. Bhardwaj), 크로스 부부(Karen and Larry R. Cross), 잉글먼(Vance Engleman), 간다(S. L. Gandhi), 질리아트(Sarah Gilliat), 구안슨(Lou Ann Ha'ahao Guanson), 헤닝슨(Manfred Henningsen), 허만(Theodore L. Herman), 레웅(Sze Hian Leong), 마셀라(Anthony J. Marsella), 모르스 부부(Richard and Romola Morese), 맥베이 부부(Scott and Hella McVay), 오카(Gadong Bagoes Oka), 사핀(Burton M. Sapin), 샬브(Stanley Schab), 쇼(William p. Shaw), 타치바나(Joanne Tachibana), 토무스크(Voldemar Tomusk), 트렌트(John E. Trent)와 바르가스(Alvaro Vargas)에게 감사한다.

이 책의 초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친절하게 논평해 준 여러 독자들에게 나는 매우 감사한다. 안청시(Ahn Chung-Si), 아리아라트네(A. T. Ariyaratne), 번즈(James MacGregor Burns), 사타아난드(Chaiwat Satha-Anand), 잉글먼(Vance Engleman), 갈통(Johan Galtung), 보테로(Luis Javier Botero), 코니노(Amedeo Cottino), 포르니(Elisabetta Forni), 구안슨(Lou Ann Ha'ahao Guanson), 허버트(Kai Hebert), 허만(Theodore L. Herman), 흥승직(Hong Sung-Chick), 콜로드지예즈(Edward A. Kolodziej), 로페즈 레이스(Ramon Lopez-Reyes), 루(Caixia Lu), मै과이어(Mairead Corrigan Maguire), 쿠메르(Brian Martin Mahendra Kumer), 폴라드(Vincent K. Pollard), 프리고친

(Ilya Prigogine), 라다크리쉬난(N. Radhakrishnan), 리그스(Fred W. Riggs), 로빈슨(James A. Robinson), 사핀(Burton M. Sapin), 샤프마(Namrata Sharma), 심슨(George Simson), 싱저(J. David Singer), 송창주(Song Changzoo), 섬니(Ralph Summy), 티오우소프(Konstantin Tioussov), 토무스크(Voldemar Tomusk), 트루(Michael Truc), 우다야쿠마르(S. P. Udayakumar), 바르가스(T. K. N. Urnithan, Alvaro Vargas)와 자오(Baoxu Zhao). 이들의 논평은 이 책의 주제가 지닌 기름지고 풍부한 상상력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동시에 수반하고 있는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적절하게 지적해 주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지혜로운 논평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필자인 나에게 있다.

1999년 2월에 초기 원고를 처음 읽어 준 독자인 로빈슨(James A. Robinson)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이며, 특히 그는 동료애에 넘치는 마음으로 스나이더(Richard C. Snyder) 교수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책의 서문을 써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나는 또한 지난 25년 동안 자신의 직업과 관련 없는 많은 논문과 책의 원고를 타이핑해 주는 것과 함께 갖가지 행정적 지원을 도맡아 해 주었고, 또 발리, 방콕, 베이징, 베를린, 브리스베인, 히로시마, 런던, 모스크바, 뉴델리, 뉴욕(UN), 파리, 프로빈스타운, 평양, 서울, 도쿄, 울란바토르의 비폭력 발전 여행에 함께 동행해 준 글렌다 하쓰코 나이트 페이지(Glenda Hatsuko Naito Paige)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버거스(John W. Burgess)의 *Reminiscences of American Scholars* (1934, 컬럼비아대학교 출판부)의 28쪽에 실린 필자의 글을 다시 출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컬럼비아대학교 출판부에 감사한다.

서론

경고, 당신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이 널리 읽히고 그 내용이 독자들에게 의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때,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보편화돼 있는 일련의 가치와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각종 제도를 뒤집어엎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존의 제도뿐 아니라 그 배경을 이루는 가치나 목표, 선호, 요구되는 정책, 사건, 그리고 행동 중에는 권력의 획득 및 사용과 직접 관련되는 것들도 있다. '권력'이란 사람들이 자신 및 타인을 필요할 경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각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을 지칭한다(Lasswell and Kaplan 1950: 75). 권력과 관련된 제도로는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전쟁을 벌이거나 사형을 포함한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정부와 정책결정자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조직이 있다. 즉 권력기관과 상호 작용하는 행동주체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여러 종류의 새로운 발명, 제품생산, 판매, 그리고 '무기'(arms)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통해 부를 창출하는 기업가가 참여하는 조직적인 경제주체, 몇몇 창의적인 구성원이 연구를 담당하면서 힘에 의한 전략과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를 고안하고 있는 대학, 폭력적인 게임과 오락을 전문으로 하는 운동선수나 예술가들이 모여 만든 단체, 어린 생명을 낙태시키고 안락사불 도와주는 존경받는 의사들이 일하는 병원이나 진료소, 기존 정부와의 암묵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혹은 기존 정부에 대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살생부기를 만들고 사용하는 데 참여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공공연한 비밀결사 조직이나 ‘사병들’(private armies), 아동을 학대하거나 그것을 용인하는, 그리고 어떤 경우 부정확한 배우자와 아이들 혹은 친척들을 임의로 죽이는 것을 용인하는 구성원이 포함된 가족, 공인된 종교적 교리나 절차, 그리고 상징에서 이탈한 자들에 대한 살생을 옹호하는 신자들로부터 이루어진 종교조직.

사회의 모든 주요 조직과 집단이 그 사회의 권력과정과 서로 얽혀 있는 것과 같이 사회의 각 부분은 마치 보안요원들이 회사나 대학 캠퍼스에서, 연예인들 사이에서,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때로는 가족 내부나 교회에서 그 기능을 능숙하게 수행하는 것처럼 살생에 의존하는 적극적이거나 혹은 소극적인 유인책들(inducements)을 활용하며 서로를 감시하고 규제하고 또 교정한다. 권력기관과 그 밖의 다른 사회기관이 살생이나 또는 살생의 위협을 포함하고 있는 한, 그러한 기관 사이에서나 그들 속에서의 상호작용은 그동안 능력있는 관찰자와 깨어 있는 행동가들이 입을 열어 지적한 바와 같이, 근대사회와 포스트모던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글랜 페이지 교수는 개인과 공동체의 수준에서, 그리고 전 세계

적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인간생활에서 살생과 살생위협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최소한의 공공 시민질서(minimum public and civic orders of dignity)의 형성을 위해 광범위하게 공유돼 있는 주장, 요구, 그리고 권리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의료, 가족, 그리고 종교와 관련된 소규모 집단 및 지역 혹은 국가, 그리고 세계 차원의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경험적이고 논리적인 불일치 현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 책이 지금 출판되었다고 해서 살생의 문제가 최근에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이슈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 이 책은 전적으로 저자 자신의 우연한 상상력과 능력에만 의존해서 집필된 것도 아니다. 이 책이 출판되었다는 것은 이제까지 여러 조직과 공동사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살생의 사실과 영향력이 인식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살생이 모든 영역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인식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폭력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분석하고 예측하며 이를 채택할 수 있는 문제해결 접근방법과 수단에 대한 실천적 담론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에는 우리들의 주변에서 수시로 자행되는 살생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렇게 흔한 살생 현상 때문에 많은 학자와 과학자, 그리고 학자들에 의해 축적된 지식과 기술이 포함돼 있다. 철학자는 현실적으로 좌절된 목적가치와 선호를 찾아내고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무엇이 문제인가를 결정하는 일에 기여한다. 역사가, 인구통계학자, 경제학자,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전문가가 사람들이 어

먼 경로를 통해 살생 혹은 비살생의 가치에 이르는지, 그리고 사
 람이 택하는 일련의 목적과 선호에 대한 수많은 견해가 어떻게 형
 성되고 또 소멸되는지를 연대기적으로 기술한다. 그런가 하면 인
 류학자, 생물학자, 심리학자, 그리고 사회학자는 모든 이탈적 성향
 을 차단하고 그들로 하여금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도모
 하는 데 유익한 공간과 기회를 찾기 위해 일반적 경향 속에 내재
 하는 일련의 조건을 발견하고자 노력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폭력
 행위처럼] 통제하기 쉽지 않은 성향은 약화시키고 [비폭력행위처럼]
 선호하는 성향은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일
 정한 성향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나타나는지 미리 예측하거나 보
 여주기 위해 나름대로 기술을 동원하고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최
 근에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학식 있고 경험 많은 사람들
 중에 적용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구상하고 설계할
 수 있는 유능한 엘리트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설계 능력도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
 들은 대체로 비살생을 지지하는 가운데 혁신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엘리트적인 지위보다는 그러기가 쉽지 않은 중(中)엘리트적
 인(midelite) 지위에 포진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류역
 사상 지난세기를 가장 피 비탄내 나는 세기로 만들었던 폭력 전문
 가들에 대한 가장 견고한 대안세력으로 존재하면서, 인간존엄성
 을 보다 강조하는 성향과 관점을 가지고 장차 권력을 획득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 피 비탄내 나는 20세기가 비살생 정치학의 출현
 및 제도화와 일치한다는 것은 가장 획기적이면서도 기꺼이 환영
 할 만한 아이러니라 하겠다.

글렌 페이지 교수는 한국전쟁을 위해 군사훈련을 받고 또 전쟁

에 직접 참여해 살생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가 살았던 시대가 보유한 살생의 수단과 능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그는 귀국해서 자신의 학문적 생애를 다시 시작했다. 그는 국제관계, 특히 각국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외교정책을 결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자와 학자의 길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Snyder, Bruck, and Sapin 1962). 그는 여러 가지 외국어에 능통할 뿐 아니라 사회과학 분야를 폭넓게 교육 받은 학자로서 정치학의 여러 전공분야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예를 들면 Paige 1977). 학자로서 살아온 반세기 삶의 중간쯤에서 그는 자신이 추구할 삶의 목적에 대해 심각한 분석을 시도했는데, 여기서 그는 살생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과 관련하여 아주 새로운 문제와 전망, 조건, 나아가 교육과 공공정책에서 대안적 행동을 모색하는 과제와 직접 맞부딪혔던 것이다. 이제 그가 새로이 선택한 학문적 차원에서의 기본전제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는 국가에 대한 일반적 개념과 국가에 대한 기존의 과학적인 연구는 비록 몇몇의 상반된 주장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비살생보다 살생을 더 강조하는 몇 가지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저자가 반세기 학문적 생애 중 후반을 통해 수행한 학문적 탐구와 그러한 살생 옹호적 가정을 비판하고 그 대안을 모색한 결과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독자 여러분 바로 앞에 놓인 바로 이 『비살생 정치학』이란 책에 실려 있는 여러 가지 주장과 진술로 나타나고 있다.

나와 저자인 글렌 페이지 교수는 40년 이상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40년 동안 비살생에 대한 계몽이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던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하기도 했고, 동시에 살

생의 강도와 범위, 영역 및 살생의 위협이 엄청나게 증가한 현실을 개탄스러워하기도 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이 책은 지구적 차원에서 비살생을 도모하는 것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또 어디에 살든 관계없이 그들에게 매우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도록 하게 한 것은 그의 나에 대한 우정도 또 그의 나에 대한 존경도 아니었다. 다만 우리는 오랫동안 대화하고 토론하는 동안 서로 신중하고 진지했을 뿐이다.

이 책이 한 사람의 정치학자가 수행한 연구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곧 이 책의 장점이자 약점이다. '정치학'(political science)은 근대적 의미의 과학을 강조하는 사회과학 중에서 맨 뒷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분야다. 만약 정치학이 하나의 '학문'(discipline)으로 인정받고 불릴 만한 가치가 있다면, 정치학의 약점은 그것이 포괄하는 범주가 광범하다는 것에 의해 상쇄된다. 이와 같은 장점에서 비롯된 정치학의 새로운 분야가 바로 '정책학'(policy sciences)인데, 이 정책학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다가치적이며(multi-valued) 다방법적인(multi-method) 문제 중심적 접근을 강조한다(Lasswell and McDougal 1992). 페이지 교수의 이 책은 인간존엄성을 추구하는 정책지향적 사회과학과 여러 가지 점에서 일치하는 바가 있으며, 또 그러한 사회과학을 보다 세련시키는 데 창조적으로 공헌할 것이다(Robinson 1999).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공공기관과 권력기관의 실상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미국의 소도시와 주에서, 전국적 수준에서, 그리고 다른 몇 개 국가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형태의 권력과정을 전공했을 뿐 아니라, 또 지난 50년 동안 미국의 여러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에서 지내면서 연구

하고 가르치고 또 행정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대부분이 대학 캠퍼스의 복도에 살생의 도구와 살생자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이전에 행정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얻은 삶의 교훈 중 하나다. 우리의 대학에서 살생 혹은 살생위협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은 업무상 불가피한 비용으로 간주되고 합리화되고 있다. 그리고 대학도 기업체와 같이 시장에 적응하거나 혹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조직이다.

정치에서 힘(force)의 역할은 다른 사회영역에서보다 극명하다. 힘은 국가에 관한 개념정의에서 당연시되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그 힘은 무엇보다도 공공질서, 국내치안, 외교, 국방정책에 대한 정부예산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보통사람들은 집이나 학교, 병원, 예배당 근처에 있는 동네 경찰관들이 제공하는 안락과 안전에 의지하고 있다.

우리는 권력기관과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연구에 집중하는 학문으로서 정치학이 권력현상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미국정치론, 비교정치론, 그리고 국제관계를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교과서에서 권력은 정부 간 상호 거래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제이며, 폭력은 이따금 보이는 괴이한 문화현상 정도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정치학의 바로 이와 같은 제약조건 때문에 페이지 교수에 의해 집중적으로 제기된 비살생의 개념은 환영받고 있는 것이다. 독자 여러분들은 바로 이 책 안에서 페이지 교수가 정치학의 목적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고, 또 시대적인 트렌드를 어떻게 관찰하고 있으며, 살생이 적절하게 통

제되지 못할 경우 살생의 문제는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되지 않을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유익한 지적 작업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지구 차원에서 시행되는 많은 정책에 대한 하나의 반전(a reversal)이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반전은 살생에 유리한 여러 가지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결국 살생에 맞서는 데 기여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비살생적 대안의 점진적 발전을 고무하는 기초적인 노력인 것이다. 오늘날 잡지나 책에서 문화적 진화 혹은 동시진화 이론(theories of cultural evolution or co-evolution)이 매우 많이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이 아직 일반이론으로 단단하게 성립되지는 못했을지라도 초기 문화적 진화이론 중 한 가지는 가장 간명하고 쉽게 접할 수 있다. 우리는 바로 비살생 사상, 비살생 기관, 그리고 비살생 실천의 진화를 자신 있게 도모해 가는 데 있어 그러한 문화적 진화이론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Dawkins, 1976과 1989).

하나의 '모델'(meme)—주제, 상징, 관념, 관행—로서 비살생은 이론가들도 예상하는 바와 같이 유전자나 다른 모든 종류의 모델과 마찬가지로 살아남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소멸하기도 한다. 살고 죽는 것은 모방 또는 우열경쟁에 달려 있다. 그리고 모델의 반복 혹은 복제는 그 개념 자체가 오래 존속됨으로써 강화되는 것인바, 이러한 사실은 비살생으로 하여금 하나의 모델로서의 발전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게 하는 것이다. 비살생이 지닌 유리한 점은 인간의 기억, 수많은 기도, 신념, 노래, 시, 그리고 그 밖의 다른 평화로운 전망이나 행동 같은 인간의 표현적 행위 속에 들어 있다. 비살생이 문화적 기억 속에 간직돼 있다는 유리한 점에 덧붙

여, 비살생의 실천적 사례는 군대조직의 존재를 부정해 온 많은 국가와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 그리고 평화 연구기관과 분쟁조정 및 갈등해결을 돕는 각종 봉사단체들 속에서 어렵지 않게 재생산되고 있다.

비살생의 실천적 사례가 풍부하다는 것은 곧 그러한 비살생의 실천이 얼마나 쉽게 재생될 수 있고 또 재생되어 왔는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더군다나 아주 세밀한 모방적 충성이 비살생적 관념이나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문화마다, 계급마다, 이해관계마다, 개인마다, 상황마다 보이는 여러 가지 차이점은 비살생에 입각한 대안적 정책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실험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모델의 혁신이 성공적으로 재생되고 지속되는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그것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각종 자원의 집합으로서 그러한 혁신이 실제로 나타날 환경조건이 어떠한지 하는 것이다. 이미 각종 가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세계 사회에서 우연한 기회에 비살생을 옹호하는 일이 새삼스럽게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다. 20세기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국가가 생겨나서 건실하게 정착한 시기였고 또 100년도 안 되는 기간에 그러한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시기였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라(Karamycky 2000). 그리고 민주적인 정치제도를 운용하는 통치자가 비민주적인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통치자보다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더 적다는 증거가 계속 축적되고 있다(Oncal and Russett 1999; Gowa 1999). 이와 유사하게 민주적인 통치자가 비민주적인 통치자보다 기근을 피하는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더 많다(Sen 1999: 16, 51-3, 155-7,

또 민주주의 시대가 지나면서 단순히 권력이나 부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가치를 창출하고 또 서로 공유할 때 폭넓게 참여하는 것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관심이 부쩍 늘어났다. 이제 전 세계적 차원에서 점점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존경과 자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치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는 비살생으로의 자아혁신을 고무하고 또 지지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모델부제 현상은 살생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즉 경찰도 폭동이나 시위로 인한 위기상황을 보다 평화롭게 그리고 보다 숨씨 있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직업군인들도 강압적인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 외에 보다 비폭력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를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비살생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현상은 궁극적으로 의지와 헌신 이상의 그 무엇, 그리고 여론의 선한 의지 이상의 그 무엇에 달려 있을 뿐 아니라, 대안적인 행동이 고안되고 실행되며 평가될 수 있는 단단한 지식기반에 달려 있다. 따라서 비살생 정치학의 중요성은 무한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존경하는 독자인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자신에게 비살생과 관련하여 학문과 정책 차원의 과업을 부과시켜 왔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비살생 정치학과 만난 이후인 지금 이 순간부터 판단을 더 이상 유보하지 않을 자격이 충분히 있으며, 또 더 이상 판단을 유보하지 말도록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비살생 가치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살생과 살생위험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용인하는 가운데 큰 마음고

생 없이 조용히 지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비살생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 책에 제시된 여러 가지 기회와 대안 속에서 당신이 택할 수 있는 어떤 틈새를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당신은 모든 종류의 문화, 계급, 이해관계, 성격 속에서 서로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녀들의 에너지와 좋은 생각을 동원하는 데,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지구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여러 가치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인간 활동영역에 산재한 온갖 형태의 강제력과 폭력을 넘어서 극복하도록 진지하게 설득하는 각종 전략을 촉진하고 확산시키는 데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임스 A. 로빈슨

1999년 크리스마스, 펜시콜라에서

2000년 새해 첫날, 북경에서

References

- DAWKINS, RICHARD. 1989. *The Selfish Gene*. Oxford University Press.
- GOWA, JOANNE. 1999. *Ballots and Bullets: The Elusive Democratic Pea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ARATNYCKY, ADRIAN. 2000. The 1999 Freedom House survey: a century of progress. *Journal of Democracy*, 11(1):187-200
- LASSWELL, HAROLD D. and KAPLAN, ABRAHAM. 1950. *Power and Society: a Framework for Political Inquiry*.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 LASSWELL, HAROLD D. and McDOUGAL, MYRES S. 1992. *Jurisprudence for Free Society: Studies in Law, Science and Policy*. New Haven, Conn.: New Haven Press and D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 vols.
- ONEAL, JOHN R. and RUSSETT, BRUCE. 1999. The Kantian peace: the pacific benefits of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orld Politics*, 52(1):1-37.
- PAIGE, GLENN D. 1977. *The Scientific Study of Political Leadership*. New York: The Free Press.
- ROBINSON, JAMES A. 1999. Landmark among decision-making and policy analyses and template for integrating alternative frames of reference: Glenn D. Paige, *The Korean Decision*. *Policy Sciences* 32:301-14.
- SEN, AMARTY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New York: Knopf.
- SNYDER, RICHARD C.; BRUCK, HENRY W.; and SAPIN, BURTON, eds. 1962. *Foreign Policy Decision Making: An Approach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The Free Press of Glencoe, Macmillan.

제1장 비살생 사회는 가능한가?

철학은 누군가가 보편적인 문제를 질문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과학 역시 마찬가지이다.

— Bertrand Russell

한 나라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그 나라 정치발전의 척도이다. 한 나라의 실패는 종종 그 나라가 스스로에게 올바른 질문을 제기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 Jawaharlal Nehru

*비살생 사회는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면 왜 불가능한가?
만일 가능하다면 왜 가능한가?*

비살생 사회(nonkilling society)란 어떤 사회를 의미하는가? 비살생 사회는 물론 사람들이 무리지어 사는 공동체 중 하나로 작게는 한 지역사회일 수도 있고, 크게는 세계적 수준의 사회일 수도 있다. 비살생 사회란 인간에 대한 살생과 죽음의 협박이 없는,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어떠한 무기와 그러한 무기의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없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비살생 사회

는 그 사회의 유지와 변화를 위해 위협과 살생의 힘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이다.

비살생 사회에는 인간에 대한 살생도 없고 인간을 죽이겠다는 위협도 없다. 이러한 비살생 사회는 개념상 동물이나 다른 생명체의 삶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될 수 있으나, 인간생명을 중히 여겨 인간을 죽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만큼은 양보될 수 없는 최소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비살생 사회에는 죽음의 협박이 없으며, 또 그러한 비살생의 상태 혹은 비살생을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은 결코 공포와 테러에 의해 만들어질 수 없다.

비살생 사회에는 살생을 위한 어떠한 무기도 없으며, 따라서 인간의 '유혈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도서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회이다. 생명을 빼앗는 어떠한 행위에 대한 합리화도 없다. 물론 사람을 죽이기 위한 무기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의 실현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비살생 사회가 확장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저지하려는 의도는 존재한다. 종교는 살인에 대해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 사람을 죽어라는 어떠한 율법도 없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살생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애국심도 그러한 살생을 요구하지 않으며 혁명 역시 살생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지식인들 또한 살생에 대한 변명을 제공하지는 않으며 보통사람들의 전통적인 지혜 역시 살생을 지지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컴퓨터 관련 용어로 표현하자면 우리 사회는 살생을 위한 어떠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도 제공하지 않는다.

사회구조는 살생에 의존하지 않는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변화시키는 데 어떠한 살생도 요구되지 않는 것이다. 국경, 정부의 형태, 재산, 성(性), 인종, 민족, 계급, 영적 또는 세속적 신념

체계 같은 어떠한 형태의 지배나 배제의 관계도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지속시키거나 혹은 그것에 도전하기 위해 살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물론 이러한 설명은 인간사회에 어떠한 경계나 구별, 그리고 갈등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 아니다. 다만 사회적 구조와 발전과정이 살생에 의존하거나 살생에서 유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살생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직업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비살생 사회에서의 삶의 특징은 살생과 살생의 협박이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살생과 살생의 협박에 의존하는 어떠한 사회적 조건이나 기술 및 살생의 정당화가 없다는 것이다.

비살생 사회는 가능한가?

* * * * *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개인적 경험, 직업적 훈련, 문화, 그리고 맥락 외에도 정치학자들이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요인에 따라 다를 것이다.

* * * * *

비살생 사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 대답은 1979년 미국 인문학지원기금(NEH: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의 후원 하에 ‘대학교육과 서양 정치사상 고전’의 문

제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어느 여름 세미나에 참석한 20명의 미국 정치학자들이 보여준 공통된 반응이었다. 그때 이들에게 물어본 질문은 “비폭력 정치와 비폭력 정치학은 가능한가?”였다. 그 세미나에서는 미국 정치학의 4대 주요 분야(정치이론, 미국정부, 비교정치, 국제관계)가 골고루 다루어졌고, 참석한 학자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남자였다.

짧게 진행된 최종 토론시간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장이 이 질문에 대한 논란을 신속하게 결말지었다. 첫째, 사람은 천성적으로 살인자이며, 그들은 언제나 살생을 하고자 하는 위험한 사회적 동물이다. 둘째, 희소자원은 언제나 경쟁과 갈등, 살생을 야기한다. 셋째,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강간의 가능성은 “언제라도 살생을 저지르려는 남성적 성향”(male readiness to kill)으로 하여금 자신과 관련이 있는 여성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그래서 “만일 누군가 내 아이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나는 그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한 어느 미국 여성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발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또 비살생 정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더 이상의 고려는 불필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당신은 어떻게 비폭력을 가지고 히틀러와 유대인 대학살 같은 만행을 저지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 역시 제기되지 않았다).

참여했던 학자들이 검토한 서양 정치사상의 고전에 대해 새삼스럽게 언급하는 것 역시 불필요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형벌을 중시하던 중국의 법가적 전통과 인도의 솜씨 좋은 카우티리안(Kautilyan) 전통처럼 이 날 검토된 정치사상 관련 대표적인 고전들은 하나같이 폭력을 용인하는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생명을 죽이고자 하는 성향

이 좋은 사회를 창조하거나 보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플라톤(BC 427~347)의 『공화국』(Republic)에 등장하는 전사(戰士)계급에서 선발된 철인왕은 압제와 설득을 통해 생산자와 노예를 다스린다. 그뿐 아니라 크레이그(Leon Harold Craig)가 적절하게 지적했던 것처럼 “(플라톤의 『공화국』에서 나오는) 공평한 관찰자는 전쟁을 ‘정치적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며, 모든 중대한 결정은 이러한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내려야 한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다”(Craig 1994: 17; cf. Sagan 1979).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BC 384~322)의 『정치학』(Politics)에 따르면, 지배자가 한 사람이건 소수이건 또는 다수이건 상관없이 ‘국가 구성원에 의해 선호되는 정체’(preferred politics) 안에서 재산 소유자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군대는 노예를 복종시키거나 적들에 의해 노예로 전락되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군대라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영구적인 살생기능(the permanent presence of military lethality)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The Prince)에서 통치자가 자신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 또 자신의 명예와 미덕, 그리고 국가의 영광을 향상시키기 위해 살생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는 여우의 교활함을 가진 통치가 더 나은 것이나, 필요한 경우 죽음을 초래하는 사자의 힘 역시 대담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시민군(citizen militias)은 공화국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처방한다.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는 『리바이어던』(Leviathan)에서 사회질

서 유지와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부의 살생에 대한 더 향상된 수준의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살인자이기 때문에 자연상태의 비조직화된 삶은 살생이 난무하는 혼돈상태로 귀착된다. 그러나 인간은 또한 생존을 추구하는 존재이므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살생의 권리를 부여받은 중앙권력에 복종하는 것에 동의해야 하는 한편, 자기방어를 위한 목적에서 주어진 양도할 수 없는 살생의 권리를 계속 소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홉스는 무장반란을 정당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존 로크(John Locke)는 이러한 무장반란에 대한 정당화를 『시민정부에 대한 두 개의 논문』(*Two Treatises of Government*)이라는 글에서 시도하고 있다. 로크는 정치적 지배의 필요성이 ‘살생 성향’(readiness to kill)을 불가피하게 만든다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홉스 등의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혁명이 갖는 살생적 성격에 대한 정당화를 시도한다. 주권체(sov^{er}ign authority)가 압제적이 되거나 재산, 자유, 생명에 대한 천부적인 권리를 침해할 때, 억압받는 시민들은 그 주권체에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는 살인자가 자연상태 속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사회에서 시민들도 독재자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배자에 의해 지배받는 자에 대한 통치의 살생적 성격”에 대한 홉스와 로크의 반복된 정당화는 칼 마르크스(Karl Marx)와 프리드리히 엥겔스(Friedrich Engels)의 『공산당선언』(*The Communist Manifesto*)을 통해 경제적 수준의 계급 복지로까지 확장된다. 이들에 따르면, 유산계급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폭력과 살생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물질적·사회적 관계가 비판적 수준

에 도달하면, 피착취계급은 사회의 정치·경제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폭동을 일으킬 것이다. 현대 선거민주주의의 몇몇 특별한 경우에는 평화적 변화가 가능할지도 모르나, 경제적 착취가 사라질 미래의 언젠가는 계급에 기반한 폭력적 국가조차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전환기에 경제적 요인은 살생 지향성을 가질 것이다.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는 시기적으로 로크와 마르크스 사이에서 흙스의 주장을 반복하는 『사회계약론』(The Social Contract)을 저술했다. 그는 이 책에서 정치조직으로서 국가에 대한 정당성의 기반으로 정치 계약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집합적 수준에서 시민들은 주권의 주체이자 국가의 종속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그들은 '일반의지'(general will)에서 유래하는 법을 만들고 관리하는 통치권력에 자발적으로 복종한다. 이러한 계약 하에서 국가는 전쟁과 정복의 권리를 주장하며 반역자와 범죄자 모두 처형될 수 있다. 통치기구는 국가를 위해 시민의 생명을 희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통치기구가 시민에게 “당신이 죽는 게 가장 낫다”고 말한다면 그는 죽어야 한다. 그의 생명은 단지 자연의 은총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받은 조건적인 선물이기 때문이다.

— 『사회계약론』, 2권 5장

궁극적으로 루소의 민주적 사회계약론도 사실은 살생을 용인하는 계약이다. 20세기의 탁월한 정치경제학자 겸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는 1918년 뮌헨대학에서 행한 “직업으로서의 정치”(Politics as a Vocation)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정치는 비살

생적인 직업일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완전히 부인했다. 베버에게 있어 정치를 위한 결정적 수단은 폭력이었다. 역사적으로 모든 지배적인 정치제도는 폭력투쟁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베버는 근대국가를 “일정한 영토 내에서 물리력의 합법적 사용에 대한 독점을 (상공적으로) 주장하는 인간 공동체”로 규정한다. 따라서 “자신의 영혼과 타인의 영혼에 대한 구원을 추구하는 자는 그것을 정치적 수단을 통해 이루고자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영혼의 구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다양한 정치적 과업은 오로지 폭력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Weber 1958: 121, 78, 126).

따라서 베버주의적 전통과 그 이전의 철학적 선배들에 정통한 교수들이 ‘비살생 정치와 정치학’에 대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는 회의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들이 보여주는 이와 같은 전문가적 경향은 다음과 같은 일화를 통해 간략하게 정리될 수 있다. 1950년대 한 젊은 정치학도가 평생 동안 ‘정치’만 연구해 온 미국 정치학계의 한 원로에게 ‘정치’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를 물었다. 그때 그 원로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나는 죽음을 다루는 국가권력(death-dealing power of the state)을 연구하네.”

나아가 이렇게 치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철학적 전통의 메아리는 폭력을 용인하는 종교에 의해 축복받았고, 미국 정치사와 문화 전반으로 울려 퍼지면서 비살생 사회는 불가능하다는 시민사회와 학계의 부정적 신념을 더 강화시켰다. 우리는 이러한 메아리를 미국 독립혁명(American Revolution)을 촉발시킨 레싱턴의 총소리에서, 독립선언(Declaration of Independence)을 통해 반란의 정당화를 시

도하던 로크주의자들의 목소리 속에서, “자유로운 삶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던 뉴햄프셔의 도전적인 외침 속에서 들을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북부연방군을 고무시키던 ‘북군 전투가’(Battle Hymn of the Republic)뿐만 아니라 남부를 찬양하던 ‘딕시’(Dixie’s)란 노래와 수륙 양면의 전투를 찬양하는 ‘해병의 노래’(Marine Hymn) 속에서도 이러한 메아리를 들을 수 있다. 21세기의 첫발을 내딛는 오늘날에도 우리는 군총사령관으로서 대통령의 취임을 경축하는 예포(禮砲) 속에서 이 메아리를 들을 수 있다. 이러한 경축의 예포는 한 국가의 폭력적인 과거와 현재의 군사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이런 메아리는 희생과 살인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면서 국기와 국기와 무장군인의 호위가 혼합된 의식 속에서 평생을 통해 반복되고 있으며, “하나님이시여, 미국을 축복하소서”(God, Bless America)라는 대통령의 축원에 의해 정당화되어 왔다(Twain 1970).¹

이제까지 살생은 미국의 건국, 영토확장, 국가적 통합, 그리고 세계적인 지배권력으로의 부상에 기여했다. 그리고 그렇게 지속된 살생에 의해 초래된 사망자와 부상자들은 그들이 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모두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에 살생적 성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정치학자들도 살생이 그들 국가의 정체성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군주제적 식민통치에 대항하는 공화주의 세력의 무장봉기 속에서 시작된 국가였지만, 여전히 노예의 종속적인 생활은 전과 다름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미국은 자유라는 깃발 아래 아메리카 원주민과의 유혈투쟁, 남북으로 접해 있는 이웃 국가들

에 대한 힘의 우위 확보, 그리고 전투보다는 상업활동을 선호하는 사업가나 지주로부터 양도나 구매를 통해 아메리카대륙에 대한 통치권을 확대해 왔다. 미국은 또한 남부군 74,542명과 북부군 140,414명의 생명을 앗아간 남북전쟁을 통해 강제적인 국가통합을 이루었다.

이후 미국은 해외로 눈을 돌려 하와이(1898), 푸에르토리코와 괌, 필리핀(1898), 동사모아(1899), 태평양제도(1945)에 대한 통치권을 획득했다. 필리핀에서는 식민지 해방을 추구한 반란을 억압했으며(1898-1902), 합병에 저항하는 회교도 모로스(Moros)를 학살하기도 했다(1901-13). 또 미국은 해군을 동원해 일본을 협박하며 개국을 요구했고 쇄국을 주장하던 일본은 문호를 개방해 미국과 통상을 시작했다(1853-54).

이제까지 미국은 전쟁과 개입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 방어해 왔다. 미국은 영국(1812-14), 멕시코(1846-48), 스페인(1898),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터키와 불가리아(1916-18), 일본·독일·이탈리아(1941-45), 북한과 중국(1950-53), 북베트남(1961-75), 이라크(1991) 등 여러 나라와 전쟁을 치렀으며, 북경(1900), 파나마(1903), 러시아(1918-19), 니카라과(1912-25), 아이티(1915-34), 레바논(1958), 도미니카(1965-66), 소말리아(1992) 등에서는 군사적 개입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 미국은 침략을 통해 그레나다(1983)와 파나마(1989)의 정권을 무너뜨렸으며, 침략 위협을 통해 아이티(1992) 정권을 전복시켰다. 이 밖에도 침략 또는 공습을 통해 캄보디아(1970)와 라오스(1971)에서 금수조치(禁輸措置)를 취했으며, 리비아(1986), 아프가니스탄(1998), 수단(1998)에 대한 보복을 시도했다. 또 주요지역에서 전략적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이라크(1993), 보스니아(1995), 유고슬라비아(1999)에 대해 침략과 공습을 감행하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반세기 동안 반(反)자본주의 국가와 혁명주의 국가, 그리고 그 밖의 적대국가에 대한 전 세계적 투쟁을 시도하면서, 미국은 자신의 살생능력을 전 세계 차원으로 확장시켰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 1,000명도 안되던 정규군이 1990년대에는 15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들 군대는 23,000명의 국방성 근무자, 혁신적인 과학두뇌,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무기산업 등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을 운용하기 위해 의회와 대통령의 승인 하에 매년 적어도 2,500억 달러의 세금이 투입된다. 1940-96년 미국의 해무기 프로그램에만 들어간 비용이 어림잡아 5조 8,210억 달러다(Schwartz 1998). 미국은 세계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해외 군사기지와 해외 파견부대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있다. 동시에 적뿐만 아니라 친구, 심지어 동족에 대한 살생마저 저지를 수 있는 외국군대에 대해 훈련과 무장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경쟁이 매우 심하면서도 많은 이윤을 낳는 세계 무기시장에서 압도적인 무기 생산 및 공급국가가 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미국은 인간의 살생무기 발명 재능을 통해 고안된 것 중 가장 파괴적인 무기를 가지고 세계 모든 지역에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게 되었다.

전쟁을 통해 자라난 미국은 1776년의 독립선언에서 출발해 1990년대에는 스스로를 “세계 유일의 군사 초강국과 세계의 주도적 경제세력”으로 공포하기에 이른다(빌 클린턴 대통령의 대국민연설, 1993. 2. 19). 미합참의장인 육군대장 샬리카시빌리(John Shalikashvili)의 말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이익’(global interests)을 갖는 ‘세계국가’(global

nation)가 되었다. 1995년 일본에 대한 원폭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하와이에서 거행된 50번째 기념식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했다. “여러분은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잘 훈련된, 가장 좋은 장비를 갖춘 군대가 될 것입니다.” 클린턴은 이 자리에서 또 하나의 선언을 하고 있다. “우리 시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국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결의는 1996년에 공군의 전략계획에 대해 참모총장 포겔만(Ronald Fogelman)이 행한 다음과 같은 연설내용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다. “우리의 목적은 지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찾아내고 추적하여 목표로 삼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행하지는 않는다”(1996. 12. 12, 워싱턴 D.C.의 헤리티지재단 연설).

20세기가 끝나갈 즈음 미국의 지도자들은 습관적으로 20세기를 ‘미국의 세기’(the American century)라고 언급하면서, 새로운 천년의 첫 세기 역시 미국의 세기로 만들기 위해 두 번째 미국의 세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했다. 이와 같은 폭력에 기반한 승리의 전통 속에서 비살생적인 미국의 모습을 생각해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살생과 죽음의 협박은 미국의 독립을 이루어 내고 노예제를 폐지시켰으며, 나치즘과 파시즘을 물리치고 유대인 대학살을 종결시켰다. 또한 원자폭탄이 투하된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해냈고, 공산주의의 전 세계적 확산을 막아내고 소련방의 붕괴를 야기하면서 오늘날 21세기에든 세계 전역에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의 전파를 위한 주도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확고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갖 정치학을 배우기 시작하는 학생으로부터 원로

교수에 이르는 미국의 모든 정치학도들이 비살생 사회는 불가능하다는 확신을 갖는 데는 어떠한 철학이나 정치적 전통도 필요하지 않다.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살생이 그러한 믿음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이다.

매년 15,000명 이상의 미국인이 다른 미국인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다(1999년 15,333명, 인구 10만 명당 5.7명). 이는 1900년의 1.2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이런 수치에는 경찰과 시민에 의해 발생한 정당하다고 간주되는 살인(1999년 경찰 294건, 시민 188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2차 세계대전 이래 발생한 총 살인의 수(적어도 750,000명으로 추정)는 이제까지 미국이 가담했던 주요 전쟁에서의 사망자 수(650,053명)를 상회한다. 이러한 살인의 수에 사망 내지 중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한 공격, 즉 '심각한 수준의 폭력'(1999년 916,383건, 인구 10만 명당 336.1건)이 더해질 수 있다(연방조사국 2000: 13, 23, 32). 자살(1995년 31,284명, 인구 10만 명당 11.9명)은 생명의 손실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미국 시민사회에서 살인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살 시도는 실제 자살보다 20배나 더 많다. 연간 낙태 시술건수는 100만 건 이상으로 추정된다.

미국인은 구타, 참수, 폭탄, 화상, 익사, 교살, 압사, 중독, 날카로운 물건의 관통, 질식, 총기(가장 흔한 사망원인으로 1999년 전체 살인 중 64.5%를 차지) 등에 의해 죽어 가고 있다. 살생은 임의적이고 전문적이며, 우발적이고 사전에 중재될 수 없는 것이다. 살생은 폭언, 아동학대, 노인학대, 논쟁, 술주정으로 인한 다툼, 마약거래, 폭력배들 간의 분쟁, 도박, 시샘, 유괴, 매춘, 강간, 절도, 범죄은폐, 신 또는 악마의 율법 등과 결합한다. 가정, 학교, 거리, 도로, 직장, 예배당, 교도소, 공원, 마을, 도시, 들판, 국회의사당 어디에서도 안

전한 곳은 찾을 수 없다. 희생자들은 대개 남성인데(1999년 76%) 단독으로, 연쇄적으로, 집단적으로, 임의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1976~85년의 기간에 부부갈등에 의한 살인의 경우 여성 희생자(9,489명)가 남성 희생자(7,115명)의 수를 넘어서고 있다(Mercy & Saltzman 1989). 살인자들은 개인, 부부, 폭력배, 종파(宗派), 폭력조직, 테러리스트 등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다. 살인자들은 압도적으로 남성인 경우가 많으며(1999년 여성 1,046명, 남성 9,140명), 점점 그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1980년에 미국인들에게 “평생 동안 살인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은 백인의 경우 약 1/240이며, 흑인 및 다른 소수인종의 경우 1/47”로 추정되었다(Rosenberg and Mercy 1986: 376). 다음은 1998년 1월 27일 클린턴 대통령의 대국민연설에 대한 반응으로 공화당의 리더인 로트(Trent Lott) 상원의원이 행한 전국에 중계된 한 TV연설 중 일부 내용이다. “폭력 범죄가 우리나라를 자유의 땅에서 공포의 땅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미국의 또 다른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의미심장한 표현일 것이다.

뉴스매체들은 매일 미국의 살생 성향을 증명해 주고 있다. 다음에 나오는 사건은 바로 뉴스를 통해 우리가 접해 왔던 사례이다. 한 딸이 그녀 어머니의 머리를 잘랐고, 경찰에 쫓기자 그 머리를 길가에 던졌다. 한 엄마가 두 아들을 익사시켰다. 두 아들이 자신들의 부모를 살해했다. 연쇄 살인범이 창녀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한 동성애 색마가 젊은 희생자들의 시신을 잘라 냉장고에 보관해 두면서 먹었다. 한 소매치기가 대학 캠퍼스에서 15명을 죽였다. 시골 중학교에 다니는 두 소년이 총을 가지고 네 명의 여학생 급우와 한 명의 선생님을 죽이고, 또 다른 선생님과 9명의 학생에게 부상을 입혔다. 콜로라도 리틀턴에 있는 콜럼바인고등학교에서

두 명의 중무장한 소년이 13명의 급우를 죽이고 자살했다. 1996년부터 1999년에 걸쳐 11세에서 18세 사이의 학생들이 27명의 동료 학생과 두 명의 선생님, 세 명의 부모를 죽이고, 65명의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자동화무기를 소지한 한 남자가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던 어린 학생들을 살해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 퇴역군인이 식당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에게 기관총을 쏘아 20명을 죽이고 13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군에서의 전투로 인해 심신이 지친 한 사람이 “나는 이전에 천 명을 죽였고, 앞으로도 천 명을 더 죽일 것이다”고 외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보던 신도들을 학살했다.

홉스가 주장한 동료 시민에 의해 저질러지는 약탈에 대한 두려움과 베버주의적 국가에 대한 로크주의자들의 불신 속에서 거의 2억 개의 총——적어도 7천만 개의 소총과, 6천 500만 개의 권총, 4천 900만 개의 엽총, 800만 개의 다른 장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서 있다(Cook and Ludwig 1997). 총거래——생산, 판매, 수입, 수출——는 수만 명의 상인들이 합법적·불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대 사업이다. 4,400만 명의 성인이 소유하고 있는 화기(火器) 중 적어도 1/3은 미국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이들 총기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숨겨진 총기를 어떻게 찾아낼지 알고 있다. 전(前) 대통령 부인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은 어린이보호기금(Children's Defense Fund)의 추정치에 근거해 13만 5천 명의 어린이가 총이나 다른 무기를 학교에 가지고 간다는 사실을 공표했다(1996년 2월 22일, 뉴햄프셔 내슈어에서의 연설). 시민들의 총기 소유는 자기방어, 사냥, 여가활동을

위할 뿐만 아니라 1791년 ‘미국헌법 2차 수정조항’(통제가 잘된 민병대는 자유국가 안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무기를 보유하고 소지할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에 의해 보장된 절대권으로서 정부의 폭정에 대한 저항수단으로 인정되어 왔다.

미국 내 살생 환경이 갖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무장경찰이 존재하는 것이다. 각 주(州)와 지방 소속 경찰 외에 연방법률 집행요원도 이에 포함된다(1999년 641,208명. 인구 10만 명당 250명). 1999년에는 이들 중 42명이 죽었다(연방조사국 2000: 91). 이들 무장경찰은 미국 내 각 주의 방위군과 연방군의 요청에 따라 강화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사형을 기다리는 3,527명을 포함하는 180만 이상의 기결수와 이들을 감시하는 교도관이 존재한다(연방법률국 2000b, 2000a). 사형제도는 연방법에 규정된 범죄의 경우 연방정부 수준에서 인정될 뿐만 아니라 미국의 50개 주(州) 가운데 38개 주(州)에서 존속하고 있다. 1977년에서 1999년에 이르는 약 20년 동안 총 598명이 처형됐다. 20세기 말 들어 점증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길거리에 더 많은 경찰을 배치하고 죄수의 형량을 강화하며 더 많은 교도소를 짓자는 주장과 함께 사형제도의 확대와 부활을 주장하는 근심스런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미국에서 폭력은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문화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공식·비공식의 루트와 합법·불법의 방법을 통해 사람들은 살생의 방법을 배우고 있다. 2,400만 이상의 재향군인은 직업적인 살인 훈련과정을 마친 사람들이다(1999년 기준 24,800,000명). 성인남자 4명 중 1명은 재향군인이다. 많은 중고등학교와 대학이 예비 군사 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자기방어를 위해 살생의 방법을 가르치는 사업도 번창하고 있다. 민병대는 전투훈련을 하고 있고, 뒷골

목의 폭력배는 살인을 위해 조직화·기업화되어 가고 있다. 교도소는 수감자들의 재범을 위한 범죄 교육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용병(傭兵) 관련 잡지는 전투기술을 가르치고, 무기를 판매하고, 살해전문가의 고용을 광고하고 있다. 비디오와 컴퓨터게임은 젊은이들에게 길거리 격투에서 육지, 바다, 하늘, 심지어 우주의 전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살생기술을 사용하는 가상의 살생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가상적인 살생체험' 관련 기업들은 서로 죽고 죽이는 오락게임인 '아드레날린 펌핑'(adrenaline-pumping) 게임을 판매하고 있다. 한동안 대학 캠퍼스에서는 동료 학생을 '암살하는 게임'이 유행했다. 사실적인 가상 살생은 어린 시절 장난감 총을 갖고 놀던 놀이의 자연스런 연장처럼 보인다. 살생에 관한 대리학습이나 인간생명의 경시와 같은 도덕적 둔감화 현상은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조장되고 있다. 만화, 영화, TV와 라디오 프로그램, 노래, 책, 잡지, 상업광고 이 모든 것들이 살생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는 동안 수많은 폭력 이미지가 현대인의 머릿속에 각인되고 있다. 이러한 세뇌는 영웅이나 악당이 극단적인 방식으로 사람, 재산, 동물, 자연을 파괴하는 장면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들 야만성과 유희의 이미지는 점차 빠른 속도로 성(性)적 이미지와 결합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살생에 대한 잠재적 유혹과 인접해 있는 폭력영화 광고에서 두드러진다.

역사상 오늘날의 현대인처럼 많은 살생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담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다. 군대에서 특공대와 암살자를 훈련시킬 때 살인에 대한 거리낌을 없애는 방법으로 끔찍한 잔학행위를 담고 있는 영화를 강제로 보여주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Watson 1978: 248-51). 따라서 이러한 영화를 늘 접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돌이켜본다면 온 나라가 감정이입을 통한 생명존중의 풍토에서 벗어나 점차 살생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에 길들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판사들의 보고에 따르면 어린 나이의 살인자들은 점차 인간생명에 대한 존중감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시민사회에 아무리 해로울지라도 폭력적 성향의 대중매체에 의한 사회화는 애국심이 투철한 전문적 살생자를 필요로 하는 국가에게는 매우 유용한 것이다. 이는 슈퍼볼 미식축구경기의 TV중계 동안 볼 수 있는 100만 달러의 보수를 내건 신병 모집광고로 대변될 수 있다. 수백만의 시청자는 비디오 전투 게임에 나오는 거대한 검을 휘두르는 중세 기사가 오늘날에는 총검을 들고 경례를 붙이는 미국해병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언어 또한 우리의 살생 성향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강화시키고 있으며, 살생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인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미국경제가 자유기업 자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그렇다고 살생의 성향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들은 “주식시장에서 크게 한몫 잡는다”고 말할 때도 ‘살인’이란 단어를 쓴다. 월가에서는 “거리에 피(blood)가 있을 때 사리” 혹은 “기업은 가격전쟁에 뛰어들 것이다”라는 말들이 흔히 회자되고 있다. 자유선거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서 서 있는 미국 정치에서도 살생 성향의 표현은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선거운동원들은 ‘군대’(troops) 내지 ‘보병’(foot soldiers)이라 불리며, 입법기관에서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경우 ‘살해되었다’(killed)는 표현을 사용한다. 또 정부가 빈곤, 범죄, 마약 및 기타 정책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경우 “~와의 전쟁을 수행하다”는 표현이 사용되곤 한다.

미국의 스포츠라 할 수 있는 야구에서도 이런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야구게임을 관람하던 팬들은 무언가 불만스러울 때면 전통적으로 “심판을 죽여라”(kill the umpire)고 외친다. 스포츠 해설가들은 거친 마식축구팀을 ‘살인자’(killer)라 부르고, 선수들은 ‘무기’(weapon)라고 표현한다. 또 패스(pass)를 ‘기다란 폭탄’(long bombs)이라 부르고, 게임에 진 팀에게는 “살인자 본능이 부족하다”(lack the killer instinct)고 비판한다. 종교에서도 살생을 떠올리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미국인들은 ‘평화의 왕’(Prince of Peace)으로 불리는 유일신을 숭배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종교적 자유를 자랑하면서 입으로는 “전진하는 기독교 전사”(Onward Christian Soldier)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 게다가 십자군과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하며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천국의 사다리를 오르고 있다. 일상언어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이것을 보통 “시간을 죽인다”(killing time)고 표현한다.

미국인들은 인종차별적 언어와 성차별적 언어가 갖는 부정적 효과를 점차 깨달아 가고 있으나, 살생적 언어를 사용하는 데는 어떠한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언어학적으로 살펴볼 때 미국 영어에서 병기류 혹은 병기고를 의미하는 ‘armory’라는 단어는 모든 종류의 무기와, 그 무기 사용방법 및 효과를 환기시키는 용어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살생적 성향의 언어학적 침투는 다음과 같은 표현에서 잘 나타난다. 배신이란 ‘등을 찌르는 것’이다. 예산이 ‘도끼로 찍힌다’(axed)고 표현하고 시도(attempt)란 ‘발포하는 것’(to take a shot at it)이다. 견해가 ‘어뢰로 파괴된다’(torpedoed). 이 밖에도 반대는 ‘고사포화’(flak)로, 일련의 행동의 결과는 ‘방사성 낙진’(fall-out)으로, 변호사는 ‘고용된 총잡이’(hired gun)로, 아름다운 여

배우는 ‘금발의 포탄’(blonde bombshell)으로 불린다.

한편 언어의 살생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부각시키기보다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해 폭력성을 은폐시키고자 하는 완곡어법도 구사되어 왔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최초의 핵폭탄의 이름은 ‘어린 소년’(Little Boy)이었고, 이를 운반한 B-29전폭기는 조종사 어머니의 이름을 본떠 ‘에놀라 게이’(Enola Gay)라고 불렸다. 또 비슷한 시기에 나가사키에 투하된 플루토늄 폭탄은 ‘살찐 남자’(Fat Man)라 했고, 이를 운반한 전폭기의 이름은 ‘복의 자동차’(Bock’s Car)였다.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대량살생무기인 대륙간 탄도핵미사일은 ‘평화생산자’(Peace Maker)라는 역설적인 이름으로 불린다. 완곡어법을 통한 전쟁용어의 전환은 스포츠와도 관련되는데, 일례로 살생도모하는 군대훈련을 ‘게임’이라 부르는 관행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전쟁 중에 민간인이나 아군을 죽이는 것을 ‘부수적인 손실’(collateral damages)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레이건 전(前) 대통령의 표현처럼, “미국은 호전성이 가장 적은 나라이며, 현대사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이다”(PBS 1993) 같은 방어적 표현 역시 모두 같은 맥락의 어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살생 성향의 여러 요소는 주기적으로 결합하게 되며, 그 결과 시민 사이 또는 시민과 정부기관 사이의 집단폭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92년의 LA 흑인폭동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한 흑인시민에 대한 경찰의 야만적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무죄 판결을 내리자, 이에 대한 저항으로 발생한 것이다. 폭동의 와중에 발생한 총기발사, 약탈, 방화로 52명이 죽고, 2,000명이 부상당했으며, 8,000명이 체포되었다. 그 결과 폭동 발생 후 두 달 만에 약 7만 명의 총기가 주변 지역의 두려움에 떨던 시민들에게 판매

되었다. 이러한 대량 유혈사태가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18~19세기에 발생한 노예들의 지역 반란으로 인한 대량살생 외에도 1965년에는 와츠에서 34명이 죽고, 67년 뉴아크에서는 26명이, 같은 해 디트로이트에서는 46명이 죽는 대량 살생사태가 발생했다. 67년의 디트로이트 폭동으로 인한 혼란 수습에만 4,700명의 육군 낙하산 부대원과 1,600명의 연방군, 360명의 미시건 주(州)방위군이 동원되었다(Locke 1969).

1993년 텍사스의 웨이코우와 1995년 오클라호마시(市)에서 발생한 대량살생 사건은 흡스·베버주의적 국가와 국민들의 총기소지 권리가 제한당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정당화하는 존 로크의 혁명이론이 반영된 미국헌법 제2차 수정조항이 결합되어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1993년 웨이코우에서 무장한 주(州)경찰들이 무장 종교집단에 대해 강제적인 법집행을 시도했으나, 이들의 저항으로 4명의 연방공무원이 살해되고 12명이 부상당했으며 부녀자와 어린이를 포함해 총 89명의 신도가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비극이 발생한 지 2주년이 되던 날 한 반정부세력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오클라호마시에 소재한 연방정부 청사를 공격했다. 이들은 트럭에 폭탄을 싣고 돌진했고, 그 결과 부녀자와 어린이를 포함해 모두 168명의 생명이 희생되었다.

우리의 시선을 미국 밖으로 돌려도 비살생 사회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지지하는 풍부한 증거가 있음을 알게 된다. 인간의 잔학성을 가장 잘 보여준 20세기는 인간의 대규모 학살능력을 확인시켜 주었다. 럼멜(Rudolph J. Rummel)의 연구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유혈참사를 역사적·세계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한다. 그는 살생을 민중학살(demicide: 한 국가가 민족대학살, 처형, 대량살생, 인위적

〈표 1〉 1987년까지의 민중학살과 전쟁에 의한 사망자수

	1900 이전	1900-1987	합계
민중학살	133,147,000	169,198,000	302,345,000
전쟁	40,457,000	34,021,000	74,478,000
합계	173,604,000	203,219,000	376,823,000

출처: *Rummel 1994*: Table 1.6, 66-71.

기아 등을 통해 자신의 국민을 죽이는 것)과 전쟁(세계대전, 국지전, 내전, 혁명전쟁, 게릴라전 등)에 의한 사망으로 구분하면서 <표 1>과 같이 역사상 발생한 살생의 수를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살인을 제외하고도 역사상 발생한 정치적 살생의 희생자는 4억여 명 정도로 추산된다.

러멜은 민중학살의 최대 책임자로 공산주의 정권을 들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전체주의 및 권위주의 정권을,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정권을 들고 있다.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 스탈린의 숙청, 일본의 침공, 마오쩌둥의 살인은 미국인들에게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사건이다.

에크하르트(William J. Eckhardt)는 1900-95년 사이의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의 총수는 민간인 62,194,000명과 군인 43,920,000명을 포함해 적어도 106,114,000명에 달한다고 집계하고 있다(Sivard 1996: 19).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로 생각되는 1945년부터 1992년 사이의 냉전기간에도 이와 같은 도살이 계속되었고, 그 결과 149번의 전쟁에서 민간인 14,505,000명과 군인 7,552,000명을 포함해 적어도 22,057,000명의 생명이 희생됐다(Sivard 1993: 20-1). 1996년에만 적어도 30개 이상의 전쟁이 진행 중이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인간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조차 마련해 주지 못하는 현재의 무능력으로 인해 더 악화된 잔혹함과 과거의 원한에 뿌리박고 있는 유혈참사의 이미지가 TV화면에서 주기적으로 번쩍이고 있다. 대중매체가 한 사건에 초점을 맞춘 뒤 또 다른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가듯, 하나의 무서운 위기 뒤에 또 다른 위기가 뒤따르고 있다. 유혈참사는 많은 형태로 나타난다. 국제전쟁, 내전, 혁명, 분리전쟁, 테러행위, 영토분쟁, 군사쿠데타, 민족학살, 인종·종교·부족학살, 암살, 외국의 간섭, 살인과 관련된 훼손 및 탈취 등 다양한 예를 들 수 있다. 1993년에는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에 행해진 폭탄테러 결과 6명의 사망자와 1,0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스라엘 정부를 지지하는 미국 정부에 반감을 품은 외국세력의 저항이 미국인의 생명을 빼앗는 살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1998년 나이로비와 다르에스살람에서 발생한 폭탄트럭 돌진처럼 해외에서 살생사건이 일어나기도 한다.

지난 20세기를 뒤돌아 볼 때, 여전히 홉스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저기 정글이 있다.”고 외치고 있다. 또 멸망한 로마제국의 격언을 진리인 듯 읊조리고 있다. “당신이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

* * * * *

지금까지 살펴본 근본적 신념, 철학적 유산, 애국적 사회화, 대중매체의 강화, 문화적 조정, 지구 곳곳에서의 유혈사태 등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미국 정치학도들이 비살생 사회의 가능성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대학 1학년생에 대한 첫 강의로부터 대학원 세미나에 이르기까지 비살생 사회의 가능성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인간본성의 문제, 경제적 희소성, 성폭행 및 기타 폭력에 대한 방어의 필요성 같은 여러 비판적 이유를 근거로 반대 견해가 제시되곤 한다. 비록 그러한 반응이 문화적인 경향성을 지닐지라도, 반대 이유의 변형과 확장의 양상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그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비살생 사회가 불가능한 새로운 이유와 변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간은 힘을 추구하고 이기적이며 타인을 질투하고 잔인하며 때로는 미치기도 한다. 게다가 자기방어로서 살생은 심리학적으로 당연한 결과이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비폭력사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간은 경제적으로 탐욕스럽고 경쟁적이며, 사회적 차이와 이익의 충돌은 살생을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살생보다는 심리적 확대나 경제적 박탈 같은 것이 더 나쁜 것이므로 살생 자체를 너무 문제시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좀더 거시적으로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반대의 이유가 제기된다. 비살생 사회는 전체주의적 사회이므로 자유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비살생 사회는 외국의 침략으로 종속될지도 모른다. 비살생은 이론상으로는 영원한 정치적 원리일 수는 있으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폭력의 희생자를 구제하기 위한 살생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돼야 하기 때문이다. 범죄에 대한 처벌과 예방으로 범죄자를 죽이는 것은 사회에도 유익하다. 비살생 사회는 인류역사상 한 번도 출현한 적이 없다. 따라서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비살생 사회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수업에서 이런 견해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일부 학생들은 인간은 창의성과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비살생 사회

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보여주었다. 또 다른 학생들은 큰 사회나 세계적 규모는 안 될지라도 작은 규모의 사회에서는 비살생 사회의 조건이 충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미국의 교수와 학생들이 다른 나라의 정치학도들보다 더 폭력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비교연구가 요청될 수는 있을 것이다. 어찌됐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현재 전 세계의 정치학자들에게 비살생 사회에 대한 비관주의적 견해는 명백한 현실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미국과 다른 정치문화에 속한 사람들에게 “비살생 사회는 가능한가?” 하는 질문을 할 때, 놀랍게도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는 다른 대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전에 그런 질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비폭력 정치학에 대한 토론을 위해 1980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스웨덴 미래학자들의 모임에서 만난 어느 스웨덴 학자의 대답이다. “나는 이전에는 그런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거의 자동반사적인 거부나 동의의 의사표시가 나온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은 숙고의 필요성이 제시된 것이다. 1997년 서울에서 열린 체계이론 연구자들(systems scientists)의 한 국제모임에서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어느 학자에게서도 이와 유사한 대답을 듣게 되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응답에 필요한 적절한 과학적 기반이 부재할 때 그 질문

에 대한 그의 독특한 대답이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살펴보기 위해 회의에 참석한 다른 동료들을 방문했다. 과학과 문명은 걸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질문에 의해 진보하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979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1회 세계정치학회(DPSA) 세계총회에서 두 명의 러시아 학자들은 비폭력 정치학에 대한 소논문을 토론하면서 자진해서 “비살생 사회는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노라고 말했다. 놀랍게도 두 사람 모두 정치와 정치학의 목적은 비살생 사회의 실현이라는 사실에 동의했다. 그런데 그 중 한 명은 “그러나 비살생 정치와 정치학의 경제적 기반은 무엇이죠?”라는 질문을 한 반면, 다른 한 명은 “칠레(군사쿠데타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회주의 정권을 전복시킨 경우를 의미)나 니카라과(폭력적인 억압과 혁명), 그리고 캄부치아(백만 이상의 사람들이 혁명의 와중에서 무참하게 살해됨)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비극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죠?”라는 질문을 했다.

현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살생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과연 어떤 종류의 경제가 살생에 의존하지도 않고 또한 살생을 지지하지도 않을 수 있을까? 비살생 정치는 살인과 같은 잔학행위가 갖는 살생적 후유증을 어떻게 예방하고 제거할 수 있는가? 이 외에도 비폭력사회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진지한 과학적 조사가 필요한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우리는 인간이 천성적으로 폭력적이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

1981년에 암만에 있는 요르단대학의 아랍계 정치·행정학자들에게 비폭력 정치학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 한 교수가 모두의 견해를 대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인간이 천성적으로 폭력적이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방어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만일 “인간은 천성적으로 폭력적”이라는 주장이 일차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이는 곧 어떠한 사람도 살생을 하지 않게 되는 사회적·정치적 조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가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

1985년 히로시마대학의 평화학연구소(Institute of Peace Science)가 개최한 개소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일본 학자들은 비살생 사회에 대한 견해가 찬반이 고르게 나뉘었다. 그 세미나에 참석한 한 일본인 교육학 교수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현재로 보아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하게 될 수는 있을 것 같군요”(It is not possible, but it's possible to become possible). 이는 곧 우리가 비살생 사회가 즉시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한, 그러한 사회의 미래 실현 가능성이 사라지진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교육학 교수는 다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비살생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종류의 교육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창의적 문제

해결에 동참을 호소하는 건설적인 질문이었다.

“그것은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1987년 12월 평양에서 만난 조선사회과학협회 회장이자 정치지도자였던 한 철학 교수는 놀랍게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다음과 같이 답변해 주었다.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인간은 천성적으로 살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인간은 살생을 거부할 수 있는 ‘인식능력’, ‘이성’, ‘창조성’ 등을 부여받았다. 둘째, 인간은 물질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희소성이 살생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즉 희소성은 창의성과 생산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동등한 분배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 셋째, 강간이 비살생의 가치를 거부하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강간은 교육과 적절한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에 의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0년 2월에 콜롬비아의 마니잘레스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약 200명 가량의 지역사회 지도자들에게 “비살생 사회는 가능한가?”라고 질문했을 때, 이들은 놀랍게도 단 한명도 “아니요”라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모두가 긍정하는 “예”로 답했던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정치전통과 유사한 무장 반식민주의 혁명, 통일을 위한 내전, 국내외 적들에 대한 투쟁으로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의 폭력적 정치전통을 형성해 왔다. 마찬가지로 콜롬비아 사회역시 오랜 기간 군대, 경찰, 준군사조직, 게릴라, 직업 살인자들로 인한 살생 경험으로 몸살을 앓아 왔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북한과 콜롬비아에서의 이와 같은 긍정적 반응은 이제까지 그들이

보였던 그들의 폭력적인 역사와 대비하여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사회적 반응들

다양한 여러 집단, 국가, 문화권에서 아무런 사전토론 없이 비살생 사회의 실현 가능성 문제를 제기하면,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견해는 사회적 성향과 사회집단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1998년 5월에 리투아니아의 빌니어스에서 열린사회연구소(Open Society Institute)의 후원 하에 전 소연방국가 출신 정치학자들이 참여하는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는 새로운 정치학(new political science)에 관해 여러 학자들이 토론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비살생 사회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답변에서 8명이 “아니오”라고 답변한 반면, 1명이 “예”라고 대답했다. 1999년 3월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을 위한 정치학 세미나(Introductory Political Science Seminar)에서 19명의 응답자 중 12명이 “아니오”라는, 5명이 “예”를, 2명이 “예와 아니오”라는 대답을 선택했다. 1998년 2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일본에 본부를 둔 유엔후원재단(Japan-based Foundation for Support of the United Nations)이 조직한 태평양지역 국회의원들(Pacific Parliamentarians)의 포럼이 개최됐다. 이 모임에 참석한 응답자 중 6명이 “예”를, 5명이 “아니오”를, 2명이 “예와 아니오”를 선택했다.

1998년 11월 콜롬비아 메델린에서 열린 “교육의 미래”에 관한 전국교육자회의에서 275명이 “예”를, 25명이 “아니오”를 대답했다. 메델린 가정사회복지사들이란 단체에서는 30명이 “예,” 16명이

“아니오”라고 응답했다. 직업적인 살인자도 들어 있는 ‘조그마한 칼들’(Little Knives)이라는 폭력조직의 젊은 조직원들 가운데 16명이 “아니오,” 6명이 “예”라고 응답했다. 그들의 대답에 대한 이유를 물었더니, 한 직업적 살인자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나는 내 두 딸을 보살피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없거든요.” “예”라고 대답한 사람 중 한 명은 자신의 응답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차이가 줄어들 때, 우리는 더 이상 살인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1997년 10월 캐나다의 에드먼튼에서 마하트마 간디 재단의 후원 하에 열린 세계평화를 위한 “가치와 21세기”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고등학생 가운데 48명이 “아니오,” 25명이 “예”라고 대답했다. 1999년 4월 비폭력적 사회변화를 위한 마틴 루터 킹 센터의 후원 하에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개최된 비폭력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40명이 “예,” 3명이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2000년 2월 러시아 옴스크에 모인 17세에서 26세 사이의 분학도 중 121명이 “아니오,” 34명이 “예,” 나머지 3명이 “예 그리고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 * * * *

비살생 사회는 가능한가? 지구 곳곳에서 살생과 살생의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폭력적인 20세기 말에 정치학을 연구하는 교수와 학생들 모두가 “그러한 사회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답변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은 생각해 볼 만한 것이다. 아마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는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 더군다나 인간 생존에 대한 전혀 없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회는 확실히 가능하다”는 확신을 불어넣어 주는 정신적·과학적·제도적·경험적 자원이 전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제2장 비살생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추구할 결심만 있다면, 이제 폭력의 시대를 마감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

— David N. Daniels and Marshall F. Gilula
Department of Psychiatry, Stanford Univ., 1970

비살생 사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무릇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존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일리 있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살인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본성

비록 우리가 정신적 기반 위에서 논의를 시작할지라도 우리가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는 살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살인자이다. 이러한 사실은 특정

사회의 살인 통계숫자만 살펴보아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또 전쟁에서의 살인을 생각해 보자. 전 세계의 군사 및 각국 관련 기록을 모두 살펴 보아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이 살인을 위한 전투부대원의 다수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물론 여자도 살인을 한다. 일부는 전쟁과 혁명에 참여해 싸웠고, 심지어 일부 사회에선 여자와 아이들까지 패배한 적들에 대한 관행적인 고문과 살인에 관계해 왔다. 또 오늘날 군대에서는 살인을 위한 전투원으로 여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여성은 지금까지 전사(戰死)나 군인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부연하자면 여자는 남자의 전투 역할의 일부를 대신했을 뿐이다. 또 남자 중에서도 소수만이 전쟁에서 싸운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소수만이 직접 살인을 한다. 살인자의 대부분은 살인에 대해 거리끼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자신의 살인행위에 대해 후회를 느낀다. 아마도 그들 가운데 2%도 안 되는 소수만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반복해서 살인을 저지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다음과 같은 그로스만(David Grossman) 중령의 말은 전쟁 동안 볼 수 있는 남자 병사들의 살인에 대한 거리낌에 대해 다수가 공감하는 견해로서 인용할 수 있다. “전쟁은 참전기간에 상관없이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98%에게 신경쇠약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2%는 전쟁에 몰려 미친 게 아니라 전쟁터에 오기 전에 이미 미쳐 있던 공격적인 정신병자들이다”(Grossman 1995: 50). 인간은 타고난 살인자라는 기존 정치학의 가정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군사훈련의 주요 임무는 “평범한 개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은 살인에 대한 저항감을 극복하는 것이다”(295).

우리의 가정 또한 비살생의 가능성을 입증해 주는 증거이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타고난 살인자라면 또 인간의 절반이 불가피하게 살인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려 하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와 같은 살인사건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살생성향이 인간의 운명을 통제하는 자연법칙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인간의 살생성향이 자연법칙이라면, 세계인구는 오래전에 멸종이라는 수렁 속으로 빨려 들어갔을 것이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끔찍할 정도의 물질적 박탈과 남용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은 이전에 볼 수 없던 놀라운 규모로 수많은 인간생명을 창조하고 또 지탱해 왔다.

어떤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인간의 지속적인 노력들과 관련하여 그 동안 인간이 보여주었던 재능과 가능성에 도전하는 지구적 차원의 비살생 사회 구현이라는 과제는 우선 이제껏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인자였으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인자가 아니었는가를 따져 보는 것을 필요로 한다. 기원전 100만 년부터 서기 2,000년까지 그 동안 살아왔던 세계의 총인구수는 추정치로 약 911억 명이다(Keyfitz 1966와 Weeks 1996: 37의 연구결과를 결합한 것으로 Ramsey가 1999년에 재계산한 수치이다). 만일 우리가 럼멜이 도출해 낸 '전쟁과 민중학살로 인한 사망자수'를 약 5억 명 가량으로 좀더 부풀려 생각하고, 사실은 아닐지라도 각 사망자가 각기 한 사람의 살인자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아울러 럼멜이 고려하지 못했던 사망자수를 추정하기 위해 다소 자의적이긴 하지만 이들 사망자의 수에 6을 곱한다면, 우리

는 기원전 1000년 이래 30억 명이나 되는 살인자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조작화되지 않은 살인의 수치이전 부풀려진 수치이전 간에 이들이 의미하는 것은 적어도 인류역사상 95%의 사람들은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가령 미국의 살인율이 10만 명 당 10명이라면, 미국 인구의 0.01%만이 매년 살인을 하는 셈이 된다. 또 심각한 폭행을 자행하는 사람이 10만 명 당 500명이라면 단지 0.5%의 미국인이 0.01%의 살인자에 더해질 수 있을 뿐이다. 즉 실제 살인이나 살인미수에 그친 범죄행위는 미국 인구의 0.51%만이 저지르는 셈이다. 아마도 모든 인간 중 2%, 어쩌면 1%도 안 되는 사람만이 같은 인간을 죽이는 살인자였을 것이다. 물론 특정한 사회에서 살인자의 비율은 문화와 시대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을 것이다(Keeley 1996).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고려한다면 인간의 본성은 살생적 성향보다는 생명력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정신적 부리

살생 없는 사회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의 근거는 인류의 정신적 전통 안에 존재한다. 여러 종교가 작게는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로부터 크게는 민중학살이나 핵폭탄에 의한 인간 말살에 이르기까지 끔찍한 살인행위를 정당화해 왔던 것이 사실일지라도, 신의 주된 메시지는—그 신이 어떤 신이든 간에—“오,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를 죽여라!”와 같은 부서운 저주라기보다는 오히려 “생명을 존중하라! 타인을 죽이지 말라!”와 같은 것이었다.

살생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은 세계의 모든 종교가 공유하고 있다. 막스 베버는 인간의 정신적 행동이 살인을 지시하는 정치적 명령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자이나교와 힌두교는 “비폭력이 삶의 최고 준칙이다”(ahimsa paramo dharma)는 가르침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생명을 빼앗는 것을 삼가라는 것을 첫 번째 계율로 삼고 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 “너는 살인을 하지 말지어다”(출애굽기 20: 13)라는 율법을 공유하고 있다. 가장 오래된 유대인의 가르침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면,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한 것과 같다. 그러나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이가 있다면, 그는 세상을 멸망시킨 것과 마찬가지다”(Eisendrath: 144). 비록 한계가 있을지라도 이러한 가르침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문구로 이슬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살인자와 부패를 퍼뜨린 자에 대한 처벌로 행해진 살인행위는 예외이겠지만, 누구든 한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은 모든 인류의 생명을 죽이는 것과 같다. 누구라도 한 생명을 살린다면, 이는 전 인류를 살리는 것이다”(Al-Qur'an 5: 32).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의 가르침을 통합한 바하이(Baha'i) 신앙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고 있다. “신을 두려워하라. 오, 인간들이여, 그가 누구든 그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을 삼가라”(Baha'u'llah 1983: 277).

인도주의적 전통 역시 비살생 사회가 바람직하고 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유교에서는 정치적 지배자 사이에 도덕성이 널리 확립돼 있으면 사형제도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Fung 1952: 60). 도교에서는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순박하고 자발적인 삶을 살 때, 비록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그 무기

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Ring 1952: 190). 현대 사회주의 사상에 따르면 노동자가 서로를 죽이는 것에 찬성하지 않고 이를 거부할 때 전쟁은 그칠 것이다. 다음의 주장은 1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전선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다.

전 세계의 모든 지각 있는 산업노동자들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인간의 피를 흘리는 것에 반대한다. 이는 웨이커교도와 우정협회(Friendly Societies)가 표방하는 것처럼 종교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전 세계 노동계급의 이익과 복지가 동일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가 독일의 제정(帝政) 자본주의 정부에 결사적으로 반대할지라도, 어떤 나라이건 그 국적에 상관없이 노동자를 학살하거나 상처를 입히는 것에는 반대한다(True 1995: 49. 보다 용기 있는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Baxter 2000 참조).

현재 세계의 모든 사회에서 살인은 용납되지 않는다. 생명에 대한 인도주의적 존중은 생명에 대한 종교적 숭배와 다르 없다.

세계의 정신적·인도주의적 전통 속에 비살생의 윤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비살생 사회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비살생의 윤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간 의식 속에 생명에 대한 심오한 존중감을 불러넣어 주는 신성한 의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원칙을 받아들이고 창조하고 그에 반응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만일 인간이 정말로 구제 불능의 살인자라면, 인간은 그러한 비살생의 윤리를 받아들일 수도 전과할 수도 또 만들어낼 수도 없을 것이다. 비록 비살생의 정신윤리가 혁명을 저지하려는

엘리트나 억압자를 약화시키려는 피억압자들, 또는 보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살인자들에 의해 고안된 것일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윤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발견할 수 있다.

비살생 정신은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유혈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이든 이후든 언제나 존재해 왔다. 이러한 비살생 정신의 표현은 살인자들이 만들어 낸 단순한 사치가 아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남아 살생의 영향력에서 인간을 해방시켜 주는 자극제로 기능해 오고 있다. 즉 십자군원정의 기독교정신, 이슬람 정복, 유대인 대학살, 군국주의적 불교정신, 일부 민족의 식민주의적 전통 같은 살생의 기념비적 유산에 물든 이후의 세계에서 비살생의 정신은 인간이 살생에서 벗어나도록 끊임없이 고무해 왔다. 최악의 살생의 세기였던 20세기에도 각 종교와 신념을 대변하면서 톨스토이, 마르틴 루터 킹 2세, 간디, 압둘 칸(Abdul Ghaffar Khan), 조셉 아빌레아(Joseph Abileah), 달라이 라마, 페트라 켈리(Petra Kelly) 등 수많은 용감한 사람들이 비살생 정신을 지켜 왔다.

이들 각자의 신념 속에 깃든 비살생 정신과 비살생 원칙에 근거한 헌신의 예는 수십억 인류가 자각과 긍정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다. 비살생의 의무와 살생에 대한 책임의식 사이의 조화될 수 없는 긴장은 개인적·사회적 수준에서 비살생 성향으로 변하는 동기를 창출했다. 비살생이 각각의 정신적·종교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인류의 정신문화 유산은 보리수나무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복잡한 뿌리와 같다. 호홉과 자양분은 전체 뿌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나무의 어떤 부분으로부터든 흡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생명력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종교와 인도주

의적 신념 안에 내포돼 있는 생명존중 사상 역시 인류의 정신문화라는 뿌리 시스템에 의해 자양분을 받으면서 존속해 온 하나의 실체이며, 이것은 비살생 세계가 가능하다는 확신의 강한 정신적 기반이 된다.

과학적 뿌리

“종교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비폭력 세계를 성취할 수 없다.” 이것은 인도 최고 종교지도자의 한 사람이자 고대 자이나교의 비폭력(ahimsa)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한 마하프라기아(Acharya Mahapragya)의 말이다. 자이나교 사상에서 “비폭력은 모든 생명현상의 중심이며, 모든 신성한 가르침의 핵심이다. 모든 서원(誓願)과 미덕의 절정이자 요체이다”(Jain and Varri 1993: 139). 마하프라기야에게 있어 비폭력사회를 실현하는 방법은 개인에게 그 자신 안에 내재하는 비폭력성을 인식할 힘을 부여하고, 현대의 신경과학과 정신적 진리를 결합시킴으로써 각 사람에게 비폭력을 사회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주는 것이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폭력이란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분비선에 의해 생산된 감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폭력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연관이 있다. 더욱이 우리는 신경계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고 뇌에너지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단순한 명상훈련을 통해 우리 내부에 비폭력성을 배양하고 비폭력적인 사회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Mahaprajna(sic) 1987 and 1994; Zaveri and Kumar 1992).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에서 인간이 비살생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인가? 과학

이란 넓은 의미로 문제제기와 실험에 의해 획득된 모든 형태의 지식—사실, 이론, 신뢰성과 타당성의 결정방법—을 의미한다. 과학혁명이란 모두가 당연시하는 생각에 대한 철학자의 의문과 함께 시작된다.

비폭력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의 변화가 있었다. 즉 리차드 콘라드(A. Richard Konrad 1974)가 살생이야말로 강간과 대학살에 이르는 폭력문제를 감당하는 유일한 효력 있는 처방이라는 기존의 가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른바 비폭력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콘라드의 주장에 의하면, 폭력적인 문제해결 방법은 ① 모든 비폭력적 대안이 확인되었다, ② 모든 대안이 시도되었다, ③ 그러나 모든 대안이 실패했다는 세 가지 가정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가정을 지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비폭력적 문제해결 대안은 무한하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확인되지 못한 대안은 여전히 무궁무진하며, 시간, 자원, 그리고 다른 요인의 실질적인 제한으로 인해 확인된 대안을 모두 시도해 볼 수 없는 상황이므로, 모든 대안이 시도되었다는 것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폭력적 대안만이 살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에 공감할 수 없다. 결국 콘라드는 폭력을 용인하는 철학적 경향에서 비폭력적인 대안을 창출하고 시험하려는 철학적 경향으로 이동할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결국 인간이 살생적 성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에 의문을 던지는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를 창출해 낼 것이다(Yoder 1983 참조 바람).

또한 인간은 동물적 본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살인자일 수밖에 없다는 가정도 의문시되고 있다. 틀레인대학의 심리학자 로 쉐 차

이(Loh Tseng Tsai 1963)는 쥐와 고양이가 같은 접시에서 평화롭게 먹이를 먹도록 가르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유효한 조작화와 사회적 학습의 조합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 처음에 유리 칸막이로 분리돼 있을 때 쥐와 고양이는 그들이 동시에 같은 방향의 지렛대를 눌러야만 먹이가 공동의 밥그릇으로 굴러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700번 이상 훈련한 뒤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칸막이가 제거될 수 있었다.

차이(Tsai)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과학사상 처음으로 실험을 통해 이른바 친적이라 불리는 고양이와 쥐가 협력할 수 있으며 또 실제로 협력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 발견은 동물의 본성 안에 싸움이나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뿌리 깊은 호전적 본능이 있다는 전통적 도그마를 심리학에서 축출할 것이다(1963: 4).

차이(Tsai)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연구가 세계평화의 이론적 가능성에 대한 생물학적 토대의 초석을 놓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경쟁적 살생의 본능을 불가피한 것으로 가정하는 견해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고 과학에 기반을 두는 ‘상호협력을 통한 생존의 철학’을 고무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분야인 물리학과 과학사를 함께 연구한 안토니오 드라고(Antonino Drago)는 갈등해결에 대한 데카르트 역학과 뉴턴 역학의 대립이 지닌 함의를 대조적으로 비교·분석한 다음, 갈등해결의 한 방법으로 결국은 과학에 기반을 둔 초월적 협력(transcendent cooperation)을 권고했다(Drago 1994). 이러한 견해는 심리치료사인 제롬 프랭크(Jerome D. Frank)의 주장에

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는 치명적인 적대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호혜적인 공통의 목적을 향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Frank 1960: 261-2; 1993: 204-5).

인간의 살생 성향이 ‘살생하는 유인원’(killer ape)으로서 인간이란 종이 점진적으로 진화해 온 결과라는 가설에 대한 도전은, 살생을 저지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영장류인 중앙아프리카의 피그미 침팬지 보노보(Bonobo)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가 밝혀지면서 부터 시도되었다(Kano 1990). 콩고의 만간두족(Mangandu)은 보노보와 열대삼림을 공유하면서 보노보를 죽이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 만간두족의 조상과 보노보가 친족으로 함께 살았다는 전설 때문이다(Kano 1990: 62). 살생을 저지르는 고릴라나 침팬지, 그리고 유전적으로 인간과 거의 동일한 영장류의 하나인 보노보는 아직까지 서로를 죽이는 일이 목격된 적이 없다(Wrangham and Peterson 1990; Waal 1997). 더욱이 살생을 저지르는 영장류 사이의 ‘화해’와 ‘호혜적 이타주의’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진화하는 인간 본성에서 비살생 가능성을 무시한 채 단지 살생적 성향만을 강조하는 기존의 연구경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Waal 1989; 1996). 최근의 연구를 통해 동물의 본성에도 평화적인 속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에도 협력적이고 이타적이며 밝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 크로포트킨(1914), 소로킨(1954), 콘(1990)의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동물행동학과 인류학을 전공하는 에이블-에이베스펠트(Irenaus Eibl-Eibesfeldt 1974: 240-1)는 동물과 인간의 공격행위에 대한 비교연구에서 살생을 하지 않으려는 정신적 명령의 생물학적 근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많은 동물 종(種)에 있어 같은 종족 내

에서 이루어지는 특정한 공격행위는 매우 의식화(儀式化)돼 있어, 이런 공격행위가 물리적인 상처로 귀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서 유혈사태를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정교한 기술들을 찾아냈다. 그의 결론에 따르면, 어느 정도까지는 생물학적 규범필터가 “너는 살생을 하지 말라”와 같은 계율을 규범화한다. 그러나 인간은 문화적인 의사종분화(擬似種分化, cultural pseudospeciation) 과정에서 생물학적 규범필터 위에 살생을 명령하는 문화적 규범 필터를 겹쳐 놓는바, 바로 이러한 과정이 인간으로 하여금 살생을 못하게 금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전쟁 상황에서 겪게 되는 규범의 갈등으로 이어진다. 즉, 전쟁에서 인간이 상대편 적을 자신과 같은 인간으로 인식하고 대면하는 순간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규범적 갈등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살생을 저지른 군인이 살생 후 종교적 면죄부와 사회적 승인을 갈망하는 것을 통해 입증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에이블-에이베스펠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그로스만의 연구결과에 의해 확인된다. 그로스만에 따르면, “역사를 살펴볼 때 전쟁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나 친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Grossman 1995: 4). 그로스만은 살인해 보지 않은 군인보다 직접적인 살인 경험을 가진 군인 사이에서 정신병 같은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군인·심리학자와 동물행동학자·인류학자는 단지 그들의 연구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에서만 차이를 보인다. 즉 군인·심리학자들의 경우 군인의 살생에 대한 저항감을 극복할 수 있는 전문적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직업적 소임인 반면, 동물학자·인류학자들에게 중요한 과제는 문화를 비살생 인간생물학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에이블-에이베스펠트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평화에 대한 보편적 갈망의 근원에는 이와 같은 문화적 규범과 생물학적 규범 사이의 갈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인간으로 하여금 생물학적 규범필터와 문화적 규범필터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바람을 갖게 한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희망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희망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인도된 진보는 우리를 평화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전쟁이 피를 흘리지 않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1979: 241).

뇌과학(腦科學) 또한 인간의 비살생 잠재력에 대한 확신을 지지하고 있다. 신경과학 분야의 선구자 모턴(Bruce E. Morton 2000)은 자신의 접근방법을 ‘신경사실주의’(neurorealism)라는 용어로 규정하면서, 인간행동의 편측성(behavioral laterality: 대뇌, 손 따위와 같은 좌우 한 쌍으로 이루어진 기관 사이의 기능분화 현상)을 설명하는 이원적 4뇌 모델(dual quad-brain model)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델은 살생과 비살생 모두를 신경생물학적 원리로 설명하고 있다. 인간의 뇌는 본능을 담당하는 뇌의 핵심 시스템, 감정을 담당하는 대뇌변연계(邊緣系) 시스템, 상상력과 지성을 담당하는 좌·우반구 시스템, 그리고 직관(直觀)을 담당하는 신소뇌(新小腦)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단일 4중 시스템(single tetrad system)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뇌는 두 가지 방식으로 기능한다. 모턴은 높은 수준의 정신적·사회적 의식은 직관을 담당하는 신소뇌 시스템에 근원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

러한 ‘더 높은 근원’은 진실하며, 창의적이며, 자기 통제적이며, 이타적이며, 협력적이며, 감정이입적이며, 비폭력적이다. 아울러 이러한 ‘더 높은 근원’은 집단의 장기적 생존을 가능케 하며, 모두에게 이해되기 쉬운 ‘뇌 현상’이다. 이런 근원은 죽음에 가까운 정신적 고뇌나 환각성 약물 혹은 명상 같은 세 가지 방식을 통해 인식될 수 있다.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이와 같이 ‘더 높은 근원’은 비폭력적 공동체사회 건설을 위한 시너지효과를 촉진한다. 특히 생존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을 없애는 데는 이러한 ‘더 높은 근원’이 기여하며, 동시에 생존에 대한 위협이 사라짐으로써 사람들은 많은 이익을 얻는다.

따라서 ‘신경사실주의적 뇌과학’은 살생에 대한 생물학적 거부감과 비살생 정신에 완전히 조화되는 비살생적 현신과 사회적 변화를 위한 과학적 기반을 제공해 준다. 또 이러한 뇌 관련 연구는 “위대한 종교적 스승의 임무는 외부로부터 신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신성(神性)을 끌어내는 것을 돕는 것”이라는 힌두교 신자(信者) 비베카난다(Vivekananda)의 통찰과도 일치한다. 아울러 “신(神)의 왕국은 네 안에 있다”(Tolstoy 1974)는 기독교 신자 톨스토이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제 15세기 인도의 신비주의자 카비르(Kabir)의 통찰을 생각해 보자.

신은 두 눈 사이에 있다.

신의 사자(使者)가 네 안에 존재한다.

왜 마깅에 있는 눈을 뜨고 그를 찾는가?

(Sethi 1984: 56-7)

그러나 뇌의 생물학적 기능장애가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가? 비록 인간의 살생적 성향이 생물학적으로 유도되거나 어떤 조건이나 문화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지라도, 인간의 과학적 재능은 병리적 살인자들을 도와 그들로 하여금 충동적 살인행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할 것을 기약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다른 인간적 특성들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가능한 것이다. 요컨대 현대의 신경과학과 유전학, 기타 여러 생명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이 비록 불규칙한 생물학적 장애로 살생을 저지를 수 있을지라도, 인간 본성 안에 불가피한 살생적 성향이 들어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이와 관련한 개척자적인 연구사례가 바로 발전신경심리학자 제임스 프레스코트(James W. Prescott)와 신경정신분석학자 로버트 히스(Robert G. Heath)가 함께 수행한 기초 응용연구이다(Restak 1979: 118-33). 이들은 개인이 지닌 살생 강박관념을 감정작용과 신체활동을 담당하는 뇌의 여러 부분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전기회로(패락통로)의 손상과 연관시켜 설명하는 이론적 작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동물의 경우 순환계통의 정신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는 성장과정에서 신체적 운동의 정도와 관련돼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어린 침팬지의 머리를 고정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사육하면서 침팬지를 회전 의자에 앉히고 빙빙 돌리면서 이 가설을 검증했다. 그 결과 이들은 활동이 제약된 침팬지는 보다 공격적이고 활동이 자유로운 침팬지는 보다 사회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은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살인범을 치료하는 데 이 가설을 적용하며 연구했다. 어떤 사람이 언어장애와 살인충동이 일어날 때, 이런

충동을 제거하기 위해 쾌락경로를 작동시켜 그런 충동을 통제하게 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치료행위들을 통해 ‘범죄 가능성이 있는 정신이상자’로 진단이 내려진 사람의 경우,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의 독방 감금생활 이후 즉각적으로 마음의 안정을 경험했고, 또 다른 사람은 살인과 자살충동이 점진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경험했다. 물론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 예컨대 소년이 파괴된 어떤 환자는 가위로 간호원을 죽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획기적인 치료절차의 성공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생물학적 비관주의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기술적 혁신을 획기적으로 고무하고 있다.

비살생에 대한 낙관주의를 가능케 하는 확고한 기반은—정치적 비관주의와 아주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는—마르틴 루터 킹 2세와 상원의원 로버트 케네디의 암살을 계기로 미국에서 폭력의 위기를 연구하는 특별위원회를 조직한 23명의 스탠포드대학교 정신치료학자들이 내린 결론에서 발견된다(Daniels, Gillula, and Ochberg, 1970). 다니엘스와 기룰라는 생물학, 심리동학(psychodynamics), 환경, 걱정, 집단 간 갈등, 대중매체, 화염방사기, 정신질병, 마약 남용, 그 밖의 다른 요인과 관련한 폭력과 과격성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우리가 폭력에 대한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을 찾기로 확고하게 결심만 한다면 우리는 폭력시대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될 것이다”(필사 강조)(441).

심리치료학자인 조지 솔로몬(George F. Solomon 1970)이 제시한 살인에 대한 사례연구는 하릴없이 ‘인간본성’을 언급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인간의 살인행위를 일단은 제대로 이해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 예컨대 길으로 보기에 감정이라고

는 전혀 없이 여자들을 마구 쏘아 죽인 어느 권총 살인자의 경우 그의 사회화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돼 있었다. 도박하는 아버지의 무관심, 알코올 중독자이면서 성생활이 문란한 어머니의 유혹, 총에 대한 매력, 그리고 근친상간 범죄의 ‘가혹한 이미지’를 없애 버리는 마약 남용. 또 다른 경우로 전처(前妻)의 남편을 죽인 살인혐의자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포함되어 있다. 빈곤, 어머니를 구타하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 아버지의 머리를 한 차례 때린 후의 짜릿한 경험, 어머니의 조롱, 그의 누이들에 의한 구타, 해병대에서 최초의 하사관이 된 것, 갈보집에서 만난 매춘부와의 결혼과 그녀가 낳은 두 아이의 아버지, 그녀에 대한 폭행과 그가 해외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을 당시 그녀의 부정을 발견하고 난 후의 손목 절단, 38구경 총을 가지고 그녀를 위협한 것, 그리고 그가 아이의 부양과 방문의 권리를 둘러싸고 거실에서 말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그녀의 새로운 남편을 죽이는 데 사용한 그의 군용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나는 정신치료학자로서 인간행위는 얼마든지 교정될 수 있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 예방과 치료에서 우리의 실패는 무지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무지와 실패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한 보다 심화된 후속 연구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원칙의 실천 부족, 새롭게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여, 그리고 폭력 지향적인 개인의 내재적인 “불치성”(incurability) 이상으로 강한 사회적 탈선행위에 대한 복수심. 인간의 성장과 치유에 대한 인간의 능력은 대단한 것이며, 희망컨대 인간의 폭력적 성향은 중단될 수 있을 것이다(387).

인류학에서 폭력과 공격성에 대한 일상화된 강조와는 대조적으로 비폭력과 평화에 대한 인간의 능력을 이해하고자 하는 새로운 관심은 비살생 사회가 불가능하다는 가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여러 가지 지식을 산출하고 있다(Sponsel and Gregor 1994b; Sponsel 1996). 레슬리 스포설(Leslie E. Sponsel)이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폭력의 평화로운 사회는—이런 사회가 실제로 드물기 때문이 아니라 비폭력과 평화가 연구나 매체, 그 밖의 다른 영역에서 좀처럼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드문 것처럼 보인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인다. “폭력과 전쟁의 특징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만큼 비폭력과 평화의 특성, 조건, 원인, 기능, 과정, 그리고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Sponsel 1994a: 18-9).

사람 속에 살생 성향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흘스의 가정에 대한 학문적 차원의 문제제기는 피에로 지오르기(Piero Giorgi 1999)와 덴넨(J.M.G. van der Dennen, 1990;1995)에 의해 시도되었다. 지난세기 동안 인종학 관련 문헌에 기록된 5만 유형에 이르는 원시종족들의 전쟁과 반목에 대한 여러 실증적 자료를 검토하는 가운데 덴넨은 단지 2천 종족집단에서만 그러한 살생적 성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머지 종족집단에서는 ‘호전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반드시 그들의 평화로운 성격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덴넨은 인간의 호전성에 대한 보편적 가정을 교조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경계하고 있다(1990: 257, 259, 264-9). 그는 토착 원주민에서 주니족(Zuni)에 이르기까지 395명의 ‘전쟁을 매우 혐오하는’ 사람들에 대한 민족학적 증거들을 언급하고 있다(1995: 595-619).

인류학 문헌을 검토하면서 브루스 본타(Bruce D. Bonta 1993)는 인

간에게 ‘평화능력’(human capacities for peacefulness)이 있음을 보여주는 47개의 사회를 발견해 냈다.

평화로운이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호 조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어른들 속애, 어른과 아이 사이에, 그리고 이성 사이에 물리적 비폭력의 경험이 갈등을 해결하고 폭력을 회피하기 위한 유효한 전략을 발전시킴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예컨대 전쟁과 같은) 폭력을 피하는 데 헌신하고 그들의 아이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방식을 채택하도록 양육하고, 그리고 그들 자신을 평화로운 존재로 강하게 인식하는 삶의 조건으로 정의된다(4).

본타는 다음과 같은 종족집단 속에서 인간은 평화로운 존재임을 증거하는 사례들을 발견했다. 아미쉬족(Amish), 재세례교 교도(Anabaptists), 발리 사람(Balinese), 바타크족(Batak), 비호르족(Birthor), 형제단(Brethren), 부이드족(Buid: 필리핀 정글에서 사는 종족), 취옹족(Chewong: 말레이시아 열대우림 지대에 사는 종족), 두호보르파(Doukhobors: 러시아 사회주의에 반대한 기독교 세력), 피파족(Fipa), 포레족(Fore), 지위족(Giwi), 후터파(Hutterites), 이팔루크(Ifaluk: 미크로네시아의 원주민 종족), 이누이트족(Inuit), 자이나교도(Jains), 카다르족(Kadar), 쿡족(Kung), 라다크족(Ladakhis: 트랜스히말라야의 라다크에 사는 종족), 렵차족(Lepchas: 히말라야 산지에 사는 종족), 말라판다람(Malapandaram), 음부티족(Mbuti: 피그미족의 일파), 메논파(Mennonites), 몬테그네 나스카피(Montagnais-Naskapi), 모라비아교도(Moravians), 나야카족(Nayaka), 누비아족(Nubians: 아스완댐 남쪽 협곡에 거주하는 종족), 옹즈(Onge), 오랑아슬리족(Orang Asli: 토착 말레이인), 팔리족

(Paliyan: 카메룬에 거주하는 종족), 피아로이족(Piaroa: 베네수엘라에 거주하는 종족), 퀘이커교도(Quakers), 북아일랜드 농촌지역(Rural Northern Irish), 태국농촌지역(Rural Thai), 산족(San), 사노폴리(Sampoli), 살트(Salteaux), 세마이(Semai), 타히티인(Tahitians), 탕카족(Tanka), 테미아르(Temiar), 토라자인(Toraja: 인도네시아 토라자 지역에 거주하는 종족), 트리스탄 아일랜드 사람들(Tristan Islanders), 와우라족(Waura), 야나디족(Yanadi), 자포텍족(Zapotec: 멕시코 남부 오악사카주에 사는 인디언의 한 종족), 주니족(Zuni: 애리조나주 북동부에 사는 아메리칸 인디언). 본타(1996)는 이런 종족집단 중 24개 집단의 갈등해결에 관한 심층연구를 추진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성공적이었던 이러한 종족집단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서구 학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주장되었던 갈등과 갈등해결에 관한 다음과 같은 생각에 대해 비판적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즉 폭력적 갈등은 모든 사회에서 필연적이다. 형벌과 무력이 내외의 폭력을 예방한다. 정치 구조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다. 갈등은 긍정적이고 필요한 것으로 간주돼야 한다.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내용에 대한 경험적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또 이상과 같은 생각과 상반되는 증거로 앞서 조사했던 평화로운 사회의 절반 이상이 폭력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추방의 위협을 제외하고는) 좀처럼 성인을 형벌로 다스리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내부갈등을 평화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외부사회와의 갈등을 다스린다. 그들은 내부적인 분쟁에 휘말려 있을 때에도 외국 정부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갈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403).

그리고 인류학 분야에서 자주 발견되는 사실은 한 사회의 폭력성의 정도를 구별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어린이들의 사회화와 지역공동체의 자기정체성이 중요하다는 점이다(Fabro 1978). 이러한 사실은 사회경제적 특성은 비슷하지만 폭력의 정도 면에서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멕시코 자포텍족(Zapotec)이 사는 두 마을에 대한 프라이(Douglas P. Fry)의 비교연구에서 잘 드러난다. 살인이 드문 평화로운 라파즈 마을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서로 존중하고 평화롭고 질투심이 없으며, 서로 협력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140). 그러나 근처에 있는 폭력적인 상앙드레 마을에는 “폭력을 묵과하는 폭넓은 신념체계 혹은 가치관이 존재한다”(141). 즉 여성에 대한 존중의 부족, 아내 구타, 아이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 불순종하는 아이들, 육설, 술에 취한 말다툼, 성적 라이벌 의식에서 비롯된 살인, 반목, 그리고 보복 등과 같은 것이다. 물질적이고 구조적인 조건이 상당히 동일한 가운데 상앙드레 마을의 살인율은 1,000명당 18.1명이지만, 라파즈 마을은 1,000명당 3.4명이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우리는 폭력을 관용하는 성향과 공동사회의 규범에 대한 비판주의는 살생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비폭력에 대한 믿음과 비폭력의 가치는 곧 비살생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인간이 비살생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확신에 대한 학문적 지지는 동물행동학, 행동유전학, 생물학적 인류학, 종족학(ethology), 신경심리학, 신체인류학(physical anthropology), 정치심리학, 심리치료학, 정신생물학, 심리학, 사회심리학, 그리고 사회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 종사하는 국제적인 전문가 집단에 의해 1986년 5월 16일 스페인 세비어에서 공표된 “폭력에 관한 성명서”(Statement on

Violence)로 구체화되었다.² 이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우리가 우리의 동물 조상들(animal ancestors)로부터 전쟁 성향을 물려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옳지 않다.…… 전쟁이나 혹은 다른 형태의 폭력행위가 유전적으로 우리 인간본성에 프로그래밍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옳지 않다.……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유형의 행동보다 공격적 행동의 선택이 이루어졌고 또 지속되어 왔다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옳지 않다.…… 인간이 ‘폭력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옳지 않다.…… 전쟁이 사람의 ‘본능’이나 ‘다른 어떤 단일한 동기’에 의해 유발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옳지 않다.

또 세비어에 모였던 학자들은 스탠포드 정신치료학자들이 견지했던 비살생에 대한 낙관주의와 부합하는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생물학이 인류를 경멸하여 전쟁으로 내몰지는 않을 것이며, 또 인류는 생물학적 비관주의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인 평화의 해(International Year of Peace)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요구되는 변혁적 소임(transformative tasks)을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 주었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일이 비록 제도적이고 집단적이라 할지라도, 각 개인들의 의식이 비관주의적이거나 낙관주의적이냐에 따라 다른 것이다. “전쟁이 인간의 정신에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화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한다. 전쟁을 발명한 인간이라는 좋은 평화도 발명한 수 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우리 자신 각각에게 있다(Adams 1989: 120-1; 1997).

1939년 8월 2일 아인슈타인은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당시 핵물리학은 새로운 형태의 초강력 폭탄의 발명이 가능한 수준까지 발전했음을 알리는 편지를 썼다(Nathan and Norden, 1968: 295). 그 결과 핵무기개발자문위원회의가 구성되었고, 미연방정부는 6천만 달러를 초기에 투자했다. 그 후 수백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는 맨해튼프로젝트가 확정되었으며, 곧이어 세계 최초로 우라늄탄과 폴라늄탄이 개발되어 이후 6년간 사용되었다. 그리고 인간이 비살생적 자기변화를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비폭력 능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충분한 사례가 계속 발굴되기 시작한 것은 60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다 1963년 이래 미국에서 인류학, 교육학, 역사, 언어, 그리고 문학, 철학, 심리학, 정치학, 종교, 사회학, 언론, 그리고 신학 같은 여러 학문분야에서 비폭력에 관한 연구를 시도한 백 권 이상의 박사학위 논문이 나왔다(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1963-).

비영어권 국가인 인도 같은 나라나 학회에서 제시된 논문, 책과 학제적 심포지엄(Kool 1990; 1993), 선구자적인 종합분석(Gregg 1966), 학술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Nonviolence* 1993), 비폭력 행동에 관한 주요 참고문헌 조사(McCarthy and Sharp 1997),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출처에서 완성된 연구를 포함시키면, 비폭력에 관한 정보와 문헌이 ‘평화’와 ‘갈등해결’에 관한 문헌과 함께 점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폭력 지식의 잠재력은 1939년의 원자물리학과 비교할 만하다.

사회적으로 아주 뚜렷한 현상—비살생 능력

현대 사회학의 창시자인 뒤르껼(Emile Durkheim, 1858~1917)은 이론적 흥미를 유발하는 문제제기와 관련해 사회생활에서 자주 관찰되는 ‘아주 뚜렷한 현상들’(salient outcroppings)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제기는 노스웨스턴대학 정치학과 대학원생에게 실험실에서 한 여러 가지 실험과 유사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실험’을 꼼꼼히 관찰해 볼 것을 가르친 미국 사회심리학자 도널드 캠펠(Donald T. Campbell)에 의해서도 시도되었다(Paige 1971). 정치학은 실천과정(practice)에 대한 관찰로부터 이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가령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무자비한 통치자인 세자르 보르지아(Cesare Borgia)를 관찰하여 그의 통치기술에 대한 세련된 이론적 탐구를 시도한 것처럼—과거의 역사와 현대대의 경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관찰되는 비살생 행위의 여러 사례는 비폭력적 사회변화의 가능성을 인식하는 데 각별한 의미가 있다.

비살생 능력을 뚜렷하게 표출한 사례로는 공공정책, 제도, 문화적 표현, 비폭력 정치투쟁, 역사적 사례, 그리고 비살생에 헌신한 개인들이 있다.

공공정책 비살생 사회 실현을 지향하는 정치적 결정의 뚜렷한 사례는 사형을 철회한 국가, 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 그리고 군복무에서 살인에 대한 양심적 반대의 권리를 인정하는 국가에서 발견된다. 2000년 4월까지 전 세계 195개의 나라와 영토 중에서 73개국 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표 2)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73)

안도라	그리스	노르웨이
앙골라	기니에-비사우	팔라우
오스트레일리아	아이티	파나마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파라과이
아제르바이잔	헝가리	폴란드
벨기에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불가리아	아일랜드	루마니아
캄보디아	이탈리아	산마리노
캐나다	키리바시	상투메 프린시페
카보베르데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코스타리카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솔로몬제도
체코	마셜	남아프리카
덴마크	모리셔스	스페인
지부티	미크로네시아	스웨덴
도미니카공화국	몰도바	스위스
동티모르	모나코	투르크메니스탄
에콰도르	모잠비크	투발루
에스토니아	나미비아	우크라이나
핀란드	네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우루과이
조지아	뉴질랜드	바누아투
독일	니카라과	바티칸시국
		베네수엘라

출처: *Amnesty International*, April 2000.

사형을 완전히 폐지한 각각의 사례는 학문적으로나 공공정책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왜, 어떻게, 그리고 언제 각국 정부는 살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는가? 왜 어떤 나라와 문화권, 그리고 지역은 당당하게 사형제도를 폐지했고, 그 밖의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과거 각종 혁신정책과 그 확산이 있었던 어떠한 역사적 과정이 현재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비폭력적 변화의 사례가 미래 세계에 살생 없는 사회를 보편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비전에 대해 지니는 함의는 무엇인가?

사형제도를 완벽하게 폐지한 나라 외에 14개 국가에서는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은 폐지했지만, 개엄령이나 전쟁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라질, 이스라엘, 멕시코, 남아프리카, 영국). 그런가 하면 23개 국가는 법이 사형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지난 10년 이상 어느 누구에게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예를 들면 알바니아, 브루나이, 다루살람, 콩고, 파푸아뉴기니, 세네갈, 스리랑카, 터키, 남사모아). 그리고 91개 국가가 법에서 사형을 허용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살인을 하고 있다(여기에는 중국,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미국 등이 포함된다). 미국의 경우 연방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허용하고 있지만, 50개 주 중에서 알래스카, 하와이, 아이오와, 메인, 매사추세츠, 미시건, 미네소타, 노스다코타,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서버지니아, 위스콘신 등 12개 주와 워싱턴 D.C.는 사형제를 폐지했다.

사형제도를 거부했다가 다시 도입하는 소동이 계속되는 중에도 폭력의 전통에서 뛰쳐나오는 정부가 사형제도 폐지를 감행하는 지구적 트렌드가 비살생 사회가 성취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강화시켜 주고 있다. 시민을 죽이는 악행이 루소가 주창했던 ‘사회계약(social contract)의 일부일 필요도 없으며, 막스 베버가 처방했던 ‘양도할 수 없는 정치의 속성’(an inalienable attribute of politics)

일 필요도 없다.

또한 2001년에 군대가 없는 나라가 27개국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자. 이들 국가는 쿡아일랜드, 니우에, 바티칸시티를 제외하고 모두 유엔 회원국이다.

〈표 3〉 군대가 없는 나라(27)

군대 없는 나라 (19)	군대 없는 나라(방위조약) (8)
코스타리카	안도라(스페인, 프랑스)
도미니카	쿡아일랜드(뉴질랜드)
그레나다	아이슬란드(나토, 미국)
아이티	미크로네시아(미국)
키리바시	모나코(프랑스)
리히텐슈타인	니우에(뉴질랜드)
몰디브	필라우(미국)
나우루	
파나마	
세인트 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즈	
사모아	
산마리노	
솔로몬제도	
투발루	
비누아투	
바티칸	

출처: Barbey 2001.

이 외에 적어도 80개의 속령(dependent territories)이나 혹은 지리상의 지역(geographical regions)은 남극이나 달과 같이 국제조약에 의해 또는 핀란드의 알랑군도(Aland Islands)와 같이 영토주권을 주장하는 국가들과의 협정을 통해 비무장지대로 탈군사화되고 있다(Barbey 2001).

국가 정체성의 유지와 사회통제, 그리고 방어와 공격을 위해 군대 유지가 필수적이라 평가되는 나라에서조차 군대가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군대가 없는 나라가 비록 작은 나라일 지라도—이 중 몇 개 국가는 군대가 있는 동맹국에 의존하고 있거나 군대에 준하는 조직이 있음으로써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할지라도—그들은 군대 없이도 국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군대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징병에 대한 양심적 반대를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비살생적 정치에 잠재력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증거이다. 1998년에 세계에서 47개 국가가 군복무상 용인되는 살인에 대한 몇 가지 형태의 원칙상 거부를 법적으로 인정했다.

징병에 대한 반대가 허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좁게는 종교적 교리로부터 넓게는 살생을 거부하는 정신적, 철학적, 윤리적, 도덕적, 인본주의적, 혹은 정치적 이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한 대체복무, 이미 복무 중인 군인의 양심적 반대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법집행의 신뢰수준에 대한 요건도 상당히 다양하다(Moskos and Chambers 1993). 현재 가장 관대한 비살생의 권리는 1949년의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4항에 포함돼 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양심에 반해 무기를 가지고 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강요받

아서는 안 된다”(Kuhlmann and Lippert 1993: 98). 사형제 폐지와 무기가 없는 나라의 사례와 같이 살인자로서 군복무 거부를 정치적으로 승인하는 사례의 기원, 과정, 보편적 유형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은 현재 아주 중요한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표 4) 군복무에 대한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47)

오스트레일리아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몰타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벨기에	네덜란드
버뮤다	노르웨이
브라질	파라과이
불가리아	폴란드
캐나다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러시아
사이프러스(그리스사이프러스)	슬로바키아
체코	슬로베니아
덴마크	남아프리카
에스토니아	스페인
핀란드	수리남
프랑스	스웨덴
독일	스위스
그리스	우크라이나
가이아나	영국
헝가리	미국
이스라엘	우루과이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유고슬라비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짐바브웨

출처: Horeman and Stolwijk, 1998.

사회적 기관

장차 있을 비살생 사회로의 변화에 대해 순기능적이거나 혹은 그러한 변화에 유익한 기관은 이미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나타났다. 이들은 살인하지 않고자 하는 인간의 능력에 대해 보다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만일 이렇게 여기저기에 산재한 단체들이 창조적으로 결합되고, 또 어떤 하나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에 부합되기만 한다면, 가상적인 추측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명백한 인간 경험에 기초하여 살생 없는 사회를 꿈꾸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라도 충분히 그럴듯한 얘기다. 이같이 많은 것들 중에서 몇 가지는 짧게나마 여기서 언급될 것이다. 이들 각 사례는 상세하게 논의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종교단체 비살생 신념에 고취된 종교단체는 세계 전 지역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 중에는 인도의 사이나교, 미국의 퀘이커교, 일본의 우주평화형제회, 프랑스의 불교오얏마을, 아프리카의 사이본 김반구 교회, 러시아와 캐나다의 드호보르 평화주의자들, 미국의 유대인평화그룹 등이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1919년에 건립된 국제화해협회(the 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는 정의를 창출하고 공공사회를 재건할 수 있는 사랑과 진실의 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변화수단으로서, 그리고 삶의 방식으로서 비폭력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신념 있는 남자와 여자들을 세계 각지에서 모으고 있다.

정치단체 원칙적으로 비폭력에 전념하는 정당은 로날드 말론, 존 러버시드, 기독교 평화주의자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했던 퇴역군인들이 1955년에 창립한 영국동지당(the Fellowship Party of Britain)이다.³ 이 정당은 모든 형태의 전쟁준비에 대해 반대하고 경제적·사회적 정의를 지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한편, 예술과 스포츠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독일에서 '비폭력'은 1979년 페트라 켈리(Petra K. Kelly)와 30명의 동지들에 의해 창립된 녹색당이 내세웠던 몇 가지 핵심가치 중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⁴ 이러한 활동을 고취시킨 정신적 원천 중에는 간디와 마르틴 루터 킹의 비폭력운동이 있다(Kelly 1989). 녹색당이 전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면서도 정책실천으로 뚜렷한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혁신적 사회운동으로 출발해 나중에는 선거에 의해 정당이 된 독일녹색당이 창립 당시부터 비폭력 원칙을 견지했다는 사실은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선례가 되고 있다. 정신적, 과학적, 인본주의적 원칙 하에서 1983년 브래포드 라이트(Braford Lytte)에 의해 창립된 미국평화당(the United States Pacifist Party)은 미국과 세계의 비폭력사회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 미국평화당의 창립자 브래포드 라이트는 1996년과 2000년 대통령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⁵ 인도의 경우 운니탄(T. K. N Urnithan)과 동료들에 의해 창립된 사르보다야당(the Sarvodaya)은 만인의 안녕을 위한 간디적인 사회발전 모델을 내걸고 선거장에 뛰어들었다.⁶ 정치와 초연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간디적 전통과의 단절을 정당화하면서, 사보다야당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권력은 특성상 중립적이다. 권력은 부패한 사람들의 손아귀에 있을 경우에만 부패하게 된다." 그리고 전 세계적 차원에서 간디의 비폭력에 의해 고무된 초국가적

급진정당(Transnational Radical Party)은 1987년 이탈리아의 급진당(Partito Radicale)에서 시작되었다. 이 당의 목적은 국제적 수준에서 배타적으로 UN에 비폭력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예컨대 전 세계적인 사형제도 폐지, 양심적 반대의 인정, 전쟁범죄자 처벌 등이다. 이 당은 국내선거에 뛰어들지 않고 있다. 당원은 당에서 종신 회원 신분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회비는 회원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의 1%씩 배당돼 있다. 간디의 이미지를 앞세우고 당은 다음과 같이 공약한다. “초국가적인 법과 비폭력은 보다 나은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방식이다.”⁷

경제단체 비살생 원칙을 표명하는 눈에 띄는 경제기관에는 전쟁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 세계평화펀드(Pax World Fund), 미국농업노동자연합(United Farm Workers of America)과 같이 간디와 킹의 비폭력원칙에 의해 고무된 노동조합, 그리고 비폭력적인 불교원칙에 기반한 스리랑카의 지역사회 종합발전 프로그램 등이 있다. 비록 성공에는 한계가 있었다 할지라도—간디의 ‘신탁통치’론과 비노바 브하베(Vinoba Bhave 1994)와 자야프라카쉬 나리얀(Jayaprakash Narayan 1978)에 의해 고무된—토지 없는 사람들에게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인도의 토지증여운동은 화소자원의 비폭력적 배분이 결코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밖에 간디재단(런던), 사보디아국제재단(벵갈로), A. J. 머스트 연구소(뉴욕) 같은 여러 자선단체는 각종 비폭력 서비스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기관 모든 대학이 여러 가지 인간적 필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유형의 비폭력적 교육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일은 간디에게 큰

영향을 받은 교육학자 라마찬드란 박사(Dr. G. Ramachandran, 1903-1995)에 의해 계승되어 왔다. 그는 인도 타밀 지역의 나두(Tamil Nadu)에 있는 간디농업연구소(Gandhigram Rural Institute, Deemed University)의 창설자이다. 현재 주변의 30개 마을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이 대학은 창설 당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 ① 대학의 전문분야별 연구와 지역사회에 대한 응용을 연계한다. 예컨대 정치학과 마을의 의사결정, 물리학과 라디오 수리, 생물학과 청결(well-cleaning), 예술과 창조적인 아동 성장 등을 체계적으로 결합한다. ② 졸업을 앞둔 모든 학생들에게 문제해결과 관련된 처방을 요구한다. ③ 지역적 차원의 필요에 따라 타밀어, 민족통합을 위해 힌두어, 그리고 세계의 창으로서 영어 등 3개 언어 숙달을 위해 교육을 실시한다. ④ 수위, 정원사, 요리사 할 것 없이 대학 구성원 모두가 각종 시설관리와 서비스에 필요한 노동활동에 동참한다.

그리고 라마찬드란 박사는 이 대학 안에 군사교육에 대한 비폭력적 대안인 평화군(Shanti Sena, Peace Corps)을 창설함으로써 아주 특별한 기여를 했다. 이 조직의 책임자로 인문학 교수 라다크리쉬남(N. Radhakrishnam 1992, 1997)이 임명되었다. 1958년부터 1988년까지 평화군에서는 5천 명의 학생들이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이에 만전의 준비를 다하며, 필요하다면 평화를 위해 나의 삶을 바칠 것을 맹세한 다음 훈련을 받았다. 이 평화군은 정신적, 육체적, 지적, 조직적인 훈련을 결합해 학생들로 하여금 갈등해결 능력, 안보확보 능력, 재난구제 능력, 그리고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해 협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도록 교육했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통해 이 학교는 아동보호, 위생, 공공주택 지원, 그리고

마을 전통의 보존 같은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을 사람들과 항상 협력해서 일하고 있다. 1970년대 중반 인도 도시에 있는 몇몇 대학이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으며 화염에 휩싸였지만, 간디농업대학 주변 마을 사람들은 이 대학이 인도 정부에 의해 우수대학으로 지정되자 대대적인 축제를 열었다. 그리고 대학의 평화군이 대학 안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맡고 있다. 그래서 인도의 네루와 인디라 간디 같은 수상이나 그 밖의 많은 고위인사들이 이 대학을 방문할 때조차 어떤 무장경찰도 캠퍼스에 들어오지 못했다.

훈련·연수기관 사회적 변화, 분쟁갈등지역에 대한 개입, 사회적 방어, 기타 목적을 위해 비폭력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비폭력 교육에 이미 능숙한 경험 많은 전문강사에 대한 수요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폭력적인 문제해결 수단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인간능력에 대한 확신을 고양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몇몇 기관과 저명한 전문강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라마찬드란 비폭력학교(N. R. 라마찬드란), 국제평화여단(나다안 데사이), 플로리다 마르틴 루터 킹 비폭력연구소(버나드 라파이에트 2세, 찰스 I. 알핀 1세, 데이빗 켈센), 국제화해연대(힐데가드 고스메이어, 리차드 디츠), 훈련센터워크숍(조지 래키), 국제전쟁반대자들(하워드 콜락), 팔레스타인비폭력연구소(무바라크 아와드), 국제비폭력연대(마이클 비어), 평화정의봉사단(아돌포 페레즈 에스키벨), 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예슈아 모세-푸앙수완), 그리고 초월(요한 갈통).

비폭력적이고 전략적인 사회변화에 대한 의미심장한 함의와 함께 비폭력적인 개인방어와 인생발전 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자원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비살생 무예인 합기도(Aikido)이다. 이 합기도의 창립자 모리헤이 우에시바가 일찍이 가르친 대로 사람을 “강타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파괴하는 것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이다.” 합기도의 목적은 우주 안에 있는 생명의 힘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합기도는 사랑의 표현이다”(Stevens 1987: 94, 112; Yoder 1983: 28).

안보관련 기관 오늘날 세계에서 인간이 비살생적 수단을 사용해 안보를 추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안보관련 기관이 몇 개 있다. 이 중에는 실제로 비무장 시민을 갖고 있는 나라(일본), 실제적으로 화염무기를 소지하지 않는 경찰영국, 무장 교도대원을 갖고 있지 않는 감옥(핀란드), 비무장 평화지대(필리핀), 비무장 민방위단체(독일), 그리고 전투지역에서 평화적 조정을 위한 개입을 실천하는 비폭력조직을 갖고 있는 나라(Moser-Puangsuwan and Weber 2000; Mahony and Eguren 1997)가 있다. 이들 외에 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하는 정부와 시민단체에 의한 다양한 운동도 추가되어야 한다. 예컨대 핵·생화학무기를 철폐하기 위해, 그리고 권총, 공격용 무기, 지뢰 등을 금지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 그리고 이러한 조직 중에는 코스타리카 전 대통령과 무장해제와 갈등해결로 198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던 산체스(Oscar Arias Sanchez)가 건립한 평화와 화해센터(the Center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무기거래 폐지운동, 그리고 ‘위험에 처한 인류’(an endangered species)를 구하는 데 헌신했던 파체코와 요락(Reynaldo Pacheco and Haydee Y. Yorac)에 의해 필리핀에서 창립된 자연과 총 없는 사회(Nature/Gunless Society)가 있다(Villavincensio-Paurom 1995).

연구기관 서구에서는 샤프(Gene Sharp)에 의해 미국 매사추세츠 주 캠브리지에 만들어진 앨버트 아인슈타인 연구소(the Albert Einstein Institution)가 전 세계의 민주주의, 안보, 정의를 획득하기 위한 비폭력투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나라얀(J. P. Narayan)에 의해 인도 바라나시에서 창립된 간디연구소(the Gandhian Institute of Studies)가 비폭력의 사회적 변화를 지지하기 위한 사회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범세계적 수준에서는 허만(Theodore L. Herman)이 조직한 국제평화학회 비폭력위원회(the Non-violence Commission of the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Association)가 연구, 교육, 행동에 있어서의 비폭력적 발견을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일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해결 기관 비살생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헌한 기관의 예로는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인권보호와 사형 폐지), 그린피스(Greenpeace International: 환경보호와 핵무기의 폐지), 전쟁 반대위원회(the War Resisters International: 군대징병에 대한 양심적 거부 변 호와 모든 전쟁준비에 대한 항의), 국경없는 의사회(Medicins sans Frontiers: 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인본주의적인 의료보호) 등이 있다.

비폭력 대중매체 지역과 지구적 차원의 조건과 형편을 알리고 비살생의 시각에서 논평하는 대중매체의 현황은 선구적인 저널 리스트 매카시(Colman McCarthy 1994)의 연구와 전 세계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몇몇 출판사들에 의해 알려졌다. 영국 평화주의자당(Britain's Pacifist Fellowship Party, 런던)의 언론, 예술, 스포츠 분야 월간 평론지 *Day by Day*, 망콕의 불교단체가 발행하는 *Seeds of Peace*,

영국 런던의 국제적인 *Peace News: For Nonviolent Revolution*, 프랑스 몽타르지의 월간지 *Non-violence Actualité*, 이탈리아 베로나의 *Azione Nonviolenta*, 독일 올텐부르크의 *Graswurtzel-revolution*, 미국 뉴욕주 나이액의 잡지 *Fellowship*과 뉴욕시의 *Nonviolent Activist*, 그 밖에 호주 브리스베인의 *Social Alternatives*, 인도 뉴델리의 *Gandhi Marg*, 그리고 워싱턴 D.C.의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Nonviolence* 등이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관한 비폭력 지식을 환기시켜 주며 서로 의사소통하고 있다. 가령 인도 아메다바드의 Navajivan, 워싱턴주 블레인의 New Society Publishers, 프랑스 몽타르지의 Non-Violence Actualité, 뉴욕주 메리놀의 Orbis Books 같은 몇몇 출판사는 비폭력으로의 사회적 변화를 위해 교육하는 책을 전문적으로 출간하고 있다.

문화지원 비폭력적 문화자원은 인간정신을 고양하고 비살생 사회 실현을 향한 진보를 고취시키는 예술과 지식에 의한 갖가지 창조물이다. 이러한 것에는 민요("We Shall Overcome"), 오페라(Philip Glass, "Satyagraha"), 소설(Bertha von Suttner, *Lay Down Your Arms*), 시(Steve Mason, *Johnny's Song*), 미술(Kathe Kollwitz, *Seed for the planting must not be ground*) 영화(Richard Attenborough, *Gandhi*) 등이 포함된다. 1995년에 인도 아메다바드에서 말리카 사라브하이(Mallika Sarabhai)에 의해 건립된 예술을 통한 비폭력연구소(the Centre for Nonviolence through the Arts)는 영상예술, 공연예술, 문학예술을 통해 사회적 변화과정에서 비폭력이 창조적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노력하고 있다.

비폭력 정치투쟁 인류 역사상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라 할지라

도 20세기 후반 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비폭력 정치투쟁은 비살생에 대한 인간의 잠재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샤프(Gene Sharp)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980년에 대다수 사람들은 아무도 비폭력 투쟁—혹은 민중의 권력(힘)—이 10년 내에 전 세계의 정치과정을 구현하는 중심세력으로 인식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Sharp 1989: 4). 샤프는 적어도 1970년부터 1989년까지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있었던 중대한 비폭력 정치투쟁을 일일이 지적했다. 아프리카(알제리, 모로코, 남아프리카, 수단), 아시아(버마, 중국, 인도, 일본, 한국, 파키스탄, 필리핀, 티베트), 미국 주변지역 국가(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아이티,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미국), 유럽(에스토니아, 프랑스, 동·서독,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유고슬라비아), 중동(이스라엘 관할지역인 팔레스타인), 그리고 태평양(오스트레일리아, 뉴칼레도니아). 1989년 이래 많은 비폭력적인 국민들의 강력한 시위는 이전 소련연방, 동유럽, 발틱의 공화국들, 그리고 몽골의 단일정당인 공산당 통치의 극적인 종말에 기여해 왔으며, 독일의 평화적 통일과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 통치의 종식에 기여해 왔다.

비록 모든 비폭력투쟁이 폭력을 완전하게 지양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또 이 중 몇 가지 비폭력 투쟁이 1988년의 버마와 1989년의 중국에서와 같이 무참하게 억압당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몇몇 논평자들이 이러한 성공적인 비폭력투쟁 사례 때문에 결국 살생이 저질러졌다고 비판할지라도, 이와 같은 비폭력투쟁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혁명, 그리고 그 밖의 다른 폭력혁명의 피비린내 나는 전통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세계 차원의 식민체제 붕괴에 기여한 간디의 인도 독립운동, 미국에서 소수인종 인권보호를 위한 킹 목사의 흑인 인권운동, 필리핀에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비폭력적인 국민의 힘 운동, 반핵전쟁 운동, 환경보호 운동, 그 밖의 다른 여러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첨단기술의 활용을 포함한 강력한 비폭력적 전략과 전술의 내용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또한 몇몇 억압적인 정권은 평화, 자유, 정의를 추구하는 비폭력적인 시민의 요구에 대처하는 데 보다 비살생적인 방법과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제도와 구조 차원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보다 광범위한 투쟁 외에 크고 작은 여러 사회운동은 비살생 사회의 특성 중 어느 한 가지라도 구체화하기 위해 특정한 변화를 추구해 왔다. 이 가운데는 사형폐지 운동, 낙태에 대한 대안 찾기 운동, 군복무에 대한 양심적인 반대를 인정하게 만드는 운동, 군대폐지 운동, 비폭력적 민방위 운동, 도시와 시골의 분쟁지역에서 비폭력적인 방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운동, 전쟁세 폐지운동,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폐지운동, 지뢰·원자폭탄·권총 폐지운동, 살생에 대한 경제적 지지 철회운동, 개인·소수민족·원주민 인권보호 운동, 그 밖의 다른 정치·군사·경제·사회적 및 문화적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 등이 있다.

역사적 자연발생을 뛰어넘어 전진하는 20세기 말의 비폭력투쟁은 — 선구적인 진 샤프(Gene Sharp 1973), 요한 갈통(Johan Galtung 1992, 1996), 자크 세멜린(Jacques Semelin 1993), 마이클 랜들(Michael Randle 1994), 그 밖에 다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도움을 받으면서 — 보다 자의식적으로 원칙적이고 창조적인 행동과 지구적인 통신망의 보급을 통해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지구화시대에도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유희사태의 한가운데에서 비폭력운동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의 폭력과 부정의에 도

전하는 혁신과 대항의 과정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Powers and Voegle 1997; Zunes, Kurtz, and Asher 1999; Ackerman and DuVall 2000).

역사적 뿌리

폭력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만연하던 시기에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비살생 사회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예를 확인할 수 있다. 비살생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견해가 전 세계적으로 축적되고 표출될 때 비로소 비살생의 역사가 창조될 수 있다.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인류의 비살생에 대한 확신과 헌신은 억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2000년이 넘는 유대·기독교의 역사에서 십계명 중 살인을 금지하는 6번째 계명(“살인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3절)과 산상수훈(마태복음 5·7장),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희생이 말과 글을 통해 우리의 전통 속에 살아 있는 한, 비살생이라는 지상명령은 -억압과 순교에도 불구하고—글 모르는 농민으로부터 특권 엘리트계층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살생과 폭력에 대한 용감한 저항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 그 불씨를 되살릴 것이다(Brock 1968; 1970; 1972; 1990; 1991a; 1992). 1895년 6월 29일 러시아의 세 지역에서 평화론자인 두호보르(Doukhobor)파의 7천 명 농민들은 대량의 무기를 태워 버리는 투쟁을 실행에 옮겼고, 그 후에는 톨스토이의 도움으로 박해를 피해 1899년에 캐나다로 이주했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 살생과 폭력에 대한 저항의 역사가

운데 하나이다(Tarasoff 1995: 8-9). 비살생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역사적 뿌리는 다른 문화적 전통, 예를 들면 불교(Horgan 1996; Paige and Gilliat 1991)와 이슬람교(Banerjee 2000; Crow 1990; Easwaran 1999; Kishtainy 1990; Paige, Satha-Anand, and Gilliat 1993a; Satha-Anand 1990; Tayyebulla 1959),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Schwarzschild, n.d.; Polner and Goodman 1994; Wilcock 1994).

또한 모스코스와 체임버스(Moskos and Chambers, 1993)가 수행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양심적 군복무 거부에 대한 역사적 비교 연구가 보여주었듯이, 전쟁상황에서 살인거부 행위는 비종교적이고 인도주의적이며 정치적인 근거와 이유가 있다는 것이 점차 지배적인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비살생을 단지 종교 영역에서만 다루던 것과 달리 점차 비종교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세속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성직자와 비성직자, 원리주의자와 실용주의자 모두 비살생의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또 다른 역사적 관찰을 통해 매우 놀랄 만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즉 폭력을 수용하거나 적어도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정치지도자들 중 일부에게서 때때로 비살생에 대한 강한 신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1713년 프러시아의 프리드리히 1세가 반전주의자였던 멘논파 신도들(Mennonites)을 징병에서 면제시킨 일은 이런 사례 중 하나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1763년 러시아의 캐서린 2세와 1875년의 알렉산더 2세가 행한 멘논파 신도들에 대한 징병면제를 들 수 있다(Brock 1972: 230, 234, 436). 1919년 레닌은 톨스토이의 동료였던 체르트코프(V. G. Chertkov)의 청원과 볼셰비키였던 본치 브루에비치(V. C. Bonch Bruevich)의 충고를 받아들여 징집을 반대하던 톨스토이 추종자들(Tolstoyans)과 반전주의를 주

창하는 다른 종파의 신도들에게 붉은 군대 복무를 면제해 주었다 (Josephson 1985: 162; Coppieters and Zverev 1995). 또 볼셰비키가 내린 최초의 의사결정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군대 내에서 사형제의 폐지였다. 비록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한 결정이 덧없는 것이었을지라도 그러한 의사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비살생을 고려하는 데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제롬 프랑크 (Jerome D. Frank)의 견해처럼 일반 시민들은 권위를 추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치지도자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평화를 이룩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대중을 이끌지라도 그를 따르는 자들이 꾸물대며 지체할 수도 있다. 짐링과 호킨스(Zimring and Hawkins)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는 거의 언제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하며, 이는 대다수 민중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루어진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형제도가 사라졌다. 그러나 우리는 사형제도의 폐지가 이루어졌을지라도 이들 나라 중 어떤 나라에서도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는 민주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사형제도 폐지 주장은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다. 비록 그러한 주장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오랜 기간 남아 있을지라도(1986: xvi).

(이와 같이 지도자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대중의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 존재할지라도) 비살생을 지향하는 사회변화에서 정치 리

더십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치 리더십에 대해 주목하는 것 (Paige 1977; Burns 1978)은 여전히 귀중한 작업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반드시 비폭력 성향의 민중이 지닌 힘과 역량을 간과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세 번째 역사적 관찰은 비살생에 대한 헌신과 관련된 것이다. 비살생에 대한 헌신은 그 특성상 살생 외에도 다른 형태의 고통을 경감시키며, 사회에서 생명중시 성향 같은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노력을 수반한다. 비살생이란 무관심이나 무위(無爲)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한 예로 자이나교의 비살생과 비폭력의 원리(ahimsa)는 동물과 새, 그리고 다른 생물을 구원하고자 하는 노력으로까지 확장된다(Tobias 1991). 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비살생의 프로젝트는 인도의 간디주의 운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간디주의 운동은 정치적 독립뿐만 아니라 빈자와 여성, 소수인종, 각 카스트 계급과 이들 내부의 상호관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변화를 추구했던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유와 인종 간 평등을 추구한 킹 목사의 비폭력 저항운동 역시 미국 사회의 구조와 기능에서(가난부터 전쟁에 이르는 다양한) 부정적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노력과 관련돼 있었다.

비살생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증거는 심지어 폭력적 성향의 현대국가의 역사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미국의 역사도 그러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역사 속에 자리한 비살생의 근원은 현저한 폭력적 전통과 비교할 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선구적 연구는 비살생의 확실한 근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Brock 1968; Cooney

and Michalowski 1987; Hawley and Juhnke 1993; Kapur 1992; Kohn 1987; Lynd and Lynd 1995; Association of American Historians 1994; Schlissel 1968; True 1995; Zinn 1990).

미국에서의 비살생 폭력과 살생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미국이 건국할 때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미국의 출범은 아메리카 원주민과 평화를 사랑하는 이주민 사이의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예컨대 군대가 없던 펜실베이니아 식민주(州)의 웨이커교 평화주의자들은 우호적인 방문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또 그들이 외부 사람들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 적절하게 해명할 것을 규정한 조약을 충실하게 준수한 델라웨어 인디언들과 1682년부터 1756년까지 17년 동안 평화롭게 공존했다(Brock 1990: 87-91). 독립전쟁 이전의 초기 13개 식민주 중 12개 식민주가 채택한 법률 속에는 종교적 양심에 근거한 군대에서의 살인거부를 인정하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가장 리버럴했던 로드아일랜드 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훈련하고 무장하며 싸우는 것”을 금기시키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군복무를 면제시켜 주었고, 동시에 이들은 “어떠한 징계, 벌금, 제재, 처벌, 감금과 같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Kohn 1987: 8).

비살생의 관념은 또 신생국가 미국의 입법 심의과정에서도 등장했다. 1775년 대륙의회에서 통과된 최초의 법령 가운데 하나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비살생에 대해 어떠한 폭력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법률이었다(Kohn 1987: 10, 13). 1789년 미국 헌법에 권리장전(Bill of Rights)의 내용을 추가하는 입법 심의과정에서 대의원이던 매디슨(James Madison)은 제2조에 모든 시민의 살생 거부권을 인정하는

한 가지 조항—종교적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소지를 거부하는 그 어떤 사람도 군복무를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을 제안했다(Kohn 1987: 11). 이러한 메디슨의 제안이 하원에서는 승인되었으나, 각 주의 시민군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 확대에 반대한 상원의 주권(州權)방어위원회(States-Rights Defensive Senate Conference Committee)에 의해 거부되었다.

미국 독립혁명(1775-83)이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종족적·종파적 배경의 식민지인들은 식민지인이건 영국인이건 상관없이 그들에 대한 살생을 거부했다. 성경 읽는 영국 기병 토마스 왓슨(Thomas Watson)은 살생을 거부했고 나중에 매사추세츠 웨이커교의 장로가 되었다(Brock 1968: 280-81). 영국의 보스턴 항구 봉쇄와 뒤이어 있었던 보스턴 점령기간(1774-76)에 평화주의자인 웨이커교도들은 당시 양 진영의 워싱턴 장군과 호우 장군에게 자신들이 보스턴 시민과 난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설득했다(Brock 1968: 280-82).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비살생에 입각한 도덕적 시도는 주위의 도움과 함께 존경을 받게 되었다.

“비폭력투쟁을 통해 미국의 독립을 쟁취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은 반드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Conser, et al. 1986). 『독립전쟁의 죄악』(*Evils of the Revolutionary War*, 1986)이란 책 속에서 찰스 휘플(Charles K. Whipple)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무기에 의존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독립은 훨씬 더 우호적인 조건 하에서 효과적이고 빠르고 명예롭게 달성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독립의 수단으로 전쟁 대신 선택할 수 있었던 대안적인 방법은 “첫째, 부당한 요구에 대한 확고하면서도

조용한 거부, 들째, 전쟁에 의한 비참한 고통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이에 대한 보상과 대책을 적극 요구함, 셋째,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사용된 폭력이 무엇이든 간에 이를 인내하고 참는 것”일 수 있었을 것이다. 비폭력투쟁의 동태적 측면에 대한 휘플의 분석에는 실제로 간디의 후기 사상과 샤프(Gene Sharp 1973)의 주장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주요 요소가 다 포함돼 있다. 휘플은 비폭력혁명이 제공하는 이익을 요모조모 따지면서, 비폭력혁명이었다면 훨씬 더 적은 숫자의 생명이 희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8년간의 부장투쟁에서 10만 명이 사망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만약 그것이 비폭력혁명이었다면 1천 명의 리더와 1만 명의 남녀노소가 희생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경제적 측면에서도 실제 1억 3,500만 달러의 전쟁비용과 이후 무장에 소요된 3억 달러는 절감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신생국인 미국의 정신적·윤리적 기반도 훨씬 높은 수준에서 확립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아메리카의 비폭력 혁명가들은 노예제도를 존속시키지 않았을 것이며, 아메리카 인디언을 속여 그들의 재산을 빼앗거나 그들을 타락시키는 일도 계속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말살하는 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형제도 같은 보복과 폭력의 제도를 미국정부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지도 않았을 것이다.

비살생은 미국의 남북전쟁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고통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한 미국의 애국자들은 평화를 위해 영국(1812) 및 멕시코(1845)와의 전쟁에서 싸웠고, 또 여성의 권리와 특히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도 싸웠다. 이러한 애국자들 중에는 여성과 남성, 흑인과 백인, 신도와 비신도가 모두 함께 포함돼 있다 (Cooney and Michalowski 1987: 20-33; Lynd and Lynd 1995: 13-41). 비폭력적

성격을 띠었던 노예제 폐지 노력은 결국 미국 북부지역의 여러 주 의회에서 노예해방법(Emancipation Laws)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일구어냈다. 국경지방과 남부지역 주에서는 일부 노예소유자들이 정신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자신들의 노예를 풀어 주는 데 공감하면서, 웨이커교도인 존 울먼(John Woolman)이 펼쳤던 노예해방운동을 지속시켜 나갔다(1720-72). 비살생적 성향의 노예해방 역시 터무니 없는 생각은 아니었다. 1777년 영국은 본국 내의 노예제를 폐지했고, 1807년에는 노예무역을 금지시켰으며, 1833년에는 대영제국 전역에서 노예소유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고려할 때, 만약 미국이 캐나다처럼 모국인 영국과 일정한 형태의 연합을 유지했다면 미국에서도 노예제도는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 폐지되었을지도 모른다.

남북전쟁(1861-65) 기간에 반전론자들에게 가해졌던 고문, 감금, 처형, 암살, 살생에 대한 양심적 거부에 대한 법적 규제 같은 가혹행위가 남부와 북부의 징집법(1862) 안에 다 같이 포함돼 있었다. 비록 그런 법률이 때때로 낮은 수준에서는 일관성 없이 적용되었을지라도, 북부연합의 링컨 대통령과 전쟁성 장관 에드윈 스탠턴(Edwin Stanton)과 남부연맹의 전쟁성 차관 존 캠벨(John A. Campbell)(Moskos and Chambers 1993: 30-1) 등은 일부 개인들에게 동정적 차원에서 예외적인 법률 적용을 허용해 주었다(Moskos and Chambers 1993: 30-1).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던 당시 살생을 반대했던 테네시주 그리스도의 제자들(Tennessee Disciples of Christ)은 남부연합의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드(Jefferson David)와 북부연방의 점령군사령관 존슨(Andrew Johnson)에게 군복무 징집에서 면제해 줄 것을 청원하여 최초의 양심적 징병거부를 허용받는 데 성공했다(Brock 1968: 842-3).

동족상잔의 내전에서 비살생의 양심이 주장되었고, 이것이 양측 모두에 의해 다양한 수준에서 수용되었던 것이다.

산업화시대와 제국주의 팽창기에도, 그리고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치는 동안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비살생은 존속해 왔다. 비록 고용주, 경찰, 국가, 그리고 때로는 노동자의 폭력에 의해 그 빛이 바랬지만, 노동조건 향상과 단체조직의 권리를 위한 미국인들의 투쟁은 본질적으로 비폭력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그것은 총칼로 무장한 노동계급에 의해 달성된 혁명이 아니었다. 1916년 미 의회에 입성한 최초의 여성 의원 지넷 랭킨(Jeanette Rankin: 몬태나주, 공화당)을 탄생시켰던 미국의 여성운동이 여성의 평등권을 획득할 때에도 비폭력적이었다(Josephson 1974). 그녀는 1917년 49명의 남성 동료의원,⁸ 6명의 상원의원⁹과 함께 미국의 1차 세계대전 참전에 반대표를 던졌다. 1940년에 재선된 뒤 1941년에 있었던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참전에 찬반투표에서 유일한 반대표 한 표를 던진 것도 그녀였다. 후에 그녀는 88세의 나이로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의 살생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지넷 랭킨 여단(Jeanette Rankin Brigade) 소속 5천 명의 여성을 이끌고 워싱턴 행진을 주도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징집된 약 4천 명의 미국인이 살인을 거부했다. 그 중 1,300명은 비전투업무(주로 의료)를 담당하는 것에 동의했고, 다른 1,500명은 농업관련 노동을 부여받았다. 또 940명은 격리된 전투부대에 배치되었고, 살생과 관련된 어떠한 일에도 협력하기를 거부한 450명은 군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그 중 17명이 가혹한 처우와 질병으로 사망했다(Moskos and Chambers 1993: 34-5; Kohn 1987: 42; Lynd and Lynd 1995: 91-117; Schlissel 1968: 128-75).

제2차 세계대전 징병기간(1940-47) 동안 72,354명의 미국 남성이 살인에 대한 양심적 거부를 주장했다. 2만 5천 명이 비전투요원으로 복무했고, 213개 종파 출신의 11,996명이 151개의 민간 공공봉사 캠프(Civilian Public Service Camps)(부록 D)에서 복무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리고 모든 형태의 전쟁협력을 거부한 6,086명은 수감되었다. 수감자의 3/4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다(Anderson 1994: 1-2; Moskos and Chambers 1993: 37-8; Cooney and Michalowski 1987: 94-5; Cara and Cara 1999).

제2차 세계대전, 남북전쟁, 제1차 세계대전, 베트남전쟁(1964-75), 한국전쟁(1950-53)의 뒤를 이어 미국 역사상 6번째로 많은 사상자를 낸 냉전시대(1945-91)가 도래했을 때에도 미국 사회가 비살생 사회로 바뀔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은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미국과 소련, 그리고 그들의 동맹국 사이에서 발생한 냉전은 혁명과 반혁명, 그리고 지정학적 분쟁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적어도 2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한국전쟁 기간에 약 22,500명의 미군이 살인을 거부했다. 베트남전쟁 기간에는 반전운동으로 전례가 없을 정도의 많은 젊은이가 살인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그들의 살인거부는 이전처럼 종교적 이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속적 이유에도 근거하고 있었다(Moskos and Chambers 1993: 39-43). 1972년에는 군 징집자 정원보다 더 많은 수의 징집대상자들이 살생에 대한 양심적 거부자로 나타났다. 베트남전쟁 징집대상자들은 과거 모국에서 징병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평화주의자들의 역사와는 반대로, 징집명부에 등록하는 대신 감옥에 가거나 해외로 도피했다. 베트남전쟁에서 살생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전선의 의무병으로 비전투업무에 종사하기로 했던 양심적 살인 거부자들은 전쟁에 대

한 그들의 반대의지를 더욱더 단단하게 다졌다(Gioglio 1989).

냉전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이라크와의 걸프전쟁(1991)이 발생했고 그 와중에서도 비살생에 대한 인류의 확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징집과 모병에 대한 민간인들의 저항이 아니었다. 실제 당시 복무 중이던 현역군인들의 살생 거부였다. 50명의 해병이 양심적 살생거부를 선언했고, 그로 인해 그들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수감되었다(Moskos and Chambers 1993: 44).

미국 역사를 살펴볼 때 비살생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은 사형제도 폐지 노력 속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식민지 시절 초기부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숫자는 감소해 왔는데, 미시건주(1846)는 반란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고, 로드아일랜드주(1852)와 위스콘신주(1853)는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했다. 현재 워싱턴 D.C. 외에 50개 주 가운데 12개 주에서 전쟁에서의 살생거부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에서 시민들의 집단적 살생거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연방정부 수준에서는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연방대법원은 아직까지 미국 시민의 처형이 미국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Zimring and Hawkins 1986).

비살생 사회를 실현할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여러 사례가 미국 내에 존재한다. 핵무기 없는 사회를 위한 투쟁(무기녹여쟁기만들기 운동), 전쟁준비로 인한 빈곤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투쟁(가톨릭 근로자 운동), 여성에 대한 남성 지배적 성격의 폭력문화 종식을 위한 투쟁(여성운동),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실현을 통해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모든 인종 간의 평등을 구현하고자 하는 투쟁(킹 노선의 비폭력적 사회변화 운동) 등이 중요한 예라 할 수 있다. 간디가

1936년 미국 흑인 지도자들과 만났을 때, 그들은 간디에게 간디의 비폭력운동 메시지가 흑인들의 정신세계와 강하게 공명하며 미국의 흑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간디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불순물 없는 순수한 비폭력의 메시지가 전 세계에 전파되는 일은 흑인들을 통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Kapur 1992: 89-90). 따라서 간디주의 비폭력운동과 킹 노선의 비폭력운동, 그리고 세계의 다른 비폭력운동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미국 원주민과 이주민들이 가졌던 평화주의적 기반 사이의 상호작용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비폭력은 전 세계의 비폭력 역사와 불가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현저하게 폭력을 찬양하는 미국의 정치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에서 비살생의 뿌리는 식민지 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온 생명존중 윤리에 대한 끝없는 강조 속에서 살피볼 수 있다. 이런 비살생의 뿌리는 전쟁에서 살생의 거부, 사형제도 및 낙태 반대, 군비축소 요구와 군사 강국화에 대한 저항, 폭력적 세계 패권장악 계획, 경제, 인종문제, 여성 권리, 문화적 정체성 등의 구조적 변화를 위한 비폭력적 활동, 그리고 종교적·예술적·문학적인 표현 속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True 1995). 바둑판무늬의 어깨걸이를 걸친 웨일즈인(Plaid Cymry)이란 이름의 웨일즈 평화주의 정당을 설립한 권포 에반스(Gwynfor Evans)가 말한 것과 같은 “비폭력적 애국심 혹은 비폭력적 민족주의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상정할 때, 그러한 질문에 대답이 될 만한 역사적 요소는 쉽게 눈에 띈다(Evans 1972). 비살생의 역사적 요소들의 영향력과 비중이 점차 커진다면, 미국의 국가는 미국의 영광을 노래한 “성조기여 영원하라”(Stars and Stripes Forever)가 아니라 자유와

평화, 형제애를 노래한 “아름다운 나라, 미국이여”(America the Beautiful)가 될 수도 있고, 미국의 진군가가 역시 가수 겸 반전주의자였던 팻 시저(Pete Seeger)가 부른 “우리 승리하리라”(We Shall Overcome)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미국인들의 기도 문구도 “하나님이시여, 미국을 축복하소서”(God Bless America) 대신 “하나님이시여, 비폭력적인 미국과 이 세상의 비폭력을 축복하소서”(God Bless Nonviolent America and Nonviolence in the World)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비살생적 삶을 살아온 사람들 궁극적으로 비살생 사회의 뿌리는 인류의 전기(傳記) 안에 들어 있다. 남자든 여자든, 혼자든 여럿이든, 저명인이든 평범한 소시민이든, 과거의 사람이든 현재의 사람이든 모든 인간은 긍정적 사회변화를 추구하며 살인을 거부하기 위해 협력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잠재적 가능성을 입증해 주었다. 일부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들 외의 다른 사람 또한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로 비살생적 삶을 살았던 인물들은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해 주는 실례가 되는 것이다.

과리 시립현대미술관의 출입구에는 전기(電氣)의 발견과 사용에 기여한——고대 철학자부터 현대 과학자와 발명가에 이르는——많은 사람들을 그려 놓은 커다란 등근 벽(Raoul Dufy의 작품)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도 이와 유사하게 비살생과 비폭력의 구현에 헌신한 학자들의 정신세계와 그들의 이론 및 연구에 기여한 전 세계 모든 공헌자들이 등장하는 거대한 전경을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계의 유산은 39개국 출신의 717명(1800~1980)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평화를 사랑한 현대 지도자들의 전기 사전』(The Biographi-

cal Dictionary of Modern Peace Leaders)을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Josephson 1985). 1,134쪽에 달하는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하는 것만으로도 일반 직업인들의 교양수준을 높이고 비폭력 세계를 추구하는 여러 방법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일시적인 폭력의 수용부터 비폭력에 대한 완전한 헌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비살생의 가치가 존재한다. 역사적·지리적 측면에서, 또 현대인의 삶 속에서 이러한 가치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 나간다면 비살생을 위한 용기와 헌신이라는 우리 세계의 유산을 밝히고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살생적 삶을 세계적 수준에서 발견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비살생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시공과 문화를 초월해 서로 영향을 미치고 공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고대의 통치자들에게서도 살펴볼 수 있다. 고대 이집트에서 누비아 지역 출신의 왕 사바카(Shabaka, BC 760-695)는 사형제도를 폐지시킨 바 있다. 고대 인도의 불교국가인 마우리아 왕조의 황제 아쇼카(Ashoka)는 칼링가 왕조와의 전쟁(BC 262)에서 10만 명의 사망자와 15만 명의 유랑자, 그리고 수없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과 고통을 목격한 뒤 전쟁을 그만두고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살생을 금했다(Chowdhury 1997: 52). 부처와 예수, 마하비라(Mahavira)라 불리는 자이나교의 교주 니간타 나타푸타(Nigantha Nataputta), 알라신의 예언자 무하마드(Muhammad), 웨이커교의 창시자 조지 폭스(George Fox), 시크교의 창시자 구루 나나크(Guru Nanak), 바하올라(Baha'u'llah) 등 정신적 지도자들의 비살생 사례는 남녀노소를 불문하는 창조적 경쟁을 고무했다. 병사들이 반전주의자가 되기도 한다(Crozier 1938; Tendulkar 1967; Khan 1997; Boubalt, Gauchard, and Muller 1986; Roussel 1997).

때로는 혁명가들이 살생적 방식을 포기하기도 한다(Narayan 1975; Bendana 1998). 양심상의 이유로 살생을 거부하는 자들이 징병에 저항하기도 한다(Moskos and Chambers 1993). 뉴질랜드의 아키발드 박스터(Archibald Baxter)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고문과 1차 세계대전의 징병요구에 저항하는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었다(Baxter 2000). 오스트레일리아의 성경 읽는 농부 프란츠 재거스타터(Franz Jagerstatter)는 히틀러를 위해 싸우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참수형에 처해졌다. 비폭력 구원자들은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로부터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다(Fogelman 1994; Hallie 1979).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군수산업 발전에 몰입하는 국가에 대한 도덕적이고 물질적인 지지뿐 아니라 노무제공 같은 지원을 취소했다(Everett 1989). 또 다른 사람들은 대량파괴 무기를 폐기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Norman 1989; Polner and O'Grady 1997).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4피트 4인치라는 작은 키의 인도인 모한다스 간다(Mohandas K. Gandhi)의 비폭력 리더십에 호응하고 있다. 문화적으로 폭력적 성향을 지닌 파탄족(Pathans)도 회교 지도자 압둘 가파르 칸(Abdul Ghaffar Khan)의 비폭력 리더십에 공감했다(Banerjee 2000; Easwaran 1999). 위대한 간디주의 교육자 라마찬드란(G. Ramachandran) 박사의 언급처럼 “성별과 상관없이 무명의 모든 영웅들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영웅들보다 더욱 중요하다”(Ramachandran 1983). 소수의 아프리카계 미국 흑인 대학생들이 간디주의 교육방식으로 훈련받은 뒤 킹 목사의 리더십을 지지하는 시민권운동을 시작했다(Halberstam 1998). 아킨 발루(Akin Ballou)와 헨리 소로우(Henry David Thoreau) 같은 비폭력적인 미국인들이 톨스토이(Tolstoy)에게 영감을 주었고(Christian 1978: 588), 톨스토이는 간디

를, 간디는 킹 목사를 격려했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독일의 녹색당 창설자 페트라 켈리(Petra Kelly)를 격려했고(Kelly 1989), 또 오랫동안 축적돼 온 비폭력을 위한 경쟁과 혁신은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1997년과 1998년에 요르단의 암만에서 열린 유엔대학의 국제리더십 아카데미(International Leadership Academy)에서 두 가지 훈련 프로그램이 초반 행사로 개설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60여 국가 200명 이상의 젊은 지도자들은 가장 존경하는 세계적 지도자로 간디를 지목했다. 간디에 대한 이들 젊은 지도자의 존경과 감탄은 1945년 이후 세계 식민지 체제 몰락의 과정에서 많은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보여주었던 간디에 대한 감탄을 재현하는 것이었다. 비폭력 지도자들은 세계 전역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마하 고사난다(Maha Ghosananda), 한국의 함석헌, 나이지리아의 사로-위와(Ken Saro-Wiwa), 스리랑카의 아리아라트네(A. T. Ariyaratne), 태국의 시바락사(Sulak Sivaraksa), 프랑스의 란초 델 바스토(Lanzo del Vasto)와 자크 드 볼라르디에르 장군(General Jacques de Bollardiere), 영국의 말론(Ronald Mallone), 이탈리아의 카피티니(Aldo Capitini), 인도의 라드하크리산(N. Radhakrishnan), 브라질의 주교 까미라(Dom Helder Carrara), 미국의 머스트(A. J. Muste) 등이 이에 속한다. 과거 간디를 소홀히 평가하던 노벨상위원회가 그간의 태도와 달리 비폭력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정당하게 평가하기 시작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루쓸리(Albert J. Luthuli)와 투투(Desmond Tutu), 북아일랜드의 매과이어(Mairead Corrigan Maguire), 아르헨티나의 에스키벨(Adolfo Perez Esquivel), 버마의 아웅산 수키(Aung San Suu Kyi),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Dalai Lama) 등이 그 실례이다.

오스트리아의 베르타 폰 수트너(Berta von Suttner), 발리의 겐동 옥카(Gendon Bagoes Oka), 인도의 파트카르(Medha Patkar), 미국의 데이(Dorothy Day), 데밍(Barbara Deming), 투머(Jean Toomer) 같은 자신만의 삶의 역사를 가진 여성들이 사회의 모든 폭력적 조건에 맞서 비폭력적 방식으로 용감하게 도전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Stanfield 1993: 49).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에서 1,704명에 달하는 여성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요구했고, 비전투원이나 시민봉사의 형식을 통한 일체의 전쟁지원을 거부한 214명이 투옥되었다(Harries-Jenkins 1993: 77). 여성 역시 남성 못지않게 폭력에 대한 집단적 저항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매우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저항해 왔다. 군국주의에 의한 잔학행위 반대(부에노스아이레스의 Plaza de Mayo의 어머니들), 민족학살에 대한 반대(세르비아의 검은 옷을 입은 여성들), 핵전쟁 준비에 대한 반대(영국의 Greenham Common 여성평화캠프), 생태계 파괴에 대한 반대(벌목을 막기 위해 나무를 꺾이는 인도의 Chipko운동), 그 밖의 많은 불법행위에 대한 저항운동이 계속돼 왔다(McAllister 1982, 1988; Morgan 1984; Foster 1989). 조앤 본두란트(Joan V. Bondurant, 1969), 엘리스 볼딩(Elise Boulding, 1980; 1992), 베레니스 캐롤(Berenice A. Carroll, 1998) 같은 학자들은 비폭력적인 사회변화를 위한 지식을 발전시켜 왔다.

대학에서의 캠퍼스 커플들—결혼 여부와 상관없이—또한 비폭력적인 변화를 위한 투쟁에 힘을 모았다. 카스투르바(Kasturba)와 모한다스 간디(Mohandas Gandhi), 코렛타 스콧(Coretta Scott)과 마르틴 루터 킹 2세(Martin Luther King, Jr.), 돌로레스 후에르타(Dolores Huerta)와 케사르 사베츠(Cesar Chavez), 도로시 데이(Dorothy Day)와 피터 모린(Peter Maurin), 프랜시스 메이 위더스푼(Frances May Witherspoon)과 찰스 레흐트(Charles Recht), 엘리자베스 맥알리스터(Elizabeth McAllister)와 필

럼 베리건(Philip Berrigan) 이들 모두가 비폭력운동을 펼친 캠퍼스 커플이다. 이처럼 한 쌍의 남녀로 맺어진 사람들의 힘은 1986년의 필리핀에 대한 비폭력적·민주적 국제개입에서 크게 부각되었다. 당시 필리핀의 수녀, 사제, 평신도들이 힘을 모아 독재와 군부의 반(反)혁명 위협에 대항하던 상황에서 이들의 힘은 매우 큰 역할을 했다(Santiago, A. S. 1995).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인류의 비폭력적 삶의 기록은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존중하는 살생 없는 올바른 사회를 창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고취시키고 있다.

비살생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인간의 능력

비살생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경험과 창조적 능력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인류의 대다수는 살인을 해 오지 않았고, 지금도 살인을 하고 있지 않다. 비록 우리가 살인할 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천성에 의해 살인을 강요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생명을 존중하고 살인하지 말라는 인류의 위대한 정신적 전통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고 해도 인간은 가장 극단적인 폭력적 환경에서도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 머리로 반응하고 완전히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보여 주었다. 살인이 발생할 때 인간의 과학적인 창조성은 살생의 원인과 이를 제거할 방법, 그리고 자신과 사회가 죽음과 폭력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해 준다.

비살생 사회의 전형적인 예를 구성하는 요소는 이미 과거와 현

재 인간의 경험 속에 스며들어 있다. 그것은 상상의 산물이 아니다. 비살생의 원리에 근거한 정신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제도와 실천이 인간의 경험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군대가 없고 사형이 없고 부기도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있다. 인류의 생존과 복지를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비살생적 조직과 운동도 존재하고 있다. 비살생의 역사적 경험은 인류에게 현재와 미래의 전환적 행동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 주고 있다.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인류의 영감을 고취하고 나아갈 바를 지도해 주는 비살생적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은 인류의 위대한 유산인 것이다.

누구든 이미 인류의 경험 속에 존재하고 있는 비살생의 요소들을 찾아서 결합시키고 적응시키며 창조적으로 추가시키기로 결심하기만 한다면, 비살생적 사회의 근사치는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이 확실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문제를 만들어 낼 수도 있으며, 우리 인류가 이 세상을 비살생의 세계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강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제3장 비살생과 현대정치학

비폭력은 단순히 종교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비폭력은 또한 사회 차원의 문제만도 아니다.
비폭력은 권력의 과학(science of power)이다.

G. Ramachandran

그렇다면 인간이 비살생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치학이라는 현대의 학문에 대해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비살생의 잠재력이라는 전제가 살생의 불가피성이라는 전제를 대체한다면, 정치학자들은 어떤 유형의 학문을 창출할 것인가? 정치학자로서 우리의 할 일을 고무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찾을 것인가? 우리가 탐구해야 할 설명과 예측의 이론은 어떤 것인가?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훈련시킬 것인가? 우리가 만들어야 할 제도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비살생 세계를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비살생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지식을 발견하고 창

출하며 공유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가?

비살생 사회의 성취가 가능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정치학을 포함한 여러 학문영역에서도 비살생으로의 창조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은 폭력(살생)의 용인은 정치학과 정치적 실천에서 피할 수 없이 긴요한 것이며 비살생의 윤리 역시 정치학 및 정치적 실천과 양립할 수 없다는 막스 베버의 도그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비살생 사회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적어도 이전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던 것을 주요한 이슈로 만들어 내고 문제시하는 것이다.

비살생 정치분석의 논리

기존 정치학에서 비살생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시도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비살생 정치분석의 네 가지 논리가 필요하다. 첫째, 우리는 살생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 둘째, 비살생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 셋째, 살생에서 비살생으로의 가치관 전환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 넷째, 전적으로 살생이 없는 사회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역설적으로 폭력을 하나의 관행으로 인정하고 전제하는 학문보다 비살생 정치학에서 살생을 더 골똘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비살생 정치학이 살생 및 살생과 관련이 있는 것이 부재하는 상황을 비살생적 방법을 통해 성취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살생이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목적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용인될 수밖에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살생—자기 자신을 죽이는 행위, 타인을 죽이는 행위,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살인행위—의 원인을 이해하고 또 이를 제거해야 할 긴박성이 있을 수 없다. 비록 문제의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나는/우리는 너를 죽이겠다”고 전제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응 차원의 안전의식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가 부재한 경우에는, 즉 서로 죽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살생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제거한다는 것은 생존과 웰빙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되는 것이다.

인과관계라는 개념은 비살생 정치분석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개인 차원의 살인행위부터 대학살, 그리고 원자폭탄에 의한 대규모 파멸에 이르기까지 살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어떠한 경우든 또 그것이 아무리 복잡하고 상호 의존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비살생의 원인과 결과의 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살생의 모든 경우에 대해 인과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누가, 누구를, 어떻게, 어디서, 언제, 왜, 어떤 전례와 맥락,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의미, 그리고 결과를 배경으로 살생을 저지르는지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다양한 사례를 관통하는 살생의 원인에 대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여 살생의 원인에 대한 깊이 있고 이해하기 쉬운 유형론적 설명을 시도할 필요도 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는 비살생의 원인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왜 살생하지 않는가? 인간이 비살생의 원칙에 헌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 역사를 통해 어떤 사람들은—조롱, 추방, 축출, 박탈, 투옥, 고문, 단두, 암살, 사형, 그리고 집단살육에 이르기까지

온갖 살해위협에 직면하면서도 - 어떤 이유로 살생을 뛰어넘는 생명의 원칙을 확고하게 고수했던 것인가? 그들은 왜 비살생의 수단을 통해 비살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 관행, 제도를 만들었는가?

더욱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살생에서 비살생으로, 그리고 비살생에서 살생으로 변화하는 위인은 무엇인가? 살생했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용인했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거부하게 되었는가? 군인이 평화주의자가 되고, 혁명가가 살생을 포기하고, 한번 살생을 범했던 사람이 비살생에 헌신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째서 사상, 개인, 지도자, 조직, 제도, 정책이 비폭력으로 바뀌고 있는가?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이전에 비살생적이었다가 유희사태에 참여하고 또 그것을 지지하는가? 비살생적 분석은 불가역적인 선형적 발전을 전제하지 않는다. 비살생의 조건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신념상 동요의 범위와 정도, 그리고 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비살생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어느 개인에서 구조적 요인을 지나 사회 전체로 모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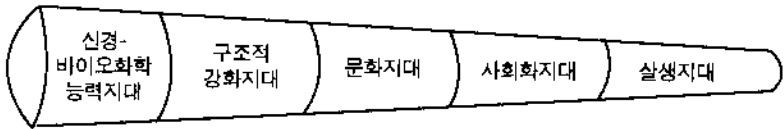
비살생 정치분석에 필요한 네 번째 사항은 전적으로 살생이 없는 사회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며, 이러한 특성은 가설적으로 각 사회마다 무한하고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전제한다. 인간이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언제나 똑같은 것만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전제할 필요가 없다. 모든 일이 다 극도의 창조성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이 네 번째 사항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창조적인 임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의 세 가지는 역사적이거나 혹은

현재의 맥락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발견을 확인하고 검증할 것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만, 이 네 번째 사항은 앞에서 얻어진 지식을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 잠재적으로 달성 가능한, 그리고 개인, 사회, 그리고 전 세계 차원에서 가설적으로 그려 볼 수 있는 삶의 조건을 탐구하는 과정과 결합하는 일이다. 이러한 과제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으며 이는 시인 월트 휘트먼(Walt Whitman)이 “현재를 뛰어넘음으로써, 그 이상적인 것을 현실에 보다 가깝게 가져다 놓는다”(To leap beyond, yet nearer bring)고 이야기할 때와 다를 바 없는 일이다(Whitman 1977(1855): 71).

필자는 지금까지 살생을 용인한 그 어떤 사회도 여전히 인간의 비살생 능력을 충분하게 보여주지 못했다고 가정한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경험과 현재의 경험을 잘 관찰하면—그리고 지금까지 확인된 여러 가지 인간의 능력을 가설적으로라도 잘 결합해서 생각해 보면—모든 사회에서 비살생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얻어지는 통찰력은 살생에서 자유로운 사회의 바람직한 특성과 그것을 현재 상태에서 구현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실천과정을 제시하는 ‘순수이론’의 탐구로까지 이어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가령 수학, 물리학, 경제학에서와 같이) 실제 응용에 기여하는 ‘순수이론’의 발전을 고무했던 과학과는 달리, 정치학에는 가설적이고 이론적인 상상력에 대해 수용적이지 못한 경향이 있어왔다. 이것은 특히 폭력과 관련되는 경우에 그러했다. 폭력을 전제하는 정치학은 비살생의 창조성을 목살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학자들이 정치학의 전문적 교육과정에서 비살생을 현실에서 이탈된 ‘유토피아적이고’ ‘이상주의적이며’ ‘비현실적인’ 것으로 무시함으

(그림 1) 살생 깔때기



로써 정치학적 지성은 영구적인 살생 속에 감금당했던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비살생의 창조성은 인간해방을 약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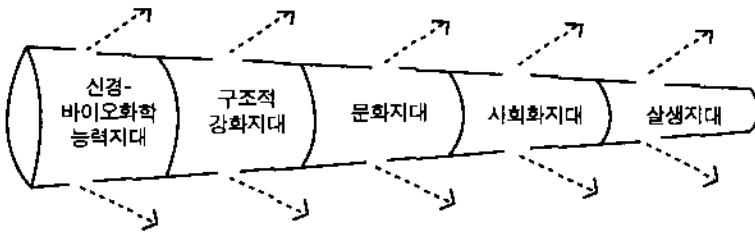
비살생 분석에서 나오는 기본 지식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살생깔때기(a funnel of killing)의 구성내용이라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5개의 영역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대안을 창출해 내기 위한 변혁적 행동을 유발하는 데 적용될 필요가 있다.

살생지대(the killing zone)는 개인적 살인부터 대량살생에 이르기까지의 유혈공간(the place of bloodshed)이다. 사회화지대(the socialization zone)는 사람들이 직접 교육을 통해 혹은 모방모델에 대한 간접적인 관찰을 통해 살생을 배우는 곳이다. 문화지대(the cultural conditioning zone)에서 우리는 살생을 불가피하고 정당한 것이라 용인하는 쪽으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를 문화적으로 변화하게 만드는 요인에는 종교, 정치적 '이즘', 승리와 잔인함에 대한 찬양, 가족적 전통, 법, 대중매체, 예술 등이 있다. 구조적 강화지대(the structural reinforcement zone)는 살생 지향적이고 이를 지지하는 사회경제적 관계, 제도, 물질적 수단을 제공한다. 그리고 신경-바이오화학적 능력지대(the neuro-biochemical capability zone)는 약탈 혹은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의 살생 및 비살생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

에 기여하는 육체적·신경학적 기능요인과 뇌기능을 포함한다 (Lopez-Reyes 1998; Morton 2000).

한 사람의 태도가 살생에서 비살생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영역에서의 목적의식적인 노력과 행동을 통해 살생 깔때기가 각종 비살생적 대안으로 채워져 있는 비살생 깔때기로 바뀌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한 변화에는 살생지대에서 고도의 정신적·비살생적 테크닉을 동원하는 일, 비살생적 사회화와 문화적인 조정, 사회경제적 조건의 재편성, 현상 유지나 변화를 위해 살생을 요구하지도 생산하지도 않는 일,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생물적 성향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일과 관련된 임상치료, 약의 조제, 신체적·자기변혁적인 의료행위와 같은 각종 조치가 포함된다.

(그림 2) 비살생 깔때기



비살생 행동원칙

살생으로 수렴하는 공간 속에서 비폭력의 대안을 창출해야 하는 일과 관련해서 비폭력적인 정치분석의 논리를 필요로 하는 지식을 계속 찾아가는 일에 덧붙여, 비살생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서는 일상적인 생활에서부터 전 세계적인 정치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완벽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임무는 실제적인 경험과 시뮬레이션을 결합하는 실험적 타당성 접근(an experimental validation approach)에 의해 추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군대의 인간-컴퓨터(military human-computer)와 '가상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전투 모의실험은 이미 엄청나게 발전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간디와 킹의 운동에서처럼) 20세기의 탁월한 행동에 나타난 비폭력의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당신이 종교적이든 인본주의적이든 그것과 관계없이, 생명을 존중하는 영감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사용하라.

너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라.

민인의 안녕과 복지를 추구하라. 폭력은 분열하고 비폭력은 결속한다.

갈등에 처해 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욕, 비난, 착취, 혹은 전멸이 아닌 화해를 추구하라.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의 조건을 없앨 수 있는 건설적인 일에 동참하라.

창조적이 되라. 기술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의 조건이 만들어지기까지 위대한 창조성을 필요로 했다. 비살생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보다도 더 위대한 창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변화를 위해 실험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라. 시행착오를 통해 비살생 사회로 가까워지도록 꾸준히 노력하라.

개인적으로 도덕적 모범을 보이는 사람부터 대중적 규모의 비폭력적인 사람들이 보여주는 막강한 힘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이거나 보다 큰 규모의 사회적 행동을 존중하라.

건설적인 용기를 가져라. 폭력으로부터의 지지를 포기하고 비폭력의 대안을 강화시키는 데 헌신하라.

땅위에서 가볍게 걸어라. 자연과 동료 인간에 대한 요구를 줄여라. 그러한 요구들은 폭력에 기여할 뿐이다.

비폭력의 가치를 발견하고 비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비폭력적 생명보호를 향해 개별적 상황과 맥락에 들어맞는 보다 강력한 비폭력의 원칙과 기술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

비살생 사회를 실현할 가능성을 인정할 경우, 이것은 정치학 내

의 모든 연구분야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폭력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인정하는 일반적 경향 속에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정치학자들도 우리 자신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시각을 갖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적극적으로 폭력을 동조하는 시각(*provioient*)은 살생은 자아 혹은 문명화를 위해 유익한 것이라고 적극 인정한다. 폭력 지향적인 시각(*violence-prone*)은 유리할 경우 살생하거나 혹은 살생을 지지하는 경향을 갖는다. 폭력에 대한 모호한 시각(*ambiviolent*)은 행동 또는 태도에서 살생과 비살생에 대해 똑같은 입장을 취한다. 폭력을 회피하는 시각(*violence-avoiding*)은 살생을 하지 않거나 비살생을 지지할 성향이 더 많으나 살생활 준비는 되어 있는 경우이다. 그리고 장차 살생을 지지하지 않을 준비가 돼 있는 경우 비폭력적 시각(*nonviolent*)은 살생을 하지 않는 데 헌신하고 살생에 도움이 되는 조건을 변화시키는 데 헌신하는 경우이다. 처음 네 가지 시각은 폭력을 전제하거나 혹은 폭력을 용인하는 정치와 정치학을 특징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의 비폭력적 시각은 학문과 사회에서 비폭력으로의 변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는 비살생 정치학의 창출을 요구하고 있다.

명시적이든 잠재적이든 필자는 현재의 정치학을 '폭력을 용인하는' 학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치학자들이 군대의 훈육담당 하사관이나 장교들처럼 교실의 학생들에게 "그래, 사람을 죽여라! 죽여!" 하면서 살생을 장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내란과 국가 사이의 전쟁을 대체할 수 있는(정당 간의 경쟁, 선거, 입법행위, 법과 같은) 민주적 정치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정치학자들의 폭력 회피적인 노력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의 정치학이 지니고 있는 폭력 용인적 본질과 비살생적 대안의 가능성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윤리-경험적이고 동시에 경험-윤리적인 차원에서 상당한 진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것은 자유, 평등, 정의, 민주주의의 문제와 함께 비살생이 정치학 내에서 규범-경험적이고 경험-규범적인 탐구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비폭력과 학문적 혁명

비살생 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정치학에서 비폭력적인 과학혁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정치학 내부에서 다음과 같은 7가지의 상호 의존적인 혁명이 필요하다. 살생 용인으로부터 살생거부로의 규범혁명(*normative revolution*), 비살생적 사회변혁에 호의적인 요소를 분별하는 사실혁명(*factual revolution*), 비살생으로 변화의 원인과 과정을 이해하는 이론혁명(*theoretical revolution*), 비살생으로의 변혁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교육혁명(*educational and training revolution*), 비살생 지식을 현실에 활용하는 응용혁명(*applied revolution*); 비살생으로의 변화를 용이하게 해 주는 조직을 창출하고 정착시켜 가는 제도혁명(*institutional revolution*), 그리고 비살생으로의 변혁임무에 가장 적합한 연구, 분석, 그리고 행동의 방법을 창출하고 적용하는 방법론혁명(*methodological revolution*).

규범혁명 여기서 의미하는 규범상의 변화란 살생의 불가피성에서 비살생의 불가피성으로의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은 윤리적 발견과 경험적 발견이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축적되고 가치가 부가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윤리적 진보라는 것은 살생이 윤리적으로 필연적이라는 생각에서 그러한 생각이 문제가 있다는 가치관으로, 비살생이 가설적으로 탐구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결국 비살생 규범에 대한 헌신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차원에서 경험적 진보라는 것은 비살생 사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에서 비살생 사회의 특성에 관한 실제적이고 가정적인 고찰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살생의 세계에서 비살생 사회를 창출하고 이를 지탱할 수 있는 지식을 찾으려는 학문적 헌신으로의 변화이다. 이와 같이 윤리적 문제제기와 경험적 응답—경험적 문제제기와 윤리적 응답—의 상호 침투적인 과정을 통해 비버가 단정적으로 언급했던 비폭력 원칙과 폭력 정치 사이의 상호 침투할 수 없는 장벽은 건널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생명에 대한 존중심은 현재 정치학의 공통된 윤리적 기반으로서 “증거와 추론의 규칙에 대한 타협할 수 없는 헌신”(Almond 1996: 89)에 추가될 수 있다.

(그림 3) 규범적-경험적인 비살생 패러다임 변화과정



사실혁명 실제로 비살생으로의 변화란 폭력을 용인하는 전체에 의해 간과되거나 혹은 무시되는 경향이 있는 인간의 비살생 능력에 대한 여러 증거에 대한 의도적인 회복과 발견을 뜻한다. 이러한 사실은 신경학에서부터 인간생명에 치명적이지 않은 하이테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발견되고 있다. 폭력적인 역사적·문화적 조건 속에서 발견되는 비폭력의 표명(*manifestations of nonviolence*)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 예를 들면 그리스에서는 BC 399년에 500명의 아테네 원로 중 대략 140명이 소크라테스를 죽이지 말자는 데 찬성투표를 했다(Stone 1989: 187). 일본에서는 불교가 대세였던 헤이안시대(794~1192)에 단두형벌은 대략 315년 동안 실행되지 않았다(Nakamura 1967: 145). 1917년 4월 4일과 6일에 미국에서는 6명의 상원의원과 15명의 하원의원이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에 반대투표를 했다. 1917년 10월 23일 러시아에서는 공식적으로 적어도 중앙위원회에서 5, 6명의 볼셰비키 당원이 레닌의 무장혁명 정책의 채택에 반대했다(Shub 1976: 271). 미국에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가 있기 전인 1945년 7월 말 150명의 맨하탄프로젝트 과학자 중 19명이 자신들이 참여해서 만든 무기가 어떤 형태로든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반대했다(Giovati and Freed 1965: 168; Alperovitz 1995). 1996년에는 미국 해병대가 모든 국방부서와 그 밖의 다른 비살생적 무기의 연구, 개발, 취득에 관한 정부활동을 조정하는 '집행기관'이 되었다(Lewer and Schofield 1997: 45). 비록 그러한 비살생무기가 현재에는 살생기술의 부속물로 사용되고 있고 또 여전히 살생과 상해를 입힐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비살생무기는 비살생 안보(*non-killing security*)로의 사고 전환을 이끄는 선구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비살생으로의 사실혁명은 모든 사회에 비살생 성향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과거와 현재의 모든 사례를 발견하고자 한다.

이론혁명 여기서 말하는 이론혁명이란 비살생적 분석에 필요한 지식을 증진시키고 개인의 의사결정, 시민사회의 행동, 공공정책에 기여하는 규범적 이론이나 경험적 이론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선구적인 이론적 통찰력의 세 가지 원천—원칙론적(principled), 실용주의적(pragmatic), 그리고 과정상의(procedural)—은 비살생 정치권력의 힘이 지닌 변화의 잠재력에 대해 특별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첫 번째 원천은 마하트마 간디가 그의 책 『사티야그라하의 과학』(*The Science of Satyagraha*, 1970)에서 제시한 것으로, 평소 간디 자신이 실천을 통해 강조해 마지않던 진실을 추구하는(정의를 추구하는) 개인적·집단적 행동을 통해 보이는 참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강력한 정신이다. 간디에게 모든 종교를 포괄하는 진실, 사랑, 비폭력으로 정의되는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믿음은 누구에게도 정복당하지 않는 비폭력 권력의 원천이다. 비폭력의 정신과 현실에 존재하는 그 생생한 비폭력의 실체는 곧 인간 생명의 기본법이다. 그러기에 폭력은 그러한 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다.

두 번째 원천은 진 샤프(Gene Sharp)의 『비폭력행동의 정치학』(*The Politics of Nonviolent Action*, 1973)에서 제시된 비폭력 권력이론이다. 정치권력의 복종 의존적 본질에 관한 통찰력 있는 분석에 기초해 샤프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비폭력 투쟁기술에 관한 폭넓은 내용을 제공하면서, 비폭력으로서의 다이내믹한 정치변화에 관해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샤프가 제기하는 핵심 주제는 비폭력적 정치행

동은 그 자체로 현실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비폭력적 정치행동을 위해서는 어떠한 선협적인 정신적, 종교적 혹은 평화주의적 원칙도 필요하지 않다.

비살생적 이론구상에 도전하는 통찰력의 세 번째 원천은 존 버튼(John Burton)이 시도한 폭력의 기원에 관한 욕구·박탈분석과 그가 처방한 비폭력으로의 변화를 위한 욕구충족의 과정이다. 버튼의 이론은 그의 책 『이탈, 테러리즘, 전쟁: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회적·정치적 문제의 해결과정』(*Deviance, Terrorism & War: The Process of Solving Unsolved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1979)과 그 밖의 여러 책에서(1984, 1996, 1997)에서 제시되고 있다. 버튼의 핵심 주제는 살인에서 전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살생은 정체성과 존엄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포함하여 인간의 여러 가지 욕구가 침해받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침해자와 피침해자는 다 같이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단 인간의 제반 욕구가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가치관을 호소하거나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그 어떤 방법도 살생을 억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욕구를 침해받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한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면, 이는 곧 폭력의 세계에서도 비폭력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희망과 약속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신적인 힘, 실제적 효용성, 그리고 참여적 문제해결에 대한 이러한 통찰력은 역사, 국가, 경제, 제도, 성, 인종, 그리고 그 밖의 다른 국지적이고 지구적인 조건을 고려하는 가운데 여러 인과적 맥락이 서로 교차하는 비폭력이론의 형성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 비폭력이론에서 창조성을 맥락화하고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 학자는 로버트 버로우즈(Robert J. Burrowes 1996), 베레니스 캐롤

(Berenice A. Carroll 1998), 요한 갈통(John Galtung 1996), 부루안 마틴(Bruan Martin 1989), 케이트 맥귀니스(Kate McGuinness 1993) 등이다.

응용혁명 이상과 같은 규범적·사실적·이론적 차원의 변화는 비살생 정치학이 실제적인 응용 차원에서도 담당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규범상의 변화는 비살생의 사상, 비살생을 실천하는 개인, 비살생 조직, 비살생 운동, 비살생 정책, 그리고 비살생 제도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건설적(비판적인) 지지를 시사한다. 샤프의 이론은 폭력적으로 억압적인 제도의 비폭력적인 변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명시적인 헌신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는 무반응적인(unresponsive) 민주적 제도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혹은 그것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버튼의 이론은 정치학에서 가장 중심적인 응용상의 역할은 인간의 여러 가지 욕구에 대해 비폭력적으로 대응하는 사회·정치적 문제해결 과정을 지원해 주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윤리, 방법, 욕구박탈에 대한 감수성을 두루 갖추고 있는 간디의 이론은 분명 살생과 살생위협이 산물이자 생산자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차원의 구조적 폭력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헌신적인 행동을 고무하고 있다. 그리고 간디와 킹의 비살생을 위한 정신적 원칙에 의해 고무된 지도자들은 비폭력적 구조변화에 이미 깊이 관여하며 헌신하고 있다.

비살생의 분석논리와 또 살생의 갈때기를 폭넓은 비폭력적 대안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을 통해 밝혀진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비살생 응용정치학은 국가적이고 전 세계적 차원의 변화를 지원하는 도전을 시도한다. ‘민주정치’와 ‘자유시장’이라는 조건 하

에서도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살생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민주정치와 자유시장이 그 자체로서 인간의 안녕과 복지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님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정치와 자유시장 같은 조건은 ‘비민주정치’와 ‘억압된 시장’과 상호 작용하고 또 서로 결합하며, 비살생 응용정치학의 창조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도전하고 있다.

교육혁명 비살생 정치학으로의 진보는 정치학자들의 전문적 교육과 그 밖에 다른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교육 서비스의 변화를 시사한다. 살생의 전통과 조건을 반영하고 긍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정치학 교육은 전 세계 차원에서 비살생적인 변화에 중요한 기여를 해야 한다. 이러한 분명한 목표는 비살생 사회를 위한 리더십과 시민의식을 고양시킨다. 문제는 비살생 지식의 발견, 회복, 그리고 공유를 통해 연구, 교수, 자문, 리더십, 시민행동, 그리고 비판적 사고를 위한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비살생 정치학의 교육은 정신치료학자와 정신상담가에게 기대되는 것과 유사하게 참여자의 특출한 자기인지를 필요로 할 것이다. 우리는 폭력과 비폭력에 대한 우리 자신의 믿음, 태도, 감정의 기원과 함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기이해는 비폭력으로의 사회변화를 위한 선결조건이다. 다양한 정신적 접근방식에 대해 개방적인 과학적 명상훈련이 필요하다. 상호 간 이익과 지지를 위한 개인적이고 전문가적인 성장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 밖의 다른 문제에서는 아무리 다양하다 할지라도 생명에 대한 심오한 존중을 표현할 때에는 개인적으

모든 동료 간이든 비살생 정치학자들은 상호 격려하고 지지하는 가운데 평생 동안 변화와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이런 것이 사회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것과 다를 필요는 없다.

비살생 정치학자들이 지문과 응용의 역할을 준비할 때에는 의학자, 의사, 의사를 교육시키는 사람, 그리고 그 밖에 생과 사를 다루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것과 다름없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비살생 사회에 대한 정치학자들의 기여는 개인의 건강과 보건을 위한 의료 전문가의 기여만큼이나 중시되어야 한다. 이 양자는 생과 사는 서로 연계돼 있음을 인정하는 가운데 가장 새로운 지식에 근거한 진단, 처방,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공감하고 있다.

동시에 모든 사회구성원은 비살생으로의 전 세계적인 변화에 의미 있는 기여자가 될 수 있다. 비살생 정치학의 교육적 임무는 비폭력 리더십과 시민의식의 지속적인 확대를 지원할게 될 개인의 발전과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한 기회를 모든 수준에서 참여하는 동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만인이 가르치고 만인이 배우게 된다.

교육에서 교과과정의 설계는 비살생 분석의 지식요건, 살생의 성향을 비살생의 대안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응용기술의 필요성, 그리고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원칙을 완벽하게 구비해야 가능하다. 기초과정이나 혹은 몇 개의 핵심적인 세 마니는 참여자들을 생생하게 역사적이고 현재 인간의 살생력에 대해 제시될 수 있는 가장 소름끼치는 증거와 접하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우리 학문의 임무가 인간 살생의 종식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일생 동안의 도전과 마주친다. 인간의 비살생 잠재력

에 대한 생생한 증거로 제2차 교육경험이 소개돼야 한다. 제3차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변화와 동요를 소개해야 한다. 제4차의 핵심적인 경험은 바람직한 사회를 위한 정치제도를 고안할 때 인간의 발명 능력을 검토하고, 정치학이 기여할 수 있는 살생 없는 사회와 가능한 방식의 특성을 그릴 때 필요한 창조성에 도전한다. 국가적 차원의 지식부터 전 세계적 차원의 지식과 욕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국가 간의 상호작용이 각 부문에서 소개된다.

이와 같은 기반이 조성된 조건에서 비살생 교육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의미 있는 참여와 그것을 통한 창조적 사고의 공유를 가능케 해 주었던 비폭력적 정치대안(nonviolent political alternatives)에 관한 학부과정의 강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각 참여자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폭력의 여러 측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유도해 그 폭력의 본질과 원인에 대한 기존 문헌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그러한 폭력을 직접 다루는 사람들을 방문해 폭력의 원인, 경향,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각 대안에 관해 그들 스스로 창조적으로 생각해 보고 각자 자신의 분석과 문제해결 방안을 서로 공유하면서, 집단적인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여러 제안에 대한 합의를 찾아 본다.

방법론혁명 비살생으로의 전환은 방법론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연구방법, 교육, 응용정치, 제도 형성에 대해 완전히 새롭게 생각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지적 도전은 먼저 비살생의 발견과 현실적 적용을 위한 기존의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필요한 대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 내는 것이다. 그리고 비살생으로의 변혁에 따르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러한 방법을 현실적으

로 적용하기 위해 신경학 같은 다른 학문의 발전을 고무하는 것이다. 특별히 도전적인 것은 살생공간에서 연구와 개입을 위한 방법 뿐만 아니라 살생이 비살생으로 전환되는 공간 내에서 적절한 분석방법을 찾아내는 일이다.

비살생 정치학은 적어도 철학, 역사, 제도, 법적 분석, 인터뷰, 참여관찰, 사례연구, 비교분석, 내용분석, 문맥해석, 게임이론, 공공선택분석, 통계추리, 서베이연구, 임상실험과 현장실험, 인간컴퓨터시뮬레이션, 그리고 목적에 따른 이러한 방법의 다양한 조합을 포함하고, 또 계속 확대되고 있는 연구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교육방법은 그 범위가 전형적인 강의와 읽기보기, 연구과정을 통한 토론부터 자기가 배우고 있는 세계에 관한 컴퓨터 자동탐독에 까지 이르고 있다. 정치응용 학문으로는 구조설계, 갈등해결, 조직상담, 선거자문, 매체논평, 안보정책 자문, 그리고 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지도자와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엄청난 일련의 지식과 기술에서 제기되는 방법론상의 문제는 “구시대적 방법과 새로운 방법이 사람 사는 환경에서 살생을 제거하는데 어떻게 최상으로 기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제도혁명 제도적 패러다임의 비살생으로의 변화는 정치학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구성돼야 하는가, 어떤 것이 그 하위학문(sub-disciplines)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정치학과 그 밖의 다른 학문 및 제도와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을 새롭게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것은 비살생의 시각에서 세계 및 국가와 지역적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새롭게 만들어질 제도 속에서 새로운 비살생 정치학의 발전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과 비폭력에 대한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학제적 또는 혼성적(hybrid)인 직종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만들어진 것으로 정치학의 전 세계적인 학회는 1949년에 창립된 세계정치학회(th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IPSA)가 대표적이다. 적어도 총 35,689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는 42개 국가의 정치학회가 그 핵심회원이며, 제도상 IPSA의 집행위원회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Appendix A). 다양한 회원의 이해관계는 구조적으로 18개의 주요분과와 38개의 연구위원회, 그리고 12개의 자유 연구분과를 통해 표출되고 있다(Appendix B). 이 외에 국내 학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각 나라별 정치학자와 정치학자들이 가르치는 많은 학생들이 이에 추가될 수 있다.

42명의 필자가 공동 집필한 『신정치학사전』(*A New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Goodin and Klingemann, eds., 1996)은 IPSA 프로젝트 일환으로 출판됐는데, 정치학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8개의 주요 하위분야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치제도(합리적 선택, 법률적 시각), 정치행태(합리적 투표자와 정당제, 제도주의적·경험주의적 접근방식), 비교정치(거시행태적 시각, 민주화 연구), 국제관계(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후기실증주의와 여성 인권적 시각), 정치이론(철학적 전통, 경험론), 공공정책과 행정(비교정책 분석, 사상, 이해관계, 제도), 정치경제(사회학적·그리고 앤서니 다운스의 시각), 그리고 정치방법론(질적 방법, 연구설계, 실험방법)이다. IPSA 학회장이 개회사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정치학을 새로운 세기로 끌어들이는 데 이보다 나은 책은 없을 것이다”(xiii).

그러나 이와 같이 많은 학문적 결실에도 불구하고 이 『신정치

학사전은 비살생으로의 학문적 변화가 필요함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색인에는 ‘폭력’이나 ‘비폭력’에 관한 주제색인이 없으며 ‘살인’, ‘대학살’, ‘단두형발’, ‘군사’, ‘테러’, ‘경찰’에 대한 주제색인은 더더욱 없다. 이 책에는 ‘전쟁’에 대한 60가지의 주제색인이 있고, ‘평화’에 대해서는 8가지의 주제색인이 있다. 인명색인에는 ‘히틀러’와 ‘레닌’이 언급돼 있지만 ‘간디’와 ‘킹’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 국방, 군사쿠데타의 방지—예컨대 진 샤프(Gene Sharp)의 『비폭력행동의 정치』(*the Politics of Nonviolence Action*, 1973)—를 위한 비폭력적 정치투쟁의 이론과 실천으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정치학자들의 이름과 논문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존 버튼(John Burton 1979, 1984) 같은 비폭력적 갈등해결에 대한 독창적인 이론가의 이름과 논문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요한 갈통(Johan Galtung 1996) 같은 선구자들의 탁월한 세계평화 연구에 관한 논문도 깊이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IPSA의 단체회원 중 가장 크고 오래된 정치학회는 13,300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미국정치학회(*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로, 이것은 1903년에 창립되었다. 미국정치학회 내에는 8개의 주요 분과, 96개의 하위분과와 31개의 특별 관심영역으로 체계화돼 있다(Appendix C 참고). APSA와 IPSA의 관심사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 미국 정치학의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다. 미국정부와 정치, 비교정치, 국제정치, 방법론, 정치철학과 이론, 공공법과 사법부, 공공정책, 그리고 공공행정 등이다. 비록 ‘갈등과정’과 ‘국제안보’, ‘무기통제’와 관련된 특별분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떠한 제도상의 구조도 명백히 비살생 정치분석과 행동논리의 지식과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없다. 예를 들면 ‘폭력’, ‘비폭력’

혹은 ‘평화’에 관한 특별분과는 없다(국제평화연구협회[the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Association]와 비교해 보라). 살생에 뿌리를 둔 방어적 민주주의가 문명의 진보를 위한 최상의 희망이라는 문화적 전제가 정치학자들로 하여금 대안으로서 비살생 문명에 분명한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는 것을 계속 억제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비살생으로의 변화는 미국정치학회와 세계정치학회의 핵심적인 구조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정치학 내 기존 분과와 하위분과 내부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살생 사회의 가능성과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비살생 수단에 관해 당신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은 기존의 성과를 활용할 것과 새로운 요소를 끌어들이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정치학의 4가지 ‘전통적 분야’, 즉 정치철학과 이론, 미국의 정부와 정치, 비교정치, 그리고 국제정치 내에서 비살생 차원의 여러 가지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현재의 정치학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정치철학과 정치이론

정치철학과 정치이론에서 비살생으로의 변화란 모든 종류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배태된 여러 정치사상을 재검토함으로써 정치학 연구에서 비폭력적 통찰력을 회복하고 비살생의 가치가 제공하는 새로운 창조성을 도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달튼 교수(Dennis Dalton)는 플라톤의 『국가론』(*The Republic*)을 재검토하고 플라톤이 이상국가를 논하는 가운데 전쟁과 사형제도, 군사문화

를 용인했음을 발견하고 이를 비판하는 한편, 철학자와 정치리더십이 추구해야 할 ‘비상해’(non-injury)라는 윤리적 이상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이상은 플루타르크(Plutarch)의 다음과 같은 말에도 반영돼 있다. “칼에 호소하는 것은 좋은 의사나 좋은 정치가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그럴 경우라면, 이것은 좋은 의사나 좋은 정치가 모두 기술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치가가 칼을 사용하게 되면 그에게는 기술이 부족할 뿐 아니라 부정의하고 잔인하다는 평가가 더 붙는다”(Plutarch 10: 249). 중국적 전통에서 맹자(BC 371~289)의 다음과 같은 말을 비교해 보면 흥미롭다. “힘(무력)을 사용해서 덕이 있는 체하는 사람은 폭군(tyrant)이다.…… 덕을 사용해서 인간의 인을 실천하는 사람은 왕(king)이다”(Fung 1952: 112). 또한 중국적 전통에서는 전쟁과 억압에 대한 비평가이자 ‘보편적 사랑’의 철학자인 묵자(BC 468~376)의 사상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재발견될 만한 것이다(Fung 1952: 76-105).

폭력을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고전은 재해석되어 그것으로부터 살생을 제거해 버릴 뿐 아니라 그것이 비폭력적 통찰력을 보유하고 또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문헌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많은 예는 차이와트 사타 아난드(Chaiwat Sath-Anand)가 『비폭력 군주론』(*The Nonviolent Prince*, 1981)에서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을 재해석한 경우와 버로우즈(Burrowes)가 클라우제비츠(Clauswitz)의 『전쟁론』(*On War*)을 재해석하여 비폭력적 방어전략의 원칙을 만들어 낸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힌두교의 정신적 고전인 『바가바드기타』(*Bhagavad Gita*)에 나오는 크리슈나 경(Lord Krishna)이 전사영웅인 아르후나(Arjuna)에게 전해 준 충고 속에서 비폭력행동의 원칙을 끄집어 낸 간디의 영향

을 받은 사람들이었다(Gandhi 1971).

과거에 폭력을 용인했던 고전들은 현재와 미래의 비폭력적 창조성에 도전하고 있다. 과거에 플라톤이 군인의 덕성을 가진 통치자들에 의해 통치되는 공화국을 제시했다면, 오늘날에는 비폭력의 원칙을 고수하는 용기 있는 지도자와 시민들에 의해 비폭력 공화국이 구상될 수 있다. 과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전쟁 수행에 유리한 정체(war-fighting politics)를 위한 헌법을 고안했다면, 지금 우리는 비폭력사회에 유리한 헌법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다. 과거에 마키아벨리가 폭력을 용인하는 지배에 유용한 기술을 제시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비폭력적 정치권력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고안하는 것이 가능하다. 과거에 홉스가 폭력의 독점을 통해 사회적 평화를 강제하는 괴물국가(monster state)를 제안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살생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의 여러 가지 필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통치방식이 고안될 수 있다. 과거에 로크가 절대주의적 통치를 추방하기 위해 폭력혁명을 구상할 수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비폭력적이고 민주적인 해방의 전략과 전술을 구상해 낼 수 있다. 과거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궁극적인 결정요인으로 폭력을 통한 계급투쟁을 구상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경제정의에 대한 오랜 열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비폭력투쟁을 구상할 수 있다. 과거에 루소가 규칙 위반자에 대한 살생에 기반을 둔 사회계약을 제안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현재의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폭력에 근거한 ‘계약’과 ‘협정’에 관해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비폭력적 공동사회에서 상호 간의 안녕을 유지·확보하는 데 공헌한 여러 사례를 고찰할 수 있다. 과거에 칸트(1795/1959)가 전쟁반대의 절대명령(no-war categorical imperative)을 확고하게

고수하는 것에서 ‘영구평화’(eternal peace)를 구상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비살생의 당위성을 전 세계적 실체로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요소를 제안할 수 있다. 미국의 정치전통이 고전적 폭력에 의존하는 독립선언과 폭력을 긍정하는 헌법을 물려받았다면, 오늘날 미국에서는 사회적 폭력에서 독립을 추구하는 비폭력선언과 새로운 비살생 헌법을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과거에 베버가 정치불 폭력의 불가피성을 용인해야 하는 직업으로 규정할 수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폭력에서 해방될 가능성을 전제하는 천직으로서의 정치와 정치학을 구상해 볼 수 있다(Arendt 1970; Müller and Semelin, 1995; Steger and Lind, 1999).

비살생으로의 변화란 철학과 이론분야에서 간디의 정치사상을 진지하게 그리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철학과 이론분야에 간디의 정치사상이 부재하다는 것은 폭력을 긍정하고 용인하는 세계에서 간디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인도 출신이 아닌 선구자들과 더불어 이데올로기나 학문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인도의 해석자들이야말로 간디의 정치사상을 철학과 이론분야에 반영하는 임무를 떠맡을 수 있는 풍부한 재원을 보유하고 있다(Dhawan 1957; Dangc et al. 1977; Iyer 1973; Parekh 1989a; Bondurant 1969; Dalton 1993; Galtung 1992; Sharp 1979; Steger 2000).

전 세계적으로 비폭력 정치사상에 대한 탐구가 시작됨에 따라 몇 가지 놀라운 발견이 기대될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의 정치철학자 황장엽은 1987년 12월 평양에서 저자와 인터뷰하는 동안 비폭력적인 ‘정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정치는 사랑과 평등에 근거하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에 그와 인터뷰 질문자였던 저자는 아렌트(Hannah Arendt 1970)가 “서로 함께 대화하고 결정하며 행동하는 것”(conversing, deciding, and acting together)을 강조했던 것과 버튼(Burton 1979)이 인간적 필요에 대한 대응과정을 강조했던 것과, 사회학자 소로킨(Sorokin 1948, 1954)의 ‘사랑’과 ‘창조적 이타주의’에 관한 탁월한 연구를 모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새로운 비살생 정치이론의 씨앗이라 할 수 있다.

정치체제에 대한 연구

조그마한 마을에서 민족국가, 그리고 초국가적인 실체와 같이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사회와 그 구성요소에 대한 전일적인 연구(holistic studies)에서, 비살생의 분석논리는 미래학자 해럴드 린스톤(Harold Linstone)이 말했던 기존 관행이 가지고 있는 가설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용기 있게 제기해야 할 질문이 무엇인지 시사하고 있다. 정치적 살생은 애국주의라는 요새 안에 안전하게 남아 있기를 더 좋아한다. 이러한 질문이 제기될 수 없는 정치체제에서는 그 체제 바깥에 있는 정치학자가 이러한 문제제기의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

그리고 비살생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대답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살생이 각 정치사회의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해 왔는가? 특정 정치조직체는 칭송할 만한 살생의 역사에 어느 정도까지 기반을 두며 자기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인가? 정부, 비정부 할 것 없이 어떤 유형의 살생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들의 미래 전망은 어떠한가? 법적이든 법 외적이든, 정부 찬성론이든 반대론이든, 국내든 국외든 간에 시민들은 어떻게 살생에 참여하고 또 이를 지지하는 쪽으로 사회화되는가? 정치, 경제, 사회와 문화적 사고, 관행, 그리고 구조가 살생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자유와 평등 같은 정신적인 것이든지 간에 그 밖의 다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정치조직체의 능력에 대해 살생이 지닌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사회에서 비살생의 사상과 관행, 정책, 제도의 역사적 뿌리는 무엇인가? 현재 이런 것을 표명하는 것과 미래의 전망은 어떠한가? 폭력적인 정치권력에 대한 비폭력적인 저항의 역사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또 비살생 사회의 실현을 지향하는 창조성과 건설적인 행동의 역사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셋째, 정치조직체 연구에서 살생과 비살생 사이의 전이(transitions)와 역전(reversals)의 역사를 질문해 보는 것이다. 어떤 중요한 인물이나 집단, 조직이 그러한 전이에 공헌해 왔는가? 군인이 평화주의자로 변한 경우는 있는가? 살인자가 생명을 존중하는 쪽으로 바뀐 적은 없는가? 폭력혁명이 비폭력으로의 사회적 변화에 헌신한 적은 없는가? 종교지도자가 살생의 찬양을 포기한 적이 있는가? 이른바 문화계 인사가 폭력의 용인과 폭력의 거부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든 변한 적이 있는가?

사형제도가 채택되거나 폐지되는 과정에서 혹은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군인들이 해산되었다가 다시 징집되었는가? 군대가 완전 폐지되었는가? 경찰과 시민이 무장해제와 재무장을 경험하고 있는가? 살생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면서 서로 죽을 힘을 다해 투쟁한 사람들 사이에 흑시라도

평화로운 가운데 진실로 회해했던 적이 있는가? 폭력을 지지했던 경제주체들이 비폭력적인 개인과 사회의 요구에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부응하는 쪽으로 변했는가?

넷째, 바람직한 비살생의 조건을 갖춘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보여주는 과거와 현재의 정치체제 내부의 요소—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는 무엇인가? 종교, 이데올로기, 법, 제도, 정책, 사회경제적 구조, 교육, 통신, 예술과 정치체제의 관계에서 어떠한 변화가 비살생 사회의 실현에 기여했는가? 어떤 조건이 자유와 평등, 물질적 복지, 살생으로의 재전환이나 살생의 위협이 없는 안전과 같은 가치의 증진을 촉진했는가?

비교정치

비살생으로의 변화란 인간의 비폭력 능력이라는 문제를 비교정치 탐구의 중심에 놓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어느 한 사회 내에서나 모든 사회에서 정부와 시민에 의한 살생의 위협이나 그 사용을 제거하는 것과 관련된 사상, 제도, 구조, 과정, 정책에 대한 지구적 차원의 비교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통찰력은 무엇인가? 비살생의 분석논리와 효과적인 가치관 변화의 사례에 의해 이끌어지는 비교분석은 단일 정치체제의 범주를 넘어서는 대안적 지식의 창출을 추구한다.

비교분석이 민주제도, 인간권리, 여성의 지위, 아동복지와 여러 경제발전 수준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각각의 사회도 살생과 살생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기준으로 비교될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등급이 매겨질 수도 있다. 그리고 살생을 측정하는 단위로는 국가기관과 이에 적대적인 사람들에 의한 살생, 범죄적 약탈, 시민 살인과 자살, 한 국가 내에서 다른 사회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살생, 살생을 위한 전문교육, 기술능력, 그리고 살생의 정치경제에 관한 물질적 지표 등이 있다. 단일 정체분석에서 도출되는 비살생의 특성에 대해서도 그 정도에 따라 서열을 매길 수 있다. 살생국가와 비살생국가에 대한 빈번한 비교분석으로 그들의 등급을 매기는 작업은 지구정치학이 마땅히 제공해야 하는 공공서비스일 것이다. 살생의 흥망성쇠 정도에 관한 보고서와 비폭력으로의 변화 능력의 성장 혹은 억압에 관한 보고서는 세계 주식시장 상황이나 스포츠 득점에 관한 일상적인 보도보다 분명히 더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서로 매우 유사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조건 하에 있는 정치체제 사이에 혹은 정치체제 내부에 존재하는 사회적 구성요소에 관한 비교연구는 일상적이거나 변혁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이러한 비교연구에는 종교, 이데올로기, 예술, 정당, 성, 도래집단, 교육수준, 계급, 종족집단, 기업, 대학, 그리고 직업이 갖는 살생과 비폭력적 성향에 대한 조사연구를 포함한다.

비살생에 대한 비교연구는 민주적인 국가는 권위주의적 정권에 비해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으며, 그 자신의 국민을 거의 살생하지 않는다는 현대 정치학의 기본테마를 옹호하고 강력하게 내세울 필요가 있다. 폭력문화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권력구조가 대통령제든 내각책임제든 살생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비살생적인 구조적·문화적 대안에 대한 통찰력을 찾기 위한 비교연구가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앞서 제2장

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폭력에서는 높고 낮은 서열을 이루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조건은 유사한 멕시코의 두 이웃 마을에 관한 비교 연구에서 문화적인 자기 이미지가 이들 사이를 구별하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폭력이 만연한 마을의 주민들은 그들 자신을 폭력적이고 폭력을 용인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비폭력적인 마을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를 평화롭고 또 그러한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자각하고 있었다(Fry 1994). 인도네시아의 두 마을에서 행해지고 있는 아이들의 놀이에 관한 비교연구는 보다 폭력성이 높은 마을 사람들은 폭력성이 낮은 마을 사람들보다 인간과 동물 사이의 폭력적인 전투게임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보다 덜 폭력적인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네를 타거나 사람이나 동물들이 평화롭게 어울려 사는 모습이 자주 나오는 게임을 더 즐겼다(Royce 1980). 이러한 발견은 권투, 하키, 레슬링, 미식축구처럼 경쟁이 심한 스포츠가 폭력적인 문화와 관련이 있다는 통찰력을 일깨워 주고 있다.

국제정치

비살생으로의 변화는 동시에 국제정치, 국제관계 혹은 세계정치처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존재하는 분과학문 전체에 대한 관심과 개별적인 분과학문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 비살생으로의 변화는 매개제도(intermediate institutions)에 대한 일상적인 관심과 함께 거시적 연구와 미시적 연구를 결합하고자 한다. 한편으로 전 세계적인 정치체제의 구성요소들(국가와 비국가), 이들 간의 관계구조,

그리고 문제해결의 과정이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될 것이다. 그렇다고 비살생적 국제정치 연구가 무역사적(*ahistorical*)이거나 혹은 비맥락적(*non-contextual*)이라는 것은 아니다. 비살생적 연구에서 역사는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주체는 인류이다. 그리고 비살생적 연구에서 맥락이란 전 세계적이고 지역적인 조건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의존적인 상호작용의 패턴이다.

다른 한편으로 비살생적 지구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각 세대가 태어나고 서로 뒤엉켰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구상에서 삶을 공유하고 있는 각 개인의 삶다운 삶에 대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 비살생적 정치분석의 기본단위는 개별적 인간이다. 조직, 구조, 과정은 집적된 개인행동(*aggregated individual behaviour*)의 산물이다. 세계정치는 세계 개인(*world individuals*)의 정치이다. 지구적인 비살생 사회는 살생하지 않는 개인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지구상 어느 누구도 살생하거나 살생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세계정치 연구는 반드시 지구상 모든 인간의 그러한 이해 관계가 심각하게 고려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비살생적 분석과 행동의 논리를 세계 전체 인류 모두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폭력의 경우 새로운 연구란 국가폭력과 반국가적 폭력, 전쟁에 관한 연구에 집중했던 정치학의 전통을 사회 내에서, 그리고 사회 간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살생을 포함하고, 또 이들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인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종합하는 데까지 확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비폭력의 경우 새로운 연구란 지구적 차원에서 정치조직 내에, 그리고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비살생의 힘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비폭력으로의 변화의 경우 새로운 연구는 지구적 체제라는 맥락

에서 각 사회 내부에서와,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살생과 비살생의 힘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적이고 가능한, 그리고 바람직한 지구 차원의 비살생 사회의 특성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비살생적 이론의 무한한 다양성을 전제로 하여 과거에도 있었고 또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는 여러 사회적 요구와 열망에 관한 진지한 탐구가 요구된다. 이것은 개인적 수준에서 각 개인의 폭력적이고 비폭력적인 성향, 비폭력으로의 변화과정에서 보이는 역동성, 그리고 창조적 개인의 비폭력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표출되는 사회적 맥락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살생의 경험과 이론을 비살생적인 대안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실천적 차원의 노력에서 지구적 시각이란 강압적 살생의 관행을 관통하는 전일적인 살생공간 억제기제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지구적 차원에서 비살생적 문제해결을 위한 리더십과 시터즌십의 사회화와 교육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비살생으로의 변화에 대한 지구적 차원의 문화적 기여를 확인하고 또 이를 고무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것은 살생을 지지하는 정치, 군사,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 구조에서 지구적 비폭력으로의 변화를 이해하고 또 지원하기 위함이다.

비살생 정치학

인간이 살생이 없는 사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현 정치학의 모든 분야와 하위분야, 여러 측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정치학은 가치중립적일 수 없다고 가정하면, 비살생은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학문적 가치인가? 비살생의 정치적인 힘에 관한 이론과 실천은 폭력적인 개념이나 주장과 경합해 이를 성공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지역적인 부분부터 지구적 차원에 이르는 비살생의 민주적 제도는 가능한가? 폭력적인 국가안보로부터 비폭력적인 국가 및 지구적 안보로의 변화는 이루어질 수 있는가? 폭력적인 정치경제로부터 비폭력적인 지구적 정치경제로의 전환은 또한 어떠한가? 페니미즘, 인종, 계급, 종족, 언어, 종교 같은 부문에서도 비폭력적인 이론과 실천은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사회폭력 및 비폭력의 잠재력, 변화과정에 관한, 그리고 다양한 비살생의 결과를 안정적이고도 창조적인 방법으로 예측하고 또 이를 감시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포괄적 이해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무엇인가?

이상과 같은 주장은 여러 가지 문제에 영향을 주는 모든 분야에서 정치학의 기여가 부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살생의 세계에서 비살생 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경우, 정치학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관한 생각을 다시 하게 한다. 재언의 여지 없이 그러한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지구적 차원에서 비폭력적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정치학의 적극적인 참여를 시사하는 것이다.

제4장 비살생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영양실조와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수천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대학살을 비난하고, 그러한 현실에 대해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비극의 원인은 모두 정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벨수상자 18명의 공동선언문, 1981

그렇다면 비살생 정치학이 갖는 문제해결적 함의는 무엇인가?
비살생 정치학의 목적은 지구에서 살생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비살생 정치학은 살생의 잠재적 희생자이거나 살생자인 이 세상 모든 인간의 평생 복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살생 정치학은 지구상의 각 개인에 대한 관심과 창조적인 목적을 정치학의 핵심으로 삼게 한다. 다른 한편 비살생 정치학은 각 개인의 정신, 성, 연령, 인종, 계급, 직업, 국가 혹은 정치적 정체성을 인정하지만 이를 초월하는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를 의미한다. 비살생 정치학은 동시에 살생의 위협이나 혹은 살생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만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문제해결

과정을 촉진시키는 초월적인 노력과 결합한 비폭력적인 ‘다양한 충성’(multiple loyalties)(Guetzkow 1955)을 의미한다.

비살생 정치학이란 살생에 유익한 요소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비폭력을 지지하는 요소를 강화시키기 위한 헌신을 의미한다. 그리고 비살생 정치학은 정치학이 문제해결의 책임을 전적으로 직접 담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그리고 비살생 정치학은 공적·사적 문제해결의 행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와 훈련을 포함한다. 그리고 비살생 정치학은 개인의 욕구 충족 과정이나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에 모든 사람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한다.

비살생 정치학에 대해 문제해결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이 곧 비살생 정치학이 전지전능하다거나 전권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살생 정치학이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문화적—복지와 잠재적으로 연계돼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전체주의적인 개입과 간섭을 의미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인물이나 제도, 정부, 비살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는 그들이 육체적 생존으로부터 경제적 안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최고의 인간 욕구를 실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성공하는지 혹은 왜 실패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살생 사회의 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살생 정치학은 그 관심의 대상과 활동의 잠재적인 범위가 의학이나 공공건강 분야의 그것만큼 제한적이지는 않다.

문제(problem)란 바람직한 것과 현실적인 것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치(dissonance between the desirable and the actual)로 정의될 수 있다. 그

리고 각각의 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의 여러 가지 하위문제들(sub-problems)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것들은 규범적(어떠해야 하는가), 경험적(현실은 어떠한가), 그리고 잠재적(어떻게 될 수 있는가)인 문제로 대별된다. 또 각각의 문제는 체계상의 복잡성, 상호 의존적인 환류과정,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 할지라도—인종적, 철학적, 또는 경험적으로—비살생 정치학은 인류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명시적인 헌신을 포기하지 않는다. 비살생 정치학은 행동상의 폭력을 종식시키고 구조상의 폭력적 조건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두 가지 폭력의 조건이 상호 작용하여 발생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헌신하고자 한다. 비살생 정치학은 살생을 지지하는 생각과 행동을 제거하고, 비살생에 협력하는 기존의 제도를 지원하며, 비살생적 정책과 제도를 새롭게 창출하고자 한다.

정치학으로 하여금 응용과학적이고 응용인문학적인 문제해결의 역할을 담당하게 할 경우, 그것이 폭력과 살생에 대한 해결책을 미리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어떤 질병은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가정이나 특정 병에 대한 처방이 진단과 처방, 그리고 치료과정에 앞서 반드시 미리 알려져야 한다는 생각은 그 어느 것도 기초의학과 응용의학의 발전을 사전에 가로막지는 않는다. 정치학도 기본적으로는 삶과 죽음의 문제로 의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비살생 정치학이 폭력을 용인하는 정치와 정치학이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유행을 동반한

폭력수단을 통해 폭력을 제거한다는 목적에서 투여된 엄청난 양의 학문적·인적·물질적 재원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의 수도에서 전쟁과 대학살로부터 살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인 살생을 종식시키는 데 실패해 왔다. 엄청난 창조성이 살생에 바쳐져 왔다.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비살생의 대안을 드러내기 위해 유별난 창조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인류역사상 살생의 시대를 종식시킨다는 것이 단지 정치학만의 임무는 아니다. 이러한 임무는 모든 학문, 인류, 모든 직업,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학이 다른 사람들의 이니셔티브를 지지할 뿐 아니라 스스로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 있는 임무이다. 일차적인 과제는 비살생의 세계에 도움이 되는 비살생 정치학을 창출할 수 있다는 모든 가능성을 부인할 정도로 가공할 만하다고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유형이 있다. ‘히틀러와 대학살의 문제’, 혁명적인 구조적 변화의 문제, 그리고 개인에서 민족국가에 이르기까지 안전보장의 문제가 그것이다.

비살생과 히틀러, 대학살

정치리더십과 살생의 문제는—여기서는 히틀러와 대학살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만—앞으로 직접 다루어야 할 주제이며, 또한 그것은 기초 및 응용과학의 문제해결 노력의 하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대학살의 침략이나 대중계급의 말살, 시민학살의 무시무시한 사례가 비살생 가치의 학문적 창조성을 마비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학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영원히 대학살의 독재자, 혁명적인 계급 파괴자 또는 도시와 마을의 정의로운 파괴자가 행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폭력인 대항살생(countervailing murderousness)을 준비하는 운명에 직면할 수도 있다.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여전히 저발전된 정치 리더십 연구에서 학제적인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살생성향의 행태적이고 체계적인 변수를 인식하고 비살생 리더십과 그에 대한 추종을 실현하는 데 유의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함묵적인 비살생으로의 변화과정에 대한 개입을 일구어 낼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 몇몇 변수는 지도자의 성격, 역할의 힘, 조직적 지지, 임무, 가치의 탁월성, 기술적 역량, 그리고 살생을 부추기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살생의 요인(Paige 1977)이다.

우리가 20세기에 겪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비살생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살생성향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살생성향이 있는 지도자들이 출현하는 것을 종식시키기 위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역사상 어느 한순간에는 반드시 살생을 주저 없이 거부해야 하고, 또 살생을 저지르는 정치체제에 대한 협력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복수심에 불타는 패배자와 상처투성이인 승리자 사이에 살생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일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생각해 보건대 20세기에 우리가 목격한 심각한 대량학살은 지구상에서 전쟁을 완전히 폐지하고자 했던 19세기 후반의 평화 옹호론자들이 전적으로 옳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냉전과 냉전 이후까지 자행된 대량학살 간에는 분명히 어떤 연관성이 존재한다. 예방정치학(preventive political science)이 할 수 있는 것은 최근이든 고대이든 어떤 대립적인 상황이 대량학살로 악화되기 전에 상호 간에 복수심으로 가득 찬 적의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이들을 화해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일이다. 복수심에 가득 차 적의 말살을 찬양하는 지도자와 추종자들의 출현을 종식시키기 위해 정치학은 분명코 살생을 예방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비살생적 삶의 조건(conditions of nonkilling life)을 창출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

잠재적으로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아민, 폴포트 같은 사람들, 그리고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트루먼과 같은 사람들의 출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실천되어야 한다. 첫째, 정치리더십 개념을 살생하는 전투사령관에서 비살생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촉진시키는 존재(facilitator of nonkilling societal problem-solving)로 재정립하자. 둘째, 공격적인 폭력성향의 성격을 가진 지도자의 야망을 초기에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자. 셋째, 정치지도자의 책임 있는 리더십 역할에서 의도적인 살생과 타인에게 살생을 명령할 권한을 배제하자. 넷째, 복종을 맹세하고 살생무기로 무장된 전문적인 살생조직을 지도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다섯째, 살생 지향적인 조직에 대한 종교, 경제, 노동정책, 학문, 예술적 차원의 지지를 철회하고 비살생적 대안의 실천에 전념한다. 여섯째, 욕구 대응적 갈등해결(need-responsive conflict resolution)을 정치지도자와 시민이 기대하는 최고 수준으로까지 발전시킨다. 일곱째, 비살생 가치에 대한 헌신을 국민적 자긍심과 주대의 핵심으로 삼는다. 여덟째, 인간 말살을 정당화할 만큼 사악한 사람들을 유인

원 혹은 다른 어떤 존재로 규정하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한다. 아홉째, 집단 내 모든 구성원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지속적인 상호 대화를 추구한다. 열째, 개인과 집단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폭력을 통해 만족을 추구하게 만드는 사회경제적, 그리고 여타의 구조적 조건을 변화시킨다. 열한째, 살생의 경계를 생명을 존중하는 인간욕구에 봉사하는 쪽으로 변화시킨다. 열두째, 그리고 예술과 학문을 통해 비살생 문화의 창출을 촉진시킨다.

물론 히틀러가 저지른 참혹한 대학살을 응징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살생 이니셔티브가 정치지도자와 군사전략가들에 의해 시도되었다는 사실은 비살생의 응용학문적 창조성에 대한 적지 않은 도전이지만, 비살생적 대안이 특히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기술혁신 능력이 풍부하게 발전한 이 시대에 결코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문제해결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고 검증할 수 있는 조치 중에는 지도자·추종자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고양시키는 일, 살생행위를 전 세계적 차원에서 비난하고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일, 그리고 살생을 자행하는 개인과 집단, 그리고 기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정교한 기술을 갖춘 군대를 활용해 우주, 지상, 해상, 공중에서 공격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살생을 예방하기 위해 직접적이든 다양한 경로를 통하든, 소극적이든 적극적으로든 간에 여차하면 개입할 것이라는 압력을 일단 드러난 살생의 원천에 집중시켜야 한다.

히틀러가 저지른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살인자, 희생자, 그리고 그 친척—중에서도 비살생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나와 비살생으로 변할 수 있는 인간능력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사

실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정치학은 잔인한 폭력, 원상회복, 화해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학습과정을 창출하는 데 전념해야 하며, 특히 비살생 세계와 비살생 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할 예방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 학문, 전통과 같은 모든 자원이 가동되면서 비살생은 사람들 사이에서 미래의 문화와 자부심의 중심으로 인식돼야 한다. 그러한 잔인한 폭력이 다시는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진지하고 헌신적인 행동이 많이 나와야 한다.

대학살에서 전쟁에 이르기까지 대량학살의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해 비살생 정치학은 첫째로 적어도 세 가지 응용학문 차원의 과제, 즉 예방, 개입, 그리고 고통스러운 폭력 이후 비살생으로의 변화에 전적으로 매진해야 한다. 그리고 비살생 정치학은 인간사회의 잔혹한 폭력이 비살생 원칙에 의해서는 제거될 수 없다는 기존의 전제에 의해 부과된 장애물에서 그 자신을 해방시키고 스스로 창조적인 봉사를 실천해야 한다.

비살생과 폭력혁명

비살생 정치학이 문제해결 과정에 전념할 때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폭력혁명과 반혁명의 문제이다. 여기에는 군사쿠데타, 반쿠데타, 테러, 반테러, 게릴라전쟁, 대규모의 시민전쟁이 관련돼 있다. 기존의 정치학은 약간은 모호성을 띤 채 폭력을 용인하는 쪽에서 이러한 혁명과 반혁명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좋은 정치체도가 아닌 사악한 정치체도에 대항한 폭력은 칭찬할 만하다. 사

악한 혁명에 대항한 반폭력은 수용할 만하다. 둘 중 어느 경우이든 정치적 변화를 달성하거나 혹은 이에 저항하기 위한 폭력은 정치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가치 있는 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일부 미국 학자들 속에서 그와 유사한 다음과 같은 논쟁이 있었다. 즉 경제 엘리트들은 평화적으로 재산과 권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혁명적 폭력이 정당화된다. 그러나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은 사유재산의 착취체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혁명에 대항하는 반혁명을 지지한다. 사람은 언제나 혁명을 위한 살생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미국정부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민들의 권총 소지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선거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억압적인 정치제도를 제거하고 더 이상 관대하게 보아 줄 수 없는 사회경제상의 구조적인 폭력의 조건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비살생 정치학은 비폭력적 혁명의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비살생 정치학은 먼저 혁명은 반드시 폭력적이어야 한다는 기존의 전제에도 전제 문제를 제기하고, 다음으로 효과적인 비폭력적 대안에 관한 지식, 즉 원칙, 전략, 전술, 조직방법, 그리고 집행능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반세기 냉전이 지속되는 동안 정치이론가들에 의해 확인된 바 비폭력혁명의 가능성을 담보해 주는 세 가지 뚜렷한 징후는 세계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준 혁명적 전통을 가진 미국, 소련, 중국 등 세 국가에서 나왔다. 미국에서는 샤프 박사(Gene Sharp 1973)가 정치권력의 기초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효과적인 비폭력투쟁 사

례에 대한 폭넓은 역사적 탐구에 근거해 비폭력 정치혁명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고전적 논의를 제공했다. 사프 박사는 항의와 설득으로부터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비협력과 직접적인 비폭력적 개입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198가지의 비폭력적 행동방식을 명쾌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는 후에 ‘전환, 수용, 그리고 강제’(conversion, accommodation, coercion)에 ‘분리’(disintegration)를 추가해 모든 유형의 비폭력 행동방식을 포함하는 역동적 비폭력 변화이론(a dynamic theory of nonviolent transformation)을 제시했다. 소련에서는 플라마크와 카리아킨(E. G. Pimak and Y. F. Karyakin 1979)이 혁명을 ‘거대한 인민의 생명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국가권력이 한 계급에서 다른 계급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당시 그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탈식민지화와 민주적 경험에 근거해 평화적인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평화적인 사회주의 혁명을 무장투쟁도 없고 시민전쟁도 없는, 그리고 무장 반혁명의 개입도 없는 혁명으로 정의했다. 과거의 실패가 새로운 역사적 환경에서 평화혁명의 추구를 억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평화적 혁명의 전개 가능성이 신중하게 객관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연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장이핑(Zhang Yi-Ping 1981: 79)은 마르크스 이론과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성공한 국가 독립투쟁에 근거해—특히 인도에서 간디 운동을 통해 증명된 대중동원 능력에 기초해—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일방적으로 시간, 장소,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폭력혁명을 지지하고 비폭력혁명을 격하하는 견해는 이론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실천에서 해로운 것이다.”

그리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혈이 낭자한 혁명과 반혁명이 교차

하는 시대에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폭력적 전통 속에서 자라고 교육받은 정치분석가들은—독자적으로 또는 겉으로 보기에 서로를 잘 모르는 가운데—비폭력 혁명이론과 실천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학문적 과제를 절실하게 제기했다. 이들 속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공통요소는 이들이 다 같이 인도의 정치적 독립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문화적 변화를 추구한 간디의 비폭력운동을 언급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비폭력 정치이론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든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든 대체로 억압받는 사람들의 시각을 통해 이해돼 왔다. 그러나 비폭력혁명에 대한 폭력적 억압에 대한 대안으로서 비폭력적 엘리트 대응행동 이론까지 제시하지는 못했다. 샤프 박사의 분석에 대한 반론도 제시되고 있다. 부유한 자산소유자, 인종 지배자, 정치지도자, 경찰관, 군인은 비폭력적으로 인간의 권리와 경제정의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는 사람들—빈곤한 사람, 토지 없는 사람, 피억압자, 소수민족이나 혹은 다수민족—을 비폭력적으로 무장하지 않은 채 대면할 수 있는 이론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또한 억압하는 사람들, 즉 특권층과 억압받는 사람들, 즉 소외 계층 사이에 상호 만족스런 관계가 형성되는 새로운 사회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비폭력적 투쟁 혹은 비폭력적 계급투쟁 이론도 가능하다. 이것은 인간본성에 내재한 비살생적 요인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으며, 친폭력적인(pro-violent) 엘리트와 그들의 친폭력적인 적대자에 의해 평화적인 변화를 주창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억압적 적의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각각의 폭력적 투쟁지는 이러한 비폭력적인 생각이 자신들의 지지기반, 즉 계급을 구성하고 있

는 사람들의 군사적인 살생 태세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 비폭력적 행동의 주창자를 억압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냉전 기간에 미국과 소련의 엘리트와 대중매체는 비살생적 사고가 수 세적 대응을 불러와 그들 자신의 군사주의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킨다고 암시하면서, 평화론자의 호소를 재빨리 평가 절하하거나 혹은 억압했다. 이와 유사하게 무장 저항운동을 지지하던 학자와 적극적 운동론자들은 피억압자가 비살생적 대안을 수용할 것을 두려워하며 대안으로서 비폭력혁명을 비난했다.

따라서 만일 억압자와 피억압자가 서로 비살생 원칙을 수용하고 실천한다면, 비살생 계급투쟁이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학이 비살생적인 방법에 의한 혁명적 문제해결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실천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 마하트마 간디와 마르틴 루터 킹 박사가 이미 보여주었듯이 사회적 변화를 위한 비폭력투쟁의 모든 단계에서 대립하는 상대방과 궁극적으로는 '화해'할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야말로 전략적으로 효과적임이 이미 확인됐는데, 이것이 바로 비폭력투쟁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다. 이미 오래 전에 마키아벨리는 독재체제에서 자유체제로, 그리고 자유체제에서 독재체제로의 정치적 변화는 그 국가를 위대하게 만든 시민들의 일반적 합의에 의해 추진될 때 '유혈 없이도'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The Discourses, Book 3, Chapter 7).

비살생과 안보

비살생 정치학은 개인적, 지역적, 국가적 및 국제적인 수준에서 살생적인 침략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는 신뢰할 만한 안보 차원의 대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안보이론과 실천은 궁극적으로 살생의 위협으로부터 생성된 것이다. “내우리는 당신에게 내우리가 당신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게 만들기를 원한다.” 그러나 비살생 안보는 이와는 정반대가 되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내우리는 당신으로 하여금 내우리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임을 절대적으로 믿게 하고자 한다. 그리고 당신은 또한 내우리를 죽이지 않을 것임을 내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게 해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서로 각자에게 우리는 죽이지 않을 것임을 절대적으로 믿게 해야 한다.” 누군가가 누구를 죽이기로 결정하는 한 그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다. 살생적 재능은 방패, 갑옷, 두건, 방벽, 요새부터 원자폭탄 방어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어수단을 압도한다. 공세적 살생은 모든 형태의 살생적 방어수단을 압도한다. 화살은 창을, 기관총은 권총을, 포병대는 보병대를, 탱크는 기병대를, 로켓은 탱크를, 잠수함은 전투함을, 공군과 미사일부대는 거의 모든 형태의 무기를, 핵과 생화학무기는 모든 형태의 무기를 압도한다. 총으로 가득 찬 무기고에서 산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침입자는 갑옷을 뚫을 수 있는 미사일, 중무장한 포병, 그리고 더욱 가공할 만한 전투술을 갖출 수도 있으며, 혹은 대기나 식량, 음용수를 독약으로 쉽게 오염시킬 수 있

는 능력을 가질 수도 있다. 안전을 확실하게 담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살생하려는 의지를 제거하는 것이다.

비살생적 안보로 전환할 때 정치학의 역할은 이론과 실제의 차원에서 치명적인 살생위협이나 살생력의 행사에 대항할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잠재적으로 살생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살생의지를 비살생 쪽으로 변화시키는 예방적 대안까지 포함해서—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이 바록 지금까지 기존의 정치학 내에서 크게 각광을 받지는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학문적 업적과 경험은 새로운 진보의 발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예컨대 나치 대학살에 대한 시민저항에 관한 탐구(Hellie 1979; Fogelman 1994; Semelin 1994), 마피아 범죄조직에 대한 다닐로 돌시(Daniilo Dolci)의 공동체 차원의 비폭력적 저항(Amato 1979; Chaudhuri 1998), 인권운동가를 경호하는 비무장 경호인(Mahony and Eguren 1997), 군사쿠데타에 대항하는 비폭력 저항(Roberts 1975; Sharp 1990, 1993), 국가·시민·사회 차원의 비폭력적 국방체제(Boserup and Mack 1974; Sharp 1990; Martin et al. 1991; Randle 1993; Burrowes 1996), 재래 군사력의 비살생적 사용(Keyes 1982), 대안적인 비폭력 군대(Banerjee 2000; Weber 1996; Moser-Puangsuwan and Weber 2000), 비살생적 무기의 개발(Lewer and Schofield 1997) 등이 있다.

그런가 하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비록 기존의 폭력적 군사수단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민방위제도를 두고 있지만, 비폭력적 민방위체제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 왔다(Schmid 1985; Sharp 1990; Randle 1994: 121-37). 태국에서는 군사쿠데타에 대항하는 비폭력 저항을 정당화

하는 다음과 같은 독특한 내용을 1977년의 헌법 제65조에 포함시켰다. “태국 국민은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수단을 통해 행정권(administrative power)을 획득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평화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치안과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비살생무기에 관한 연구는 적어도 1965년부터 미국에서 추진돼 왔으며, 1990년대 들어 더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레이저무기, 시각무기, 청각무기, 전자기파장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등 광범위한 차원에서 수십 종의 무기가 개발되었다. 일부는 이미 경찰과 해외 군사작전에 사용되었다(Lewer and Schofield 1997). 현재 정부 차원의 사회적 방위에 대한 관심이 그런 것처럼 비살생무기에 대한 관심도 기존의 살생무기 체계에 대한 보완의 차원에서 주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비살생적 대안이 기존의 폭력적 안보전문가에 의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은 정치학이 보다 진지하고 보다 진보된 포괄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를 고취시키고 있다. 그 과제란 완벽한 비살생 안보체제로 변화하는 데 따르는 여러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비살생적 안보를 지향하는 운동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조짐은 치명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카네기위원회(Carnegie Commission on Preventing Deadly Conflict, 1997)의 최종 보고서에 포함돼 있다. 이 보고서는 “예방문화의 창출”뿐 아니라 “구조적 예방: 치명적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들”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비살생적 안보가 개인 차원뿐 아니라 전 세계 차원에서도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비폭력 평화군(a global nonviolent peace force)을 조직하자는 제안이 그 하나의 예다(www.nonviolentpeaceforce.org).

비살생 정치학은 지금까지 비폭력사회를 실현하는 데 있어 넘을 수 없는 장애로 평가되었던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격적인 육체적 폭력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 말살의 위협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관심사여야 한다. 왜냐하면 첫째, 생존 없이는 그 어떠한 다른 문제도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살생에 대한 지속적인 불입은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지구적 차원의 안녕과 복지를 위협하는 구조적이고 생태적인 폭력의 조건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으로 비살생을 강조할 경우 다음과 같은 질문과 정면으로 마주친다. 심리적 학대, 고문, 인종차별주의, 성적 차별주의, 경제적 착취, 독재 등이 육체적 살생보다 많은 고통과 죽음을 초래할 때, 비살생에 유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우리가 살생이라는 방법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할 경우에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 한 가지 해답은 살생의 의지, 능력, 문화가 살생을 유발하는 사회경제적·구조적 비형평성의 주요한 근본원인이라는 것이다. 죽음의 두려움과 위협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학대, 고문, 인종차별주의, 여성에 대한 억압, 경제적 착취, 독재가 지속될 수 있겠는가? 인간의 경험에서 나온 살인에서 전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살생의 제거는—정신적·심리적·물질적으로, 민주적 차원에서, 그리고 환경적 차원에서—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여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정도로 기여할 수 있다. 비살생에 참여한다는 것은 인간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각 시대의 주요한 당면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정치학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간디는 자기 왼손의 5개 손가락으로 자신이 실천해야 할 주요 과제를 집적하곤 했다. 불가촉천민들에 대해 평등하게 대하기, 경제적 해방을 위해 자기 홀로 무명옷을 짜는 일, 약과 술의 절제,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사이의 우의,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평등.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고 손목이 비폭력이다”(Ashe 1969: 243).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도 현재 전 세계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5가지 문제에 전념할 수 있다. 지속적인 살생의 중단과 무장해제의 필요성,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대학살과 경제적 평등의 문제, 인간존엄성의 침해와 인권리의 상호 존중의 필요성, 생물권(생활권)의 파괴와 지구 생명유지의 필요성,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가로막는 타자부정의 분열적 태도 (other-denying divisiveness).

이러한 5가지 문제는 모두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 국가, 전체 인류에 공통적이다. 우리 모두는 살생으로부터의 자유, 경제적 박탈로부터의 자유, 존엄성 부정으로부터의 자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이들 문제와 여타 문제를 해결할 때 주변으로부터 협력을 얻는 데 실패하는 일로부터의 자유를 필요로 한다. 이런 문제는 살생을 궁극적인 문제해결자로 간주하고 계속해서 그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 악화되고 있다. 우리는 살생과 살생하기 위한 무장을 활용하는 안보체제를 추구한다. 살생을 위한 무장은 경제적 박탈에 기여하며 구조적 불평등을 강화한다. 인권을 주장하거나 부인하는 상황에서 살생은 오랫동안 사무친 보복적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살생하는 전투와 군사산업화는 환경을 파괴한다. 그리고 적대적이고 공포의 봉쇄를 통한 고립화는 당사자 모두에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에서 상호 협

력하는 문제해결을 가로막는다.

비살생적 문제해결은 살생을 거부할 뿐 아니라 건설적으로 육구층축적인 변화에 전념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전쟁과 전쟁무기의 폐기, 빈곤의 폐지, 인권과 책임의 비폭력적 표명, 환경유지의 적극적 고취, 인간욕구에 부응하고 개인과 전체 인류 속에서 무한한 창조적 잠재력을 발산시키는 문제해결 과정에 모두가 하나같이 전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각이 모두 유토피아적인 발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세계화시대에 고대 인간의 관심을 다시 생각하게 하면서) 우리 시대에 실제로 가장 많은 것을 경험한 정치, 군사, 경제, 학문,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도자들과 시민사회 지도자들 중 일부가 과거에서 물려받은 것이다. 정치학자들이 실제로 UN이나 혹은 다른 여타 기관의 후원 하에 소집된 문제해결을 위한 주요 회의가 세계 모든 이들에게 지금 요구되는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 의지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요구는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협력적인 문제해결 행동의 모든 원천에까지 미치고 있다. 정당, 비정부조직, 회사, 노동조합, 대학, 대중매체, 종교, 그리고 예술 등. 생명을 위협하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보다 강력해짐에 따라 그에 따른 위기감이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의 행동부재로 미래에 초래될 엄청난 결과에 대한 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는 무기확산, 물질적·심리적 관용의 한계를 폭발시킬 정도로 위협을 가하는 국가 내에서의 국가 사이에서의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와 결합된 급속도로 증가하는 인구, 공업과 농업에서의 무제한적인 자연자원 남용으로 인한 생명 위협적인 결과, 그리고 여성,

원주민, 억압받는 소수민족,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기되는 평등한 참여의 요구를 제대로 경청하지 않는 일종의 자기 패배적인 실수 등이 포함된다. UNESCO의 사무총장 페데리코 메이어(Federico Mayor)와 같이 전 세계의 여러 상황에 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는 “범상치 않은 일이 많은 매우 긴박한 시대이다”(Mayor 1995: 83-93).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정치학이 그 긴박함에서 소외되어야 하겠는가.

비살생과 무장해제

이제 마땅히 해결돼야 할 여러 문제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시도된 비폭력운동은 사실 그 어느 것도 정치학이란 학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지구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에 의해 야기되고 있다. 그리고 정치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에 대한 분명한 요구가 최초로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 하의 일반적이고 완전한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유엔총회 무장해제특별회의(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Disarmament)의 최종보고서에 나와 있다(U.N. General Assembly 1978). 오직 한 나라(알바니아)만이 불참한 가운데 159개국 대표는 모든 핵무기가 폐기될 필요가 있음을 선언했다. 또 이 보고서에는 동시에 생화학무기와 여타 대량살상무기의 폐기, 모든 해외 군사기지의 폐쇄, 영토방위 차원의 제한된 목적에 따른 무장군대의 축소, 재래식무기의 감축, 그리고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에서 여러 인적·물적 자원을 경제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군비지출의 대규모 낭비를 축소시키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많은 제안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불행하게도 폭력적인 강대국이 비폭력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고전적인 요구조차 대다수의 정치학자들에게는 전혀 낯선 얘기일 뿐이다.

비살생 정치학은 무기 없는 사회의 성취를 향한 점진적 발전을 약속하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는 여러 노력, 예컨대 광산채굴, 무기거래, 공격용 부기와 권총을 금지하는 운동, 마을과 도시에 무기가 없는 평화지역을 세우기 위한 운동, 그리고 전 세계에 핵무기가 없는 지역을 창출하기 위한 운동과 분리될 수 없다.

비살생과 경제적 박탈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을 호소하는 대표적인 또 다른 예는 이른바 예방 가능한 경제적 박탈로부터 전 세계의 대학살을 종식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화학부터 생물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18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한 공동선언문이다(Nobel Prize Winners 1981: 61-3).¹⁰ 그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대학살을 비난하고 이와 싸우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비극의 원인은 모두 정치적이라는 데 합의하고 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 시민과 정치인들은 선

거, 의회, 정부 안에서 일하면서 각기 다른 수준에서 각종 정책을 선택하고 그것에 투표한다는 것, 그리고 기아로 인해 죽어가는 수백만의 사람들과 영양결핍과 저개발로 고통당하는 수억의 사람들을 구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법률, 새 예산, 새 프로젝트와 새로운 정책적 조치를 선택하고 또 그것에 투표한다는 것이다(62).

그들은 “무능력이나 적절한 시기에 행동하지 못하는 것, 또는 무관심 때문에라도 생명체를 죽이지 않고 살릴 필요가 있음”을 강력하게 표명하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비폭력적 경제혁명의 실천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비록 이 땅의 힘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책임을 감당하며 여러 가지 일을 관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다. 막다른 지경에 처한 사람들이 스스로 죽음을 불사하는 행동을 취한다면, 점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생명권처럼 핵심적인 기본적 인권을 제외한 다른 어떤 법률에 대해 복종을 거부한다면, 힘없는 자들이 그들 스스로를 조직화하여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적지만 강력한 무기를 사용한다면, *간디가 술선하여 보여준 비폭력 행동(저자 강조)*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난다면, 우리 시대의 이러한 재난은 확실히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63).

그래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는다. “바로 지금이 행동으로 옮길 때이다. 지금이 새로운 것을 창출할 때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면서 살아갈 때이다.”

불평등, 인구성장, 군사화는 경제적 살생, 폭력, 환경과파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상호 작용한다. 1999년 세계은행(World Bank)은 지

구상에서 3억 명이 일당 2달러 이하의 생활을 하며, 대략 1억 5천만 명의 사람이 일당 1달러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정의되는 ‘절대적 빈곤’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도에서만 절대빈곤자가 300만 명에서 1980년대 후반 이래 340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했다(World Bank 1999). 동시에 소득불평등은 증가하고 있다. UN대학 국제리더십 아카데미의 첫 프로그램에서 160명의 젊은 지도자들에 대해 1997년 6월 세계은행의 타리크 हु사인(Tariq Husain)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말했다.

1990년대 중반의 세계는…… 1980년대보다 더 양극화돼 있다.…… 세계인구의 20%인 절대빈곤자의 소득은 전 세계 총소득에서 그 몫이 과거 30년 동안 2.3%에서 1.4%로 감소했다. 반면 최상위 부유층의 소득은 70%에서 85%로 상승했다. 따라서 최상위 부유층과 최하위 저소득층 몫의 비율은 30 : 1에서 61 : 1로 두 배가 되었다.…… 세계 360명 억만장자의 총자산은 현재 세계인구의 45%를 가진 나라의 총 연간소득을 초과하고 있다(Husain 1997: 13).

세계은행 총재인 제임스 울프슨(James D. Wolfensohn)과 마하트마 간디는 다 같이 불평등이 폭력을 유발한다는 데 동의한다. 울프슨 총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평등은 불안정을 유발한다. 빈곤이 전쟁을 고조시킨다”(Husain 1997: 6). 마하트마가 경고한 바와 같이 “부유층과 기아에 굶주리는 수백만 사람들 사이에 심한 격차가 지속되는 한 비폭력적인 정부는 분명코 불가능하다.…… 부와 그 부에 의해 얻어진 권력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공동선을 위해 그 부와 권력을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일이 없다면, 폭력적이고 파

비런내 나는 혁명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Collected Works 75 1941: 158). 울프슨 총재와 간디의 통찰력을 종합해 자신의 유산 대부분을 포기했던 미국 출신의 젊은 평화운동가 벤티 듀런(Betsy Duren)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우리가 영원한 평화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를 재분배하는 것이다. 빈곤, 전쟁, 고통은 자신의 몫 이상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야기된다(Mogil and Slepian 1992: 100). 울프슨 총재, 간디, 그리고 이 젊은 미국인의 시각은 2,300년 전 불평등과 살생의 관계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분석을 다시 돌이켜 생각나게 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개인이든 정부기관이든 혹은 부족의 일원이든, 아니면 크고 작건 간에, 앞으로 당신이 이들 중 어느 하나의 일원이 될 곳이 어디이든 간에 권력행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혁명을 이끄는 데 장애를 유발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나머지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질투한 나머지 그들이 혁명에 착수할 때와 마찬가지로 간접적으로 그러한 혁명을 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타월하여 그들이 더 이상 나머지 사람들과 평등한 조건 하에 있게 되는 것을 불만족스러워할 때 그와 같은 혁명을 직접적으로 자행할 것이다(Aristotle 1962: 199).

1950년 25억에서 2000년에 대략 61억, 그리고 2050년에 89억으로 예상되는 세계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비폭력적 문제해결에 전념할 것을 요구한다. 2050년 가장 인구가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로는 인도(15억 2,900만), 중국(14억 7,800만), 미국(3억 4,900만), 파키스탄(3억 4,500만), 인도네시아(3억 2,100만) 등이 꼽히

고 있다. 월드워치연구소의 레스터 브라운(Lester R. Brown)과 그의 동료들이 행한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선례가 없는 적어도 매년 8천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인구증가는 잠재적으로 지구의 생명 유지력에 최후의 대재앙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가장 위급한 19개 부문 중에서 우선 물공급, 곡물생산, 에너지, 토지, 산림,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질병, 도시화, 주택공급, 교육, 직업, 국가 사이의 갈등 등을 꼽을 수 있다(Brown, Gardner, and Halweil 1999).

전쟁, 대학살, 유아살해, 낙태뿐 아니라 기아나 전염병 같은 인구감소의 전형적인 살생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살생 정치학에서 요구되는 것은 비폭력적 대안을 발견하고 그 대안의 실천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생명과 생명 지지적인 환경에 대한 존중을 정치의 이론과 실천, 경제적 문제해결의 중심에 놓는다는 뜻이다.

세계에서 가장 칭송받는 살생 전문가인 군사지도자들 중 일부는 경제적 탈군사화의 필요성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제시해 왔다. 그 중 한 명이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장군이었던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1953-1962)였다. 살생 행위와 경제적·구조적 폭력의 관계에 관한 그의 간결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분석은 이제까지 다른 어떤 평화 옹호론자가 시도했던 것보다 탁월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총, 지금까지 전수된 모든 군함, 지금까지 발사된 모든 로켓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굶주리고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 추위에 떨며 제대로 옷조차 걸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의

강탈을 의미한다. 무기로 가득 찬 이 세계는 단지 돈만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 세계 노동자들의 땀, 이 세계 과학자들의 두뇌, 이 세계 아이들의 희망을 지출하고 있다.…… 그 어떤 의미에서도 이것은 결코 건강한 사람이 취할 삶의 방식이 아니다. 위협적인 전쟁의 먹구름 아래 이것은 철의 십자가에 인간을 매단 것이다(미국 신문편집인협회 연설, 1953. 4. 16).

철의 십자가에 인류를 매단 한 가지 이유는 1940년부터 1996년까지 5조 8,210억 달러로 추산되는 미국 핵무기 프로그램 비용부담으로 비롯된 ‘도적질’이다(Schwartz 1998). 이것은 1990년대에 지출된 전 세계 군사비가 매년 평균 5천억 달러 이상 낭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Sivard 1996: 7). 비살생 정치학은 전 세계적인 군사화에 의해 야기된 경제적 박탈이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고 거부함을 뜻한다. 비살생 정치학은 인류를 철의 십자가에서 해방시키고 빈곤의 대학살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에 건설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비살생 인권과 책임

현대에 들어 비살생 차원의 문제해결에 매진할 것에 대한 요구는 세계인권선언(1948)과 그 이후 시행된 시민적·정치적·사회적·경제적 협약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언과 협약의 자세한 내용은 모든 정치학자와 전 세계 시민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개념이 보편성과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논쟁의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정의되든, 비살생 정치학은 비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인간의 여러 권리를 옹호하고 변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나아가 비살생 정치학의 목표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와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아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보편적으로 인식시키고 또 그것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컨대 비살생 정치학이 제안하는 한 가지 방법은 세계인권선언과 아래와 같은 규정의 전 세계적 실천에 동참하는 것이다.

제3조 2항. 모든 사람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와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다.

비살생 정치학은 여러 차원에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고 있는 개인과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교육, 자문, 그리고 행동 부문에 필요한 자원을 집중 투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1995년 베이징 여성회의에서 채택된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행동 프로그램은 어디에 있는 누구든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강력한 호소력이 있는 아젠다였다(United Nations 1996).

정치학의 전면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예는 1961년 창립된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 의한 비폭력적 인권보호이다. 이 기관의 임무는 “그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악하고 비인간적인 혹은 품위를 떨어뜨리는 대우나 혹은 형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법률 5), “그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감금 또는 추방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법률 9),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에는 강압 없이 의사를 타진할 수 있는 자유와 모든 대중매체를 통해 국경과는 무관하게 정보와 사고를 주고받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법률 18) 등과 같은 세계인권선언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전 세계적인 사형의 폐지, 고문의 폐지, 만인에 대한 공평한 재판, 그리고 폭력을 지지하지 않거나 가담하지 않은 모든 양심수의 즉각적인 출옥을 추구하고 있다. 방법은 모든 형태의 비폭력적인 정치적 행동을 포괄하고 있다.

비살생 정치학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그 밖의 다른 인권기관 중에는 1991년에 건립된 세계소수인종협회(the Unrepresented Nations and Peoples Organization: UNPO)가 있다. UNPO는 5대륙에 살고 있는 50종 이상의 인종 원주민들의 집단적 인권의 인정을 추구하고 있다. 이 기관의 구성원들은 “비폭력의 증진과 정책수단으로서 테러의 거부”를 규정하는 UNPO 협정을 문서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UNPO는 “각국 정부, 국제조직, 시민단체와 이들 지도자에게 폭력의 사용을 자제하는 분명한 원칙에 따라 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규모, 문화 혹은 종교와는 무관하게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 및 소수인종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승인과 존중, 대표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과 소수인종의 욕구와 견해에 대해 진지하게 대할 것, 대표되지 못하는 사람과 소수인종에 대한 모든 폭력적 행동과 인권의 전면적 침해를 공개하고 이를 비판하는 것,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평화롭고 민주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각종 운동이나 혹은 정부의 정당성에 대한 승인, 그러한 운동과 정부와 공개적이고 솔직한 대화에 전

넘하고 이들이 일관되게 비폭력을 고수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그리고) 권한을 요구하는 주정부와 지방정부 사람들과 소수인종 사이의 갈등에 대한 평화로운 해결을 격려하고 적극 지원함 (UNPO 1998: 8).

더욱이 UNPO는 영리 목적의 회사와 금융기관에게 사람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자원의 폭력적 착취를 종식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부채임한 무기거래를 통한 폭력의 부양과 대중매체와 자신의 상품을 통한 폭력의 상업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9). 대학살, 종족학살, 생태계 파괴로 고통받는 이들에 의한 비폭력 정치에 대한 이와 같은 헌신은 분명 비살생 정치학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의 많은 수의 원주민과 소수인종, 그리고 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욕구를 전제한다면, 앞으로 UNPO의 회원이 궁극적으로 유엔 회원국의 수를 능가할지도 모른다.

비살생과 생태계의 활력

비살생 정치학은 생태적인 살생에서 인류의 해방을 지원하고자 한다. 사람은 환경을 죽이고 환경은 우리를 죽인다. 비살생 사회는 비살생 생태계를 필요로 한다.

20세기 말의 특징은 인간이 지구의 생명 유지력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경고가 계속 증가해 왔다는 것이다. 군수산업화와 전쟁을 통한 각종 형태의 지구 생태계 파괴가 지구를 황폐화시켰다. 1982년 10월 28일 UN총회에서 111개 회원국이 채택한 세계자

연헌장(the World Charter of Nature)은 “자연은 전쟁과 그 밖의 다른 적대적 행위에 의해 야기되는 파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제1조 5항). 그러나 정말 비극적인 자연파괴 사례에는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자행한 삼림 화학고엽제, 이라크에 의한 걸프전 석유 매장지역 방화 같은 것이 있다. 비살생 정치학은 배리 코모너(Barry Commoner)가 제기한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구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먼저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평화를 일구어 내야 한다”(Commoner 1990: 243).

또 다른 경고는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 회의(Un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사무총장인 모리스 스트롱(Maurice. F. Strong)이 제기한 것이다. 그는 세계를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그리고 평등한 미래라는 새로운 길로 가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근본적인 ‘생태혁명’을 주창했다(Unted Nations 1993: 1). 이 회의의 행동 결의안인 “아젠다 21”은 “전쟁은 특히 지속 가능한 발전을 파괴하며”(원칙 24) “평화, 발전, 환경보호는 상호 의존적이므로 결코 분리될 수 없다”(원칙 25)고 했다. 문제해결 행동에의 참여가 각 국가, 정부, 시민, 여성, 젊은층, 그리고 원주민들에게 파급되고 있다. 여기에 군대, 군수산업체, 회사, 노동조합, 정치학자들이 추가될 수 있다.

인류의 생존과 복지를 위협하는 여타의 문제처럼 생태환경 문제도 복잡하고 학제적이며 전 세계적이다. 정치학의 각종 자원은 공공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비살생 시각에서 활용될 필요가 있다. 비살생 정치학의 과제는 먼저 어떠한 환경적 위협이 가장 잘 이해되고 있는가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긴급행동(조치)을 요구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문제는 신속한 연구, 이들 문제

중 특히 우선순위가 앞서 있는 문제, 그리고 욕구 대응적인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에 학문적 지식을 도입할 수 있는 최상의 방식을 요구한다. 이 모델 접근방식은 스웨덴왕립과학학회(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가 제시했다(1983; Sebek 1983).

정치학은 특히 비폭력적 환경문제 해결운동에 전념하는 개인, 조직, 사회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지원할 것이다. 현재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고 있는 비폭력적 생태운동으로는 인도 여성들의 나무 보호운동인 칩코운동(Chipko Movement, Weber 1989; Nauriyal 1996)부터 국가정책이나 사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린피스(Greenpeace)의 직접적인 행동(Stephenson 1997), 그리고 독일에서 환경운동 정당인 녹색당(Die Grunen, the Greens)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와 양태가 다양하다.

독일 녹색당(Die Grunen)을 만든 페트라 켈리(Petra Karin Kelly, 1947-92)가 남긴 유산은 비살생 정치학에 대해 21세기를 향한 문제해결적 아젠다를 제시해 주고 있다. 그녀의 적극적 행동에 대한 요구는 무장해제에서부터 경제와 인간권리, 그리고 지구를 구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협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요한 문제에 대한 행동을 두루 포괄하고 있다. 그녀는 '생태적 책임을 지는 지구문화'의 확산을 요구하며, 모든 나라에서 '생태계와 관련된 것'(ecological relations)을 관장하는 구속력 있는 원칙의 확립을 강력하게 주장한다(Kelly, 1992: 76). 톨스토이, 간디, 압둘 칸(Abdul Ghaffar Khan), 그리고 킹과 함께, 켈리도 21세기와 그 이후의 세계를 비폭력적인 세계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한 주요한 인물로 간주될 가치가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인정받을 가치가 있을 것이다(Kelly 1989; 1992; 1994; Parkin 1994).

비살생적 문제해결을 위한 상호협력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개인에서 지구공동체 차원에 이르기까지 평화적인 문제해결의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안보도 경제적 복지도, 더욱이 인권존중과 생태계의 보존도, 그리고 그 밖의 가치 있는 생명조건 그 어느 것도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진정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협력이 없다면 달성될 수 없다. 이것은 정치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시사하기보다 정치학이 문제해결의 과정을 지원할 책임을 떠맡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전체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무정부론자조차 다른 무정부론자들이 그들의 자유를 협력적인 태도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살생적 접근은 명백한 혹은 잠재적인 폭력을 궁극적인 결정요인으로 하는 지배를 쟁취하기 위한 갈등과 경쟁에 기반을 두는 정치로부터의 일탈을 의미한다. 비살생 정치학은 생명을 축복하는 상호존중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협력적 문제해결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학이다. 폭력은 지배하고 분열시키지만, 비폭력은 서로 협력하고 단합시킨다. 따라서 비살생 정치학은 남성과 여성, 종교, 문화, 종족, 인종, 계급, 지역사회, 국가, 국가조직과 초국가조직, 그리고 전 세계 운동 속에서 '공동행동'(coaction)을 추구한다. 목표는 만인의 안녕을 위해 살생 혹은 살생 위협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대화를 통한 윈윈(win-win)적 갈등해결을 추구하는 갈등해결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학제적이고 전문적인 관심의 재고가 중요한 추진 자원이다(Fisher and Ury 1981;

Burton 1996).

각 분야에서 진전된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비살생 정치학은 폭력적 특징을 갖는 각 국가와 시민사회 속에서 비살생 사회를 지향하는 변화를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비살생 정치학은 현재의 정치체계에서 발견되는 민주적 발전과 관련된 역사적 진보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자유정치와 자유시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행태상 및 구조상 폭력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추구한다. 비살생 정치학은 자의적인 권력을 제약하는 시민에 의해 타당성을 갖는 헌법의 가치를 인정한다. 시민의 자유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권리 범안의 규정, 서로 분리된 행정, 입법, 사법적 권위의 제도적인 견제와 균형의 유용성, 시민전쟁의 선거정당 경쟁으로의 대체, 전문 관료주의의 봉사, 종교적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보편적 참여를 지향하는 투표참여권의 확대(Finer 1997; Goldman 1990). 비살생 정치학은 현존하는 폭력적인 군사치안권에 대한 대안을 추구하고 있다.

비살생 접근방법은 가장 선진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조차 육체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을 유발하는 인간욕구에 대응하지 못한 데서 나타나는 체제상 역기능(dysfunction)의 징후를 지적한다. 일례로 미국에서 현재 관심이 되고 있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폭력과 살인, 폭력 갱과 마약, 자살 속에 반영된 젊은 층의 절망, 이미 만연된 정치적 소외와 낮은 투표참여율에서 부분적으로 보이는 정치와 정부에 대한 불신, 비생산적 군비지출로 인한 재원의 엄청난 낭비, 영양결핍과 건강·(집 없는 사람들을 포함한)주택·교육·가정과탄으로 특징되는 적어도 인구의 20%에 달하는 만성화된 소외계층, 무장강탈, 범죄, 성적 차별

과 인종차별, 보다 많은 경찰, 감옥, 가혹한 형벌과 군대 등을 통해 안전을 찾는 중산층에 근접한 계층과 더불어 부가 증가하고 있는 나머지 20%의 상위 부유층, 이 모든 것이 폭력적인 문화적 이미지를 동반하고 있다.

현재 민주주의 국가와 시민사회의 특성을 갖고 있지 못한 나라는 무제한적인 살생적 독재통치와 말할 수 없는 육체적·구조적 학대를 유발하는 경제적 박탈과 관련한 보다 강도 높은 폭력과 다양한 폭력형태로 고통받고 있다. 이를 말해 주는 지표로는 사형, 고문, 선거운동시의 암살, 대학살, 종족살해, 무장강탈, 테러, 무장혁명, 그리고 국가가 지원하는 경제적 박탈에 의한 대중학살 등이 있다.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용인하는 가정으로부터 그 자체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비살생 정치학의 과제는 민주적인 사회 내에서 인간욕구에 대응하는 과정을 보다 개선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학문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창조성에 대한 요구는 그 범위가 무한하다. 그러나 더욱이 현재 과정상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기여는 비살생 가치의 분명한 도입, 비살생할 수 있는 인간 능력에 관한 새로운 정보의 제공, 민주적 리더십과 시민들의 새로운 비살생 기술의 고양, 정책형성 참여과정의 간소화, 그리고 새로운 비살생적 문제해결 제도의 발전 등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정치학은 그 자체가 사회에 대한 봉사 출발점으로서 비살생에 대한 헌신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 비살생 정치학은 제도적으로 개인과 가족에서 세계정체에 이르기까지 아직 충족되지 못한 인간의 욕구에 대응해야 한다.

제5장 비살생적 제도

우리가 필요한 제도라 부르는 것은 종종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익숙해져 있는 것에 불과하며,…… 사회적 구성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폭이 넓다.

Alexis de Tocqueville

지구상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는 집단적으로 생성되며, 그것은 집단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Petra K. Kelly

정치학에서 비살생으로의 윤리적·경험적 전환(nonkilling ethical-empirical shift)이 갖는 제도적 함의는 무엇인가? 비살생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특정 학문분야의 조직에 대해, 그 외 여러 지식분야의 관계에 대해, 그리고 지역사회로부터 전체 인류에 이르기까지 비살생 사회로 만들기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제도에 대해 이러한 비살생으로의 윤리적·경험적 전환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인

가? 제도란 인간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만들어지는 목적 중심적 사회관계의 여러 가지 형태(the configurations of purposive social relations)로 간주된다.

문명의 역사는 대체로 제도적 혁신의 역사다. 신앙으로부터 불교사찰, 유대교회당, 교회, 그리고 회교사원 같은 공동체가 생겨난다. 정치참여에 대한 욕구로부터 정당, 선거, 의회가 만들어진다. 사회적 통제에 대한 욕구로부터 경찰, 법원, 감옥이 발생한다. 전쟁을 치를 목적으로 육지, 바다, 하늘에서 전투하기 위한 기술적인 군대조직(technological forces)이 나타난다. 군대를 유지하고 국가의 목적을 실천하기 위한 조세징수의 필요성에서 관료제가 만들어진다(Finer 1997: 16-17, 20-21). 원자폭탄을 발명하고 생산하기 위해 국가적 자원이 맨하탄프로젝트에 동원되었다.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기 위해 정신, 학문, 기술, 능력, 기타 여러 종류의 자원이 동원됐는데, 이로 인해 항해자 헨리 왕자(Prince Henry the Navigator)의 15세기 항해가 가능했으며, 달에 인간을 착륙시키기 위해 20세기의 아폴로프로젝트가 탄생했다.

정치학이 비살생 사회로의 변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의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것인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전 세계 생명에 대한 비살생의 조건을 추구한다는 것은 현재의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정보전달 기술의 전 세계적 확산과 관련돼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제도적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비살생적 시각은 정치학의 특정 분야를 막론하고 참여민주주의, 성, 인종, 계급, 환경에 대한 관심을 통합시키고자 하는 노력에서와 같이 구제도 속에서도 흡수 혹은 통합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구제도를 개편하거나 그와 대등한 과도기적

인 제도를 세우거나, 아니면 비살생으로의 전면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모든 힘의 원천을 결집하는 혼합형 제도를 창출할 수도 있다.

비살생 사회의 성취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비살생에 대한 과학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발견, 비폭력을 위한 교육과 훈련, 생명 옹호적 문제해결, 비살생적 국가안보, 그리고 사회 각 부문에서 비폭력적 서비스 창출에 헌신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민주적 정치제도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민주주의를 작동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으며, 또 문제의식을 가지고 실제로 민주주의를 작동하게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행동했던 헌신적인 민주주의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비살생 사회와 제도도 비살생적인 개인들에 의해 만들어질 것이다. 비살생 정치학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일 것이다. 비살생을 자각할 수 있는 길은 매우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단 한 가지 처방이란 있을 수 없다. 출생, 신념, 지능, 고통, 동정심, 비용·편익분석, 모의실험, 그리고 중재 등이 모든 것들이 비살생의 발견과 행동으로 이를 수 있는 길이다. 인간의 비살생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많은 역사적 증거와 현재의 증거는 우리 각자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변화능력을 발견하도록 고무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비살생 정치학과

비살생 정신이 기존 정치학의 세부 분야, 학과, 학회에 과급될

필요가 있지만, 만약 비살생 학과가 새로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세계의 많은 신규 대학에서 현재의 학과를 구조적으로 새로이 변화시키거나 전혀 새로운 학과를 만들어 내는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 학과는 살생, 살생의 위협, 그리고 전 세계 생명으로부터 치명적인 살생의 위협이 있는 상관관계를 제거하기 위한 공통된 목적의식에서 출발한다. 이것이 이 학과를 폭력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 폭력에 기반한 과학적 사회주의 혹은 폭력에 기반한 권위주의 질서를 옹호하는 여타 학과와 차별화시킨다. 비살생 학과는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여타 학과와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기초 입문과정부터 박사학위 과정에 이르는 현재의 학습경로를 고려하면, 이 학과는 분명코 비살생 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특성과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네 가지 능력이 그 기초가 된다. 연구능력, 교육과 훈련능력, 행동능력, 그리고 일상생활이나 미디어를 통해 표현되는 비판적 사고능력 등이다.

이 비살생 정치학과에 처음 입학하는 학생은 인간 역사를 통해 저질러진 살생의 생생한 기록을 접하게 되고, 장차 정치학자나 고위공직자가 될 사람으로서 인간의 삶의 조건에서 살생을 제거하는 데 동참하게 된다. 이때 이들 학생은 인간의 창조능력(Boorstin 1983; 1992; 1998), 정치적 혁신(Finer 1997), 그리고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성 증진에 기여하는 평화적인 봉사의 삶(Josephson 1985)을 터득하게 된다.

다음 단계는 문제해결에의 참여(폭력, 경제, 인간권리, 환경, 협력), 현재의 정치제도와 문제해결 과정(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전 세계적), 그리고 비살생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현재의 의사결정에 기여

할 수 있는 비살생의 분석과 행동원칙과 관련된 가장 최신의 지식(정보)에 대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도전들을 검토하는 일이다.

다음 단계로 학생들은 각종 문제해결 노력(폭력, 경제, 인권, 환경, 협력 등과 관련된)에 대한 현재의 주요 도전, 현재의 정치제도와 문제해결의 과정(지역적, 국가적, 지구적 차원의), 그리고 비살생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비살생의 분석 및 비살생 행동원칙의 논리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지식을 살피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단계로 학생들에게 각자의 흥미와 재능에 따라, 대안적이기도 하지만 또 서로 연관돼 있는 문제해결의 방식 및 지역사회 봉사방식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는 연구수행 능력, 교육과 훈련능력, 지도자·시민행동 능력, 그리고 비판적인 정치평가 능력에 대한 기초적인 입문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와 다양한 인간재능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것은 네 가지 참여 방식 모두가 비폭력적 사회변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추구돼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비폭력적인 사회변화를 위해서는 한 마을의 직능인 모임과 스포츠팀에 속한 회원들 사이의 상호 지지적인 행동에서 볼 수 있는 서로 인정하고 협력하며 격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준비단계를 거쳐 다음 단계에서는 육체적 폭력, 구조적 폭력, 인간권리의 침해, 환경파괴,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상호협력을 제약하는 폭력 지향적인 적대주의에 대한 대안을 창출하기 위한 연구, 교육, 행동, 그리고 비판적 사고에 유용하고 적합한 기술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개인 프로젝트 또는 공동 프로젝트를 추

구한다. 물론 이러한 프로젝트는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혹은 전 세계적 조건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졸업논문으로 제출되는 이러한 프로젝트의 결과는 학과 기억은행(a department memory bank)에 제공되어 개인적·사회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월드 와이드 웹을 통해 출판된다.

대학원생들은 공무원사회와 시민사회에서 계속해서 쇄신적인 직종을 갖게 된다. 그들은 비살생 정치학을 통해 상호 관련된 석사, 박사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전문화된 교육을 받고, 기존 분야로 진출하거나 혹은 새로운 정치학 탐구분야를 만들거나(Appendices B, C), 아니면 여타의 학문, 직업과의 이해관계를 발전시킨다. 비살생 학과는 단연코 서비스 지향적이며 직업 지향적이다. 이것은 입문과정에 있는 학생부터 상위 박사과정 학생에 이르기까지 지식과 기술의 축적된 증진을 특징으로 한다. 교수진과 학위취득 지원자들이 특정 문제해결 욕구에 대한 참여방식을 적용시키는 가운데 서로 간에 공유된 이해관계를 배경으로 한 개별 수준에서 각자의 팀을 형성한다. 이 학과는 분명히 새로운 지식의 발견과 그 지식의 교육과 훈련에서의 활용,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해결 과정에서 그러한 새로운 지식의 적용 사이에 상호 지지적인 관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학과 자체의 토론과 갈등해결 방식에서 이 학과는 점진적으로 비살생 사회의 특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비살생 사회의 중심이 되는 평등에 기반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공동 성 협력 관계의 문화가 환영받고 존중되는 것이다. 연구에 대한 새로운 필요성을 인식하여 학생들이 예측하지 못한 과제에 보다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문해 줄 수 있는 장기적이고 주기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여타 학문, 때로는 서로의 공동협약을 통해

숙련된 지역사회 지도자와 동료들이 동료 간의 창조성에 기여한다. 비살생의 지식과 기술은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이 학과는 직접적인 참여 및 컴퓨터와 여타 의사소통 매체를 통해 전 세계 차원에서 서로 재능이 교환되는 데까지 확장되고 있다. 지역사회는 전 세계적 복지와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능상 동가적인 맥락으로 간주되고 있다.

대학 평화봉사단

비살생 사회로의 변화는 종종 세계의 많은 대학에서 제공되고 있거나 필수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군사훈련에 대한 대안으로 비폭력 학생 지역사회 봉사단체의 창출을 의미한다. 리더십의 책임은 정치학과가 떠맡을 수 있지만 회원은 모든 학과로부터 모집될 수 있다. 평화봉사단(the Shanti Sena)은 비폭력적인 갈등해결과 화해 유도,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방위, 응급생명구조, 재난구조,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훈련받은 회원으로 조직된 독자적인 단체이다. 이러한 실천적 참여 중심의 활동과 함께 리더십 자질과 기술을 배양하는 학술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비폭력 사상과 생활의 확산을 위해 모든 종교가 지닌 생명 존중의 영감(life-celebrating inspiration), 음악과 예술이 지닌 영적 고취 기능, 스포츠가 지닌 활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봉사가 주는 만족감을 활용한다. 이 평화봉사단은 위기 시 언제라도 캠퍼스 내외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소집망을 가지고 있

으며, 그런 점에서 다른 사회적 제도에 대해 일련의 리더십 역량을 제공한다. 또 이러한 활동은 현재의 군복무 훈련에 제공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받거나 후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또한 대학 전 단계 교육(pre-university education)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교육기관에서 평화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는 실제적 경험의 귀중한 원천은 인도에 있는 간디농업대학교(Gandhi Rural University)의 라드하크리쉬난(N. Radhakrishnan) 교수의 연구가 제공하고 있다(Radhakrishnan 1997a; 1997b). 여기에 1930년부터 1947년까지 인도에서 활동했던 8만 명의 강력한 비폭력 이슬람 해방군인 후다이 히드마 트가르(the Khudai Khidmatgars: 신의 봉사자들)에서 나온 훈련의 원칙과 실천사례가 추가될 수 있고(Banerjee 2000: 73-102), 비폭력적인 사회적 변화를 위한 킹운동(LaFayette and Jehnson 1995; 1996)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비폭력적인 훈련 교육경험(War Resisters League 1989)이 포함될 수 있다.

비살생 대학교

비살생 사회로 변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일 학문분야나 대학의 특정 학과의 능력을 넘어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치학의 비살생으로의 변화는 모든 사회과학, 자연과학, 인문학, 전문직종의 잠재적인 기여를 필요로 한다. 이는 또한 모든 대학이 지역적·국가적·국제적·지구적 공동사회에서 생명을 지키는 비살생적 봉사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대학은 그들 스스로가 전쟁에서 최고수준의 살생을

위해 지적이고 인간적인 재원을 총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버드대학의 제임스 코난트(James B. Conant) 총장이 2차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42년 8월에 선언했던 것과 같이 “추축국들이 무조건 항복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는 지금 고대 이후 서구문명의 전통을 이어 가고 있는 훌륭한 학자들을 나라에 비치고 있는 것이다.” 전쟁에 대한 헌신이 대학의 생활패턴을 완전히 뒤바꿔 놓음에 따라 하버드대학은 ‘코난트(Conant)의 병참고’로 알려졌다. 하버드대학의 젊은 물리학자들은 뉴멕시코주의 로스 알라모스(Los Alamos)에 원자폭탄을 제조하기 위한 학제간 비밀연구 프로젝트에 소집돼 연구를 진행했다. 그 중 한 명이 회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은 일종의 과학 유토피아였다(scientific utopia).…… 연령이나 학계 서열 혹은 이전의 연구업적을 고려치 않고 최상의 두뇌를 활용하고 자유로이 사고를 교환하는 열린 사회였다”(Harvard Magazine, September-October 1995: cover, 32, 43).

기존의 대학과 신규 대학이 인간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살생과 전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과제를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열성적으로 떠맡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현재 각 대학이 여러 ‘평화연구’ 교과과정, 각종 프로그램, 혹은 관련 학과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수백억 달러가 지원되는 대학의 ‘윤리’나 혹은 ‘가치’와 관련한 대형 프로그램의 핵심주제에 ‘비폭력’을 포함시키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앞으로 고등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비살생과 관련된 진보를 어느 정도 이룰 것인가를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고 있다.

비살생 정당

응용학문으로서 비살생 정치학은 만인의 안녕을 위한 사회적 문제해결의 욕구·대응적 과정(need-responsive processes)에 참여하는 비살생 정당의 진정한 봉사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한 정당의 일반적 명칭은 아마도 ‘비폭력복지’(ahimsa sarvodaya) 정당일 것이다(ahimsa: 비폭력; sarvodaya: 만인의 복지). 왜냐하면 개념, 명칭, 조직과 활동에서 그러한 정당은 각기 특수한 사회문화적 조건으로부터 창조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살생 정당의 목적은 지역적, 전 세계적으로 비살생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다. 계급에 기초하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결집하여 이를 표출코자 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정당과 다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살생과 이와 관련된 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혜택을 누리며 자유, 정의, 물질적 안녕의 비살생 조건이 존재함으로써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비살생의 원칙에 따라 경쟁하고 있는 일부 정당이 출현하고 또 존재하기를 기대할 수 있다.

선거경쟁이나 공공정책 결정, 여타의 활동에서 비살생 정당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건설적인 기여가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일찍이 간디가 그러한 비살생 정당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금지했다는 사실로부터 생각해 볼 수 있다. 1947년 12월에 비폭력 운동가에게 행한 간디의 마지막 유언은 정치는 불가피하게 부패하기 때문에 정치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었다(Collected Works 90: 223-4). 그 때

신 비폭력사회를 지향하는 운동가는 시민사회 안에서 비폭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민중과 함께 일해야 하고, 또 그럼으로써 정치 세계 바깥에서 정치인과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볼 때 앞에서 언급한 간디의 말은 다른 사람들이 부패하도록 내버려두고, 또 수백억 달러의 조세징수 과정이나 수백만의 사람들, 그리고—전쟁, 안보, 식량, 의류, 주택, 건강, 교육, 문화, 환경을 포함하는—사회적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비폭력 운동가와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부패한 사람들과 그 지지자들에게 부패한 행위를 중지하고 좋은 일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그러나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간디의 가르침은 미래 어느 시점에서의 참여에 대한 기대감을 동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우리를 원하고 또 우리 아닌 다른 어떤 누구도 권력을 잡고 휘두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입을 열어 말할 때가 올 것이다. 따라서 비폭력 운동가가 정치에 참여할지 안 할지의 문제는 지금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223).

논리적으로 볼 때 비살생 정당은 비살생으로의 사회적 변화를 촉발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정당의 출현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조건은 나라마다 매우 다를 것이다. 그리고 정당, 선거조직, 국민 대표기관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나라 중에서도 비살생 정당을 수용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비살생 정당은 모든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에 응하는 절차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간의 자기희생적 투쟁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이슈를 지적하

는 것은 곧 효과적인 문제해결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술, 새로운 형태의 조직과 정책을 두루 결집해야 하는 도전적인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중에는 낙태, 사형, 징집, 전쟁, 무장혁명, 테러, 대학살, 범죄, 사회적 폭동, 문화적 폭동, 무장해제, 그리고 경제적 탈군사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살생으로의 진보는 창조성, 용기, 전 지구적 결속, 사회적 학습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비폭력 공공서비스 부서

내각에 주어진 책임을 수행하는 비폭력적 공공서비스 부서가 모든 수준의 국가경영에서 필요하다. 그 임무는 비폭력 정치분석 논리와 관련된 지역사회의 조건을 관찰하고, 살생 예방과 살생 이후 재활(post-lethal transformative rehabilitation)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비살생적 안녕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공공정책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폭력적 환경은 일반적으로 한 지역사회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공서비스 차원의 관심은 쓰레기처리장이나 정화시설에 대한 지원 만큼이나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비폭력 공공서비스 부서는 모든 공적·사적 원천에서 폭력 제거 활동을 하기 위해 폭력 관련 통계자료와 의견을 수집·종합할 것이다. 또 독립적인 청문회 기관의 역할을 통해 정부의 의사결정자와 시민사회 구성원들에게 비살생 정책자문과 더불어 매년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포괄적 접근이 요구되는 영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살인과 자살, 가정폭력(아이, 여성, 배우자, 노인), 학교폭력, 직장폭력, 범죄와 갱폭력, 스포츠폭력, 경제적 폭력, 교도소 폭력, 대중매체 폭력, 경찰폭력, 군사·준군사 게릴라 폭력, 그리고 살인자와 그들의 인적, 희생자의 친척과 사회의 일반적인 의식에 가하는 살생 이후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 이러한 보고서는 비살생으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의 장점과 약점을 강조해야 하며, 보다 효과적인 문제해결 행위를 위해 지문해야 한다. 비살생과 관련된 정보는 주식시장 변동상황이나 스포츠 소식 혹은 일기예보 이상으로 눈에 띄게 보도되어야 한다.

비살생 공동방위군

우리 사회가 비살생 사회로 변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군대 및 경찰과 유사한 비살생 공동방위군(nonkilling common security forces)의 창설이 필요한데, 이 조직은 지상이나 해양, 하늘에서 대국민 보호 및 인도주의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방위군 구성원은 평소 각종 폭력의 예방, 위기관리 및 재활복구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며, 이러한 활동이 끝난 다음에는 활동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훈련도 받게 된다. 이러한 비살생 공동방위군을 창설하는 데 필요한 리더십은 기존 군사관학교와 경찰사관학교 혹은 새로 생긴 비폭력 봉사활동 교육기관이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기관을 통해 모든 구성원은 비살생에 관한 종합훈련을 받을 수 있고, 또 비살생에 관한 정보가 이들의 지부조직을 통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각 대학에 있

는 평화봉사단도 비살생 공동방위군 창설에 기여하는 창조적이고 용기 있는 리더십의 또 다른 원천이 될 수 있다.

현재의 군 및 경찰 내부에 폭력예방, 경무장 군대에 의한 평화 유지 활동 및 인도적 구호활동, 비살생 무기의 유용성, 그리고 비폭력적 갈등해결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일부 존재한다고 해서 장차 비폭력 공동방위군이 성공적으로 작동될 가능성을 가볍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비폭력 공동방위는 지역적, 국가적 및 국제적 수준에서 모든 사람들의 헌신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비폭력 연구 동아리와 집, 학교, 교회, 직장, 그리고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통신망으로 연결된 비살생 공동방위 공동체를 중심으로 조직되는 시민 평화봉사단(civic Shanti Sena)을 통해 어렵지 않게 성사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지역단위 시민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비살생 활동모델은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다.

비폭력 방위는 기왕의 외교 관련 관료조직에 비폭력문화 담당 부서를 추가로 설치하는 일뿐 아니라 국가적 및 초국가적 수준에서 비폭력 공동방위위원회와 비폭력 정보기관을 창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비폭력 공동방위위원회는 폭력 지향적인 민족국가와 이들의 살생 연합국에 대해 정책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UN 산하에서 세계비폭력공동방위위원회는 살생지표(비핵무기, 비무장, 사형제 폐지, 낮은 살인율, 무기거래 금지 등)가 가장 낮은 서열에 있는 국가에 의해 창설될 수 있다. 대중감시 매체와 시민감시단(citizen alerts)과 연계해 모든 형태의 살생과 살생 위협을 폭로하고 이에 대항하는 공적 및 사적 혁신활동 능력을 찾아낼 수 있는 비폭력 정보기관이 필요하다. 또 외교기관에서

는 기존의 무관이나 혹은 대외 경제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외교관 보다는 비폭력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비폭력문화 담당관은 본국과 주재국가 사이에서 발견되고 상호 학습되는, 그리고 비폭력적 복지의 모든 연원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통로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 세계 차원의 인터넷 통신능력은 기존의 정부, 회사 혹은 매체에 의한 상황규정에 의존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상호 협력적인 비폭력활동을 일구어 낼 수 있는 잠재력과 함께 세계시민 사이에 공동방위 관련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다.

정부와 민간조직에서 비살생 공공서비스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비폭력 교육훈련 기관이 필요하다. 비폭력 교육이 처음에는 기존 기관 내에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로 제공되다가 나중에는 기능적으로 완전히 기관 전체의 교육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지만, 비폭력 훈련기관은 시민사회 내의 폭력 용인 직업학교뿐 아니라 기존의 군사대학, 국방대학, 군복무 관련 학술기관, 경찰대학, 그리고 행정대학원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필요한 것이다.

시민사회 내의 비살생 단체

비살생 사회의 출현, 유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생겨날 잠재적 가능성은 무한하다. 비살생을 지향하는 많은 기관이 이미 존재해 왔으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또 다른 기관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비살생 종교협의체 각 기관 나름의 수준에서 혹은 그들이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우에 생명존중이야말로 의심할 바 없는 원칙임을 확증하기 위해 비살생 종교협의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종교 간 협의체는 각 종교가 지니고 있는 전통적인 비살생 사실에 대해 강력하고 용기 있게 발언하고 이를 결집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신념과 철학을 가진 종교인과 휴머니스트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폭력에 대한 기존의 종교적이고 세속적인 변명자들에 대한 대안으로 이러한 협의체는 인간생활의 기본조건에서부터 살생을 제거하고자 하는—지역적, 국가적 및 전 세계적—공적이고 사적인 모든 노력을 고무하고 지지한다. 비살생 종교협의체는 모든 종류의 영감을 두루 활용함으로써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제도에 내재해 있는 능력을 다시 불러일으킴으로써 인류의 비살생적 양심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비살생 컨설팅 기관

전 세계의 자원을 활용하여 한 사회 내부와 전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을 찾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비살생 컨설팅 기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문그룹은 과제 중심적 차원에서 정신적, 학문적, 기술적, 조직적 및 그 밖의 다른 자원을 결집함으로써 직·간접으로 유혈을 방지하고 현재 지속되고 있는 살생을 종식시키며, 안정된 가운데 서로 화해하고 조직을 재구성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비살생 컨설팅 단체가 주문하는 문제해결 방법은 살생위협이나 경제적 제재를 배경으로 하는 기존 협상자들의 그것과는 다르며, 또한 비살생에 대한 헌신, 다양한 능력의 발휘, 그리고 폭력적 국가와 살생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한 통제와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오로지 도덕적 호소력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의 그것과도 다르다. 비살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수집하며, 각종 비살생 정책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튼튼한 독자적인 기관들이 필요하다. 케이커교도들의 비폭력적 갈등해결과 인본주의적 서비스는 물론 여타 다른 종교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구제기관의 서비스는 오늘날 비살생 사회 구현을 위해 요구되고 있는 비살생 서비스의 선구자적이고 원형적인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다.

초국가적 문제해결 컨소시엄

‘하향적’(top-down) 비살생 정치제도(예컨대 정당, 공공서비스 부서, 공동안보 기관)라 칭할 수 있는 조직과 기관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비살생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강력한 힘을 갖춘 ‘상향적’(bottom-up) 컨소시엄이 필요하다. 예컨대 UN과 각국 정부, 그리고 여타 기관이 인간의 여러 기본권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 비폭력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연합체인 ‘대표도 없이 무시당하는 국가와 민족들의 조직’(the Unrepresented Nations and Peoples Organizations, UNPO)과 같은 것이다. 국제사면위원회와 그린피스, 국제화해연대 같은 단체도 좋은 예다. 이러한 초국가적 비살생 컨소

시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세계 차원의 삶의 조건에서 살생을 제거하는 일에 대한 상호 합의를 제외하고는 각 회원이 나름대로 옹호하여 개진하는 모든 입장과 견해에 대해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형태의 컨소시엄은 살생 깔때기에 해당되는 영역 내부와 영역 내의 전 기관에서, 그리고 폭력, 경제, 인권권리, 환경, 그리고 협력의 주요 문제해결 영역 내에서 계속 발전해 갈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비살생 세계를 위한 강력한 세계시민 컨소시엄과 여성과 남성 사이의 동반자적 파트너십은 지구 차원의 보편적 복지를 실천하는 하나의 힘이 돼야 한다.

비살생 교육훈련 기관

폭력 위협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또 건설적인 비폭력 대안의 현실적 필요성이 강렬해짐에 따라 갈등의 해결과 비폭력적 사회변화를 위한 비폭력 리더십 훈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를 기리는 단체, 간디를 따르는 조직, 불교기관, 기독교단체, 그 밖에 비종교적인 비폭력 전통에서 잘 훈련된 비폭력 전문가를 보내달라는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비폭력 리더십 훈련을 필요로 하는 단체는 사회정의 분제와 관련하여 활동하는 시민운동 단체부터 학교, 직장, 경찰, 교도소 같은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비폭력 시민교육과 여러 형태의 비폭력 기술을 제공하고 직업적인 교육자를 훈련시키며 또 이를 보증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필요하다.

비살생 리더십 연구와 재교육센터 비폭력 관련 조직과 운동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일정기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동안의 비폭력 활동을 다시 생각해 보거나 한번 글로 써 본다거나 또는 각자의 경험을 서로 얘기하며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비폭력적인 사회변화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걸고 고통스럽게 헌신하는 지도자에게는 종종 투옥이나 입원기간이 유일한 휴식시간이다. 그리고 지도자가 고문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센터는 고문 피해자 재활센터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비폭력 리더십센터가 정신적·육체적 재활, 자서전적 반성, 전기 연구, 그리고 비살생 원칙에 찬동하고 행동한 경험 많은 동료들과의 대화, 그리고 앞으로 다음 단계의 조치에 대한 선견지명이 있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센터는 사적으로 독립기관의 지위를 유지하며 활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살생적 사회변화에 매진하고 있는 기관이 이러한 센터를 인수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비살생 예술 창작센터 각 분야의 예술가가 서로 만나들며 비살생의 창조성을 고취시키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기관이 필요하다. 스위스의 작가 로맹 롤랑(Romain Rollan)이 톨스토이를 인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술은 반드시 폭력을 놀려야 하며, 또 예술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Rolland 1911: 203). 셸리(Shelly)의 시 속에 담겨 있는 비폭력을 연구한 바 있는 아트 영(Art Young)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폭력은 체계적인 정치사상 그 이상의 것이다. 비폭력은 시와 삶의 재료이다”(1975: 165). 다음에 소개하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를 찬양하는 격언은 군인의 사기를 올려주는 군대음악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만일 당신이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다”(Young 1996: 161-84).

하나의 제도적 모델은—7대 예술분야 혹은 화가, 시인, 작가 중에서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몇몇 민간센터를 모델로 하는—영감을 가진 모든 예술가가 다 함께 모여 인간 살생에 대응하여 변혁적인 비살생의 창조성(transformative nonkilling creativity)을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비살생의 창조성을 요구할 수 있는 예술에는 문학, 시, 회화, 음악, 춤, 영화, 연극, 텔레비전, 사진, 건축, 의상디자인,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한 상업예술 등이 있다. 폭력에서 탈출하는 길을 모색하는 일이야말로 모든 예술에 요구되는 것이다. 예컨대 기존의 살인 미스터리에 대한 대안은 이러한 미스터리가 발생하기 전에 능숙한 수단으로 살인과 자살을 사전에 예방하는 비폭력 탐정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각 분야의 예술활동에서 이루어지는 비살생적 창조성이 갖는 시너지효과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각종 과제를 새로 만들어 내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정신력과 상상력을 한층 고양시킬 수 있다.

비살생의 중요성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는 노벨상을 만들어 여러 분야의 공로자를 격려하는 것과 같이, 이제 자선사업가들은 비살생에 공헌한 중요한 예술활동을 기리고 격려하는 비살생 공로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비살생 정책연구소 여러 종류의 민간연구소가 안보정책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삶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에 대해 정

부와 국민들에게 자문을 해 주기 위해 설립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비살생 정책연구소가 필요하다. 이들은 폭력, 경제, 인권, 환경, 협력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비살생 정치학의 문제해결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들은 비살생 종교협의체, 정당, 공동 방위기관, 지문그룹, 그리고 여타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 각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비살생 대중매체 개인적 의사결정과 공공정책의 결정을 도와 주기 위해 정보, 뉴스, 논평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비살생 대중매체가 필요하다. 이것은 인간의 살생능력을 간과하는 대중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생은 불가피하고, 종종 찬양받을 만하며, 그리고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기존 대중매체의 메시지를 뛰어넘는 대중매체를 의미한다. 과도기에 비살생 대중매체의 편집 결정권은 비살생 정치분석 논리를 반영할 수 있다. 즉 그 메시지는 폭력의 현실을 깊이 탐지하고 그러한 현실을 상쇄시키는 비폭력의 현실을 양심 속에 자리잡게 만들며, 변화과정과 성공사례, 장애물을 일깨워 주며, 또한 모든 예술과 학문, 인류, 전문직종, 그리고 일상적인 직업활동들에서 비살생의 창조적 열망을 표출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살생은 영구적이라는 전제를 문제시하지 않고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끊임없이 폭력적 비판주의에 정신을 매몰케 하는 데 일조하는 대중매체만큼이나 가치 정향적이다. 신문과 잡지, 라디오와 텔레비전, 영화, 그리고 전 세계 컴퓨터 정보망에서 기존 대중매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비살생 정

치학자들이야말로 논평과 분석을 제공할 수 있는 주요한 원천 중 하나일 수 있다.

비살생 기념물 모든 사회에서 비살생 문명의 유산을 복원하고 이를 칭송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 조직, 미지의 영웅, 여걸, 사건에 관한 각종 기념물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모아지는 가운데 많이 세워질 필요가 있다. 살생을 거부하고 온 지구에 비살생 문명을 세우기 위해 오랫동안 꾸준히 기여해 온 모든 사람들은 찬양받을 만하다. 이것은 지구에 한 점을 찍은 역사의 승리자와 패자인 살생자의 동상과 기념비들 모두 제거하자는 것이 아니다.—그 이유는 그들이 역사상 존재한 수많은 살생의 실체를 회상시켜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비폭력적 대안을 주창한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기 위해 비살생 기념물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기릴 만한 사람들 중에는 폭력적인 권력자에게 진실을 고했던 종교적 인물, 순교자, 전쟁 저항자, 양심적 전쟁 반대자, 사형 반대자, 평화의 시인, 그리고 투옥과 고문, 사망의 위협을 무릅쓰고 비폭력적으로 부정의에 항거한 여성과 남성을 포함한 많은 말없는 대중이 포함돼 있다.

비살생 기업 전쟁을 이용한 기업활동과 폭력문화를 이용한 비즈니스가 일정한 사람들에게는 이익을 많이 남기되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을 끼치는 장사라고 한다면, 비살생적 웰빙을 지향하는 기업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이익이 남는 장사가 돼야 한다. 비살생의 시각에서 볼 때, 그리고 비폭력

적인 물질적·문화적 상품이나 서비스, 오락, 대안적 여가에 대한 기대수요라는 시각에서 볼 때 비살생 기업가를 위한 기회는 무한하다. 대안을 인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폭력을 서비스하는 기업을 목록화하여 이들의 반비살생 성향을 한번 그려 보는 것이다. 전쟁 장난감을 평화 장난감으로 대체하거나, 비디오 전쟁게임을 비폭력적 재주놀이로 대체하거나, 무기산업을 무장해제 산업으로 대체하거나, 폭력적 미디어를 오락으로 대체하는 것 등이 바로 비살생 예술을 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탈군사화의 기간을 동반하는 비폭력적인 경제적 전환의 예가 이와 관련한 경험을 말해 준다. 하지만 단순한 경제적 전환을 넘어 전 세계적 맥락에서 비살생 사회로 변화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실제 욕구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각종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 비폭력센터 어쨌거나 우리가 비살생 세계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 차원에서 중요한 변화를 유도하고 촉진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한 기관은 세계의 정신적·문화적 전통이 가지고 있는 비살생의 공통요소에 확고히 기반해야 하며, 인류로 하여금 살생과 그 결과로부터 비폭력적인 해방의 길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전 세계적 차원의 학문적, 기술적, 예술적 및 제도적 자원의 창조적 촉매제가 돼야 한다. 현대의 컴퓨터 용어를 사용하면, 이러한 기관은 '하드웨어'를 통해 인간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비폭력 '소프트웨어'의 창조적 촉매제가 돼야 한다. 그러한 기관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폭력을 요구하는 정부에서, 그리고 배타적인 사적 이익에 의한 통제에서 최대한 자율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들 기관은 비전을 공유하는 후원자나 일반대중의 회원가입, 여타의 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후원을 받아야 한다.

세계비폭력센터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인간의 궁극적인 창조성을 발견하고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정신적·철학적 전통 속에서 비폭력, 바이오신경과학과 비폭력, 젠더 관계와 비폭력, 경제와 비폭력, 매스커뮤니케이션과 비폭력, 과학·기술과 비폭력, 비폭력과 환경, 직업과 비폭력, 교육과 비폭력, 비폭력과 예술, 비폭력과 스포츠, 비폭력으로의 변화에서 군대와 경찰의 역할, 비폭력적 리더십, 인류의 비폭력적인 미래.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과제는 모든 나라에서 구체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탐구와 조사에 기반하여 전 세계의 비폭력적 문화 자원을 일일이 확인하고 목록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살생의 역사적 전통, 현재의 비살생 사례와 미래의 전망에 관한 탐구를 필요로 한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수집된 이러한 발견이 인류의 미래 진보를 가능할 수 있는 비살생 인간 능력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세계비폭력센터는 세계 곳곳에 산재한 비살생으로 변화된 여러 사례와 살생과 살생위협, 그리고 이와 관련된 박탈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다 같이 관찰할 수 있는 세계상황실(global situation room)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세계비폭력센터는 언제나 살생에 맞서면서 이상에서 언급한 창조적인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활용해 인류의 생존과 안녕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공공정책, 연구, 교육, 훈련을 비살생으로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정신적, 학문적, 기술적, 예술적 및 제도적인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비살생 기관이 필요하다

비살생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소임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치학은 그 스스로부터 구체적인 행동을 위해 필요한 이노베이션을 실천할 것이다.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정신적 혁신을 도모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이를 종합하며 또 서로 공유하기 위한 기관도 필요하며, 공공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기관도 필요하다. 그뿐 아니라 비폭력적인 공동방위를 위한 기관이 필요하며, 경제적 복지와 안녕을 위한 기관도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예술과 직업에서 생명을 축복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사람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창조적으로 조직된 세계비폭력종합연구소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비살생의 욕구를 이해하고 촉진하는 일에 기여하는 비살생 기관의 강인함은 상호 지지적인 개인에게서 나온다. 모든 정치학자와 각 개인은 누구든지 비살생 세계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촉진하는 세계비폭력센터일 수 있다.

제6장 비살생 정치학과 세계평화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구시대적인 방법과 해결책으로는 더 이상 충분치 않다. 우리는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사고, 새로운 개념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통재킷같이 딱 초이는 과거의 구속을 깨고 나와야 한다.

General Douglas MacArthur

우리 중 누군가는 역사에서 폭력과 파괴의 족쇄를 풀 수 있는 충분한 감각과 전략까지도 가져야 한다.

Martin Luther King, Jr.

단언하건대 인간이 되풀이하여 불가능한 것을 이루기 위해 끝끝내 노력하지 않으면 가능한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Max Weber

우리는 어제는 불가능했던 일이 오늘에는 가능해진다는 것을 매일매일 목격하고 있다.

Mohandas K. Gandhi

치명적인 살생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하여

인간살생에 의한 종속상태를 영구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적극 표출시켜야 할 때가 왔다. 우리가 매일 듣고 보는 한 사람 또는 다수의 대중에 의한, 그리고 기계에 의한 의도적인 인간살생은 이미 병리적 자기파괴의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보호하고 풍요롭게 하리라고 기대되었던 살생이 오히려 불안전과 빈곤, 인간과 지구의 생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의 원천이 되고 말았다. 인류를 보호하고자 했던 것 그 자체가 자기파괴의 원천이 될 때, 인간은 크레이그 콤스톡(Craig Comstock)이 말한 바와 같은 ‘방어의 병리’(pathology of defense)에 의해 고통을 받을 것이다(Comstock 1971). 집에 있는 방어용 권총이 가족을 죽이고, 경호원이 그들 자신의 국가원수를 살해하고, 군대가 그들 자신의 국민을 범하고 가난에 찌들게 만들고 있다. 핵무기가 자꾸 늘어나 그것을 발명한 사람과 소유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사회 내부에서 폭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비살생 독립선언(A Nonkilling Declaration of Independence from Violence)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오늘날 폭력을 통해 무수한 열망을 달성하고자 했던 인간의 노력은 세대를 가로질러 발생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유혈사태, 물질적 박탈, 심리적 고통으로 결말지어졌을 뿐이다. 지난 2세기 동안 인류의 희망은 프랑스혁명이 물려준 ‘자유, 평등, 박애’라

는 깃발 아래 빛났다.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살생은 미국 독립혁명의 유산이었다. 평등을 쟁취하기 위한 살생은 러시아혁명과 중국혁명의 유산이었다. 평화를 위한 살생은 2세기 동안의 전쟁, 혁명, 반혁명의 유산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진정한 자유와 평등, 평화적인 우애와 형제애는 이러한 살생의 유산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않고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선 혹은 악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한 수만의 희생자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교훈을 배울 것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살생은 불가피하며 인류의 복지와 안녕에 유익하다는 기존의 세계 정치학이 전제하고 있는 이론적 가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도전함으로써 이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고대로부터 전해지고 있는 지혜와 현재 팽배해 있는 정치적 신념에 의해 지지받고 있는 가장 강력한 교리 중 하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뒤집어엎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있었던 일이 의학사상 ‘찬양할 만한 고름이론’(laudable pus)으로 칭송받던 이론을 뒤집어엎은 사건이다. 상처 주위에 생겨난 고름은 건강을 회복시키는 자연적 치료법이라는 주장은 그리스의 의사 갈렌(Galen, 130-200)이 최초로 설파한 이래 지난 17세기 동안 서양의학에서 보편화된 학설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1867년 발표된 리스터(Lister)의 “수술과정에서 살균의 원칙”이란 연구논문(seminal *Lancet* paper)에 의해 논박되었다. 즉 리스터의 논문이 발표된 이후부터 논쟁의 여지 없이 여러 가지 살균방법이 발명되고 채택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Ackerknecht 1982: 77; Garrison 1929: 116, 589-90). 살생이 자연적이고 기능상 건전한 것이라는 기존의 정

치학적 관념은 바로 정치학에서 ‘찬양할 만한 고통이론’인 것이다.

가정생활부터 세계전쟁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게 나타나는 정치 권력의 연구에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있는 정치학자들이 기존의 연구경향에 숨어 있는 ‘살생의 전제’(the assumption of lethality)를 진지하게 문제시하고 그것에 도전해 왔다면, 왜 지금 우리가 정치지도자와 시민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할 것을 기대하겠는가. 그러나 지난 간 역사 속에서,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정치학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비살생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자유, 평등, 평화를 실현코자 하는 많은 지도자와 시민들이 계속 출현하고 있다. 그 한 예가 1895년 러시아에서 군대징집에 항거한 7천 명의 평화를 사랑하는 농부들(Doukhobors)에 의한 ‘무기 화형식’이었다(Tarasoff 1995: 8-10). 살생을 용인하는 정치학과 선구적으로 살생을 거부하는 정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20세기 들어 비살생의 유산은 볼스토이, 간다, 압둘 칸(Abdul Ghaffar Khan), 마르틴 루터 킹 2세, 페트라 켈리, 달리아 라마, 아웅산 수키, 그리고 투투 신부에 의해 계승되었고, 비폭력적인 봉사 리더십을 가능하게 만든 수많은 영웅과 여걸들에 의해 고무되고 지지받았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행동한 인물들이야말로 인류의 미래에 비살생 정치의 비전을 강력하게 제시한 선구자들인 것이다.

냉혹한 시위대가 권위주의 독재정치를 완전히 퇴출시킬 때까지 이를 고수했던 독재정치의 수혜자들처럼 정치학자들은 폭력을 용인하는 기존 사회질서를 끝까지 고수한 후에야 의식 있는 개인과 대중운동의 희생으로 이룩된 성공적인 비살생운동의 사례를 따를 것인가? 정치학자들은 비살생 민주주의 건설에 동참할 것인가? 그리고 정치학은 의학과 같이 살생의 병리적 증상을 진단하고 삶

의 터전인 지구로부터 살생을 제거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처방과 치료의 방법을 발견하고 강구하는 데 헌신할 것인가?

비살생 능력에 대하여

여기서의 주제는 세계적 차원의 비살생 사회는 가능하며, 정치학이 그 학문적 성격과 사회적 역할에서 변화한다면 비살생 지구 사회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비살생 사회가 실현 가능하다는 주장은 적어도 다음 7가지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 다수의 인간은 살생하지 않는다. 인류의 정신적 유산에 비살생의 잠재력이 강력하게 내재해 있다. 여러 가지 학문적 성과가 인간의 비살생 능력을 증명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예견하고 있다. 비록 과도기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사형제도 폐지와 군복무에 대한 양심적 반대의 용인 같은 비살생 공공정책이 폭력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에서조차 채택되고 있다. 이미 비살생 원칙에 바탕을 둔 여러 가지 사회적 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동시에 이미 기능적으로 비살생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사회경제적 변화를 생취하기 위한 비폭력적 대중투쟁이 살생에 의존한 혁명운동에 대한 좋은 대안임이 드러나고 있다. 비살생의 영감과 경험의 뿌리는 세계 모든 곳의 역사적 전통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장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살생으로 가치관 전환을 실천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제까지 비살생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용기 있게 가담함으로써 그 성취 가능성을 증명해 보였

던 많은 개인, 남자와 여자, 유명인사와 익명의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

정치학과 비살생

현재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경우에 따라 살생과 비살생을 다 같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역사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생자가 아니었으며, 또 비살생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일정 정도의 비살생 사회제도는 이미 만들어져 있다. 더욱이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학문적 진보는 살생의 원인을 제거하고 비살생의 원인을 강화시키며 비살생의 조건이 만들어지게 하기 위한 지식의 생산을 기약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전제한다면, 정치학과 정치학의 사회적 역할의 기반이 되는 전제로 살생의 불가피성(*inescapable lethality*)을 용인하는 것은 적어도 문제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다른 무엇보다도 '죽음의 학문'(deadly discipline)으로서 정치학 내에서 전제되고 있는 살생과 그것이 함의하는 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다. 정치학은 다른 분야의 학문 및 직업과 더불어 과거의 비폭력적인 경험을 되살리고, 현재에 존재하는 비폭력의 능력을 인식하며, 우리의 미래에 비폭력적 잠재력을 투사해야 한다. 동시에 정치학은 비살생적인 사회변혁을 위한 연구와 교육, 그리고 공공서비스에서 이러한 비폭력적 지식을 증진시키는 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

비살생으로 변하기 위해 결집될 필요가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는 재언의 여지 없이 자명하다. 그것은 먼저 모든 종교적 신념과 철학에서 비롯된 살생하지 않으려는 심오한 정신(Spirit, S₁), 살생 혹은 비살생으로의 변화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예술, 과학, 전문분야로부터 나오는 지식으로서의 과학(science, S₂), 변혁적인 행동에서 자신의 정신과 과학을 표출시키는 개인적 혹은 집단적 방법으로서 기술(skills, S₃), 그리고 비살생 정치의 지식과 실천을 우울하고 치명적인 것으로 만들기보다는 강력한 생명의 축복으로 만드는 음악과 예술의 영감으로서 노래(Song, S₄)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요소를 결집하고 발전·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적 리더십(L: leadership), 시민의 능력(C: citizen competence), 집행기관(I: implementing institutions), 지지자원(R: supporting resources)이 필요하다. 비살생으로의 변화와 관계되는 모든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4 \times LCIR = \text{비살생 지구사회로의 변혁}$$

민주적 리더십과 시민의 필요·대응 과정(need-responsive processes)을 통해 창조적으로 결집되는 한편, 각종 제도 및 지지자원에 의해 확대된 정신, 과학, 기술, 노래는 비살생의 세계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론과 연구

인간살생에 대한 공포는 정치학으로 하여금 개별적인 살인행위와 대학살, 그리고 핵무기에 의한 대도시 파괴에서부터 지구의 모

든 생명을 소멸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살생을 저지르게 되는 모든 세력이 집결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정치분석을 시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학자들의 의식 속에서 살생은 폭력을 용인하는 주변부에서 벗어나 분석과 문제해결적 관심의 중심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살생의 원인, 비살생의 원인, 살생에서 비살생으로, 그리고 그 반대로의 전이의 원인, 그리고 완벽하게 살생이 없는 사회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집중된 노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비살생적 대안과 비살생으로 변화하는 행동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신경생물학적, 구조적, 문화적, 사회적 각 분야에서 의 지식이 필요하다.

교육과 훈련

따라서 이제 학자들은 비살생과 관련한 지식을 추구하고 그에 따른 변혁의 소임을 수행해야 하는바, 정치학의 경우 그 교육과 훈련, 학과교육의 과정에서, 정치학과를 새로 만드는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학 연구와 교육, 행동을 통한 사회적 역할에서 비살생적 지식의 생산과 변혁을 위한 소임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선결요건이다.

이런 점에서 정치학 교육과 훈련의 목적은 비살생적 문제해결을 위한 창조적인 사고능력과 이를 실천하는 기술능력을 배양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한다면, 과거 유산 중에서 창조적인 삶과 제도의 사례를 재검토하는 일, 비살생에 내

한 개인 차원의 흥미와 기술을 촉진하는 일, 비살생에 대한 지식의 축적과 기술개발을 추구하는 일,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문제해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일, 지역사회에 건설적인 봉사를 제공하는 일, 그리고 비살생 정치학 관련 직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일 등이다. 비살생 정치학의 서론에서 무시무시한 살생의 역사와 비살생의 창조적 유산을 소개한 후 교과과정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비살생의 정치분석 논리와 효과적인 문제해결의 원칙과 과정을 발견하는 훈련에 참여하도록 한다. 참여자들은 살생, 비살생 가치관 변화의 원인과 비살생 사회의 특성에 관한 여러 가설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에서 한 국가 혹은 세계적 차원의 정치체도와 과정이 역사적으로 발전해 온 배경을 고찰하며, 살인, 대량학살, 경제적 살생, 인권유린, 생태계 파괴 같은 현안에 대해 문제해결적 차원에서 과감한 도전을 시도한다. 또한 연구, 강의, 봉사활동,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같은 문제해결적 참여활동을 통해 각종 비살생적 기술능력을 익히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동시에 이러한 바탕에서 참여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개인적 혹은 집단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전국의 대학이 참여하는 평화봉사단(Peace Corps, Shanti Sena)이 보완적 차원의 리더십 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과도기적 변화단계에 있는 공공기관 및 사적 조직 속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자, 교육자, 지도자, 그리고 의사전달자들의 수요에 응해 활동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창조적인 문제해결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한

다. 그리고 대학원 이후의 교육은 정치와 정부, 시민사회가 필요로 하는 폭력예방과 비폭력적인 사회변화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육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고도의 서비스 훈련을 제공한다. 문제 해결에의 참여는 대학의 학부과정 교육에서의 참여와 다를 바 없다. 다양하게 조직된 연구집단은 연구와 교육, 그리고 폭력, 경제, 인권, 환경, 협력 및 여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반성적 사고에 필요한 기술을 향상시키는 일을 담당하고, 석사학위 취득자나 박사 후보생은 교수와 함께 대학 내 각종 프로젝트에서 가이드, 논평자, 스승, 공동 학습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비살생 정치학은 높은 열의를 갖고 학생들을 그들 스스로 창조자임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창조적 능력을 신장시키고 발전하도록 도울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준비시키고자 한다.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기술을 충분히 습득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과제에 대한 이해를 서로 공유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과제수행에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창조적으로 기여하고자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계 내에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박사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비살생 정치학의 여러 가지 지적 기반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를 요구할 것이다. 단위국가 및 전 세계적 차원의 문제해결 필요성에 대한 이해, 비살생적 학문탐구에서 리더십의 배양(언어를 포함한), 질적·양적 연구방법에 대한 이해, 당장의 임무수행에 긴요한 연구방법의 숙달, 고급 프로젝트에의 참여. 그리고 후자와 같은 고급 프로젝트에는 문제해결의 교육, 훈련, 제도발전, 그리고 과정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존 지식의 응

용과 새로운 지식의 발견을 포함한다.

비살생의 학문적 리더십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 우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신의 살생 혹은 비살생에 대한 믿음과 태도가 어떻게 해서 형성됐는지에 대한 자서전적 성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들이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유도하는 교육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학과 동료들도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학과 차원의 리더십도 필요하며, 학제적 협력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국가와 시민사회 차원에서 가치관이 비살생으로 변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지문역할도 필요하며, 덧붙여 체계적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비폭력적 봉사 리더십의 실천도 필요하다(Greenleaf 1977).

그리고 정치학 내에서 비살생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서 비록 시행착오를 겪는다 하더라도 비살생 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사회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수시로 표출해야 한다. 이것은 생명에 대한 비당파적인, 그러면서도 다양한 종교적 신념을 배경으로 하는 정신적·휴머니즘적 존중을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만인의 안녕과 복지에 대한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것이며, 필요·반응적이고 참여적인 정책결정과정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만인의 다양성과 존엄성을 축구하는 것이며, 양성 평등적인 리더십 기능을 실험하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갈등이 있을 때 비폭력적인 문제해결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할 정도의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학문과 전문직종의 기여를 폭넓게 수용하기 위함

이며, 학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팀을 고무시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전 세계 차원의 비살생 사회는 개인과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존립한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함이다.

대학졸업 이후 연구, 교육,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사회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계속해서 일할 사람과 지속적으로 상호 자문할 수 있는 관계가 확립돼야 한다. 이들의 실제 경험은 비살생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비살생에 필요한 기술을 준비하고 개선시키는데, 그리고 비살생으로의 가치관 변화에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창조적인 생각을 환기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비살생 정치학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상호 꾸준한 협력에 동참할 수 있다.

문제해결적 접근

비살생 정치학은 문제해결 과정에서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이 적절하게 콤비네이션임을 이루고 있는 새로운 학문분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복잡한 사회적 변화의 맥락에서 규정되기 때문에 다양하다. 그렇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5가지 문제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폭력과 부장해제, 경제적 대학살, 인권 유린, 환경파괴, 문제해결 협력의 실패. 이런 모든 것들은 상호 연관돼 있으며 살생하고자 하는 의지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악화되었다. 그리고 현재의 많은 구호와 주장은 하나같이 “정의 없이는 평화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는 폭력과 전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거나 혹은 부정의한 조건에 저항하

거나 혹은 이를 변화시키는 데 폭력과 전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살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살생 없이 정의는 없다.” 그 이유는 살생과 살생의 위협이 부정의의 창출과 부정의의 유지에 기여해 왔기 때문이다. 예컨대 과거 페트라 켈리가 주장했던 바와 같이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의 경우, 남녀 간 권력과 자원, 그리고 책임의 공평치 못한 배분이 고대 전통 속에서 정당화되고 법에 의해 신성시되었으며 필요할 경우 남성 폭력에 의해 강화되었던 것이다(Kelly 1994: 15).

문제해결 과정에 동참하는 것이 곧 비살생 정치학이 전능하다거나 혹은 모든 문제해결의 원천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비살생 정치분석과 비폭력적 행위의 원칙 및 실천에서 나온 지식의 적용이 만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런 의미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비폭력적 노력은 폭력에 근거한 민주적 전통을 한 단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기약하는 것이다(Goldman 1990).

제 도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비살생 정치학은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고 새로운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며 문제해결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바, 이는 이러한 과제를 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이노베이션은 정치학과나 대학 전체(기존 제도의 안팎에 존재하는 각종 기술과 재능을 포함하고 있는 각종 지구적 커뮤니케이션 관련기관을 포함하

예의 신설 혹은 리모델링에서 비군사적인 평화봉사단 훈련기관, 비살생 공공정책 기관, 비살생 공동안보군, 비살생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 모든 영역의 비살생적 혁신단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국가적 차원부터 전 세계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살생을 제거하는 것뿐 아니라 이와 같은 비살생적 제도의 창출과 이들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은 비살생 정치학을 탐구하고 실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창조적인 소명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장애요소와 고무적인 요소

21세기가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정치학은 세계적 차원의 비살생 사회를 실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착수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것은 바람직할 뿐 아니라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치학자들은 가치편향을 반대함으로써, 그리고 사실상 살생하고자 하는 성향으로 변질되고 있는 ‘현실적인’ 과학적 중립성을 주장함으로써 책임을 모면할 수는 없다. 그러한 중립성은 결코 진실이 아니었다. 만일 그러한 중립성이 진실한 것이었다면, 정치학자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나 세계가 자유로운지 혹은 자유롭지 못한지, 풍요로운지 혹은 빈곤한지, 평화적인지 아니면 전쟁에 휩쓸려 있는지, 승리했는지 아니면 패배했는지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정치학자들은 학생들에게 자신들은 특정한 가치를 선호하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수행하고 강의하며, 각종 공공서비스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풀지 않는

다고 가르침으로써 기쁨을 느끼곤 했다. 그리고 그들은 히틀러의 대학살과 간디의 비폭력투쟁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정치학자들은 단순히 자유, 평등 혹은 안보 같은 가치가 비살생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비살생 정치학 창출의 과제를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비살생은 이제까지 중요하게 여겨졌던 다른 가치와 같은 비중으로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인류는 정치학과 정치생활에서 비살생의 윤리에 대한 보다 강력한 헌신 없이는 다른 모든 가치가 위협받게 되는 처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 동안 물질주의가 중요한 가치였다면 이제는 도덕성도 동일한 정도로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그 동안 우리가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살생해야 한다고 가르쳤다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당장 살생을 멈추지 않으면 자유와 평등뿐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사회적·생태적 생존도 위태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의 정치학과 정치적 실천이 사회와 자연의 생명 지지적인 힘(life-supporting forces of society and nature)으로 재정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선한 일임과 동시에 실천적 차원에서도 좋은 일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좋은 정치학(good political science)은 하나의 당위적 명령이다.

물론 가치관 전이의 과정에서 살생을 지속하는 전통에 의해 자기정체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유형의 혜택을 누렸던 세력들로부터 심각한 반대가 제기될 수 있다. 이 중에는 국가에 속한 폭력집단과 살생을 일삼는 적대자들이 포함돼 있으며 살생문화로부터 정치적·경제적·심리적 수혜를 입는 사람들도 들어 있다. 또 이 중

에는 전쟁과 혁명에 참여한 일부 퇴역군인과 그 후손들, 그리고 ‘정당한 살생’을 옹호하는 것을 자기정체성과 자부심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도 포함돼 있다. 우리는 순교자들의 무덤 앞에서 그들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는 예식에 참여하는 동안 그들과 함께 죽은 적들에 대한 동정심과는 반대되는 방향에서 순교자들의 죽음을 기린다. 그리고 사람들은 양쪽 전몰자들을 정치적 실패의 희생양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살생이 어디에서든 결코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언젠가는 나도 이러한 순교자적 죽음에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그렇지만 비살생 정치학으로의 가치관 전환을 고무한 여러 사례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존중받는 군사지도자 중 몇몇 장군들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통해 전해 주는 가르침이 있다. 예컨대 1955년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은 미국의 한 군단에서 행한 연설에서 ‘과학적 현실주의’(scientific realism) 차원의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전쟁을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는데, 이를 한번 상기해 보자.

여러분은 그 동안 전쟁의 폐지가 수 세기 동안 지속된 인간의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전쟁 폐지의 목표에 부합하는 모든 종류의 명제는 제기되자마자 즉각 불가능하고 공상적인 것으로 버림받아 왔다고 말할 것이다. 세계에 있는 모든 냉소주의자, 비관론자, 투기꾼, 부랑배들은 언제나 전쟁 폐지의 현실적 가능성을 부인해 왔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난 10년 동안 과학이 대량파괴를 하나의 현실로 만들기 이전의 일이었다. 과거엔 그러한 주장이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가공할 파괴적인 힘

을 지닌 핵과 엄청난 파괴 잠재력이 있는 그 밖의 다른 무기가 대량으로 개발됨에 따라 전쟁 폐지의 문제는 더 이상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 현실주의 차원에서 해결돼야 할 과제가 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오로지 학식 있는 철학자와 절충주의자들만이 심사숙고해야 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주 위태로운 생존의 위기에 처한 대중들이 현실적인 의사결정을 내림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되었다.…… 불행하게도 지도자들은 언제나 한 발 늦게 따라오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전쟁이 폐지되지 않으면 인류문명의 위대한 진보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진리를 결코 말하지 않는다.…… 현재 인류의 보편적 희망을—그러한 희망은 빠른 속도로 인류의 보편적 욕구로 변하고 있다—현실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충분한 상상력과 함께 권력을 가진 위대한 인물은 언제쯤 나타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구시대적인 방식과 해결책으로는 더 이상 충분치 않다. 우리는 새로운 사상, 사고, 개념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통제깃같이 꼭 끼는 과거의 구속을 깨고 나와야 한다(Cousins 1987: 67-9).

자유, 평등, 박애라는 프랑스대혁명 슬로건의 비폭력적 변화는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장군이 자유, 평등, 박애에 대한 폭력적 군사주의화가 미치는 아주 해로운 영향에 대해 경고한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자유에 관하여*: “우리는 정부 내 각종 위원회에서 군산복합체가 정당하지 못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군산복합체들이 나서서 그것을 추구하든 않든 간에—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결코 그러한 군산복합체의 힘이 우리의 자유나 혹은 민주적 과정을 위태롭게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 무엇이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별연설, 1961. 1. 17). *경제적 자유에 관하여*: “지금까지 만들어진 소총, 진수된 전함, 지금까지 발사된 로켓 등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기아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추위에 떨며 제대로 옷조차 갖춰 입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강탈한 것이다(미국신문편집인협회 연설, 1953. 4. 16). *박애동포애*에 관하여: “진실로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 정부 중 어느 하나라도 현재 추구하고 있는 비평화적 진로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나는 생각한다”(BBC TV와의 인터뷰, 1959. 8. 31).

지금은 퇴역했지만 미국 핵전쟁부대의 전 사령관 조지 L. 버틀러(George Lee Butler) 장군은 1996년 12월 4일 워싱턴의 내셔널프레스 클럽에서 행한 한 연설에서 단순한 핵무기 축소가 아닌 전면적 폐기를 요구하고, 특히 핵무기 발명자이자 최초의 사용자인 미국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조심스럽게 경고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은 다른 나라가 이러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도덕적 권위를 갖지 못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핵무기는 본질적으로 위험하고 매우 값비싸며, 군사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도덕적으로 옹호될 수 없다.” 따라서 버틀러 장군은 핵무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운동을 벌여 수차례 계속적으로 연방교도소에 수감됐던 ‘칼을 녹여 보습으로 만들기 운동’(the Swords into Plowshares Movement)의 회원들과 같은 미국인들이 오랫동안 품었던 생각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핵무기 폐지운동의 논리는 또한 다른 종류의 살생수단 폐지운동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살생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가인 장군들이 자신의 직업과 사회

적 역할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지속돼 온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해 심도 있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진대, 정치학자들이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폭력을 용인하는 전제와 그 사회적 영향력을 문제시하고 비살생 사회의 전 세계적 구현을 위해 과감하게 나설 수는 없는 것인가?

현재 미국 정치학을 이끌고 있는 대부분의 정치학자들과 외국 의 동료 학자들은 미국에서 하나의 학문분야로서 정치학이 창출되는 데 기여한 비살생적 동기를 알지 못하고 있다. 정치학의 기원 중 하나는 서부 테네시에서 유혈이 낭자한 연방군과의 격렬한 전투가 있던 후 1863년 아간보초병의 임무를 맡았던 젊은 북부동맹군인 존 버게스(John W. Burgess)가 목청 높여 다짐한 ‘전투장 맹세’(a battlefield vow)였다.

이곳은 여전히 폭우 같은 비가 오고 있다. 어두운 하늘을 휘감는 것 같은 번개가 사악한 혀를 내밀고 있고, 천둥이 우르릉거리며 하늘 전체에서 중화기의 축포와 같이 굉음을 내고 있다. 자연의 이러한 아우성 소리와 함께 상처 입고 죽어가는 동물들의 울부짖음과 상처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의 목소리가 뒤엉켜 있다. 단단하게 경직돼 있는 군인들에게 공포의 밤이었다. 나 자신과 같이 여리고 민감한 사람에게 이것은 말할 수 없이 두렵고 섬뜩한 악몽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운 경험의 와중에 나의 아내가 나에게 처음으로 해 준 말이 떠올랐다. 어둠을 응시하며 나의 눈을 긴장시키면서 나의 귀를 통해 다가오는 적의 첫 소리를 들을 때, 나는 나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뭐라 중얼거리고 있음을 알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이 육체적 폭력수단에 호소함 없이, 이성의 힘만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나는 바로 하늘을 보며 만일 일종의 신의 섭리가 지금의 전쟁 위협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면, 나는 나의 삶을 유험와 파괴에 의해 살아가는 대신 이성과 타협에 의해 살아가는데 헌신할 것이다(Burgess 1934: 28).

버게스는 자신의 맹세를 지켜 독일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 1880년 뉴욕 콜롬비아대학에 정치학과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버게스 교수가 겪은 여러 경험은 이후 비살생 정치학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장애요소를 예견해 주고 있다. 이러한 장애는 맥락에 따라 사소한 것부터 매우 가혹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것이므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버게스는 독일인을 지구상의 다 같은 동료로 이해하고, 미국이 1차대전에서 참전하는 것을 반대했다. 1917년 8월 6일 미국이 참전하던 날 그는 “아주 슬픈 충격을 받았고,…… 나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파괴로 내동댕이쳐졌다”고 했다. 그는 애국적인 반독일전쟁이 치러지던 와중에 다음과 같이 개탄했다. “오늘날 평화와 이성을 가진 인간이 된다는 것은 세계 사람들로부터 반역자나 겁쟁이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취급받고 있다”(29). 이렇게 해서 버게스 교수는 때로는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기도 하고 못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며 평화를 위해 투쟁한 많은 사람들의 깊은 고뇌를 스스로 체험했던 것이다.

비살생의 정치와 마찬가지로 비살생 정치학도 생명에 대한 정신적이고 휴머니즘적인 존경의 영감을 받아 진실되고 우아하며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간디의 충고를 따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전 세계에 번지고 있는 유혈사태의 한가운데서 정치학자들은 멕시코 치아파스(Chiapas) 지역에서 1992년에 결성된 ‘벌들의 시민사회’(the Sociedad Civil Las Abejas, the Bees Civil Society)라는 단체의 농부들과 같이 생명을 존중하는 원칙에 헌신할 필요가 있다. 그 멕시코의 벌들(the Bees)은 정의를 위해 자파티스타(Zapatista) 무장혁명과 지배자들의 잔혹한 억압정치에 비폭력으로 맞섰다. 그들은 자파티스타가 주장한 여러 가지 불만을 공유는 하면서도 자신들의 노선은 다르다면서 다음과 같이 맹세했다. “우리의 길은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를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적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살생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가난한 농부이며 서로 형제요 자매들이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죽을 각오가 돼 있다. 그러나 결코 살생하지 않을 각오도 돼 있다”(Peace News, July 1998: 13, 14).

우리는 원칙에 입각한 비살생에 대한 헌신이 영국 제국주의 지배 하에서 식민지였던 인도 사람들이나 백인의 인종차별주의적 억압 하에 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혹은 가난한 멕시코 농부들로부터 나온 것과 같이, 왜 꼭 ‘밑으로부터 위로’ 나올 것으로만 기대해야 하는가? 어째서 정치학자들을 포함해서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및 전 세계적인 엘리트들에 의해 ‘위로부터 아래’로 출현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것인가?

인간의 비살생 능력에 대한 탐구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인간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비살생적 변화가 일어나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데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비살생 사회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요소는 이제까지 인간이 경험한 여러 가지 일 속 어딘가

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는 단지 국가적 차원과 전 세계적 차원에서 필요와 상황조건을 잘 살피고 보완하여 이들을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것만 남아 있다. 과거의 유행경험과 현재 겪고 있는 유행사태에 대한 두려움이 비살생에 대한 강력한 동기화와 사회화의 원천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전 시대의 인류가 범한 살생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살생 혹은 살생으로의 회귀가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인류학자 클레이튼 로바첵과 캐롤 로바첵(1998)이 말했던 것처럼 1958년 이후 3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에콰도르의 와오라니(Waorani) 사람들에게 의한 살인이 90%나 현저하게 감소한 사실은 인간이 비살생으로 급속하게 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지난 세기에는 와오라니 지역 사람들의 살인행위로 초래된 사망의 비율이 60%였는데, 이 때문에 와오라니는 이제까지 인류학 분야에서 조사된 대상 중 가장 폭력적인 사회로 간주돼 왔다. 미국에서의 살인사건 비율이 10만 명당 10명 내외이지만 와오라니 지역은 10만 명당 1,000명이었다. 그렇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와오라니 지역의 살인비율은 10만 명당 60명으로까지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가 있기까지는 여러 가지 요인이 기여했지만, 누구보다도 두 명의 여성 기독교 선교사—1956년 와오라니 사람들과 접촉을 시도하다가 살해돼 순교한 남자의 미망인과 여동생—의 용기 있는 리더십이 가장 중요했다. 일부 와오라니 여성들이 이들을 지원했고, 대안적인 비살생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교육하여 사람들을 제몽하기도 했다. 또 외부 세계를 직접 경험한 와오라니 여성들이 가지고 들어온 외부 지역 사람들이 결코 식인종이 아니라는 내용을 포함한 새

로운 정보가 주민들에게 소개된 것과 전 가족이 창에 꽂혀 죽음을 당하는 공포의 근친복수(verdettas) 전통을 종식시키고 싶어 하던 와오라니 사람들의 절실한 희망도 적지 않게 기여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살생을 종식시키기 위해 단결해 기도회를 여는 등 진지하게 활동했다. 그 결과 경찰이나 그 밖의 강제적인 조치가 없었음에도, 또 사회경제적인 구조적 변화가 선행되지 않았음에도 살인사건은 감소하였던 것이다. 이와 반대로 새로운 비살생 가치에의 정신적 헌신과 새로운 정보의 수용이 결합함에 따라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기독교 신자가 아닌 와오라니 사람들의 단체 까지도 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로바첵 부부에게 있어 이러한 가치관과 사회구조의 놀라운 변화가 아직까지는 불완전한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행동에 관한 몇 가지 새롭고도 중요한 이론적 전제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사람들은 생태적이고 생물학적인 또는 사회문화적 결정요인에 의해 행동하도록 강제되는 수동적 기계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계속해서 구축하고 또 재구축하는 문화적으로 정의된 현실에서 개인적 및 문화적 요인에 의해 정의된 목적을 추구하는 가운데 널리 있는 여러 가지 가능한 선택과 제약요소 속에서 자신의 길을 결정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사결정자로 간주되고 있다(1998: 4).

비살생 정치학의 시각에서 볼 때 와오라니의 경험은 가치관 변화의 잠재적 가능성이 변화를 추구하는 창조적 리더십에 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와오라니 사람들이 할 수 있던 것을 정치학도 학문적 활동의 일환으로 그리고 사회봉사의 차원에

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다. 아직까지 와오라니나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살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우 많다. 비록 각종 비살생 전략이 실천 가능한 것이고 또 세계적 차원의 변화에 긴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비폭력의 정신과 실천은 보편적이어야 한다.

비살생 정치학: 지구적 차원의 필수과제

비살생 정치학은 지구적이어야 한다. 발견, 창조성, 다양성과 그 효과 면에서 지구적이어야 한다. 정신, 과학, 기술, 노래, 제도와 자원의 투입에 있어서도 지구적이어야 한다. 지구적 차원에서 창조적 리더십을 길러 나가고 모든 사람들을 힘있게 만듦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는 일련의 행동을 수용하고 지지하도록 해야 한다. 인간의 여러 욕구에 대응해 문제를 해결하는 자애적인 헌신에서도 우리는 지구적이어야 한다. 모든 곳에서 살생을 종식시키지 않는 한 그 누구도 그 어느 곳에서도 안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결단하는 데 지구적이어야 한다. 또 그 어느 학문이나 직업 혹은 사회도 이 시대에 필요한 지혜, 기술, 자원을 독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 자신의 사회와 다른 사회에서 사람들이 비살생적 복지를 추구하는 방법과 형태는 다양하다는 사실을 지구적 차원에서 용인해야 한다. 자유와 평등, 번영, 평화의 전면적 실현을 꾀방하는 살생의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해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는 일이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바라볼 때 우리 각자가 우주 안의 수백억 존재 중에서 단지 한순간 반짝하는 생명의 불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데 있어 우리 모두는 지구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비살생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 결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모두는 지구적이어야 한다.

전 지구적 삶의 세계에서 살생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목적은 폭력을 용인하는 정치학이 사랑과 복지, 그리고 창조적 잠재력의 자유로운 표출에 대한 인간의 욕구에 대해 비살생적으로 대응하는 학문으로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비살생 사회는 가능한가?

지구적 차원에서 비살생 정치학은 가능한가?

“그렇다!”

| 부 록 1 |

세계정치학회(IPSA)에 가입한 각국 단체회원 현황 — 1999

명칭	창립년도 (괄호 안은 구 단체의 창립년도)	회원수
African Association of Political Science	1974 (1973)	1,360
Argentine Association of Political Analysis	1981 (1957)	180
Australasian Political Studies Association	1966 (1952)	425
Austri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70 (1951)	537
Flemish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79 (1951)	450
Association Belge de Science Politique/ Communauté Française de Belgique	1996 (1951)	50
Brazili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52	*
Bulgari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73 (1968)	72
Canadi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68 (1913)	1,200
Chil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	*
Chinese Association of Political Science	1980	1,025
Croati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66	100
Czech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64	200
Danish Association of Political Science	1960	350
Finnish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35	550
Association française de science politique	1949	1,030
Germ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51	1,300
Hellenic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57 (1951)	265

Hungari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82 (1968)	468
Indi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35	1,600
Political Studies Association of Ireland	1982	247
Israe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50	250
Itali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220
Japanese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278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53	2,000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cience	1979	1,465
Lithuani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91	86
Mex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	*
Dutch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66 (1950)	350
New Zealand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74	*
Nigeri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	*
Norwegi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56	500
Pakist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50	300
Philippine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	*
Polish Association of Political Science	1950	200
Romanian Association of Political Science	1968	188
Russi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91 (1960)	300
Slovak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90	150
Sloveni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68	220
South African Political Studies Association	1973	186
Spanish Association of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cience	1993 (1958)	253
Swedish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70	264
Swiss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50	1,000
Chinese Association of Political Science(Taipei)	1932	350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of Thailand	*	*
Turkish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64	120
Political Studies Association of the UK	1964	1,200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03	13,300

Association of Political Science of Uzbekistan	*	*
Venezuel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74	*
Yugoslav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54	*

Total: 35,689 +

*Data not provided.

Source: *Participation* (2000) 24/3: 24-32. Bulletin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 Bulletin de l'association internationale de science politique.

| 부 록 2 |

세계정치학회(IPSA)의 연구분야 — 1997

주요 분야

Central Government
Area Studies
Legislatures
International Relations
Political Executives
International Law
Judicial Systems and Behaviour
Public Administration
Political Parties
Public Policy
Elections and Voting Behaviour
Local and Urban Politics
Pressure Groups
Women and Politics
Political Theory and Philosophy
Developmental Politics
Comparative Politics
Political Science Methods

연구위원회

Conceptual and Terminological Analysis
Political Elites
European Unification
Public Bureaucracies in Developing Societies
Comparative Studies on Local Government and Politics
Political Sociology
Women, Politics, and Developing Nations
Legislative Specialists
Comparative Judicial Studies
Global Policy Studies
Science and Politics
Biology and Politics
Democratiz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Politics and Ethnicity
Political Geography
Socio-Political Pluralism
The Emerging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sian and Pacific Studies
Sex Roles and Politics
Political Finance and Political Corruption
Political Socialization and Educ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Political Support and Alienation
Armed Forces and Society
Comparative Health Policy
Human Rights
Structure and Organization of Government
Comperative Federation and Federalism
Psycho-Politics

Comparative Public Opinion
Political Philosophy
Public Policy Analysis
Comparative Study of the Discipline of Political Science
Comparative Representation and Electoral System
Technology and Development
Political Power
Rethinking in Political Development
Politics and Business

자유연구 모임

The Welfare State and Developing Societies
Public Enterprises and Privatization
New World Orders
Geopolitics
System Integration of Divided Nations
Religion and Politics
Military Rule and Democratization in the Third World
International Data Development
Politics of Global Environmental Change
Local-Global Relations
Administrative Culture
Socialism, Capitalism and Democracy

Source: *Participation* (1997) 21 (3): 53.

| 부 록 3 |

미국정치학회(APSA)의 연구분야 — 1998

일반 분야(APSA 회원명부에 나와 있는 전공별)

American Government and Politics (4,265)

Comparative Politics (4,340)

International Politics (3,450)

Methodology (1,062)

Political Philosophy and Theory (2,119)

Public Administration (1,240)

Public Law and Courts (1,032)

Public Policy (2,391)

하위 전공분야

Advanced Industrial Societies

Africa

African American Politics

Asian American Politics

Australia

Balkans

Baltics

Bureaucracy and Organizational Behavior

Canada
Caribbean
Central America
Central Asia
China
Civil Rights and Liberties
Conflict Processes
Congress
Constitutional Law and Theory
Criminal Justice
Defense
Developing Nations
East Asia
Economic Policy
Education Policy
Electoral Behavior
Electoral Systems
Energy Policy
Environmental Policy
Ethnic and Racial Politics
Evaluation Research
Executive Politics
Federalism and Intergovernmental Relations
Feminist Theory
Foreign Policy
France
Gender Politics and Policy
Germany
Great Britain
Health Care
History and Politics

Housing
Immigration Policy
India
International Law and Organizations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International Security
Japan
Judicial Politics
Labor Policy
Latin America
Latino Politics
Leadership Studies
Legislative Studies
Lesbian and Gay Politics
Life Sciences and Politics
Literature and Politics
Mexico
Middle East
Native American Politics
Normative Political Theory
North America
Political Behavior
Political Communication
Political Development
Political Economy
Political Parties and Organizations
Political Psychology
Political Thought: Historical
Positive Political Theory
Post Communist Europe
Post Soviet Region

Presidency
Public Finance and Budgeting
Public Opinion
Regulatory Policy
Religion and Politics
Research Methods
Russia
Scandinavia
Science and Technology
Social Movements
Social Welfare
South Africa
South America
South Asia
Spain
State Politics
Trade
Ukraine
United States
Urban Politics
Western Europe
Women and Politics

세부 연구분야

Federalism and Intergovernmental Relations (386)
Law and Courts (757)
Legislative Studies (589)
Public Policy (791)
Political Organizations and Parties (540)

Public Administration (612)
Conflict Processes (281)
Representation and Electoral Systems (326)
Presidency Research (394)
Political Methodology (5855)
Religion and Politics (415)
Urban Politics (394)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Politics (327)
Women and Politics (560)
Foundations of Political Theory (531)
Computers and Multimedia (238)
International Security and Arms Control (441)
Comparative Politics (1,372)
Politics and Society in Western Europe (390)
State Politics and Policy (362)
Political Communication (381)
Politics and History (585)
Political Economy (612)
Ecological and Transformational Politics (248)
New Political Science (248)
Political Psychology (299)
Undergraduate Education (329)
Politics and Literature (275)
Domestic Sources of Foreign Policy (310)
Elections, Public Opinion and Voting Behavior (632)
Race, Ethnicity and Politics (442)

Sour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Mailing Lists to Reach Political Scientists*, 1998.

| 부 록 4 |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에서 군복무를 양심적으로
거부했던 사람들이 속했던 종교단체들

Advent Christian	3
African Methodist Episcopal	1
Ambassadors of Christ	1
Antinsky Church	1
Apostolic	2
Apostolic Christian Church	3
Apostolic Faith Movement	2
Assemblies of God	32
Assembly of Christians	1
Assembly of Jesus Christ	1
Associated Bible Students	36
Baptist, Northern	178
Baptist, Southern	45
Berean Church	1
Bible Students School	1
Body of Christ	1
Brethren Assembly	1
Broadway Tabernacle	1
Buddhist	1
Calvary Gospel Tabernacle	1
Catholic, Roman	149

Christadelphians	127
Christian Brethren	1
Christian Catholic Apostolic	1
Christian Convention	1
Christian Jew	1
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	5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1
Christian Scientist	14
Christ's Church	1
Christ's Church of the Golden Rule	3
Christ's Followers	1
Christ's Sanctified Holy Church	2
Church (The)	1
Church of the Brethren	1,353
Church of Christ	199
Church of Christ Holiness	1
Church of Christian Fellowship	1
Church of England	1
Church of the First Born	11
Church of the Four Leaf Clover	1
Church of the Full Gospel, Inc.	1
Church of God of Abrahamic Faith	13
Church of God of Apostolic Faith	4
Church of God Assembly	1
Church of God in Christ	12
Church of God, Guthrie, Okla.	5
Church of God, Holiness	6
Church of God, Indiana	43
Church of God & Saints of Christ	12
Church of God, Sardis	1
Church of God, Seventh Day	21

Church of God, Tennessee (two bodies)	7
Church of God (several bodies)	33
Church of the Gospel	1
Church of Jesus Christ	1
Church of Jesus Christ, Sullivan, Indiana	15
Church of Light	1
Church of the Living God	2
Church of the Lord Jesus Christ	1
Church of the Open Door	1
Church of the People	1
Church of Radiant Life	1
Church of Truth (New Thought)	1
Circle Mission (Father Divine)	10
Community Churches	12
Congregational Christian	209
Defenders	1
Disciples Assembly of Christians	1
Disciples of Christ	78
Dunkard Brethren	30
Doukhorbor (Peace Progressive Society)	3
Elim Covenant Church	1
Emissaries of Divine Light	1
Episcopal	88
Essenes	5
Ethical Culture, Society of	3
Evangelical	50
Evangelical-Congregational	2
Evangelical Mission Convent (Swedish)	11
Evangelical & Reformed	101
Evangelistic Mission	3
Faith Tabernacle	18

Federated Church	1
Filipino Full Gospel	1
Fire Baptized Holiness	3
First Apostolic	1
First Century Gospel	28
First Divine Association in America, Inc.	16
First Missionary Church	2
Followers of Jesus Christ	4
Four Square Gospel	2
Free Holiness	3
Free Methodist	6
Free Pentecostal Church of God	4
Free Will Baptist	2
Friends, Society of (Quakers)	951
Full Gospel Conference of the World, Inc.	4
Full Gospel Mission	3
Full Salvation Union	1
Galilean Mission	1
German Baptist Brethren	157
German Baptist Convention of North America	4
Glory Tabernacle	2
God's, Bible School	1
Gospel Century	1
Gospel Chapel	2
Gospel Hall	1
Gospel Meeting Assembly	1
Gospel Mission	2
Gospel Tabernacle	2
Gospel Temple	1
Grace Chapel	1
Grace Truth Assembly	1

Gracelawn Assembly	1
Greek Apostolic	1
Greek Catholic	1
Greek Orthodox	1
Hepzibah Faith	6
Hindu Universal	1
Holiness Baptist	1
Holiness General Assembly	1
House of David	2
House of Prayer	1
Humanist Society of Friends	2
Immanuel Missionary Association	13
Independent Assembly of God	2
Independent Church	2
Institute of Religious Society & Philosophy	1
Interdenominational	16
International Missionary Society	2
Jehovah's Witnesses	409
Jennings Chapel	9
Jewish	60
Kingdom of God	1
Kingdom Missionaries	1
Latin American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	1
Lemurian Fellowship	9
Lord our Righteousness	1
Lutheran (nine synods)	108
Lutheran Brethren	2
Mazdaznan	1
Megiddo Mission	1
Mennonites	4,665
Methodist	673

Missionary Church Association	8
Moody Bible Institute	2
Mormons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 Day Saints)	10
Moravian	2
Moslem	1
Multnomah School of the Bible	2
National Baptist Convention, U.S.A., Inc.	5
National Church of Positive Christianity	5
Nazarene, Church of the	23
New Age, Church	3
Norwegian Evangelical Free Church	2
Old German Baptist	7
Open Bible Standard	1
Orthodox Parsee Z.	2
Overcoming Faith Tabernacle	1
Oxford Movement	1
Pentecostal Assemblies of Jesus Christ	1
Pentecostal Assemblies of the World	3
Pentecostal Assembly	2
Pentecostal Church, Inc.	2
Pentecostal Evangelical	1
Pentecostal Holiness	6
People's Christian Church	1
People's Church	3
Pilgrim Holiness	3
Pillar of Fire	1
Pillar and Ground of the Truth	1
Placabel Council of Latin Am. Churches	1
Plymouth Brethren	12
Plymouth Christian	1
Presbyterian, U.S	5

Presbyterian, U.S.A.	192
Primitive Advent	2
Progressive Brethren	1
Quakertown Church	1
Reading Road Temple	1
Reformed Church of America (Dutch)	15
Reformed Mission of the Redeemer	1
Rogerine Quakers (Pentecostal Friends)	3
Rosicrusian	1
Russian Molokan (Christian Spiritual Jumpers)	76
Russian Old Testament Church	1
Saint's Mission	1
Salvation Army	1
Sanctified Church of Christ	1
Scandinavian Evangelical	1
Schwenkfelders (Apostolic Christian Church, Inc.	1
School of the Bible	1
Serbian Orthodox	1
Seventh Day Adventist	17
Seventh Day Adventist, Reformed	1
Seventh Day Baptist	3
Shiloh Tabernacle	1
Spanish Church of Jesus Christ	1
Spiritual Mission	1
Spiritualist	1
Swedenborg	1
Taoist	1
Theosophists	14
Trinity Tabernacle	1
Triumph the Church & Kingdom of God in Christ	1
Triumph Church of the New Age	1

True Followers of Christ	1
Truelight Church of Christ	1
Twentieth Century Biby School	5
Unitarians	44
Union Church (Berea, Ky.)	4
Union Mission	1
United Baptist	1
United Brethren	27
United Christian Church	2
United Holiness Church, Inc.	1
United Holy Christian Church of America	2
United International Young People's Assembly	2
United Lodge of Theosophists	2
United Pentecostal Council of the Assemblies of God in America	1
United Presbyterian	12
Unity	3
Universal Brotherhood	1
Universalist	2
War Resister's League	46
Wesleyan Methodist	8
World Student Federation	2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YMCA)	2
Zoroastrian	2
Total affiliated with denominations:	10,838
Non-affiliated	449
Denominations unidentified	709
Total:	11,996

Source: Anderson 1994: 280-6. Cf. Selective Service System 1950: 318-20

| 주 석 |

각장 첫머리 인용문들의 출처

- 비 문: Alfred North Whitehead in Alan L. Mackay, comp., *A Dictionary of Scientific Quotations* (Bristol, UK: Institute of Physics Publishing, 1991), 262.
- 제1장: Bertrand Russell, *Wisdom of the West* (New York: Crecent Books, 1977), 10; Jawaharlal Nehru, *An Autobiography*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409.
- 제2장: Daniels and Gilula, 1970: 27.
- 제3장: G. Ramachandran, remarks at the Conference on Youth for Peace, University of Kerala, Trivandrum, India, February 23, 1986.
- 제4장: Nobel Prize Winners, 1981: 61.
- 제5장: Alexis de Tocqueville, quoted in Wilson, 1951: 244; Petra K. Kelly, *Thinking Green!* (Berkeley, Calif.: Parallax Press, 1994), 38.
- 제6장: General Douglas MacArthur in Cousins 1987: 69; Martin Luther King, Jr., "The Future of Integration," pamphlet of speech at a Manchester College convocation, North Manchester, Indiana, February 1, 1968, 9; Max Weber in Weber 1958: 128; Gandhi 1958-1994: Vol. XXVI, 1928, 68.

1. 이러한 내용들이 미국의 한 살생적 애국자의 모습으로서 너무 거친 것으로 인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917년 4월 16일, 미국 오클라호마주 민주당 상원의원인 로버트 L. 오웬씨가 미국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을 지지하며 낸 *Congressional Record*에 소개된 다음과 같은 전쟁호소문(battle cry)을 한번 생각해 보라.

Mr. President, I found in a western paper a few days ago an editorial in the Muskogee Phoenix, Muskogee Okla., written by Tams Eixby, Esq., former chairman of the Dawes

Commission. It breathes a high, pure note of Christian patriotism, which I think deserves a place in our annals at this time. I wish to read it. It is very short. It is entitled:

ONWARD, CHRISTIAN SOLDIER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iven to the world by the Pilgrim Fathers, through their love and devotion to the Omnipotent ruler of the destinies of men, has declared war on the anniversary of our Savior's crucifixion.

It is altogether fitting and proper that it should be as it is. Loyal American will go forth to war not only as the champions of liberty and freedom and humanity but as soldier of the cross. As he died upon the cross nearly 2,000 years ago for the salvation of mankind Americans will die upon the field of battle to make this a better world.

Through America's blood the world is be purged of a barbaric, heathenish dynasty that in its lust has forgotten the teachings of our Savior. It is a noble thing to die and to suffer that men may be brought nearer to God.

America, unafraid, girded with the armor of righteousness, strides forth to battle. There is no hatred in our hearts; we bear no malice toward our enemies; we ask no conquest nor material reward. America, true to the traditions that gave her birth, is to wage a noble, Christian war. we are willing to die if need be to bring to all men once more the message of peace on earth, good will. And in this sacred hour America offers for her enemies the prayer of the cross, "Father, forgive them; they know not what they do."

The call to arms has been sounded. America, champion of righteousness, of civilization, and of Christianity, with a clear heart and willing hand, marches forth.

Amid the clamor and the cries of battle come the strains of the hymn of the united allies of mankind: "Onward, Christian Soldier!"

Congressional Record, 65th Cong., 1st sess., 1917, vol. 55, pt. 1, 719

2. 세비아어 성명서(The Seville Statement)에 서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David Adams, psychology(U.S.A.); S. A. Barnett, ethnology(Australia); N. P. Bechtereva,

neurophysiology(U.S.S.R.); Bonnie Frank Carter, psychology(U.S.A.); José M. Rodríguez Delgado, neurophysiology(Spain); José Luis Díaz, ethology(Mexico); Andrzej Elias, individual differences psychology(Poland); Santiago Genovés, biological anthropology (Mexico); Benson E. Ginsburg, behavior genetics(U.S.A.); Jo Groebel, social psychology (Federal Republic of Germany); Samit-Kumar Ghosh, sociology(India); Robert Hinde, animal behaviour(U.K.); Richard E. Leakey, physical anthropology(Kenya); Taha H. Malasi, psychiatry(Kuwait); J. Marín Ramírez, psychobiology(Spain); Federico Mayor Zaragoza biochemistry(Spain); Diana L. Mendoza, ethology(Spain); Ashis Nandy, political psychology(India); John Paul Scott, animal behavior(U.S.A.); and Riitta Whalström psychology(Finland).

3. 동료당(The Fellowship Party), 141 Woolacomb Road, Blackheath, London, SE3 8QP, U.K.

4. Bündnis 90/die Grünen(Alliance 90/The Greens), Bundeshaus, Bonn 53133, Germany

5. 미국평화당(The United States Pacifist party), 5729 S. Dorchester Avenue, Chicago, Illinois 60617, U.S.A. Internet: <http://www.gocities.com/CapitolHill/Lobby/4826>.

6. 사보다이당(The Sarvodaya Party), Unnithan Farm, Jagatpura, Malaviya Nagar P.O., Jaipur-302017, Rajasthan, India

7. 세계급진주의당(Transnational Radical Party), 866 UN Plaza, Suite 408, New York, N.Y. 10017, U.S.A. Internet:<http://www.agora.sml.ir> or www.radicalparty.org.

8. 하원의원에서의 표결 결과는 찬성 373표, 반대 50표, 기권 9표였으며, 전쟁에 반대투표했던 하원의원들은 다음과 같다. Edward B. Almon, Democrat of Alabama; Mark R. Bacon, Republican of Michigan; Frederick A. Britten, Republican of Illinois; Edward E. Brwone, Republican of Wisconsin; John L. Burnett, Democrat of

Alabama; William J. Cary, Republican of Wisconsin; Denver S. Church, Democrat of California; John R. Connelly, Democrat of Kansas; Henry A. Cooper, Republican of Wisconsin; James H. Davidson, Republican of Wisconsin; Charles R. Davis, Republican of Minnesota; Perl D. Decker, Democrat of Missouri; Clarence E. Dill, Democrat of Washington; Charles H. Dillon, Republican of South Dakota; Frederick H. Dominick, Democrat of South Carolina; John J. Esch, Republican of Wisconsin; James A. Frear, Republican of Wisconsin; Charles E. Fuller, Republican of Illinois; Gilbert N. Hauge, Republican of Iowa; Everis A. Hayes, Republican of California; Walter L. Hensley, Democrat of Missouri; Benjamin C. Hilliard, Democrat of Colorado; Harry E. Hull, Republican of Iowa; William L. Igoe, Democrat of Missouri; Royal C. Johnson, Republican of South Dakota; Edward Keating, Democrat of Colorado; Edward J. King, Republican of Illinois; Moses P. Kinkaid, Republican of Nebraska; Claude Kitchin, Democrat of North Carolina; Harold Knutson, Republican of Minnesota; William L. LaFollette, Republican of Washington; Edward E. Little, Republican of Kansas; Meyer London, Socialist of New York; Ernest Lundeen, Republican of Minnesota; Atkins J. McLemore, Democrat of Texas; William E. Mason, Republican of Illinois; Adolphus P. Nelson, Republican of Wisconsin; Charles H. Randall, Prohibitionist of California; Jeannette Rankin, Republican of Montana; Charles F. Reavis, Republican of Nebraska; Edward E. Roberts, Republican of Nevada; William A. Rodenberg, Republican of Illinois; Dorsey W. Shackelford, Democrat of Missouri; Issac R. Sherwood, Republican of Ohio; Charles H. Sloan, Republican of Nebraska; William H. Stafford, Republican of Wisconsin; Carl C. Van Dyke, Democrat of Minnesota; Edward Voigt, Republican of Wisconsin; Loren E. Wheeler, Republican of Illinois; and Frank P. Woods, Republican of Iowa.

Congressional Record, 65th Cong., 1st sess., 1917, Vol. 55, Pt. 1, 413.

9. 상위의원에서의 표결 결과는 찬성 82표, 반대 6표, 기권 8표였으며, 전쟁에 반대한 상원의원들은 다음과 같다: Asle J. Gronna, Republican of North Dakota;

Robert M. LaFollette, Republican of Wisconsin; Harry Lane, Democrat of Oregon; George W. Norris, Republican of Nebraska; William J. Stone, Democrat of Missouri; and James K. Vardaman, Democrat of Mississippi.

Congressional Record, 65th Cong., 1st sess, 1917, Vol.55, Pt. 1, 261.

10. 경제적 “대확살”에 대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한 노벨상 수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Vicente Aleixandre(literature, 1977); Hannes Alfvén(physics, 1970); Philip Abdersop(physics, 1977); Christian Afinsen(chemistry, 1972); Kenneth Arrow(economics, 1972); Julius Axelrod(medicine, 1970); Samuel Beckett(literature, 1969); Baruj Benacerraf(medicine, 1980); Heinrich Böll(literature, 1972); Norman Ernest Borlaug(peace, 1970); Owen Chamberlin(physics, 1959); Mairead Corrigan(peace, 1976); André Cournand(medicine, 1956); Jean Dausset(medicine, 1980); John Carew Eccles(medicine, 1963); Odysseus Elytis(literature, 1979); Ernst Otto Fischer(chemistry, 1973); Roger Guillemin(medicine, 1977); Odd Hassel(chemistry, 1969); Gerhard Herzberg(chemistry, 1971); Robert Hofstadter(physics, 1961); François Jacob(medicine, 1965); Brian Josephson(physics, 1973); Alfred Kastler(physics, 1966); Lawrence R. Klein(economics, 1980); Polykarp Kusch(physics, 1955); Salvador Luria(medicine, 1969); André Lwoff(medicine, 1965); Seán MacBride(peace, 1974); Czesław Miłosz(literature, 1980); Eugenio Montale(literature, 1975); Nevil Mott(physics, 1977); Gunnar Myrdal(economics, 1974); Daniel Nathans(medicine, 1978); Philip Noel-Baker(peace, 1959); Adolfo Pérez Esquivel(peace, 1980); Rodney Robert Porter(medicine, 1972); Ilya Prigogine(chemistry, 1977); Isidor Isaac Rabi(physics, 1944); Martin Ryle(physics, 1974); Abdus Salam(physics, 1979); Frederik Sanger(chemistry, 1958 and 1980); Albert Szent-Györgyi(medicine, 1937); Hugo Thorell(medicine, 1955); Jan Tinbergen(economics, 1969); Nikolas Tinbergen(medicine, 1973); Charles Hard Townes(physics, 1964); Ulf von Euler(medicine, 1970); George Wald(medicine, 1967); James Dewey Watson(medicine, 1962); Patrick White(literature, 1973); Maurice Wilkins(medicine, 1962); Betty Williams(peace, 1976).

참고문헌

- ACKERKNECHT, ERWIN H. 1982. *A Short History of Medicin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ACKERMAN, Peter and DUVALL, Jack. 2000. *A Force More Powerful: A Century of Nonviolent Conflict*. New York: St. Martin's Press.
- _____ and KRUEGLER, C. 1994. *Strategic Nonviolent Conflict*. Westport, Conn.: Praeger.
- ADAMS, DAVID *et al.* 1989. Statement on violence. *Journal of Peace Research*, 26: 120-21.
- _____ 1997. War is not our biology: a decade of the Seville statement on violence. In Grisolia *et al.* 1997: 251-56.
- ALMOND, GABRIEL A. 1996. Political science: the history of the discipline. In Goodin and Klingemann 1966: 50-96.
- ALPEROVITZ, GAR. 1995. *The Decision to Use the Atomic Bomb*. New York: Alfred A. Knopf.
- AMATO, JOSEPH A. 1979. Danilo Dolci: a nonviolent reformer in Sicily. In Bruyn and Rayman 1979: 135-60.
- AMNESTY INTERNATIONAL. 2000. *The Death Penalty*, ACT 50/05/00. April 2000.
- ANERSON, RICHARD C. 1994. *Peace Was In Their Hearts: Conscientious Objectors in World War II*. Watsonville, Calif.: Correlan Publications.
- AQUINO, CORAZON C. 1997. Seeds of nonviolence, harvest of peace: The Philippine revolution of 1986. In Grisolia *et al.* 1997: 227-34.
- ARENDDT, HANNAH. 1970. *On Violence*.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 _____ 1982. *Lectures on Kant's Political Philosoph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RISTOTLE. 1962. *The Politics*, trans. T.A. Sinclair. Harmondsworth: Penguin.
- ASHE, GEOFFREY. 1969. *Gandhi*. New York: Stein and Day.

- AUNG SAN SUU KYI. 1988. *The Voice of Hope*. New York: Seven Stories Press.
- BAHÁ'U'LLÁH. 1983. *Gleanings from the Writings of Bahá'u'lláh*. Wilmette, Ill.: Bahá'í Publishing Trust.
- BANERJEE, MUKULIKA. 2000. *The Pathan Unarmed*, Karachi &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 BARBEY, CHRISTOPHE. 2001. *La non-militarisation et les pays sans armée: une réalité!* Flendruz, Switzerland: APRED.
- BAXTER, ARCHIBALD. 2000. *We Will Not Cease*. Baker, Ore.: The Eddie Tern Press.
- BEBBER, CHARLES C. 1994. Increases in U.S. violent crime during the 1980s following four American military action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9(1): 109-16.
- BEER, MICHAEL. 1994. Annotated bibliography of nonviolent action trai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Nonviolence*, 2: 72-99.
- BEISNER, ROBERT L. 1968. *Twelve Against Empire: The Anti Imperialists, 1898-1900*. New York: McGraw-Hill.
- BENDAÑA, ALEJANDRO. 1998. "From Guevara to Gandhi." Managua, Nicaragua: Centro de Estudios Internacionales.
- BENNETT, LERONE JR. 1993. *Before the Mayflower: A History of Black America*. New York: Penguin Books.
- BHAVE, VINOBA. 1963. *Shanti Sena*, 2nd ed., trans Marjorie Sykes. Rajghat, Varanasi, India: Sarva Seva Sang Prakashan.
- _____. 1994. *Moved by Love: The Memoirs of Vinoba Bhave*, trans. Marjorie Sykes. Hyderabad: Sat Sahitya Sahayogi Sangh.
- BING, ANTHONY G. 1990. *Israeli Pacifist: The Iife of Joseph Abileah*. Syracuse, N.Y.: Syracuse University Press.
- BISWAS, S.C. ed. 1990 (1969). *Gandhi: Theory and Practice. Social Impact and Contemporary Relevance*. Shimla: Indian Institute of Advanced Study.
- BONDURANT, JOAN V. 1969. *Conquest of Violence: The Gandhian Philosophy of Conflic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ONTA, BRUCE D. 1993. *Peaceful Peoples: An Annotated Bibliography*. Metuchen,

- N.J. and London: Scarecrow Press.
- _____ 1996. Conflict resolution among peaceful societies: the culture of peacefulness. *Journal of Peace Research*, 33: 403-420.
- BOORSTIN, DANIEL J. 1983. *The Discoverers*. New York: Random House.
- _____ 1992. *The Creators*. New York: Random House.
- _____ 1998. *The Seekers*. New York: Random House.
- BOSERUP, ANDERS and MACK, ANDREW. 1974. *War Without Weapons: Non-Violence in National Defence*. New York: Schocken Books.
- BOUBALT, GUY; GAUCHARD, BENOÎT; and MULLER, JEAN-MARIE. 1986. *Jacques de Bollardière: Compagnon de toutes les libérations*. Paris: Non-Violence Actualité.
- BOULDING, ELISE. 1980. *Women, the Fifth World*. New York: Foreign Policy Association.
- _____ 1992. *New Agendas for Peace Research: Conflict and Security Reexamined*. Boulder, Colo.: Lynne Rienner Publishers.
- BOURNE, RANDOLPH S. 1964 (1914-1918). *War and the Intellectuals*. New York: Harper & Row.
- BROCK, PETER. 1968. *Pacifism 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Colonial Era to the First World Wa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70. *Twentieth Century Pacifism*. New York: D. Van Nostrand.
- _____ 1972. *Pacifism in Europe to 1914*.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0. *The Quaker Peace Testimony 1660 to 1914*. York, England: Sessions Book Trust.
- _____ 1991a. *Studies in Peace History*. York, England: William Sessions Limited.
- _____ 1991b. Conscientious objectors in Lenin's Russia: A report, 1924. Pp. 81-93 in *Studies in Peace History*.
- _____ 1992. *A Brief History of Pacifism: From Jesus to Tolstoy*. Syracuse, N.Y.: Syracuse University Press.
- BROWN, LESTER *et al.* 1997. *State of the World 1997*.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_____ GARDNER, GARY; AND HALWEIL, BRIAN. 1999. *Beyond Malthus:*

- Nineteen Dimensions of the Population Challenge*. New York: W.W. Norton.
- BRUYN, SEVERYN T. and RAYMAN, PAULA M., eds. 1979. *Nonviolent Action and Social Change*. New York: Irvington Publishers.
- BUREAU OF JUSTICE. 2000a. *Capital Punishment 1999*. Washington: U.S. Department of Justice.
- _____. 2000b. *Prison and Jail Inmates at Midyear 1999*.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 BURGESS, JOHN W. 1934. *Reminiscences of an American Schol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BURNS, JAMES MACGREGOR. 1978. *Leadership*. New York: Harper & Row.
- BURROWES, ROBERT J. 1996. *The Strategy of Nonviolent Defense: A Gandhian Approach*.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BURTON, JOHN. 1979. *Deviance, Terrorism & War: The Process of Solving Unsolved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New York: St. Martin's Press.
- _____. 1984. *Global Conflict: The Domestic Sources of International Crisis*. Brighton: Wheatsheaf Books.
- _____. 1996. *Conflict Resolution: Its Language and Processes*. Lanham, Md.: Scarecrow Press.
- _____. 1997. *Violence Explained: The Sources of Conflict, Violence and Crime and their Prevention*.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CAMPBELL, DONALD T. and FISKE, DONALD W. 1959.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ation by the multitrait-multimethod matrix. *Psychological Bulletin* 56 (2): 81-105.
- CANADA, GEOFFREY. 1995. *Fist Stick Knife Gun: A Personal History of Violence in America*. Boston: Beacon Press.
- CARNEGIE COMMISSION ON PREVENTING DEADLY CONFLICT. 1997. *Preventing Deadly Conflict: Final Report*. Washington, D.C.: Carnegie Commission on Preventing Deadly Conflict.
- CARROLL, BERENICE A. 1998. Looking where the key was lost: feminist theory and nonviolence theory. In Satha-Anand and True 1998: 19-33.
- CASE, CLARENCE M. 1923. *Non-Violent Coercion: A Study in Methods of Social*

- Pressure*. London: Allen and Unwin.
- CHAPPLE, CHRISTOPHER K, 1993. *Nonviolence to Animals, Earth, and Self in Asian Tradition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CHARNY, ISRAEL W. 1982. *How Can We Commit the Un-thinkable? Genocide the Human Cancer*. Boulder, Colo.: Westview Press.
- CHAUDHURI, ELIANA R. 1998. *Planning with the Poor: The Nonviolent Experiment of Danilo Dolci in Sicily*. New Delhi: Gandhi Peace Foundation.
- CHOWDHURY, H.B., ed. 1997. *Asoka 2300*. Calcutta: Bengal Buddhist Association.
- CHRISTIAN, R.E. 1978. *Tolstoy's Letters: Volume II 1880-1910*.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CLAUSEWITZ, CARL VON. 1976 (1832). *On War*, ed. and trans.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OMMAGER, HENRY S. 1991. The history of American violence: an interpretation. Pp. 3-28 in *Violence: The Crisis of American Confidence*, ed. Hugh D. Graham.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 COMMONER, BARRY. 1990. *Making Peace With the Planet*. New York: Pantheon Books.
- COMSTOCK, CRAIG. 1971. Avoiding pathologies of defense. Pp. 290-301 in *Sanctions for Evil*, ed. Nevitt Sanford and Craig Comstock. Boston: Beacon Press.
- CONSER, WALTER H., Jr.; McCARTHY, RONALD M.; TOSCANO, DAVID J.; and SHARP, GENE., eds. 1986. *Resistance, Politics and the Struggle for Independence*. Boulder, Colo.: Lynne Rienner Publishers.
- COOK, PHILIP J. and LUDWIG, JENS. 1997. Guns in America: national survey on private ownership and use of firearms. *Research in Brief*, no. 1026. Washington: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COONEY, ROBERT and MICHALOWSKI, HELEN, eds. 1987. *Power of the People: Active Nonviolence in the United States*. Philadelphia, Penn.: New Society Publishers. (Chief Seattle's message pp. 6-7 has been shown to be a screenwriter's fiction.)
- COPPIETERS, BRUNO AND ZVEREV, ALEXEL. 1995. V.C. Bonch-Bruevich and

- the Doukhobors: on the conscientious-objection policies of the Bolsheviks.
Canadian Ethnic Studies/Etudes Ethniques au Canada 27(3): 72-90.
- COUSINS, NORMAN. 1987. *The Pathology of Power*. New York: W.W. Norton.
- CRAIG, LEON H. 1994. *The War Lover: A Study of Plato's Republic*.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CROW, RALPH E.; GRANT, PHILIP; and IBRAHIM, SAADE., eds. 1990. *Arab Nonviolent Political Struggle in the Middle East*. Boulder, Colo.: Lynne Rienner Publishers.
- CROZIER, FRANK P. (Brig. Gen.). 1938. *The Men I Killed*. New York: Doubleday.
- DALTON, DENNIS. 1993. *Mahatma Gandhi: Nonviolent Power in Ac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DANGE, S.A.; MUKERJEE, H.; SARDESAI, S.G.; and SEN, M. 1977. *The Mahatma: Marxist Evaluation*. New Delhi: People's Publishing House.
- DANIELS, DAVID N. and GILULA, MARSHALL. F. 1970. Violence and the struggle for existence. In Daniels, Gilula, and Ochberg 1970: 405-43.
- GILULA, MARSHALL F.; and OCHBERG, FRANK M., eds. 1970. *Violence and the Struggle for Existence*. Boston: Little, Brown.
- DAVIDSON, OSHA G. 1993. *Under Fire: The NRA and the Battle for Gun Control*. New York: Henry Holt.
- THE DEFENSE MONITOR*. 1972-. Washington. D.C.: Center for Defense Information.
- DELLINGER, DAVE. 1970. *Revolutionary Nonviolence*. Indianapolis, Ind.: Bobbs-Merrill.
- DENNEN, J.M.C. van der. 1990. Primitive war and the ethnological inventory project. Pp. 247-69 in *Sociobiology and Conflict*, eds. J. van der Dennen and V. Falger. London: Chapman and Hall.
- _____. 1995. *The Origin of War*. 2 vols. Groningen: Origin Press.
- DENSON, JOHN V., ed. 1997. *The Costs of War: America's Pyrrhic Victories*.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Book.
- DHAWAN, GOPINATH. 1957. *The Political Philosophy of Mahatma Gandhi*. Ahmedabad: Navajivan Publishing House.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1963-99.

DOGAN, MATTEI and PAHRE, ROBERT. 1990. *Creative Marginality: Innovation at the Intersection of the Social Sciences*. Boulder, Colo.: Westview.

DRAGO, ANTONINO. 1996. When the history of science suggests nonviolenc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Nonviolence* 3: 15-19.

EASWARAN, EKNATH, 1999. *Nonviolent Soldier of Islam*. Tomales, Calif.: Nilgiri Press.

EDGERTON, WILLIAM, ed. 1993. *Memoirs of Peasant Tolstoyans in Soviet Russia*.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EIBL-EIBESFELDT, IRENÄUS. 1979. *The Biology of Peace and War: Men, Animals, and Aggression*. New York: Viking Press.

EISENDRATH, MAURICE. 1994. Thou shalt not kill-period. In Polner and Goodman 1994: 139-45.

EISENHOWER, DWIGHT D. 1953. Speech to the American Society of Newspaper Editors, April 16, 1953. Full-page excerpt in *The Wall Street Journal*, May 30, 1985, p. 29.

_____. 1959. BBC TV interview, August 31, 1959. Quoted in Peter Dennis and Adrian Preston, eds., *Soldiers as Statesmen*. New York: Barnes & Noble, 1976, p. 132.

_____. 1961. Farewell broadcast, January 17, 1961. *The Spoken Word*, SW-9403.

EVANS, GWYNFOR. 1973. "Nonviolent Nationalism." New Malden, Surrey: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The Alex Wood Memorial Lecture, 1973.

EVERETT, MELISSA. 1989. *Breaking Ranks*. Philadelphia, Penn.: New Society Publishers.

FABBRO, DAVID. 1978. Peaceful societies: an introduction. *Journal of Peace Research* 15: 67-84.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U.S. DEPARTMENT OF JUSTICE. 2000. *Crime in the United States 1999*. Washington, D.C.: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INER, SAMUEL E. 1997. *The History of Government From the Earliest Tim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Vol. i, *Ancient Monarchies and Empires*. Vol. ii, *The Intermediate Ages*. Vol. iii, *Empires, Monarchies, and the Modern State*.

- FISHER, ROGER and URY, WILLIAM. 1981. *Getting to Yes*. Boston, Mass.: Houghton Mifflin Company.
- FOGELMAN, EVA. 1994. *Conscience & Courage: Rescuers of Jews During the Holocaust*. New York: Doubleday.
- FOSTER, CATHERINE. 1989. *Women for All Seasons: The Story of the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 FRANK, JEROME D. 1960. Breaking the thought barrier: psychological challenges of the nuclear age. *Psychiatry* 23: 245-66.
- _____. 1993. *Psychotherapy and the Human Predicament*, ed. P.E. Dietz. Northvale, N.J.: Jason Aronson.
- FRIEDRICH, CARL J. 1969 (1948). *Inevitable Peace*. New York: Greenwood Press.
- FROMM, ERICH. 1973. *The Anatomy of Human Destructivenes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FRY, A. RUTH. 1986 (1952). *Victories Without Violence*. Santa Fe, N. Mex.: Ocean Tree Books.
- FRY, DOUGLAS P. 1994. Maintaining social tranquility: internal and external loci of aggression control. In Sponcel and Gregor 1994: 135-54.
- _____. and BJÖRKVIST, KAJ, eds. 1997. *Cultural Variation in Conflict Resolution: Alternatives to Violence*.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FULLER, JOHN G. 1985. *The Day We Bombed Utah*. New York: Signet Books.
- FUNG, YU-LAN. 1952.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trans. Derke. Bodde. Vol. 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USSELL, PAUL. 1997. The culture of war. In Denson 1997: 351-8.
- GALTUNG, JOHAN. 1969.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6: 167-91.
- _____. 1984. *There are Alternatives!* Nottingham: Spokesman.
- _____. 1990. *The True Worlds: A Transnational Perspective*. New York: The Free Press.
- _____. 1992. *The Way is the Goal: Gandhi Today*. Ahmedabad: Gujarat Vidyapith.

- Peace Research Centre.
- _____. 1996. *Peace by Peaceful Means*. London: SAGE Publications.
- _____. 1998. *Conflict Transformation by Peaceful Means: The Transcend Method*. Geneva/Torino: Crisis Environments Training Initiative and Disaster Management Training Programme, United Nations.
- GANDHI, MOHANDAS K. 1957 (1927-1929). *An Autobiography: The Story of My Experiments with Truth*. Boston, Mass: Beacon Press.
- _____. 1958-1994. *The Collected Works of Mahatma Gandhi*. Vols. 1-100. New Delhi: Publications Division, Ministry of Information and Broadcasting, Government of India.
- _____. 1969 (1936-1940). *Towards Non-Violent Politics*. Thanjavur, Tamilnad, India: Sarvodaya Prachuralaya.
- _____. 1970. *The Science of Satyagraha*, ed. A.T. Hingorani. Bombay: Bharatiya Vidya Bhavan.
- _____. 1971. *The Teaching of the Gita*, ed. A.T. Hingorani. Bombay: Bharatiya Vidya Bhavan.
- GARA, LARRY and GARA, LENNA MAE. 1999. *A Few Small Candles: War Resisters of World War II Tell Their Stories*. Kent, Ohio: Kent State University Press.
- GARRISON, FIELDING H. 1929.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Medicine*. Philadelphia, Penn.: W.B. Saunders.
- GIOGLIO, GERALD R. 1989. *Days of Decision: An Oral History of Conscientious Objectors in the Military in the Vietnam War*. Trenton, N.J.: Broken Rifle Press.
- GIORGÌ, PIERO. 1999. *The Origins of Violence By Cultural Evolution*. Brisbane, Australia: Minerva E&S.
- GIOVANNITTI, LEN and FREED, FRED. 1965. *The Decision to Drop the Bomb*. New York: Coward-McCann.
- GOLDMAN, RALPH M. 1990. *From Warfare to Party Politics: The Critical Transition to Civilian Control*. Syracuse: Syracuse University Press.
- GOODIN, ROBERT E. and KLINGEMANN, HANS-DIETER, eds. 1996. *A New*

-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REENLEAF, ROBERT K. 1977. *Servant Leadership: An Inquiry into the Nature of Legitimate Power and Greatness*. New York: Paulist Press.
- GREGG, RICHARD B. 1966 (1935). *The Power of Nonviolence*. New York: Schocken Books.
- GRISOLIA, JAMES S. et al., eds. 1997. *Violence: From Biology to Society*. Amsterdam: Elsevier.
- GROSSMAN, DAVE (Lt. Col.). 1995. *On Killing: The Psychological Cost of Learning to Kill in War and Society*. Boston, Mass.: Little Brown.
- _____ and DeGAETANO, GLORIA. 1999. *Stop Teaching Our Kids to Kill*. New York: Crown Publishers.
- GUETZKOW, HAROLD. 1955. *Multiple Loyalties: Theoretical Approach to a Problem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 Princeton, N.J.: Center for Research on World Political Institutions, Princeton University.
- GUSEINOV, A.A., ed. 1993. *Nyenasilye: Filosofiya. Etika, Politika* (Nonviolence: Philosophy, Ethics, Politics). Moscow: Nauka.
- HALBERSTAM, DAVID. 1998. *The Children*. New York: Random House.
- HALLIE, PHILIP. 1979. *Let Innocent Blood Be Shed*. New York: Harper & Row.
- HARRIES-JENKINS, GWYN. 1993. Britain: from individual conscience to social movement. In Moskos and Chambers 1993: 67-79.
- HAWKLEY, LOUISE. and JUHNKE, JAMES C. 1993. *Nonviolent America: History through the Eyes of Peace*. North Newton, Kans.: Bethel College.
- HERMAN, A.L. 1999. *Community, Violence, and Peac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of New York Press.
- HESS, G.D. 1995. An introduction to Lewis Fry Richardson and his mathematical theory of war and peace.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14 (1): 77-113.
- HOBBES. 1668 (1651). *Leviathan*, ed. C.B. Macpherson. Harmondsworth: Penguin.
- HOFSTADTER, RICHARD. 1971. Reflections on violence in the United States. Pp. 3-43 in American Violence: A Documentary History, ed. 1990. *Nonviolence in Theory and Practice*. Belmont, Calif.: Wadsworth.

- HORIGAN, DAMIEN P. 1996. On compassion and capital punishment: a Buddhist perspective on the death penalty. *The American Journal of Jurisprudence*, 41: 271-88.
- HOREMAN, BART and STOLWIJK, MARC. 1998. *Refusing to Bear Arms: A World Survey of Conscription and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London: War Resisters International.
- HUSAIN, TARIQ. 1997. "The Leadership Challenges of Human Development." Paper presented at the United Nations University/International Leadership Academy, Amman, Jordam, June 1, 1997.
- ISHIDA, TAKESHI. 1974 (1968). *Heiwa no seijigaku* (Political Science of Peace), 7th ed. Tokyo: Iwanami Shoten.
- IYER, RAGHAVAN N. 1973. *The Political and Moral Thought of Mahatma Gandhi*.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JAIN, SAGARMAL, ed.; VARNI, JINENDRA, comp. 1993. *Saman Suttam*. Rajghat, Varanasi: Sarva Seva Sang Prakashan.
- JOSEPHSON, HANNAH G. 1974. *Jeannette Rankin: First Lady in Congress*. Indianapolis: Bobbs-Merrill.
- JOSEPHSON, HAROLD, ed. 1985. *Biographical Dictionary of Modern Peace Leaders*.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 KANO, TAKAYOSHI. 1990. The bonobos' peaceable kingdom. *Natural History*, 11: 62-70.
- KANT, IMMANUEL. 1939 (1795). *Perpetual Pea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KAPUR, SUDARSHAN. 1992. *Raising Up a Prophet: The African-American Encounter with Gandhi*. Boston, Mass: Beacon Press.
- KEELEY, LAWRENCE H. 1996. *War Before Civilizations: The Myth of the Peaceful Sav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ELLY, PETRA K. 1984. *Fighting for Hope*. London: Chatto and Windus.
- _____. 1989. Gandhi and the Green Party. *Gandhi Marg*, 11: 192-202.
- _____. 1990. "For feminization of power!" Speech to the Congress of the 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 San Francisco, June 30, 1990.

- _____. 1992. *Nonviolence Speaks to Power*. Honolulu: Center for Nonviolence Planning Project, Matsunaga Institute for Peace, University of Hawai'i. Available at www.globalnonviolence.org.
- _____. 1994. *Thinking Green! Essays on Environmentalism, Feminism, and Nonviolence*. Berkeley, Calif.: Parallax Press.
- KEYES, GENE. 1982. Force without firepower. *CoEvolution Quarterly*, 34: 4-25
- KEYFITZ, NATHAN. 1966. How many people have lived on earth. *Demography* 3 (2): 581-2.
- KHAN, ABDUL K. 1997. "The Khudai Khidmatgar (Servants of God)/Red Shirt Movement in the North-West Frontier Province of British India, 1927-47." Ph.D. diss., History, University of Hawai'i.
- KING, MARTIN LUTHER, JR. 1998. *The Autobiography of Martin Luther King, Jr.*, ed. Clayborne Carson. New York: Warner Books.
- KISHTAINY, KHALID. 1990. Violent and nonviolent struggle in Arab history. In Crow, Grant, and Ibrahim 1990: 41-57.
- KOHN, STEPHEN M. 1987. *Jailed for Peace: The History of American Draft Law Violators, 1658-1985*. New York: Praeger.
- KONRAD, A. RICHARD. 1974. Violence and the philosopher. *Journal of Value Inquiry*, 8: 37-45.
- KOOL, V.K., ed. 1990. *Perspectives on Nonviolence: Recent Research in Psychology*. New York: Springer-Verlag.
- _____, ed. 1993. *Nonviolence: Social and Psychological Issues*.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KROPOTKIN, PETER. 1972 (1914). *Mutual Aid: A Factor of Evolu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KUHLMANN, JÜRGEN and LIPPERT, EKKEHARD. 1993.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onscientious objection as social welfare. In Moskos and Chambers 1993: 98-105.
- LAFAYETTE JR., BERNARD and JEHNSEN, DAVID C. 1995. *The Briefing Booklet: An Introduction to The Kingian Nonviolence Reconciliation Program*. Galena, Ohio: Institute for Huma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 _____. 1996. *The Leader's Manual, A Structured Guide and Introduction to Kingian Nonviolence: The Philosophy and Methodology*. Galena, Ohio: Institute for Huma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 LEWER, NICK and SCHOFIELD, STEVEN, eds. 1997. *Non-Lethal Weapons: A Fatal Attraction!* London: Zed Books.
- LEWIS, JOHN. 1973 (1940). *The Case Against Pacifism. Introd. Carl Marzani*. New York: Garland.
- LIGT, BARTHÉLEMY de. 1972 (1938). *The Conquest of Violence: an Essay on War and Revolution*, introds. George Lakey and Aldous Huxley. New York: Garland.
- LOCKE, HUBERT G. 1969. *The Detroit Riot of 1967*. Detroit, Mich.: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 LOCKE JOHN. 1970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ed. P. Laskett. Co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OPEZ-REYES, RAMON. 1998. The fight/flight response and nonviolence. In Satha-Anand and True 1998: 34-82.
- LYND, STAUGHTON and LYND, ALICE, eds. 1995. *Nonviolence in America: A Documentary History*. Maryknoll, N.Y.: Orbis Books.
- LYTTLE, BRADFORD. 1982. The apocalypse equation. *Harvard Magazine* (March-April): 19-20.
- MCALLISTER, PAM. 1982. *Reweaving the Web of Life: Feminism and Nonviolence*. Philadelphia, Pa.: New Society Publishers.
- _____. 1988. *You Can't kill the Spirit*. Philadelphia, Pa.: New Society Publishers. Barbara Deming Memorial Series: Stories of Women and Nonviolent Action.
- MCCARTHY, COLMAN. 1994. *All of One Peace*.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MCCARTHY, RONALD M. 1997. Methods of nonviolent action. In Voegelé and Powers 1997; 319-28. New York: Garland Publishing.
- _____. and SHARP, G. 1997. *Nonviolent Action: A Research Guide*. New York and London: Garland Publishing.
- MCGUINESS, KATE. 1993. Gene Sharp's theory of power: afeminist critique of

- consent. *Journal of Peace Research* 30: 101-15.
- MCSORLEY, RICHARD. 1985. *New Testament Basis of Peacemaking*. Scottsdale, Penn.: Herald Press.
- MACGREGOR, G.H.C. 1960. *The Relevance of an Impossible Ideal*. London: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 MACHIAVELLI, NICCOLO. 1961 (1513). *The Prince*, trans. G. Bau. Harmondsworth: Penguin.
- MAGUIRE, MAIREAD CORRIGAN. 1999. *The Vision of Peace*. ed. John Dear. Maryknoll, N.Y.: Orbis Books.
- MAHAPRAJNA, YUVACHARYA. 1987. *Preksha Dhyana: Theory and Practice*. Ladnun, Rajasthan: Jain Vishva Bharati.
- _____. 1994. *Democracy: Social Revolution Through Individual Transformation*. Ladnun, Rajasthan: Jain Vishva Bharati.
- MAHONY, LIAM and EGUREN, LUIS E. 1997. *Unarmed Bodyguards*. West Hartford, Conn.: Kumarian Press.
- MANN, CORAMAE RICHEY. 1996. *When Women Kill*.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MARTIN, BRIAN. 1989. Gene Sharp's theory of power. *Journal of Peace Research*, 26:213-22.
- _____. et al. 1991. *Nonviolent Struggle and Social Defence*. Ed. S. Anderson and J. Larmore. London: War Resisters International and the Myrtle Solomon Memorial Fund.
- _____. 1992. Science for non-violent struggle. *Science and Public Policy*, 19: 55-8.
- _____. 2001. *Technology for nonviolent struggle*. London: War Resisters International.
- MARX, KARL and ENGELS, FRIEDRICH. 1976 (1848). *The Communist Manifesto*, introd. A.J.P. Taylor. Harmondsworth: Penguin.
- MAYOR, FEDERICO. 1995. *The New Page*. Paris: UNESCO Publishing.
- MERCY, JAMES A. and SALTZMAN, LINDA E. 1989. Fatal violence among spouses in the United States 1976-85.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9 (5): 595-9.
- MOGIL, CHRISTOPHER; and SLEPIAN, ANN; with WOODROW, PETER. 1993.

- We Gave a Fortune Away*. Gabriola Island, B.C.: New Society Publishers.
- MORGAN, ROBIN, ed. 1984. *Sisterhood is Global*. Garden City, N.Y.: Anchor Press/Doubleday.
- MORRISEY, WILL. 1996. *A Political Approach to Pacifism*. 2 vols. Lewiston, N.Y.: Edwin Mellen Press.
- MORTON, BRUCE E. 2000. "The Dual Quadbrain Model of Behavioral Laterality." Department of Biochemistry and Biophysics, School of Medicine, University of Hawai'i.
- MOSER-PUANGSUWAN, YESHUA and WEBER, THOMAS. 2000. *Nonviolent Intervention Across Borders: A Recurrent Vision*. Honolulu: Spark M.Matsunaga Institute for Peace, University of Hawai'i.
- MOSKOS, CHARLES and CHAMBERS, JOHN W. II, eds. 1993. *The New Conscientious Objectors: From Sacred to Secular Resista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AGLER, MICHAEL N. 1982. *America Without Violence*. Covelo, Calif.: Island Press.
- _____. 2001. *Is There No Other Way? The Search for a Nonviolent Future*. Berkeley, Calif.: Berkeley Hills Books.
- NAHAL, CHAMAN. 1997. A sister remembered. *The Hindustan Times*, New Delhi, November 10.
- NAKAMURA, HAJIME. 1967. Basic features of legal, economic, and political thought in Japan. Pp. 143-63 in *The Japanese Mind*, ed. Charles A. Moore. Honolulu: East-West Center and University of Hawaii Press.
- NARAYAN, JAYAPRAKASH. 1975. From socialism to sarvodaya. Pp. 145-77 in *Jayaprakash Narayan*, Ajit Bhattacharya. Delhi: Vikas.
- _____. 1978. *Towards Total Revolution*. 4 vols., ed. Brahmanand. Bombay: Popular Prakashan.
- NATHAN, OTTO and NORDEN, HEINZ, eds. 1968. *Einstein on Peace*. New York: Schocken Books.
- NAUTIYAL, ANNPURNA. 1996. Chipko movement and the women of Garhwal Himalaya. *Gandhian Perspectives* 9 (2): 9-17.

- NOBEL PRIZE RECIPIENTS. 1981. Manifesto of Nobel prize winners. *IFDA Dossier*, 25: 61-63.
- NORMAN, LIANE E. 1989. *Hammer of Justice: Molly Rush and the Plowshares Eight*. Pittsburgh, Pa.: Pittsburgh Peace Institute.
- ORGANIZATION OF AMERICAN HISTORIANS. 1994. Peacemaking in American history. *Magazine of History*, 8 (3): 1-96.
- PAIGE, GLENN D. 1968.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New York: Free Press.
- _____. 1971. Some implications for political science of the comparative politics of Korea. Pp. 139-68 in *Frontiers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 ed. Fred W. Riggs.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_____. 1977. *The Scientific Study of Political Leadership*. New York: Free Press.
- _____. 1977. On values and science: *The Korean Decision reconsidered*.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1(4): 1603-9.
1986. Beyond the limits of violence: toward nonviolent global citizenship. Pp. 281-305 in *Textbook on World Citizenship*, ed. Young Seek Choue. Seoul: Kyung Hee University Press.
- _____ and GILLIATT, SARAH, eds. 1991. *Buddhism and Nonviolent Global Problem-Solving: Ulan Bator Explorations*. Honolulu: Center for Global Nonviolence Planning Project, Matsunaga Institute for Peace, University of Hawai'i. Available at www.globalnonviolence.org.
- _____; SATHA-ANAND, CHAIWAT; AND GILLIATT, SARAH, eds. 1993a. *Islam and Nonviolence*. Honolulu: Center for Global Nonviolence Planning Project, Matsunaga Institute for Peace, University of Hawai'i. Available at www.globalnonviolence.org.
- _____. 1993b. To Nonviolent Political Science: From Seasons of Violence. Honolulu: Center for Global Nonviolence Planning Project, Matsunaga Institute for Peace, University of Hawai'i. Available at www.globalnonviolence.org.
- _____ and ROBINSON, JAMES A. 1998. In memoriam: Richard Carlton Snyder.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31: 241-2.
- _____. 1999. Gandhi as leader: a Plutarchan perspective. *Biography: An*

- Interdisciplinary Quarterly* 22 (1): 57-74.
- _____. 1999. A question for the systems sciences: is a nonkilling society possible? Pp. 409-16 in Yong Pil Rhee, ed. *Toward New Paradigm of Systems Science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PALMER, STUART H. 1960. *A Study of Murder*. New York: Thomas Y. Crowell.
- PAREKH, BHIKHU. 1989a. *Colonialism, Tradition and Reform: An Analysis of Gandhi's Political Discourse*. Newbury Park: Sage.
- _____. 1989b. *Gandhi's Political Philosophy: A Critical Examination*. London: Macmillan.
- PARKIN, SARA. 1994. *The Life and Death of Petra Kelly*. London: Pandora. HarperCollins Publishers.
- PBS. 1993. "Fame in the 20th Century." Part V.
- PEACE NEWS. 1998. Las Abejas: the Bees continue to fly. July: 12-14
- PELTON, LEROY H. 1974. *The Psychology of Nonviolence*. New York: Pergamon Press.
- PERRIN, NOEL. 1979. *Giving up the Gun*. Boston: David R. Godine Publisher.
- PLATO. 1974. *The Republic*, trans. D. Les. Harmondsworth: Penguin.
- PLIMAK, E.G. and KARYAKIN, YU.F. 1979. "Lenin o miroiui nyemirnoi formakh revolyutsionnogo perekhoda vsotsializmu"(Lenin on peaceful and nonpeaceful forms of revolutionary transition to socialism). Paper presented to the XIth World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Moscow University, 12-18 August.
- PLUTARCH. 1967-75. *Plutarch's Lives*. 11 vols. Trans. B. Perri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POLNER, MURRAY and GOODMAN, NAOMI, eds. 1994. *The Challenge of Shalom*. Philadelphia, Penn.: New Society Publishers.
- _____. and O'GRADY, J. 1997. *Disarmed and Dangerous: The Radical Lives and Times of Daniel and Philip Berrigan*. New York: Basic Books.
- POWERS, ROGER S. and VOGELE, WILLIAM B., eds. 1997. *Protest, Power and Change: An Encyclopedia of Nonviolent Action from ACT-UP to Women's Suffrage*.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 RADHAKRISHNAN, N. 1992. *Gandhi, Youth & Nonviolence: Experiments in Conflict Resolution*. Mithrapuram, Paranthal Post, Kerala, India: Center for Development & Peace.
- _____. 1997a. *Gandhian Nonviolence: A Trainer's Manual*. New Delhi: Gandhi Smriti and Darshan Samiti.
- _____. 1997b. *The Message of Gandhi through Universities*. New Delhi: Gandhi Smriti and Darshan Samiti.
- RAMACHANDRAN, G. 1984. *Adventuring With Life: An Autobiography*. Trivandrum, India: S.B. Press.
- _____. and MAHADEVAN, T.K., eds. 1970. *Quest for Gandhi*. New Delhi: Gandhi Peace Foundation.
- RAMSEY, L. THOMAS. 1999. "How many people have ever lived, Keyfitz's calculation updated." <http://www.math.hawaii.edu/~ramsey/People.html>.
- RANDLE, MICHAEL. 1993. *Civil Resistance*. London: Fontana Press.
- RESTAK, RICHARD M. 1979. *The Brain: The Last Frontier*. Garden City, N.Y.: Doubleday.
- ROBARCHEK, CLAYTON and ROBARCHEK, CAROLE. 1998. *Waorani: The Contexts of Violence and War*. Fort Worth, Tex.: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 ROBERTS, ADAM. 1967. *The Strategy of Civilian Defense: Non-Violent Resistance to Aggression*. London: Faber & Faber.
- _____. 1975. Civilian resistance to military coups. *Journal of Peace Research*, 12(1): 19:36.
- ROLLAND, ROMAIN. 1911. *Tolstoy*, trans. Bernard Miall. New York: E.P. Dutton.
- ROODKOWSKY, MARY. 1979. Feminism, peace, and power. In Bruyn and Rayman 1979: 244-66.
- ROSENBERG, MARK L. and MERCY, JAMES A. 1986. Homicide: epidemiologic analysis at the national level. *Bulletin of the New York Academy of Medicine*, 62: 376-99.
- ROUSSEAU, JEAN-JACQUES. 1966 (1762). *Du contrat social*, introd. Pierre Burgelin. Paris: Garnier-Flammarion.

- _____. 1994 (1762). *The Social Contract*, trans. C. Bet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OUSSELL, VINCENT. *Jacques de Bollardière: De l'armée à la non-violence*. Paris: Desclée de Brouwer.
-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1983. *Ambio* 12. Special issue on environmental research and management priorities for the 1980s.
- ROYCE, JOSEPH. 1980. Play in violent and non-violent cultures. *Anthropos*, 75: 799-822.
- RUMMEL, RUDOLPH J. 1994. *Death by Governments*.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SAGAN, ELI. 1979. *The Lust to Annihilate: A Psychoanalytic Study of Violence in Greek Culture*. New York: Psychohistory Press.
- SALLA, MICHAEL. E. 1992. "Third Party Intervention in Interstate Conflict: The International Implications of Groups Committed to Principled Nonviolence in the Thought of M.K. Gandhi, Martin Luther King, Helder Camara & Danilo Dolci." Ph.D. diss., Government, University of Queensland.
- SANTIAGO, ANGELA S. 1995. *Chronology of a Revolution 1986*. Manila: Foundation for Worldwide People Power.
- SATHA-ANAND, CHAIWAT. 1981. "The Nonviolent Prince." Ph.D. diss.,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Hawai'i.
- _____. (Qaer Muheideen). 1990. The nonviolent crescent: eight theses on Muslim nonviolent action. In Crow, Grant, and Ibrahim 1990: 25-40.
- _____. and TRUE, MICHAEL, eds. 1998. *The Frontiers of Nonviolence*. Bangkok and Honolulu: Peace Information Center and Center for Global Nonviolence. In cooperation with the Nonviolence Commission,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Association (IPRA).
- _____. 1999. Teaching nonviolence to the states. Pp. 186-95 in *Asian Peace: Regional Security and Governance in the Asia-Pacific*, ed. Majid Tehranian. London: I.B. Taurus Publishers.
- SCHLISSEL, LOUISE. 1968. *Conscience in America: A Documentary History of Conscientious Objection in America 175-1967*. New York: E.P. Dutton.

- SCHMID, ALEX P. 1985. *Social Defence and Soviet Military Power: An Inquiry Into the Relevance of an Alternative Defence Concept*. Leiden: Center for the Study of Social Conflict, State University of Leiden.
- SCHWARTZ, STEPHEN I., ed. 1998. *Atomic Audit: The Costs and Consequences of U.S. Nuclear Weapons Since 1940*.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SCHWARZSCHILD, STEVEN et al., n.d. *Roots of Jewish Nonviolence*. Nyack, N.Y.: Jewish Peace Fellowship.
- SEBEK, VIKTOR. 1983. Bridging the gap between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icy-making: why public policy often fails to reflect current scientific knowledge. *Ambio*, 12: 118-20.
- SELECTIVE SERVICE SYSTEM. 1950. *Conscientious Objection*. Special monograph. no. 11, Vol. i.
- SEMELIN, JACQUES. 1994. *Unarmed Against Hitler: Civilian Resistance in Europe, 1939-1943*. Westport, Conn.: Praeger.
- SETHI, V.K. 1984. *Kabir: The Weaver of God's Name*. Punjab, India: Radha Soami Satsang Beas.
- SHARP, GENE. 1960. *Gandhi Wields the Weapon of Moral Power*. Ahmedabad: Navajivan Publishing House.
- _____. 1973. *The Politics of Nonviolent Action*. Boston, Mass.: Porter Sargent.
- _____. 1979. *Gandhi As a Political Strategist*. Boston, Mass.: Porter Sargent.
- _____. 1980. *Social Power and Individual Freedom*. Boston, Mass.: Porter Sargent.
- _____. 1989.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Growth of Nonviolent Struggle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Paper presented at the Institute of World History of the Academy of Sciences of the USSR, Moscow, November 21-23.
- _____. 1990. *Civilian-Based Defense: A Post-Military Weapons Syste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3. *From Dictatorship to Democracy*. Cambridge, Mass.: The Albert Einstein Institution.
- _____. 1994. "Nonviolent Struggle: A Means toward Justice, Freedom and Peace." A presentation during the mass on Public Education Day, January 18, 1994,

- sponsored by the Justice and Peace Commission of the Union of Superiors General of the Catholic Church, Rome.
- SHRIDHARANI, KRISHNALAL. 1962(1939). *War without Violence*. Bombay: Bharatiya Vidya Bhavan.
- SHUB, DAVID. 1976. *Lenin*. Harmondsworth: Penguin Books.
- SIBLEY, MULFORD Q., ed. 1963. *The Quiet Battle: Writings 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Non-violent Resistance*. Boston, Mass.: Beacon Press.
- SIMON, DAVID. 1991. *Homicide: A Year on the Killing Streets*. Boston, Mass.: Houghton Mifflin.
- SIVARD, RUTH LEGER. 1996. *World Military and Social Expenditures 1996*. Washington, D.C.: World Priorities. 16th edition.
- SNYDER, RICHARD C.; BRUCK, HENRY W.; and SAPIN, BURTON, eds. 1962.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An Approach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The Free Press of Glencoe, Macmillan.
- _____ and WILSON, H.H. 1949. *Roots of Political Behavior*. New York: American Book Company.
- SOLOMON, GEORGE F. 1970. Psychodynamic aspects of aggression, hostility, and violence. In Daniels, Gilula, and Ochberg 1970: 53-78.
- SOROKIN, PITIRIM A. 1948. *The Reconstruction of Humanity*. Boston: Beacon Press.
- _____ 1954. *The Ways and Power of Love*. Boston: Beacon Press.
- SOROS, GEORGE. 1997. The capitalist threat. *The Atlantic Monthly*, February: 45-58.
- SPONSEL, LESLIE E. 1994a. The mutual relevance of anthropology and peace studies. In Sponsel and Gregor 1997: 11-19.
- _____ and GREGOR, THOMAS, eds. 1994b. *The Anthropology of Peace and Nonviolence*. Boulder, Colo.: Lynne Rienner.
- _____ 1996. Peace and nonviolence. Pp. 908-12 in *The Encyclopedia of Cultural Anthropology*, eds. David Levinson and Melvin Ember. New York: Henry Holt.
- STANFIELD, JOHN H., II. 1993. The dilemma of conscientious objection for African Americans. In Moskos and Chambers 1993: 47-56.
- STANNARD, DAVID E. 1992. *American Holocaust: Columbus and the Conquest of*

- the New Wor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TEGER, MANFRED B. 2000. *Gandhi's Dilemma*. New York: St. Martin's Press.
- _____ and LIND, NANCY S, eds. 1999. *Violence and Its Alternatives*. New York; St. Martin's Press.
- STEIN, MICHAEL B. 1997. Recent approaches to the concept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a summary assessment. Paper presented to the XVIIth World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Seoul, Korea.
- STEINSON, BARBARA J. 1980. "The mother half of humanity": American women in the peace and preparedness movements of World War I. Pp. 259-284 in *Women, War, and Revolution*, eds. Carol R. Berkin and Clara M. Lovett. New York and London: Holmes & Meier.
- STEPHENSON, CAROLYN M. 1997. Greenpeace. In *Vogele and Powers 1997*: 220-2.
- STEVENS, JOHN. 1987. *Abundant Peace: The Biography of Morihei Ueshiba Founder of Aikido*. Boston: Shambala.
- STONE, I.F. 1989. *The Trial of Socrates*. New York: Anchor Books.
- SUMMY, RALPH. 1988. Towards a nonviolent political science. Pp. 161-172 in *Professions in the Nuclear Age*, eds. S. Sewell, A. Kelly and L. Daws. Brisbane: Boolarong Publications.
- _____ 1991. Vision of a nonviolent society: what should be society's aims. *Balance*, 3(4): 3-8.
- _____ 1994. Nonviolence and the case of the extremely ruthless opponent. *Pacifica Review*, 6(1): 1-29.
- _____ and SAUNDERS, MALCOLM. 1995. Why peace history? *Peace & Change* 20: 7-38.
- _____ 1997. Australia, a history of nonviolent action. In *Powers and Vogele 1997*: 25-32.
- _____ 1998. Nonviolent speech. *Peace Review* 10 (4): 573-8.
- SUTHERLAND, BILL and MEYER, MATT. 2000. *Guns and Gandhi in Africa*. Trenton, N.J. and Asmara, Eritrea: Africa World Press.

- TARASOFF, KOOZMA J. 1995. Doukhobor survival through the centuries. *Canadian Ethnic Studies/Etudes Ethniques au Canada* 27(3): 4-23. Special Issue: From Russia with Love: The Doukhobors.
- TAYYEBULLA, M. 1959. *Islam and Non-Violence*. Allahabad: Kitabistan.
- TENDULKAR, D.G. 1967. *Abdul Ghaffar Khan: Faith is a Battle*. Bombay: Popular Prakashan.
- THOMPSON, HENRY O. 1988. *World Religions in War and Peace*. Jefferson, N.C. and London: McFarland & Company.
- TOBIAS, MICHAEL. 1991. *Life Force: The World of Jainism*. Berkeley, Calif: Asian Humanities Press.
- TOLSTOY, LEO. 1974(1893 and 1894-1909). *The Kingdom of God and Peace Essays*, trans. Aylmer Maud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TROCME, ANDRE. 1974. *Jesus and the Nonviolent Revolution*. Scottsdale, Penn.; Herald Press.
- TRUE, MICHAEL. 1995. *An Energy Field More Intense Than War: The Nonviolent Tradition and American Literature*. Syracuse, N.Y.: Syracuse University Press.
- TSAI, LOH SENG. 1963. Peace and cooperation among natural enemies: educating a rat-killing cat to cooperate with a hooded rat. *Acta Psychologica Taiwanica*, 3: 1-5.
- TWAIN, MARK. 1970(1923). *The War Prayer*. New York: Harper & Row.
- UNITED NATIONS. 1978. Final Document of Assembly Session on Disarmament 23 May-1 July 1978. S-10/2. New York: Office of Public Information.
- _____. 1993. *Agenda 21: The United Nations Programme of Action from Rio*. New York: United Nations.
- _____. 1996. Report of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Beijing, 4-15 September 1995. New York: United Nations.
- UNNITHAN, N. PRABHA; HUFF-CORZINE, LIN; CORZINE, JAY; and WHITT, HUGH P. 1994. *The Currents of Lethal Violence: An Integrated Model of Suicide and Homicid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UNNITHAN, T.K.N. and SINGH, YOGENDRA. 1969. *Sociology of Non-Violence and Peace*. New Delhi: Research Council for Cultural Studies, India

- International Center.
- _____. 1973. *Traditions of Nonviolence*. New Delhi: Arnold-Heinemann India.
- UNREPRESENTED NATIONS AND PEOPLES ORGANIZATION (UNPO).
- 1998a. *Nonviolence and Conflict: Conditions for Effective Peaceful Change*. The Hague: Office of the Secretary General, UNPO. <http://www.unpo.org>.
- _____. 1998b. *Yearbook 1997*. ed. J. Atticus Ryan.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 VILLAVINCENCIO-PAUROM, RUBY. 1995. Nature/gunless society: utopia within reach. Pp. 146-51 in Emelina S. Almario and Asuncion D. Maramba, eds. *Alay sa Kalinaw: Filipino Leaders for Peace*. Makati City: Aurora Aragon Quezon Peace Foundation and UNESCO National Commission of the Philippines.
- WAAL, FRANS de. 1989. *Peacemaking Among Primate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6. *Good Natured: The Origins of Right and Wrong in Humans and Other Animal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7. *Bonobo: The Forgotten Ap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ALKER, CHARLES C. 1979. Nonviolence in Africa. In Bruyn and Rayman 1979: 186-212.
- WAR RESISTERS LEAGUE. 1989. *Handbook for Nonviolent Action*. New York: War Resisters League.
- WASHINGTON, JAMES M., ed. 1986. *A Testament of Hope: the Essential Writings and Speeches of Martin Luther King, Jr.*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 WASSERMAN, HARVEY. 1982. *Killing Our Own: The Disaster of America's Experience With Atomic Radiation*. New York: Delacorte Press.
- WATSON, PETER. 1978. *War on the Mind: The Military Uses and Abuses of Psychology*. New York: Basic Books.
- WEBER, MAX. 1958(1919). Politics as a vocation. Pp. 77-128 in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ed. H.H. Gerth and C. Wright Mil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EBER, THOMAS. 1989. *Hugging the Trees: The Story of the Chipko Movement*. New Delhi: Penguin.

- _____. 1996. *Gandhi's Peace Army: The Shanti Sena and Unarmed Peacekeeping*. Syracuse, N.Y.: Syracuse University Press.
- _____. 1997. *On the Salt March: The Historiography of Gandhi's March to Dandi*. New Delhi: HarperCollins Publishers India.
- WEEKS, JOHN R. 1996. *Population*. 6th edition. Belmont, Calif.: Wadsworth Publishing.
- WEINBERG, ARTHUR and WEINBERG, LILA. 1963. *Instead of Violence: Writings of the Great Advocates of Peace and Nonviolence throughout History*. Boston, Mass.: Beacon Press.
- WHIPPLE, CHARLES K. 1839. *Evils of the Revolutionary War*. Boston, Mass.: New England Non-Resistance Society.
- _____. 1860a. *Non-Resistance Applied to the Internal Defense of a Community*. Boston, Mass.: R.F. Wallcut.
- _____. 1860b. *The Non-Resistance Principle: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Help of Slaves by Abolitionists*. Boston, Mass.: R.F. Wallcut.
- WHITMAN, WALT. 1855. "Song of myself." *Leaves of Grass*, 42: 33-42. Norwalk, Conn.: The Easton Press.
- WILCOCK, EVELYN. 1994. *Pacifism and the Jews*. Landsdown, Gloucestershire: Hawthorn Press.
- WILSON, H. HUBERT. 1951. *Congress: Corruption and Compromise*. New York: Rinehart.
- WITTNER, LAWRENCE S. 1993. *One World or None: A History of the World Nuclear Disarmament Movement Through 1953*.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7. *Resisting the Bomb: A History of the World Nuclear Disarmament Movement, 1954-1970*.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WORLD BANK. 1997. *World Development Report 1997: The State in a Changing Wor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9. Press briefing, "Poverty Update." Washington, D.C., June 2.
- WORLD WILDLIFF FUND. 1986. *The Assist Declarations: Messages on Man and Nature From Buddhism, Christianity, Hinduism, Jainism & Judaism*. Gland,

- Switzerland: WWF International.
- WRANGHAM, RICHARD and PETERSON, DALE. 1996. *Demonic Males: Apes and Origins of Human Violence*. New York: Houghton Mifflin.
- YODER, JOHN H. 1983. *What Would You Do? A Serious Answer to a Standard Question*. Scottsdale, Penn.: Herald Press.
- YOUNG, ANDREW. 1996. *An Easy Burden: The Civil Rights Movement and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 YOUNG, ART. 1975. *Shelley and Nonviolence*. The Hague: Mouton.
- YOUTH DIVISION OF SOKA GAKKAI. 1978. *Cries for Peace: Experiences of Japanese Victims of World War II*. Tokyo: The Japan Times.
- ZAHN, GORDON. 1964. *In Solitary Witness: The Life and Death of Franz Jägerstätte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ZAVERI, ZETHA LAL S. and KUMAR, MAHENDRA. 1992. *Neuroscience & Karma: The Jain Doctrine of Psycho-Physical Force*. Ladnun, Rajasthan: Jain Vishva Bharati.
- ZHANG, YI-PING. 1981. Dui feibaoli zhuyi ying jiben kending (We should positively affirm nonviolence). *Shijie lishi* (World History), 16(3): 78-80.
- ZIMRING, FRANKLIN E. and HAWKINS, GORDON E. 1986. *Capital Punishment and the American Agend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INN, HOWARD. 1980. *A People's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New York: Harper & Row.
- ZUNES, STEPHEN; KURTZ, LESTER R.; and ASHER, SARAH BETH, eds. 1999. *Nonviolent Social Movements: A Geographical Perspective*. Oxford: Blackwell Publishers.

찾아보기

인명 찾아보기

(ㄱ)

- 간디(Indira Gandhi) 110
 간디(Mohandas K. Gandhi) 26, 83,
 107, 127, 130, 131, 158, 179, 180,
 212, 229
 그로스만(David Grossman) 78, 88
 기를라(Marshall F. Gilula) 77, 92

(ㄴ)

- 나나크(Guru Nanak) 130
 나라얀(Jayaprakash Narayan) 106, 112
 네루(Jawaharlal Nehru) 45, 110

(ㄷ)

- 다니엘스(David N. Daniels) 77, 92
 달라이 라마(Dalai Lama) 83
 달튼(Dennis Dalton) 157
 데이비드(Jefferson David) 123
 돌시(Danilo Doici) 182
 뒤르켐(Ernst Durkheim) 100
 듀런(Betsy Duren) 191
 드라코(Antonino Drago) 86

(ㄹ)

- 라다크리쉬남(N. Radhakrishnam) 109
 라마찬드란(G. Ramachandran) 109,
 130
 라이트(Braford Lytte) 107
 랭킨(Jeanette Rankin) 124
 러셀(Bertrand Russell) 45
 럼멜(Rudolph J. Rummel) 65, 79
 로크(John Locke) 50, 159
 롤랑(Romain Rollan) 221
 루소(Jean-Jacues Rousseau) 51, 102,
 159
 린스톤(Harold Linstone) 161

(ㄴ)

- 마르크스(Karl Marx) 50, 159
 마오쩌둥 174
 마키아벨리(Niccoló Machiavelli) 49,
 100, 158, 159, 180
 마하비라(Mahavira) 129
 마하프라기아(Acharya Mahapragya)
 84
 매카시(Colman McCarthy) 112
 맥아더(Douglas MacArthur) 229
 맹자 158

메디슨(James Madison) 121
 모턴(Bruce E. Morton) 89
 무슬림(Macapado A. Muslim) 29
 무하마드(Muhammad) 130
 목자 158

(바)

바하올라(Baha'u'llah) 130
 박스터(Archibald Baxter) 130
 발루(Akin Ballou) 131
 버게스(John W. Burgess) 247
 버로우즈(Robert Burrowes) 158
 버튼(John Burton) 156, 161
 버틀러(George Lee Butler) 246
 베버(Max Weber) 51, 81, 102, 229
 보르시아(Cesare Borgia) 100
 본타(Bruce D. Bonta) 94, 95, 96
 부부에비치(V. C. Bonch Bruevich)
 118
 부치 129
 브라운(Lester R. Brown) 192
 브하베(Vinoba Bhave) 108
 블룸(Francine Blume) 29
 비베카난다(Vivekananda) 90

(사)

사라브하이(Mallika Sarabhai) 113
 사바카(Shabaka) 129
 사타아난드(Chaiwat Satha-Anand)
 29, 158
 샤프(Gene Sharp) 112, 156, 177, 179
 소로우(Henry David Thoreau) 131

소로킨(Pitirim A. Sorokin) 27, 87, 161
 솔로몬(George F. Solomon) 92
 스나이더(Richard C. Snyder) 29
 스탈린(Josif V. Stalin) 174
 스트롱(Maurice. F. Strong) 197
 스폰셀(Leslie E. Sporsel) 94
 시거(Pete Seeger) 128

(오)

아렌트(Hannah Arendt) 161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49, 191
 아민(Idi Amin) 174
 아빌레아(Joseph Abileah) 83
 아쇼카(Ashoka) 129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192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99
 에반스(Gwynfor Evans) 127
 에이블-에이베스펠트(Irenaus
 Eibl-Eibesfeldt) 87, 88
 에크하르트(William J. Eckhardt) 66
 엥겔스(Friedrich Engels) 50, 159
 영(Art Young) 221
 왓슨(Thomas Watson) 121
 울먼(John Woolman) 123
 울프슨(James D. Wolfensohn) 190
 윌슨(H. Hubert Wilson) 29

(장)

장이핑(Zhang Yi-Ping) 178
 재거스타터(Franz Jagerstatter) 130

(ㄷ)

차이(Loh Tseng Tsai) 85, 86

(ㄹ)

카리야킨(Y. F. Karyakin) 178

카비르(Kabir) 90

칸(Abdul Ghaffar Khan) 83, 198

칸트(Immanuel Kant) 159

캠벨(Donald T. Campbell) 100

케네디(Robert F. Kennedy) 92

켈리(Petra Karin Kelly) 83, 131, 198,
203

코난트(James B. Conant) 211

코모너(Barry Commoner) 197

콘(Stephen Kohn) 87

콘라드(A. Richard Konrad) 85

콤스톡(Craig Comstock) 230

크레이그(Leon Harold Craig) 49

크로포트킨(Kropotkin) 87

클라우제비츠(Karl von Clausewitz)
158

클린턴 대통령(William Clinton) 56,
58

클린턴(Hillary Clinton) 59

킹(Martin Luther King, Jr.) 83, 107,
180, 229

(ㄴ)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203

톨스토이(Lev N. Tolstoy) 83, 90, 131,
198

트루먼(Harry Truman) 174

(표)

페이지(Glen D. Paige) 34, 36, 37, 39

폭스(George Fox) 130

폴포트(Pol Pot) 174

프라이(Douglas P. Fry) 97

프랭크(Jerome D. Frank) 86

프레스코트(James W. Prescott) 91

플라톤(Plato) 49, 159

플루타르크(Plutarch) 158

플리마크(E. G. Plimack) 178

피에로 지오르기(Piero Giorgi) 94

(ㅎ)

홉스(Thomas Hobbes) 49, 59, 94, 159

황장엽 160

후사인(Tariq Husain) 190

휘트먼(Walt Whitman) 139

휘플(Charles K. Whipple) 121

히스(Robert G. Heath) 91

히틀러(Adolf Hitler) 172, 174

사항 찾아보기

(㉑)

가정폭력 215
 간디농업연구소 109
 간디농업대학교 210
 간디연구소 112
 간디재단 108
 걸프전쟁 126
 경제적 박탈 68, 188, 193
 경제적 탈군사화 192
 고름이론 231
 공산당선언 50
 공세적 살생 181
 공화국 49
 공화주의 53
 과학 유토피아 211
 과학적 중립성 242
 과학적 현실주의 244
 과학혁명 85
 관료제 204
 교육혁명 145, 151
 구조적 폭력 177, 207
 국가폭력 166
 국경없는 의사회 112
 국제리더십아카데미 190
 국제비폭력연대 110
 국제사면위원회 112, 194
 국제전쟁반대자들 110
 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 110
 국제평화여단 110

국제평화학회 비폭력위원회 112

국제화해연대 110
 군대복무 104
 군복무 거부 105
 군사산업화 185
 군사적 개입 54
 군산복합체 245
 군주론 49
 권력 33, 107
 권리장전 120
 규범혁명 145
 그린피스 112, 198
 근대국가 52
 근친복수 251
 기다란 폭탄 63
 기독교 81
 기독교 전사 63

(㉒)

나치즘 56
 낙관주의 98
 남북전쟁 54, 122, 123
 남성적 성향 48
 내향적인 불치성 93
 노예해방법 123
 녹색당 107, 198

(㉓)

대량학살의 시대 176
 대학 전단계 교육 210
 대학살 172, 175
 대항살생 173

델라웨어 인디언들 120
도덕적 둔감화 현상 61
두호보르(Doukhorbor) 116

(ㄹ)

라다크족(Ladakhis) 95
라마찬드란비폭력학교 110
라파즈 마을 97
러시아혁명 231
로드아일랜드주 120
로스 알라모스 211
리더십 167
리바이어던(Leviathan) 49
리투아니아 73

(ㄴ)

만간두족 87
말라판다람(Malapendaram) 95
맨하탄프로젝트 99
모라비아 교도 95
모스크바 70
몬테그네 나스카피 95
무기 63
무기 화형식 232
무기거래 폐지운동 111
무기산업 55
무장 교도대원을 갖고 있지 않는 감
옥 111
무장경찰 60
무장해제 산업 225
무장해제특별회의 187
문명의 역사 204

문제 170
문제해결 170
문제해결적 접근 240
미국독립혁명 52, 231
미국의 세기 56
미국정치학회 156, 157
미국평화당 107
민병대 61
민중학살 66

(ㄹ)

바하이(Baha'i) 신앙 81
반비살생 성향 225
반혁명 177, 179
방법론혁명 145, 153
벌들의 시민사회 249
법가 48
베트남전 59
베트남전쟁 125
보노보 87
보병 62
북아일랜드 96
불교 81
불평등 190
비관주의 98
비무장 경호인 182
비무장 민방위단체 111
비무장지대 104
비살생 25, 26, 37, 40, 119, 120, 129,
167, 184, 241
비살생 가치 174, 201
비살생 제금투쟁 180

- 비살생 공공정책 233
- 비살생 공동방위군 215, 216
- 비살생 공로상 222
- 비살생 기념물 224
- 비살생 기업 224
- 비살생 기업가 225
- 비살생 깔때기 141
- 비살생 능력 97
- 비살생 내중매체 223
- 비살생 대학교 210
- 비살생 독립선언 230
- 비살생 리더십 173
- 비살생 리더십 연구 221
- 비살생 무기 216
- 비살생 문명 224
- 비살생 문화 175
- 비살생 민주주의 232
- 비살생 사회 27, 45, 46, 57, 65, 68, 70, 116, 126, 134, 168, 205
- 비살생 사회과학 28
- 비살생 생물학 27
- 비살생 생태계 196
- 비살생 신념 106
- 비살생 안보 181
- 비살생 예술 225
- 비살생 예술 창작센터 221
- 비살생 인권 193
- 비살생 자연과학 27
- 비살생 접근방법 161, 200
- 비살생 정당 212, 213
- 비살생 정책연구소 222
- 비살생 정책사문 214
- 비살생 정치 70
- 비살생 정치분석 137
- 비살생 정치학 28, 36, 42, 167, 169, 171, 176, 177, 184, 188, 193, 194, 199, 242, 248, 252
- 비살생 정치학과 205, 206
- 비살생 종교협의체 218
- 비살생 컨설팅단체 218
- 비살생 행동원칙 142
- 비살생 헌법 160
- 비살생 활동모델 216
- 비살생무기 183
- 비살생으로 가치관 전환 233
- 비살생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136
- 비살생의 권리 104
- 비살생의 뿌리 127
- 비살생의 역사적 전통 226
- 비살생의 원인 234
- 비살생의 윤리 243
- 비살생의 정치분석 237
- 비살생적 농기 247
- 비살생적 무기 182
- 비살생적 문제해결 186, 236
- 비살생적 삶 128
- 비살생적 시각 204
- 비살생적 안녕과 복지 214
- 비살생적 안보 182, 183
- 비살생적 접근 199
- 비살생적 지식 236
- 비살생학과 208
- 비생산적 군비지출 200
- 비폭력 25, 106, 107, 129, 135, 167,

199, 221
 비폭력 공공서비스 부서 214
 비폭력 공화국 159
 비폭력 군대 182
 비폭력 군주론 158
 비폭력 대충매체 112
 비폭력 리더십 훈련 220
 비폭력 방위 216
 비폭력 시민교육 220
 비폭력 원칙 107
 비폭력 이슬람 해방군 210
 비폭력 정보기관 216
 비폭력 정치사상 160
 비폭력 정치이론 179
 비폭력 정치투쟁 100, 114
 비폭력 정치학 48
 비폭력 지도자 131
 비폭력 평화군 183
 비폭력복지 정당 212
 비폭력운동 187
 비폭력적 경제혁명 189
 비폭력적 공공서비스 214
 비폭력적 국방체제 182
 비폭력적 문제해결 85, 191
 비폭력적 민방위체제 182
 비폭력적 민족주의 127
 비폭력적 봉사 리더십 239
 비폭력적 애국심 127
 비폭력적 인권보호 194
 비폭력적 재주놀이 225
 비폭력적 정치대안 153
 비폭력적 환경문제 해결운동 198

비폭력적인 갈등해결 209
 비폭력적인 정부 190
 비폭력행동의 정치 156
 비폭력혁명 85, 178
 반공 190

 (스)
 사노폴리 96
 사보다야국제재단 108
 사보다야당 107
 사실혁명 145, 147
 사파티스타(Zapatista) 무장혁명 249
 사형 100, 101
 사형제 폐지 118
 사형제도 60, 81, 101, 102, 108, 162
 사형제도 폐지 118, 233
 사회계약론 51
 사회구조 46
 사회적 통제 204
 산체스 111
 살생 26, 53, 57, 173
 살생 강박관념 91
 살생 교육 61
 살생 깔대기 140
 살생 이니셔티브 175
 살생 이후 재할 214
 살생경험 61
 살생기술 61
 살생무기 183
 살생성향 79
 살생예방 214
 살생으로부터의 자유 185

- 살생으로부터의 해방 230
- 살생의 불가피성 234
- 살생의 시대 172, 252
- 살생의 역사 237
- 살생의 원인 234
- 살생의 전체 232
- 살생적 독재통치 201
- 살생전문가 192
- 살생지표 216
- 살생하는 유인원 87
- 살인 57, 61, 62, 77, 78, 81
- 살인자 63, 77, 78
- 살토 96
- 살해전문가 61
- 상앙드레 마을 97
- 새로운 정치학 73
- 생명 51
- 생명존중 윤리 127
- 생명존중의 영감 209
- 생물학적 비판주의 98
- 생태계 파괴 196
- 생태적 책임 198
- 생태적인 살생 196
- 생태혁명 197
- 세계 비폭력센터 225
- 세계국가 56
- 세계비폭력공동방위위원회 216
- 세계비폭력종합연구소 227
- 세계상황실 226
- 세계소수인종협회 195
- 세계인권선언 193
- 세계정치학회 155, 157
- 세계정치학회(IPSA) 70
- 세뇌 61
- 세비어 98
- 소뇌 92
- 스웨덴왕립과학학회 198
- 스톡홀름 69
- 시민정부에 대한 두 개의 논문 50
- 신경사실주의적 뇌과학 90
- 신소뇌시스템 89
- 신앙 204
- 신정치학사전 155
- (오)
- 아름다운 나라, 미국이여 128
- 아젠다 21 197
- 안보 181
- 애국심 46
- 앨버트 아인슈타인 연구소 112
- 야만성 61
- 양심적 반대 104
- A. J. 머스트연구소 108
- 여호와의 증인 125
- 영구평화 160
- 영국 평화주의지당 113
- 영국동지당 107
- 영혼의 구원 52
- 예방정치학 174
- 예수 129
- 예술 221
- 예포 53
- 와오라니 250
- 왕 158

- 요르단대학 71
 원자폭탄 56, 211
 유교 81
 유대교 81
 유대인 대학살 66
 유엔환경개발회의 197
 유인원 175
 유혈참사 67
 육체적 폭력 207
 음부티족 95
 응용혁명 145, 150
 이론혁명 145, 148
 이슬람교 81
 이슬람교도 185
 인간 말살 175
 인간 본성 91
 인간본성 68, 92
 인간존엄성 185
 인권 194
 인류학 97
 인문학 28
 일반의지 51
- (즈)
- 자기방어 60
 자본주의 56
 자살 57
 자연 197
 자연 그리고 총 없는 사회 112
 자연파괴 197
 자유민주주의 56
 자이나교 81
- 자포텍족 97
 전쟁 66, 67, 98, 197, 204
 전쟁 상황 98
 전쟁론 158
 전투장 명세 247
 정당 212
 정치 160
 정치리더십 119, 172, 174
 정치사상 47
 정치이론 157
 정치지도자 175
 정치참여 204
 정치철학 157
 정치학 38, 49, 135, 166, 168, 171,
 174, 176, 187
 정치학자 53
 제국주의 지배 249
 제도적 혁신 204
 제도혁명 145, 154
 조선인민민주공화국 72
 좋은 의사 158
 좋은 정치가 158
 좋은 정치학 243
 죽음의 학문 234
 중국혁명 231
 지넷 란킨 여단 124
 직업적인 살인 훈련과정 60
 징병 104
- (즈)
- 창을 보습으로 만들기운동 246
 체제상 역기능 200

초국가적 문제해결 컨소시엄 219
 초국가적 비상생 컨소시엄 220
 초월 110
 총기 거래 59
 총잡이 64
 친폭력 179
 침팬지 91
 칩코운동 198

(ㄱ)

카우티라이안 48
 캐나다 74
 콜롬비아 72
 케이커교 평화주의자들 120
 케이커교도 82

(ㄷ)

타히티인 96
 탕카족 96
 토지중여운동 108
 톱스토이 추종자들 118

(ㄱ)

파시즘 56
 팔레스타인비폭력연구소 110
 페니미즘 168
 평양 72
 평화군 109
 평화능력 95
 평화를 위한 살생 231
 평화봉사단 209
 평화생산자 64

평화연구 211
 평화와 화해센터 111
 평화정의봉사단 110
 포단 64
 폭군 158
 폭력 52, 57, 84, 172, 176
 폭력 지향적인 적대주의 207
 폭력에 관한 성명서 97
 폭력으로부터의 해방 230
 폭력적 갈등 96
 폭력적 비관주의 223
 폭력적 안보전문가 183
 폭력적인 군사치안권 200
 폭력적인 문제해결 110
 폭력투쟁 52
 폭력혁명 176, 178
 프랑스대혁명 230, 245
 플로리다 마르틴 루터 킹 비폭력연
 구소 110

(ㅎ)

하나님의 형상 247
 하버드대학 211
 학과 기억은행 208
 한국전쟁 36, 125
 합기도(Aikido) 111
 핵무기 프로그램 55
 핵무기개발자문위원회의 99
 혁명 46, 177, 179, 191
 혁명적 폭력 177
 호전성 94
 흡스 베버주의적 국가 65

훈련센터워숍	110
흑인폭동	64
히로시마대학	71
힌두교	81
힌두교도	185

비살생 정치학

— 세계평화를 위한 신정치이론 —

초판 제1쇄 찍은날 : 2007. 11. 1

초판 제1쇄 펴낸날 : 2007. 11. 5

지은이 : 글렌 D. 페이지

옮긴이 : 정 윤 제 (tasari@aks.ac.kr)

펴낸이 : 김 철 미

펴낸곳 : 백산서당

등록 : 제10-42(1979.12.29)

주소 : 서울 은평구 대조동 185-71 강남빌딩 2층

전화 : 02)2268-0012(代)

팩스 : 02)2268-0048

이메일 : bshj@chol.com

※ 저작권자와의 협의 아래 인지는 생략합니다.

값 16,000원

copyright © Glenn D. Page 2007

ISBN 978-89-7327-406-2 93340